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7호 2012.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특집 移住와 變容: 吉林省區의 韓·漢 移民社會를 중심으로

유지원 | 清代 吉林烏拉의 형성과 漢人 移住에 따른 변화 11

김영신 | 淸朝의 정책변화와 吉林地區의 사회경제적 변모 47

김주용 | 길림지역 韓人 정착과정에 보이는 문화적 보존과 변용 - 蛟河市를 중심으로 81

## 논문

배진영 | 기후변화와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변천 - 燕山南北 지역을 중심으로 107

이병건 | 발굴결과로 새롭게 본 강동24개돌 유적의 건축적 성격 149

장순순 |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189

박선영 | 일본의 육지측량부가 그린 만주 - 오차노미즈대학 소장 군사 비밀 만주 지도를 중심으로 233

이평래 | 몽골과 중국의 다리강가 領有權 분쟁 28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319

# Contents

## Special Issue Immigration and Transformation: Ethnic Korean and Han Chinese Societies in Jilin City

Yu Jiwon | Formation of Jilin Ula and Changes in the Immigration of Han Peoples during the Qing Dynasty 11

Kim Youngsin | Political Change during the Qing Dynasty and Socioeconomic Change in the Jilin Region 47

Kim Jooyong | Cultural Protection and Change in Korean Settlements in Jiaohe, Jilin Province 81

## Articles

Bae Jinyoung |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of Ancient Cultures in the Yanshan Area in Northeast Asia 107

Lee Byeonggun | The Architectural Character of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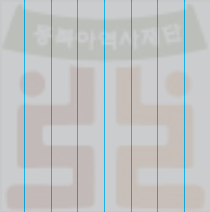
Chang Soonsoon | Tsushima Domain in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Joseon and the Territory Dispute over Ulleungdo in 1693 189

Park Sunyoung | Japanese Empire Land Survey Maps on Manchuria: Maps of Military Secrets Held at Ochanomizu University 233

Lee Pyungrae |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ariganga Area between Mongolia and China 281

## 특집

移住와 變容: 吉林省區의 韓·漢 移民社會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서문

어느 도시가 중심성(centrality) 혹은 주변성(peripherality)을 지녔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 도시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어떤 도시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내포하면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출하는 이중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성의 역학관계가 도시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변화에 커다란 작용을 한 대표적 경우가 중국 길림성의 吉林市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역학관계 변화가 길림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공동연구 '移住와 變容: 吉林市區의 韓·漢移民社會를 중심으로'의 주요 목표이다.

본 공동연구에서 길림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와 중심·주변 논리 측면에서 길림시가 지니는 성격과 의미를 고찰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국사 연구의 '關內' 중심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의 핵'으로 작용하던 만주의 중심에 위치한 길림시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길림시는 청조에는 심양과 더불어 동북지역의 정치·경제·군사·교통의 중심지였지만, 19세기 말 러·일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1세기의 짧은 기간에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관내의 도시들과는 다른 주변성과 더불어 중심성을 동시에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길림시의 역할과 구조의 변화를 조명해 보는 것은 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길림시는 청대 이후로만 살펴보아도 滿洲族·韓族을 비롯한 다양한 北方民族과 漢族 문화의 접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고 등 북아시아, 한국, 일본 그리고 꾸준히 남진정책을 추구해 온 러시아 세력이 교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중 漢人과 韓人의 이민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근자에 한·중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공정’과 관련지어 보더라도 의미 있는 연구이다.

셋째, 중국 도시의 근대화 과정에 끼친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길림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동진, 중일갑오전쟁·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와 같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상황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에 따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조가 펼친 봉급정책의 해제와 이민의 증가, 개발의 촉진, 省制의 단행이 길림시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넷째, 우리의 입장에서 해외의 특정한 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 한국사의 시각에서 재조명될 수 있는가,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길림시는 한국 문화의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연구대상인 것이다.

길림시 지역은 구한말과 일제시기 韓人의 해외이주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다. 구한말 이후 간도지역을 주된 활동무대로 삼았던 이주한인들은 20세기 초엽부터 본격적으로 길림시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현지 중국인과 지방정부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곳곳하게 삶을 영위한 한인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해 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사회와의 융합과 조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도를 벗어나 길림시 지역으로 진출한 한인들이 경험하였던 문화적, 그리고 정치·군사적 충격과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반응을 통해 해외 한인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만주국 성립 이후 빠르게 추진되었던 공업화 정책 속에서 종래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하던 길림시 지역 한인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변화 그리고 한인단체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간도와는 다른 길림시 지역의 한인 이주사회

의 실체, 즉 삶의 터전을 옮긴 길림시 지역의 한인사회의 특징을 규명한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길림시로 이주한 한인사회의 실체 및 길림시구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와 생활실태를 규명하고, 길림시구의 도시화와 한인 거류민회의 활동, 만주국의 공업화 추진에 따른 길림시구의 변천과 한인사회의 변용 등을 통해 반식민지화와 도시근대화가 길림시구의 도시성격에 미친 영향, 길림시구로 삶의 터전을 옮긴 한인사회의 특징 등을 규명해 보는 작업이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길림시의 역사적 연원은 상당히 유구하지만, 역사무대에서 그 중요성을 드러낸 것은 청대부터이다. 따라서 본 공동연구에서는 명말청초 만주족의 흥기 시점, 곧 16세기 말부터 일제가 세운 '만주국'이 패망한 20세기 중엽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 안에서 길림시 역할의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상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고찰함으로써 길림시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주제이다. 먼저 근대 이전 길림시의 역사적 등장과정과 관련하여 「清代 吉林烏拉的 형성과 漢人 移住에 따른 변화」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근대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만주 진출, 러·일의 진출에 대한 청조의 대응 등 길림시구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여러 현상, 또 이런 외재적 현상이 길림시구의 변모에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淸朝의 정책변화와 吉林地區의 사회경제적 변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외재적 요인이 길림시구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과 길림시구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길림지역 韓人 정착과정에 보이는 문화적 보존과 변용-蛟河市를 중심으로」와 「만주국시기 길림지역 한인사회의 변화-조선인 민회를 중심으로」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연구결과로 4편의 논문이 완성되었는데, 이 중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만주국시기 길림지역 한인사회의 변화-

조선인 민회를 중심으로」는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종 투고가 늦어져 이번 『동북아역사논총』 제37호의 특집에 게재하지 못하고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한국에서 근현대시기 만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간도지역의 독립운동사와 한인사회사에 치중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남만주 한인 거주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출현하였음은 우리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만주에 대한 연구 범위를 남만주까지 확대시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길림시 지역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분명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만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그간 하얼빈이나 심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길림시 지역의 형성과 발전, 외재적 요인에 따른 이 지역의 역할과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본 공동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주변성과 중심성이 병존한 특수한 지역으로서의 길림시 지역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작업이었음을 밝히고 싶다. 또한 본 공동연구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집필자들을 대표하여 유 지원

# 清代 吉林烏拉的 형성과 漢人 移住에 따른 변화

유지원 |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우리는 보통 吉林이라 하면 吉林市보다 長春市나 延邊지역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연변지역은 우리의 동포인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조선족자치주이며, 백두산에 가까워 많은 사람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 있고, 장춘은 현재 吉林省을 대표하는 省都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대상 지역인 길림시는 현재 길림성의 중부에 위치하는 비교적 중급 규모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동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고찰하는 데 길림시는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중요한 도시이다.

현재 길림성의 省都 長春市는 길림성의 정치·경제·교통·과학·교육·문화의 중심지이지만, 그 역사적 유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춘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한 것은 1800년 長春廳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니까 이제 겨우 2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 시기에는 吉林省의 중심지역은 길림시 일대이며, 이 또한 청대에 이르러 동북지역을 청조의 龍興重地로 여겨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팔기를 駐防시키면서 군사적 도시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역대 왕조와 여러 민족이 점령하고 통치하였던 곳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의 길림시의 형성과 발전에 직접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은 '移住와 變容: 吉林市區의 韓·漢 移民社會를 중심으로'라는 공동주제의 發題적 부분인데, 본 공동연구팀이 공동주제로 길림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곳이 명청대 이래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함에 비해 그동안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길림시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길림성 전체 혹은 동북지역 전체를 다루는 통사적 성격의 연구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sup>1)</sup> 길림시의 역사와 관련한 몇 가지 사료집이 편집·출간되어 연구에 도움이 되며,<sup>2)</sup> 또 몇몇 단편의 논문이 있다.<sup>3)</sup> 이 밖에 길림시와 관련된 雜文적 글을 모아 놓은 서적이 있는데,<sup>4)</sup> 이는 연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나 길림시와 관련된 역사고사 등을 담고 있어서 길림시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하

- 1)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全3卷), 長春市: 吉林人民出版社; 佟冬 主編, 1994, 『中國東北史』(全6卷), 瀋陽: 吉林文史出版社 등이 있다.
- 2) 이는 대부분 『長白叢書』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는데, 尹郁山, 1991, 『烏拉史略』(長白叢書研究系列之十六),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吉林地志·鷄林舊聞錄·吉林鄉土志』(長白叢書初集), 1994,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吉林志書·造送會典館清冊』(長白叢書二集), 1988,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打牲烏拉志典全書·打牲烏拉地方鄉土志』(長白叢書二集), 1988,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등이 있다.
- 3) 李德潤, 2009, 「船廠與吉林烏拉」, 『中國地名』 第12期; 李澎田·刁書仁, 1984, 「吉林船廠考略」, 『吉林師範學院學報』 第3期; 陳洁, 2003, 「吉林省與吉林市同名的歷史淵源及弊端」, 『中國地名』 第5期; 陳萍, 2007, 「東北“船廠”名將劉清與吉林阿什哈達摩崖石刻」, 『文史知識』 第11期; 張大偉, 1999, 「吉林與寧古塔」, 『北方文物』 第3기 등이 있다.
- 4) 傅寶仁, 1999, 『吉林歷史名勝古今譚』, 長春: 吉林美術出版社; 張一民 主編, 2002, 『話說江城』,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劉照全 編, 1991, 『話說吉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康得春 主編, 1993, 『吉林旅遊林』, 長春: 吉林美術出版社 등이 있다.

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길림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북 3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런 상황 하에서 본 논문을 계기로 동북 3성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길림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주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대에 주로 사용된 명칭인 吉林烏拉이라는 市名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길림시와 관련 자료, 특히 청대 관방 자료와 지방지 등을 참고하여 청조의 입관시기부터 청 말까지 길림시의 유래·형성과정 그리고 청대에 中原지역에서의 漢人 이주가 길림오랍 지역의 변화·발전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유래와 관련해서는 명대 이전의 내용은 吉林烏拉城의 형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 II. 吉林烏拉城의 유래와 建置 과정

### 1\_ 吉林烏拉城의 유래와 吉林‘船廠’의 설립

吉林이라는 地名은 현재 중국의 동북 3성 중 하나인 길림성의 명칭이면서, 또한편으로는 길림성 내의 길림시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省名과 그 省의 관할 하에 있는 市名이 일치하는 것이다. 전 중국의 34개 省·市·자치구 중에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길림성은 市名으로 명명된 유일한 省이

5) 구범진, 2006,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지현숙, 2008, 「청말 동삼성 개혁과 지역사회」, 『중국사연구』 56; 홍성화, 2009, 「청말 동삼성 장백부 설치와 국경인식의 변화」, 『중국사연구』 63 등

며, 길림시는 省名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일한 도시인 것이다.<sup>6)</sup> 이렇게 省과 도시가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吉林’이라는 명칭의 유래 및 연혁과 관련이 있다.

吉林이라는 명칭은 吉林烏拉(girin ula)이라는 만주어의 음역에서 나왔다. 吉林(girin)은 ‘연안’ 혹은 ‘가까운’이라는 뜻을, 烏拉(ula)은 ‘강’ 혹은 ‘하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吉林烏拉은 강변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7)</sup> 즉, 松花江 변에 자리 잡은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그래서 길림시는 일찍이 ‘江城’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다.<sup>8)</sup> 한편 원래 사용하던 吉林烏拉이라는 명칭은 강희제가 ‘吉林’으로 통칭하라는 諭旨를 내림으로써 ‘烏拉’이 없어지고 ‘吉林’만이 남아 이 지역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sup>9)</sup> 또한 吉林의 다른 표현으로는 鷄林·幾林·吉臨·鷄陵·吉陵 등이 있다.

이 밖에 길림시의 별칭으로 ‘船廠’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明·清代에 이곳에 造船所가 설립되었던 관계로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명대 이전에도 길림오랍 지역은 여러 정권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 治所가 설치된 적이 있었지만, 이러한 建置 내용은 청대 길림오랍의 형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sup>10)</sup>

- 6) 그래서 최근 중국에서는 이렇게 같은 명칭을 省과 도시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고 도시의 지명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陳洁, 2003, 「吉林省與吉林市同名的歷史淵源及弊端」, 『中國地名』 第5期, 19~20쪽
- 7) 吉林의 어원에 대하여 張璇如是 吉林은 만주어 giren의 음역으로 ‘一帶’·‘지역’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송화강의 별칭인 ‘吉林江’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張璇如, 2005, 「“吉林”地名探析」, 『史學集刊』 第2期, 83~86쪽
- 8) 강희제가 1682년(강희 21) 東巡시 吉林烏拉城을 방문하고 남긴 御製詩 〈松花江放船歌〉에서 ‘江城’이라는 표현을 하여 별칭이 생기게 되었다. 王佩環 主編, 1991, 『清帝東巡』,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479쪽
- 9) 陳洁, 2003, 앞의 글, 19쪽
- 10) 명대 이전의 길림시와 관련된 연구로는 먼저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全3卷)(長春市: 吉林人民出版社)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길림성 전체에 관하여 개설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佟冬 主編, 1994, 『中國東北史』(全6卷)(瀋陽: 吉林文史出版社)에서도 동북 3성 전체에 대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설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대에 이르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락제는 동북지역 특히 흑룡강 유역·우수리강 유역·송화강 유역의 여진 각 부를 효과적으로 관할하기 위하여 遼東都司와 별도로 1409년에 흑룡강 하구에 위치한 特林지역에 奴兒干都司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요동지역에서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한 왕래가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sup>11)</sup> 명조는 이 지역에 군대와 糧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요동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며 송화강 상류에 위치하면서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면이 넓어 큰 배의 航行이 가능한 길림오랍 지역을 주시하게 된다.<sup>12)</sup> 특히 이 지역의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sup>13)</sup> 그래서 명은 바로 길림오랍 지역에 造船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이를 훗날 ‘船廠’이라 부르게 되었다. 길림오랍 지역의 船廠 건설은 요동도사의 도지휘사 劉淸이 造船總兵官의 직함을 받아 1420년(永樂 18)·1425년(洪熙 원년)·1432년(宣德 7)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길림오랍 지역에 파견되어 造船運糧의 책임을 담당하였다.<sup>14)</sup> 이때의 造船작업에는 2,000여 명의 官軍이 동원되어 巨船 25艘가 건조되었는데,<sup>15)</sup> 이를 통해 볼 때 당시의 선체 규모나 조선 기술 및 船廠의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대 길림오랍 지역에 건설된 船廠과 여기에서 건조된 배는 누르간도사 지역에 대한 명조의 통치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물자가 여진 각 부락에 공급됨으로써 여진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길림오랍 지역에는 명대에 어떤 특별한 治所가 建置되지는 않았지만, 중원지역으로부터 요동도사의 소재지인 遼陽을 거쳐 흑룡

11) 羅福頤, 1912, 『滿洲金石志稿』 第2冊, 12쪽에 “토지에서는 오탁이 생산되지 않고, 배를 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특히 홍무연간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12) 李德潤, 2009, 「船廠與吉林烏拉」, 『中國地名』 第12期, 42쪽

13)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69·252쪽

14) 陳萍, 2007, 「東北“船廠”名將劉淸與吉林阿什哈達摩崖石刻」, 『文史知識』 第11期, 155~158쪽

15)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70쪽

강·우수리강 일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 많은 물자와 군대가 중개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445년(正統 10)에 船廠 건설의 책임을 담당하였던 劉淸이 죽고, 1449년(정통 14) 토목보의 변이 발생하면서 길림오랍에서의 대규모 造船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 중기를 지나면서 명조의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어 여진의 각 부족세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길림오랍의 船廠기능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그 후 해서여진이 성장하면서 烏拉部가 길림오랍 주변의 여러 부족을 병합하고 烏拉國을 성립시키면서 吉林烏拉이 처음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여진부족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때 烏拉國이 거점으로 삼았던 烏拉城은 지금의 길림시 북쪽의 烏拉街滿族鎮 舊街村에 위치한 烏拉古城이다. 이곳을 필자가 2011년 7월 직접 답사한 결과, 지난 1961년에 吉林城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으나 지금은 토성의 흔적만 남아 있고, 토성 내부에도 잡초가 우거지고 소가 방목되고 있으며, 토성 위에는 고목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 1을 참고).

이 烏拉古城에 터전을 잡고 있던 烏拉部는 1613년(萬曆 41)에 누르하치에게 병합되었다가, 1616년 누르하치가 後金을 건립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sup>16)</sup> 그 후 청조는 1644년 입관한 후 吉林古城에 황실에서 필요한 동북의 특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內務府 소속의 打牲烏拉總管衙門을 설치하였다. 이 衙門의 설치는 順治연간 초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연대는 기록이 불분명하여 알 수 없다. 이 기구는 주로 황실에서 필요한 동북의 특산품, 즉 인삼·鹿茸·貂皮·갓·蜂蜜·東珠 등을 채집·포획하여 納貢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 밖에도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구는 길림지역을 관할하는 길림장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황실 내무부의 지휘를 직접 받았고, 또한 그 관할지역도 길림장군의 관할지역과 중첩되기도 하여 약간

16) 尹郁山, 1991, 『烏拉史略』(長白叢書研究系列之十六),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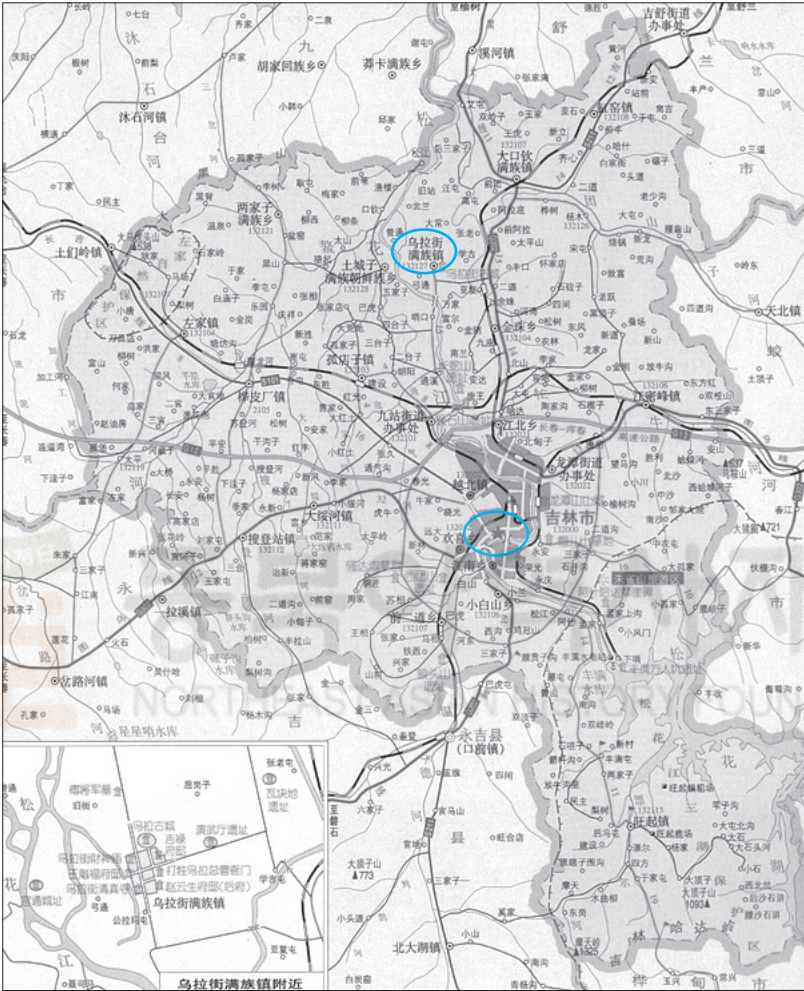
〈사진 1〉 吉林古城

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결국 1911년에 이르러 이 두 기구는 합병하게 된다.<sup>17)</sup>

이와 같이 烏拉古城은 다음 장에서 서술할 길림장군아문과 별도의 기구 즉 打牲烏拉總管衙門이 설치된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吉林城과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길림오랍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길림고성과 길림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말해 명대 중기 형성된 烏拉部的 근거지인 烏拉城과 청대 打牲烏拉總管衙門이 설치된 지역은 오랍고성으로 청대 길림장군 소재지인 길림성과는 비록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였고 그 거리도 멀지 않지만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대에는 烏拉古城을 大烏拉, 吉林城을 小烏拉이라 칭하면서 구별하였던 것이다<sup>18)</sup>

17) 打牲烏拉總管衙門의 설치·운영·관할지역·직능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와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孫乃民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31~251쪽을 참고할 수 있다.

18) 劉照全編, 1991, 『話說吉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50쪽; 張璇如, 2005, 앞의 글, 84쪽



〈지도 1〉 吉林市全圖

(지도 1과 지도 2 참고).

위에서 언급한 烏拉古城과 별도로 청조가 길림오랍 지역에 가장 먼저 건설한 것은 吉林城이 아니라 명대의 길림 船廠의 遺址에 이를 확장하여 건설한 船廠이다. 청조가 길림오랍 지역에 어떠한 治所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선창을 먼저 건설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 때문이다. 러시아는 16세



(지도 2) 烏拉古城 위치도(烏拉街滿族鎮 유적지 배치도)

기 초에 러시아제국을 건설한 후 시베리아를 거쳐 태평양을 향해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1643년(崇德 8)부터 1654년(順治 11) 사이에 흑룡강을 타고 하류로 내려와 송화강 하류까지 진출해 약탈을 감행하였던 것이다.<sup>19)</sup>

이러한 러시아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조는 1652년(順治 9)부터 寧古塔 지역에 팔기병을 주둔시키는 한편 1657년(順治 14)부터 길림오랍 지역에 船廠을 건설하여 戰船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당시 길림오랍 지역의 송화강 변에는 부두가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 수면은 천연의 빙판 통로가 생겨나 각종 마차·牛車·爬犁 등이 강 수면을 따라 왕래하면서 송화강 상류의 특산물을 길림오랍 지역으로 실어 날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만주족들은 강 수면의 빙판 위에 氷上客棧(일명 水院子)이라는 만주인 전통의 건물을 지어 통행하는 상인들의 숙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

19)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54쪽

20) 청조가 吉林烏拉 지역에 船廠을 건설한 시기에 대하여 『吉林通志』와 『柳邊紀略』에서는 1657년(순치 14)이라고 하였지만, 『盛京通志』에서는 1661년(순치 18)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고증을 종합한 결과 순치 14년설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55쪽;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제4권, 1357쪽; 李澎田·刁書仁, 1984, 「吉林船廠考略」, 『吉林師範學院學報』 第3期, 75쪽

한 겨울에는 사람들이 송화강 상류지역으로 가서 벌목을 하여 강변에 쌓아 놓았다가 강물이 해빙되면 이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하류로 떠내려 보냈는데, 이 목재가 집적되었던 곳이 길림오랍 지역의 송화강 변이었다. 바로 이곳이 지금의 臨江門과 東大灘 일대이다.<sup>21)</sup> 이렇게 볼 때 길림오랍 지역은 명대 이래 풍부한 목재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서 다량의 목재를 필요로 하는 造船業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청대의 길림오랍 船廠은 그 규모면에서 명대와는 차원을 달리하며 발전하게 되어서 1674년(강희 13)에는 吉林水師營이 설치되었으며, 1676년(강희 15) 寧古塔將軍의 소재지를 寧古塔에서 吉林烏拉城으로 이전한 후에는 新滿洲八旗兵 2,000여 명과 직예성 등에서 유배된 수천 戶를 동원하여 대규모 선박 수십 척을 건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건조한 함선을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주요 城市의 渡口에 정박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시켰는데,<sup>22)</sup> 이러한 사실에서 길림오랍의 船廠이 길림과 흑룡강 두 省에서 필요한 배를 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길림오랍의 船廠이 위치한 지점은 훗날 건설되는 吉林城 西門 밖의 송화강 변인데, 이곳은 지금의 臨江門 밖의 船營街 일대이다. 이렇게 볼 때 船廠과 吉林城이 매우 인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吉林城의 建置 목적 중의 하나는 吉林 船廠의 효과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러시아의 남침을 막아내고 길림지역에 대한 안정적 통치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2\_ 吉林烏拉城의 建置 과정과 성곽 구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조가 입관한 이후 길림오랍 지역은 점차 동북변방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 송화강·우수리강·

21) 李德潤, 2009, 앞의 글, 42쪽

22)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58~260쪽

흑룡강 유역 일대 등 大區域 전체의 방어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지역은 1652년(順治 9)부터 팔기군이 주둔해 있었던 寧古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험준한 산악지대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봄에는 큰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서리가 내리고, 가을부터는 대설과 강물의 동결이 시작되는 등 기후 조건도 매우 열악하였다.<sup>23)</sup> 또한 교통 측면에서 볼 때에 영고탑 지역은 동해의 각 여진 부락을 통제하기에는 유리한 여건이지만, 중국의 내지와 교통하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북경까지는 4,000여 리나 되며, 더욱이 역참로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의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다.<sup>24)</sup>

그래서 청조는 1657년(順治 14)부터 길림오랍 지역에 船廠을 설치하여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1671년(강희 10)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길림오랍 지역에 새로운 성곽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吉林烏拉城의 건설은 吉林船廠의 건설·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청조는 이 해에 寧古塔副都統衙門을 길림오랍으로 이전하고 協領 8명을 증설하는 한편 당시 부도통이었던 安珠瑚에게 길림오랍성의 축조를 명하였다. 이때 길림오랍의 부도통 아문에는 처음에는 팔기병 700명이 배치되었다가 곧바로 600명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또한 吉林水師營에는 300여 명의 수군이 있었다.<sup>25)</sup> 이에 寧古塔副都統 安珠瑚는 길림오랍 지역에 배치된 병력을 이끌고 길림오랍성의 축조를 시작하여 1673년(강희 12)에 이르러 완공을 하였다.<sup>26)</sup> 이렇게 길림오랍성이 건설된 후 3년이 지난 1676년(강희 15)에는 마침내 鎮守寧古塔等處將軍(영고탑장군이라 약칭함)의 소재지를 寧古塔 지역에서 길림오랍성으로 옮겨오게 된

23) 吳振臣, 1993, 『寧古塔紀略』(遼海叢書續集本), 瀋陽: 瀋陽市古籍出版社, 12쪽

24) 張大偉, 1999, 「吉林與寧古塔」, 『北方文物』 제3기, 33쪽

25)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제4권, 1358쪽

26) 安珠瑚는 길림오랍성을 송화강 南岸이 아니라 北岸에 건설하는데, 이는 南岸은 지대가 낮아 침수의 위험이 있어서 지대가 비교적 높아서 수해의 위험이 없으면서도 水源이 가까워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船廠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 여러 측면에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安珠瑚는 길림오랍성의 성공적 축조의 공헌을 인정받아 승진과 함께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傅寶仁, 1999, 『吉林歷史名勝古今譚』, 長春: 吉林美術出版社, 169~170쪽

다. 이때부터 길림오랍성이 寧古塔城을 대신하여 吉林의 전 지역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副都統 安珠瑚의 감독 하에 1673년(강희 12) 완공된 길림오랍성은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로 축조되었다. 내성의 남쪽은 송화강의 北岸에 직접 접해 있어 성벽이 없으며, 내성의 동·서·북 세 쪽은 소나무를 세워 만든 木壁을 쌓았는데, 그 높이는 8척이고 북쪽 성벽의 총 길이는 289步 즉 462.2m, 동·서 양쪽의 성벽의 총길이는 각각 250步 즉 400m이다.<sup>27)</sup> 그리고 동·서·북 세 쪽의 성벽에는 각각 1개씩의 門을 설치하였고, 내성의 성벽 바깥쪽에는 다시 堠字를 설치하였다. 이 堠字 바깥쪽에는 ‘邊牆’이라고 부르는 외성이 토성으로 축조되었는데, 외성의 총 둘레는 7里 180步 즉 4,320m이다. 그런데 이 외성은 이후 점차 방치되었다가 1742년(건륭 7)에 이르러 원래의 토성의 기초 위에 성벽을 높이며 改修하였고 서쪽 성벽에 1개의 문을, 북쪽과 동쪽에 각각 2개의 문을 설치하였다.<sup>28)</sup> 즉 지금의 臨江광장 부근에 西門을, 지금의 北大街와 光華路의 교차로 부근에 大北門을, 지금의 光華路와 昆明街의 교차로 부근에 巴爾虎門, 지금의 河南街와 南京街의 교차로 부근에 大東門을, 그리고 지금의 江城廣場 부근에 小東門을, 이렇게 5개 城門을 설치하였다.<sup>29)</sup>

이후 길림오랍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1867년(同治 6)에 길림오랍성은 대규모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확장공사에서는 먼저 이전의 大北門 일대의 성벽을 다시 북쪽으로 1里, 즉 576m 정도 옮겼으며, 송화강의 북안에 접해 있어서 원래 성벽이 없었던 남쪽에는 木柵欄干을 약 5里(약 2.9km) 길이로 설치하였다. 또한 내성의 소나무 벽을 모두 철거하고, 외성을 모두 ‘叉垛’의 토성으로 바꾸었고, 북면의 성벽 위에는 벽

27) 여기에서 1步는 5營造尺, 1里는 1,800營造尺으로 계산하는데, 1營造尺은 32cm이다. 그러니까 1步는 1.60m이고, 1里는 576m이다.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吉林市市區文物志』, 21쪽

28) (清)阿桂等纂修, 1997, 『盛京通志』卷31, 瀋陽: 遼海出版社, 1쪽

2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앞의 책, 20쪽

돌로 쌓은 女牆(성 위에 낮게 쌓은 담장으로, 이곳에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길림오랍성의 총 연장 둘레는 남쪽의 欄干을 제외하고 9里 285步 즉 5,598m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sup>30)</sup>

또한 이번 확장공사로 인하여 원래 설치된 5개 성문 중 大北門이 성 내부로 편입되어 牌樓로 바뀌었고, 나머지 4개의 성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거기에다 다시 4개의 성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모두 8개의 성문이 되었다. 이 8개 성문을 서쪽에서부터 차례로 열거하면 표 1과 같다. 이 8개의 성문 중 致和門과 福綏門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성문에는 사찰 등에 있는 鐘樓 형식의 門樓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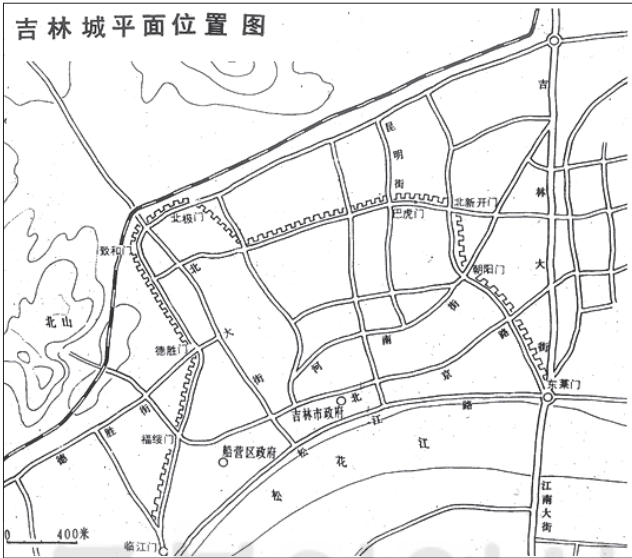
〈표 1〉 1867년 설치된 吉林烏拉城의 城門 명칭과 위치

城門의 명칭	이전 명칭	이후 명칭	현재의 위치
迎恩門	西門	臨江門(1928)	臨江광장 부근
福綏門	신설		順城街와 福綏街 교차로 부근
德勝門	신설		順城街와 德勝路 교차로 부근
致和門	신설		致和街와 桃源路 교차로 부근
北極門	신설		北大街와 桃源路 교차로 부근
巴爾虎門	巴爾虎門	巴虎門	光華路와 昆明街 교차로 부근
朝陽門	大東門		河南街와 南京街 교차로 부근
東榮門	小東門		江城 광장 부근

자료: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 卷四十三 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94쪽;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吉林市市區文物志』, 20~21쪽

이후 1883년(光緒 9)에도 성벽의 改修가 진행되어 土城을 1丈 5尺 높이의 磚城으로 개축하였으며, 성벽에는 堞口(성가퀴)를 설치하였다. 또한 1909년에는 지금의 公安局 부근에 新開門을, 그리고 1930년에는 지금의 南京街와 勤

30)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앞의 책, 20쪽



(지도 3) 吉林烏拉城的 평면도

勞胡同의 교차로 부근에 北新開門을 설치하여 모두 10개의 城門이 있었다. 그러나 만주국시기부터 차례로 철거해버려 지금은 동북쪽 모퉁이 부근에 일부 성벽만 남아 있다. 지금의 길림시의 도로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됐을 때의 길림성의 성곽 구조를 그려보면 지도 3과 같다.

길림오랍성 내부 구조는 매우 불규칙하게 형성되었다. 성 내부 구조는 지금의 市政府의 바로 옆에 위치한 吉林將軍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7월에 길림시 일대를 현지답사하면서 찍은 사진 2와 사진 3을 통해 길림장군부와 그 앞에 전개되는 송화강의 모습을 참고할 수 있다. 주요 도로는 이 장군부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었는데, 西門으로 통하는 西大街, 大北門으로 통하는 北大街, 大東門으로 통하는 河南街, 小東門으로 통하는 糧米行街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西大街와 北大街가 가장 변화한 거리로 이 도로 위에는 소나무 각목을 깔아 놓았는데, 이것은 길림오랍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다. 이는 길림오랍성의 주변지역에 소나무 목재가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糧米行街와 같은 도



〈사진 2〉 吉林將軍府 舊址에 세워진 건물



〈사진 3〉 吉林將軍府 舊址에서 바라본 송화강

로명을 통해서 길림오랍성 내부에서 상업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림오랍성은 여러 차례 重修를 거쳐 1930년대 까지 유지되었는데, 이 성곽은 지금의 吉林省 市政府가 위치한 船營區의 중심 지역을 에워싸고 있다. 동쪽 성벽은 지금의 南京街를 따라, 북쪽 성벽은 지금의 光華路를 따라, 그리고 서쪽 성벽은 지금의 桃源路和 順城街를 따라 이어졌고, 성벽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남쪽은 송화강 北岸에 접해 있는 지금의 松江中路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길림오랍성의 평면구조는 지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규칙한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북 모퉁이 쪽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고, 서남 모퉁이 쪽은 江岸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현재 지도에서 보이는 길림오랍성의 총 둘레는 南面을 포함하여 8,478m이다.<sup>31)</sup>

### III. 청조의 동북정책과 吉林烏拉의 변화

#### 1. 청대 동북행정체제의 변화

청조가 1907년(광서 33) 3월에 동북지역에 대한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성경·길림·흑룡강의 3개의 將軍職을 철폐하고 봉천·길림·흑룡강의 3개의 省을 설치함으로써, 淸初 이래 200여 년간 유지되어 온 旗와 民으로 나뉘어 관할되어 온 동북지역의 이중적 행정체계가 省制로 일원화되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1644년 청조가 입관한 이후 동북행정체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행정체제의 변화와 遼東招民開墾令 및 封禁정책 등이 길림오랍 지역에 어떤 영

31)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 卷四十三 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93쪽

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644년(순치 원년) 청조가 입관한 이후 청조는 자신들의 고향인 동북지역에 대하여 關內와는 다른 조금은 특수한 행정체제를 채택하여, 正黃旗內大臣 何洛會를 盛京지역을 비롯한 동북지역을 관할하는 '盛京總管'에 임명함과 동시에 동북 각 지역의 요충지에 팔기를 파견하여 駐防하도록 하였다.<sup>32)</sup> 그 후 1646년(순치 3)에는 '盛京總管'을 '奉天昂邦章京'으로 직명을 고치고,<sup>33)</sup> 總管 印信을 발급하여 동북의 전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의 장관으로 삼았다.<sup>34)</sup> 그런데 동북지역이 너무 광활하여 한 명의 昂邦章京으로 전체를 관할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또한 러시아의 흑룡강유역으로의 침략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652년(순치 9)에 마침내 梅勒章京인 沙爾虎達로 하여금 팔기를 이끌고 당시 만주의 동부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요충지였던 寧古塔(현재의 흑룡강성 영안시) 지역에 駐防케 하여 송화강·우수리강·흑룡강 유역 일대 등 大區域을 관할케 하였다.<sup>35)</sup> 그리고 이듬해인 1653년(순치 10)에는 梅勒章京인 沙爾虎達를 寧古塔昂邦章京으로 승진·발령함으로써 만주지역은 군사적 관할 시스템 상으로 양대 駐防 구역-奉天和 寧古塔昂邦章京-체제로 변경되었다. 그 후 청조는 1662년(강희 원)에는 奉天昂邦章京을 鎮守遼東等處將軍으로, 寧古塔昂邦章京을 鎮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1665년(강희 4)에는 鎮守遼東等處將軍을 다시 鎮守奉天等處將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sup>36)</sup> 또 1676년(강희 15)에는 鎮守寧古塔等處將軍의 소재지를 寧古塔지역에서 吉林船廠이 있으며 수륙교통이 발달한 길림오랍 지역으로 이전하였다.<sup>37)</sup>

또한 러시아의 남침에 대하여 鎮守寧古塔等處將軍만으로는 효과적 대응

32) 『清世祖實錄』 7권, 5쪽

33) 『清世祖實錄』 26권, 11쪽

34) 『清朝通典』 36권, 20쪽

35) 『清世祖實錄』 66권, 3쪽

36) 『奉天通志』 29권, 3쪽; 『吉林通志』 60권, 7쪽

37) 佟冬 主編, 1994, 『中國東北史』 제4권, 瀋陽: 吉林文史出版社, 1358쪽

이 어려워 청조는 1683년(강희 22)에 寧古塔 副都統 薩布素를 鎮守黑龍江等處將軍으로 승진·발령하고<sup>38)</sup> 瑯玕舊城에 駐防시켰다가 1685년(강희 24)에는 黑龍江城(현재의 黑河市)으로, 1690년(강희 29)에는 墨爾根城으로, 1699년(강희 38)에는 齊齊哈爾城으로 이전시켰다.<sup>39)</sup> 이로써 흑룡강 상류지역에 최초로 군사적 거점과 독립적 지방행정단위의 설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鎮守奉天等處將軍이란 직명은 봉천성 봉천부윤과 중복되어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1747년(건륭 12)에 鎮守盛京等處將軍(盛京將軍이라 약칭함)으로 개칭되었고, 鎮守寧古塔等處將軍의 직명은 그 소재지가 길림오랍으로 이전하면서 烏拉將軍으로도 불리다가 1757년(건륭 22)에 정식으로 鎮守吉林烏拉等處將軍(吉林將軍이라 약칭함)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청대의 동북관할 시스템이 군사적 측면에서 鎮守黑龍江等處將軍(黑龍江將軍으로 약칭함)과 더불어 盛京將軍·吉林將軍 등 三將軍 체제로 전환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청조는 입관 후 초기—즉 강희 초년까지—의 동북행정체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盛京지역과 길림지역의 주요 지역에 팔기를 駐防시키고 그 旗人들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성경이라는 陪都·조상의 능침 그리고 황실 및 팔기의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팔기의 ‘鎮守’·‘駐防’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강희연간을 지나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흑룡강유역으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1683년(강희 22) 흑룡강장군이 설치되고, 그 이하 44개 城에 3만여 명의 팔기가 분산·주둔하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1653년(순치 10)에는 ‘遼東招民開墾令’(이하 ‘遼東招墾令’이라 약칭함)을 반포하여 관내의 인구를 유인하여 입관 후 황량해진 요동지역을 개발하려 했는데, 이때 유입되는 관내의 民人들을 관리하기 위한 關內式 행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요동초간령’이 반포된 1653년(순치 10)에 요동지역에는 遼陽府가 설치되었고, 1657년(순치 14)에 다시 奉天府로 개칭되었으며,

38) 『清聖祖實錄』 112권, 5쪽

39)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384~1390쪽

1664년(강희 3)에는 요서지역에 廣寧府(후일 錦州府로 개칭됨)가 또 설치되면서 盛京의 관할체제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遼陽·錦州 兩府 아래 각급의 廳·州·縣 등이 설치됨으로써 旗人을 관할하는 장군체제와는 별도의 행정체계가 성립되어 이중적 동북관할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길림지역에서는 성경지역에 비하여 좀 더 늦은 1727년(옹정 5)에 永吉府가 봉천부운 휘하에 설치되었다가 1747년(건륭 12)에 鎮守寧古塔等處將軍의 휘하인 吉林廳으로 전환되었고, 1800년(가경 5)에는 長春廳이, 1810년(가경 15)에는 伯都納廳이 설치되면서 세 개의 廳이 모두 길림장군의 통할을 받게 되었다. 흑룡강 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늦은 1862년(동치 원년)에 이르러서야 巴彥州·海倫廳·黑水廳 등이 흑룡강장군 휘하에 설치되었던 것이다.<sup>40)</sup>

이렇게 旗人과 民人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는 모두 三將軍의 휘하에 소속되었으나, 旗署는 旗人만을, 民署는 民人만을 관리하는 “旗人과 民人이 雜居하는 곳에서는 民人은 州·縣에서 관할하고, 旗人은 소속된 旗를 찾아서 佐領의 旗籍에 입적하여 관할하도록 한다.”<sup>41)</sup>는 원칙에 입각한 이중적 행정체계가 동북행정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청대의 동북지역에 대한 이중적 행정체제의 실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요동초민개간령’과 봉금정책이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청조가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동북지역의 상황도 급변하게 되어 봉금정책도 해제되면서 이중적 동북행정체제도 변화를 맞게 된다.

## 2\_ 封禁政策과 吉林烏拉

명말청초 명·청 간의 치열한 전쟁은 중국의 동북지역을 ‘수백 리 사이에 인적

40)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344~1368쪽; 田志和, 1987, 「論清代東北行政體制的改革」, 『東北師大學報』 제4기, 60~61쪽

41) 『清世祖實錄』 67권, 12쪽

이 없는'<sup>42)</sup> 상태로 만들기 시작하여 청조의 입관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관내로 이주함으로써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1644년(순치 원년) 청조의 입관과 北京 천도는 동북지역을 '들에는 농부가 없고, 길에는 장사꾼이 없는'<sup>43)</sup> 황량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청조는 마침내 1653년(순치 10)에 '遼東招民開墾令'을 시행하여 동북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sup>44)</sup> 그러나 '요동초민개간령' 시행 후 초창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해서 청조는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 추진하였다. 그 후 이 정책의 실제적 효과는 16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강희 말년(1712)에 이르면 "산동의 민간인 중 산해관 밖으로 나간 자가 10여만 명에 이른다"<sup>45)</sup>고 할 정도로 동북지역으로의 이민자가 폭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북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는 결국 이 지역에서의 개간지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田賦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급격히 진행된 동북으로의 이민과 개발의 결과 요동지역에서는 '民多地少' 현상이 심화되어 관내의 漢人 이민자들은 더욱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게 된다. 그 예로 1733년(옹정 11)에는 山西人 李登田이 300~400명을 인솔하고 압록강 서안에 이주하여 개간하였다.<sup>46)</sup> 뿐만 아니라 관내의 이민자들은 더 북쪽으로 진출하여,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이민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734년(옹정 12)의 통계를 보면 요동지역을 포함하여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증가한 人丁의 수는 71,381丁인데, 이는 가족을 포함하면 거의 40만 명에 이르는 숫자이다. 또한 당시 이러한 이민자들이 새로 개간한 民田은 대략 280만 畝가 넘는다.<sup>47)</sup>

'요동초간령' 시행 이후 전개된 漢人들의 동북 각지로의 이민과 개발로 인

42) 魏源, 『聖武記』 1권, 3쪽

43) 徐世昌, 『東三省政略』 6권, 22쪽

44) 遼東招民開墾令에 대해서는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6~34쪽을 참조.

45) 『淸聖祖實錄』 250권, 강희 51년 5월 壬寅, 12쪽

46) 吳晗 輯, 1980,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11권, 北京: 中華書局, 4470쪽

47)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555쪽

하여 동북지방 특히 요동지역에서의 만주인의 旗地와 漢人의 民田 사이의 점유비율이 크게 변하게 된다.<sup>48)</sup> 이러한 현상은 곧 旗人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청조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조는 1740년(건륭 5) 동북 전 지역에 대해 전면적 封禁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청조의 龍興重地이며, 만주인들의 특수한 이익·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동북지역으로의 진출입에 대한 통제는 청조가 입관한 직후부터 산해관·柳條邊·卡倫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이는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진출입자를 신중하게 하고 휴대품을 조사함으로써 만주의 특산품인 인삼이나 貂皮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청조의 봉금 대상지역은 요동지역뿐만 아니라 당연히 길림지역도 포함되었다. 1741년(건륭 6) 9월에 寧古塔 장군은 길림 등지의 거류민을 조사하여 永吉州에 입적시키고 保甲을 조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人丁을 은닉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였다.<sup>49)</sup> 또한 1756년(건륭 21)부터는 흑룡강·영고탑·길림오랍 등지로 범죄자를 유배시키는 것도 금지시키게 되어, 이곳으로 오던 범죄자들은 新疆·雲貴·兩廣 등지로 보내게 되었다.<sup>50)</sup>

이렇게 청 정부는 봉금령을 내린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련의 보완적 조치를 취하면서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동북지방의 보호를 꾀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봉금령이 선포된 그날부터 철저한 집행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관내로부터 밀려드는 流民의 수는 오히려 순치·강희 연간의 招民開墾의 시대보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게 된다.

1748년(건륭 13)의 길림오랍의 船廠 등지에는 상인·기술자·船廠 노동자

48) 순치연간에는 旗地가 民田의 43배였는데, 강희연간에는 22배로 줄어들었으며, 옹정연간에는 7.7배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곧 만주 전역에서의 旗地가 아주 빠르게 民田에 잠식되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491~492쪽

49) 『清高宗實錄』 150권, 6쪽

50) 『黑龍江志稿』(黑手叢書本) 26권, 1124쪽

등 3~4만 명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入籍하고 납세하는 자도 4,286명이나 되고 있다.<sup>51)</sup>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봉금령의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청 정부는 1781년(건륭 46)에 田賦를 늘려서 유민의 토지점유를 줄여보려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52)</sup>

요동지역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관내로부터 거리도 멀고, 육로로 가려 할 때는 柳條邊·卡倫 등의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는 길림지역은 아무래도 요동지역에 비해 유입되는 流民의 숫자가 당연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길림지역의 유민의 숫자와 토지점유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길림지역의 流民은 건륭 중기의 56,673명에서 1812년(가경 17)에는 307,781명이 되어, 불과 60여 년 사이에 251,108명이 증가하여, 무려 5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民田은 옹정연간의 60,886무에서 1812년(가경 17)에는 1,438,251무로 증가하여, 불과 80년 사이에 1,377,365무가 증가하여, 무려 2,300여 %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sup>53)</sup>

한편 길림지역에서의 봉금정책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즉, 길림오랍과 伯都訥 지역에 대해서는 봉금령이 비교적 느슨하게 시행되어 이민자들에게 수개방적 상태여서 이전 시기에 비해 인구와 토지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이렇게 길림오랍 지역의 인구와 토지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

〈표 2〉 청대 중기 길림오랍 지역의 民人과 民地の 증가

연도	民人(丁)	民地(畝)	비고
1765(건륭 30)	8,961	428,513	
1810(가경 15)	25,149	1,037,273	
증가율(%)	281	242	

자료: 佟冬 主編, 1994, 『中國東北史』 제4권, 瀋陽: 吉林文史出版社, 1574쪽

51)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567~1568쪽

52) 『清高宗實錄』 1143권, 3쪽; 『清高宗實錄』 1144권, 2쪽

53)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572~1573쪽

시의 규모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 1867년(同治 6) 길림오랍성의 대규모 확장 공사로 이어지게 되며, 도시 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 IV. 청대 漢人の 이주와 吉林烏拉의 개발

### 1\_ 漢人の 이주와 농업 발전

청대 초기 길림지역의 농업생산의 발전과 토지개발은 주로 관내의 산동·직에 등지로부터 대량의 漢人 이민으로 인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내 漢人 들의 길림으로의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청조는 1726년(옹정 4) 길림지역에 流民과 民地를 관리하기 위해 永吉州·長寧縣·泰寧縣 등 3개의 주현을 설치 하였다.<sup>54)</sup> 그 후 1740년(건륭 5)에는 동북 전 지역에 대하여 전면적 봉금지책을 실시하여 漢人 유민의 동북으로의 진출을 막았지만, 봉금지책이 시행되는 약 100여 년 동안 길림 전 지역으로의 유민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건륭 중엽부터 1812년(가경 17)까지 약 60여 년 사이에 길림 전역의 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sup>55)</sup> 이러한 유민은 대부분 吉林烏拉·伯都訥·長春廳 등지에 집중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길림지역의 광활한 토지는 끊임없이 개발되어 民地가 1812년(가경 17)에 이르러서는 2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관내로부터 이주해온 유민의 발달된 기술로 길림의 농업 등 경제 각 부문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길림의 농업개발은 유민과 떼어 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다수의 漢人들이 유입되기 전 길림의 농업은 주로 旗人들의 官莊旗地의 개간이 중심이었다.

54) 孫乃民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17~218쪽

55) 趙英蘭, 2011, 『清代東北人口社會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80~82쪽

여기에서 旗人은 청조가 길림지역에 駐防시킨 팔기군과 그의 家屬을 말한다. 그런데 청조가 입관한 직후에는 길림지역에 駐防하는 팔기부대가 거의 없었고, 다만 소수의 토착 만주인들만이 남아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길림지역보다 훨씬 경제가 발달한 요동지역조차 ‘有土無人’의 상태인데, 하물며 길림의 상황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팔기병들이 길림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이 본격화한 이후의 일이다. 즉 1652년(順治 9)에 이르러서야 梅勒章京 沙爾虎達이 팔기병을 이끌고 寧古塔에 駐防했던 것이다. 이후 청조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빈번하게 병력을 출동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軍糧 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청조는 현지의 자연조건·기후·인구 등의 문제로 군량의 현지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길림의 여러 곳에 官莊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순치연간의 길림지역에 설치된 官莊의 자세한 상황이다.

표 3의 각 官莊의 대체적 편제는 청 말까지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된다.

官莊의 壯丁은 대부분 관내에서 이주해 온 民戶로써 주로 중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유배되어 온 경우인데, 이들을 ‘流人’이라 부른다. 이들 유인은 위로는 왕공귀족·장군·관리 등에서 아래로는 일반 民人·사병·상인 등 각계각층의 인물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유배되어 올 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와서 고

〈표 3〉 순치연간 길림지역 官莊 설치 내역

지역	官莊의 수	壯丁의 수	每 壯丁 1인당 지급된 토지 (단위: 垧=15畝)	토지 총액 (단위: 垧=15畝)	비고
寧古塔	13	130	12	1,560	
吉林烏拉	50	500	12	6,000	
伯都訥	15	150	12	1,800	
阿勒楚喀	3	30	12	360	
拉林	3	30	12	360	
계	84	840		10,080	

자료: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全3卷), 長春市: 吉林人民出版社, 297~298쪽

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1676년(강희 15) 길림오랍 지역에는 ‘流人 千餘家’, 또는 ‘직예성에서 온 流人 수천 戶가 거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삼변의 난을 진압한 후에는 5~6만 명 정도가 전국 각지로 유배되었는데, 동북 전 지역에 유배된 流人은 대략 3만 명 정도가 된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중 상당한 숫자가 길림지역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건륭 중기에 이르면 동북의 전 지역 인구의 5분의 1을 유인이 차지할 정도였다.<sup>56)</sup> 이렇게 많은 유인들이 바로 길림지역의 초창기 주민이 되어 개척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길림지역 개발의 또 하나의 주역은 이곳에 駐防한 팔기병들이다. 1652년(順治 9) 沙爾虎達이 寧古塔에 駐防한 것을 시작으로 길림 전 지역에 駐防하는 팔기병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652년(순치 9)에는 3,172명, 강희 중엽에는 11,255명 그리고 1892년(광서 8)에는 15,836명에 이른다. 이들 팔기병들은 旗地를 경작함으로써 길림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 駐防 팔기병은 배치되어 올 때 가족과 함께 오므로써 길림지역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sup>57)</sup> 다음의 표 4는 吉林烏拉城과 吉林水師營에 배치

〈표 4〉 吉林烏拉城과 吉林水師營에 배치된 팔기병과 旗地의 변화

시대	吉林烏拉城		吉林水師營		출처	비고
	팔기병(명)	旗地(垧)	팔기병(명)	旗地(垧)		
康熙	3,420	41,549	303		吉林志略, 八旗通志	
雍正	3,220	37,123	303	4,426	吉林志略, 八旗通志	
乾隆	3,774	95,134	303	2,226	吉林志略, 吉林志略	
光緒	3,888	67,734			吉林通志	합산
清末		184,536		5,975	吉林通志	

자료: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308~313쪽

56)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773~1774쪽

57)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298쪽

된 팔기병과 旗地의 변화 상황을 보여준다.

유인과 팔기병 이외에 길림지역 개발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은 ‘流民’인데, 이 유민은 앞에서 언급한 유인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이주민들이다. 유인은 대부분 범죄자들이어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삼변의 난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증가 숫자가 항상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유민은 대부분 산동·하남·하북 등지의 농민들인데, 재해를 당하여 饑民化한 상태로 생계를 위해 동북 각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관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청조가 입관한 후 강희연간의 ‘요동초민개간령’ 시행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유민은 요동지역에 집중되었고, 길림지역은 아직 한산하였다. 그 예로 1682년(강희 21) 강희제가 東巡하면서 길림오랍을 방문하였을 때 開原에서 길림오랍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거의 人家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길림오랍성에 이르러서야 民인이 거주하는 가옥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58)</sup>

1676년(강희 15) 寧古塔將軍의 소재지를 길림오랍성으로 이전하면서 新舊滿洲 팔기병 2,000명과 流人 수천 戶를 이곳에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바로 길림오랍성의 최초의 주민이 되었던 것이다. 유인 수천 호는 최대를 계산해도 3만 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吉林水師營에 배속되어 선박 건조에 참여하였다. 또한 길림오랍성에서 약 70리 정도 떨어진 곳, 즉 앞에서도 설명한 內務府 소속의 打牲烏拉總管衙門이 소재한 吉林古城(大烏拉)에는 당시 약 200여 호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대를 계산해도 1만 명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sup>59)</sup>

이렇게 시작된 길림오랍성의 도시인구는 앞장의 봉금정책을 설명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림지역의 유민과 民田의 폭발적인 증가<sup>60)</sup>로 인하여 급격

58) 王佩環 主編, 1991, 앞의 책, 624쪽

59)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300쪽

60) 길림지역의 流民은 건륭 중기의 56,673명에서 1812년(가경 17)에는 307,781명이 되어 불과 60여 년 사이에 251,108명이 증가하여, 무려 5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民田은 옹정연간의 60,886畝에서 1812년(가경 17)에는 1,438,251畝로

〈표 5〉 건륭연간 吉林烏拉城의 인구 변화

연도	戶의 수	인구 수(명)	비고
1771(건륭 36)년	8,856	44,456	
1781(건륭 46)년	22,513	114,429	
증가율(%)	254	257	

자료: 孔經偉, 1990, 『清代東北地區經濟史』, 하얼빈: 黑龍江人民出版社, 156쪽

한 증가세를 보이게 된다. 즉, 건륭 초기부터 실시된 봉금정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길림오랍성 인구의 변화 상황은 표 5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림오랍성으로 유입된 인구는 일부의 旗人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내의 농경사회에서 이주해 왔다. 그래서 이들의 이주는 비교적 발달된 농업기술을 이 지역에 가져와 농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다수의 유민이 이주하기 전부터 길림오랍 지역의 농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강희제가 1682년(강희 21) 東巡하면서 길림오랍 지역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이 목도한 “조·기장·피 등은 토지에 잘 적응하여 거름을 주지 않고 김을 매지 않아도 풍년이 들어 일 년 내내 부족하지 않다”, “길림오랍에는 2,000여 호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八旗丁이다”<sup>61)</sup>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토지가 상당히 비옥하여 시비를 하지 않아도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농경에 종사하는 자들은 모두 주방팔기를 위해 일하는 官莊旗地에 소속된 노동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길림오랍 지역의 旗地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1,549垧으로 40여만 무에 이르러 이미 상당히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雍正 초기부터 유민의 길림지역 진출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건륭 초기에 결국 봉금정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봉금정책이 시행되는데

증가, 불과 80년 사이에 1,377,365畝가 증가하여, 무려 2,300여 %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61) 王佩環 主編, 1991, 앞의 책, 625쪽

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길림오랍 지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에 의한 토지개간도 급격히 증가하여 가정연간에는 길림오랍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한 토지가 325,898무에 이르게 된다.<sup>62)</sup> 이후 아편전쟁 후 청조는 동북지역에 대한 봉금정책이 해이해지면서 황무지 개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1867년(同治 6)에는 드디어 200여 년간 시행되어 온 길림오랍 지역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기에 이른다.<sup>63)</sup> 또한 이후 광서 말기까지 청조는 길림지역에서 봉금정책을 완화하였는데 1881년(광서 7)에는 두만강유역과 우수리강 상류지역을, 1888년(광서 14)에는 拉林河유역을, 1889년(광서 15)에는 寧古塔 지역을 포함하는 牧丹江유역을 차례로 개방하게 된다.<sup>64)</sup> 이로써 길림의 전 지역은 漢人 이주민들에 의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점차 경제활동에서도 다른 변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2\_ 吉林烏拉的 상업과 무역

길림오랍성의 경제활동은 강희연간 이후 流人·流民·상인들이 운집하고, 造船業이 발전하면서 활발해졌다. 1671년(강희 10)부터 造船 기술자 600호와 軍丁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길림오랍성은 ‘人煙湊聚’하였고, 송화강에 인접해 있어서 수상교통이 편리하고 역참이 새롭게 설치되고 각지와 손쉽게 연결되어 百貨가 모여드는 중요 도시가 되었다.<sup>65)</sup> 또한 城 안에는 관내에서 이주한 수천 호가 살고 있고, 西關에는 百貨가 운집하여 旗亭戲館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sup>66)</sup> 그래서 길림오랍성은 柳條邊 이북의 최대의 상업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길림오랍성은 인구 증가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상업이 발달하여 관

62) (清)薩英額, 1984, 『吉林外記』(遼海叢書續編本) 卷7, 5쪽

63) 『清穆宗實錄』 241권, 동치 7년 8월 戊辰, 8쪽

64)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第2卷, 305~306쪽

65) 『寧古山水集』, 26~32쪽,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727쪽에서 轉載함.

66) 楊賓, 1984, 『柳邊紀略』(遼海叢書本) 卷1, 7쪽

내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1673년(강희 12)에는 山西 상인들이 城 안에 山西會館을 건립하였고, 1799년(가경 4)에는 江蘇·浙江·江西·安徽의 4개 省의 상인들이 연합하여 三江會館을 건립하였다.<sup>67)</sup> 이렇게 관내에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전개하는 상인집단들에 의해 會館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길림오랍성에 상당히 많은 관내의 유력 상인들이 왕래하고 있음을 알려 주며, 城 안에서 활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길림오랍성에서 판매되는 중요한 상품 중의 하나는 담배와 麻이다. 담배는 동북 각 지역에서 모두 생산되지만, 길림오랍의 담배가 가장 우수하여 인기리에 판매되곤 하였다. 당시 담배의 매매 상황에 대하여 아래의 기록이 주목된다.

吉林烏拉城 남쪽 지역에 생산되는 ‘南山煙’과 송화강 동쪽지역에서 생산되는 ‘東山煙’은 맛이 특히 좋고 향기로워 사람들이 다투어 사려고 한다. 麻는 주로 吉林烏拉城 북쪽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매년 수확하여 가을에 상점에서 판매한다. 특히 담배와 麻를 함께 판매하며 관내로 운송하는 ‘煙麻客’이라는 상인들은 대규모로 매매를 하였는데, 그 액수가 일 년에 銀 100여만 냥에 이른다.<sup>68)</sup>

위의 내용을 통해서 길림오랍성에서 특산물 매매의 전문화·분업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와 교역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한편 길림오랍 지역의 농업과 수상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糧食의 판매업이 매우 성행하였다. 이들은 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안의 한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吉林將軍府에서 小東門으로 통하는 糧米行街이다. 이곳의 미곡상들은 주로 수로를 따라 琿春·寧古塔·齊齊哈爾 등지까지 운송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瀋陽과 蓋州 등지까지 판매하곤 하였다.<sup>69)</sup>

67)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앞의 책, 27~28쪽

68) 『吉林外記』 卷7, 8쪽

69) 佟冬 主編, 1994, 앞의 책, 1729쪽

이러한 상업활동을 통해 볼 때 길림오랍성은 都農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길림과 흑룡강 지역 등 주변지역 그리고 관내 각 지역과의 무역을 통한 각종 상품의 집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의 吉林市은 청대의 吉林烏拉城으로 송화강 변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江城’·‘船廠’·‘小烏拉’ 등의 별칭이 있으며, 省名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중국 내의 유일한 도시이다. 이러한 여러 명칭은 대부분 명·청대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수립된 정권이나 행정기관 등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하고 있다. 오늘날의 길림성의 중심은 장춘시이지만, 청대에는 길림시 즉 길림오랍성이 그 중심지였다. 이러한 길림오랍성의 시작은 명대에 건설된 船廠의 기초 위에 1657년(順治 14) 설립된 청대의 吉林船廠과 1671년(강희 10) 寧古塔副都統衙門이 이전한 후 1673년(강희 12) 길림오랍성을 완공한 이후부터이다. 길림 선창과 길림오랍성의 건설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길림오랍성은 청대 전 시대에 걸쳐 청조의 동북정책의 중요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길림성·흑룡강성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길림오랍성은 1673년(강희 12)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내성과 외성의 이중 구조였지만, 이후 성내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차례 개축을 통해 확장되었다. 길림오랍성은 현지의 지리적·자연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축조되었다. 즉, 주변지역에 소나무 목재가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城의 남쪽에 2.9km의 목책난간이 만들어졌고, 송화강 변에 위치하며 목재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선창이 건설되어 수륙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또한 ‘遼東招墾令’ 시행 후 급격히 진행된 동북으로의 이민의 결과 吉林지

역의 개발이 점차 빠르게 진행되었다. 봉금령 시행 이후에도 길림지역의 漢人 이주와 개발은 꾸준히 늘어났고, 특히 길림오랍 지역에 대한 봉금령은 비교적 느슨하게 시행되어 이민자들에게 半개방적 상태로 놓이게 되어 인구와 토지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1765년부터 1810년까지 약 50년 사이 이주민은 2.8배, 이들이 개간한 토지는 2.4배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길림오랍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서 順治와 康熙시기에는 주방 팔기병과 流人들이, 건륭시기 이후에는 주로 流民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길림오랍 지역의 농업발전에서 초기에는 팔기의 군량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官莊에 배치된 流人들의 역할이 컸다. 또한 이들 유인과 그들의 家屬 그리고 팔기병과 그 가족들의 이주는 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봉금령 시행 이후 유민의 계속된 유입도 길림오랍 지역의 농업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길림오랍 지역의 인구증가는 이 지역의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다. 강희연간 길림오랍성에는 전국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 활동하였는데, 그 예로 山西會館의 건립, 담배와 麻의 판매와 무역이 대규모로 진행됐음을 들 수 있다. 또한 길림오랍성은 동북 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서 수륙교통망을 이용하여 길림 각 지역과 흑룡강성 일대로 식량을 비롯한 많은 상품이 운송·판매되었다.

이렇게 볼 때 길림오랍성은 청대 전 시기를 통해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요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행정·군사·경제의 중심지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 참고문헌

- 『吉林通志』
- 『奉天通志』
- 『清高宗實錄』
- 『清穆宗實錄』
- 『清聖祖實錄』
- 『清世祖實錄』
- 『清朝通典』
- 『黑龍江志稿』
- 『吉林志書·造送會典館清冊』(長白叢書二集), 1988,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吉林地志·鷄林舊聞錄·吉林鄉土志』(長白叢書初集), 1994,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打牲烏拉志典全書·打牲烏拉地方鄉土志』(長白叢書二集), 1988,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康得春 主編, 1993, 『吉旅遊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吉林市市區文物志』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卷四十三文物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佟冬 主編, 1994, 『中國東北史』, 瀋陽: 吉林文史出版社
- 傅寶仁, 1999, 『吉林歷史名勝古今譚』, 長春: 吉林美術出版社
- 薩英額, 1993, 『吉林外記』(遼海叢書續編本), 瀋陽: 瀋陽市古籍出版社
-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清)阿桂 等 纂修, 1997, 『盛京通志』, 瀋陽: 遼海出版社
- 楊賓, 1985, 『柳邊紀略』(遼海叢書本), 瀋陽: 遼海書社
- 吳振臣, 1993, 『寧古塔紀略』(遼海叢書續編本), 瀋陽: 瀋陽市古籍出版社
- 吳晗 輯, 1980,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北京: 中華書局
- 王佩環 主編, 1991, 『清帝東巡』,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 魏源, 1962, 『聖武記』, 臺北: 文海出版社
- 劉照全 編, 1991, 『話說吉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 -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尹郁山, 1991, 『烏拉史略』(長白叢書研究系列之十六),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李德潤, 2009, 「船廠與吉林烏拉」, 『中國地名』, 2009年 第12期

-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李澎田·刁書仁, 1984, 「吉林船廠考略」, 『吉林師範學院學報』, 1984年 第3期
- 張大偉, 1999, 「吉林與寧古塔」, 『北方文物』, 1999年 第3期
- 張璇如, 2005, 「“吉林”地名探析」, 『史學集刊』, 2005年 第2期
- 張一民主編, 2011, 『話說江城』,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 趙英蘭, 2011, 『清代東北人口社會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陳洁, 2003, 「吉林省與吉林市同名的歷史淵源及弊端」, 『中國地名』, 2003年 第5期
- 陳萍, 2007, 「東北“船廠”名將劉清與吉林阿什哈達摩崖石刻」, 『文史知識』, 2007年 第11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ABSTRACT]

## Formation of Jilin Ula and Changes in the Immigration of Han Peoples during the Qing Dynasty

Yu Jiwon

The center of the Jilin area in Qing Dynasty was the Jilin Ula Fortress. It began to function as the center of the area as the Jilin Shipyard and the fortress were completed in 1657 and 1673, respectively. The dynasty constructed them in the area in order to oppose to southward movement of Russia. After the border issue settled after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Nerchinsk, Jilin Ula became a key point in the area along with Shenyang in Liaoning for crucial administrative and military roles in the Qing government's northeastern policies as well as being a commercial center that covered the entirety of Jilin and Heilongjiang.

The fortress was built by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geographic and natural environments of Songhua River. Several extensions and reconstruction works, undertaken later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enlarged the fortress, making it the central city of that time.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into the area due to the execution of *Liaodong zhaokenling* and the blockade policy (封禁政策) during the Qing period resulted in rapid development of the Jilin Ula area. Those immigrants included Ba-Qi soldiers and *liuren* (流入) during the reigns of the emperors Shunzi and Kangxi, and *liumin* (流民) during the reign of Emperor Qianlong who took important roles for such

developments.

The increase in the area's population brought commercial development and attracted many merchants across the country, whose presence was represented by the establishment of *huiguan* buildings (會館) and large-scale transactions for tobacco and hemp. Being the economic center of the entire northeastern region, the merchants in Jilin Ula employed water and inland transportation networks to transport and sell various products, including foodstuffs, to other areas in the Jilin region as well as to the Amur River and Ussuri River regions.

Jilin Ula had many immigrants from inland China throughout the Qing period and evolved and developed as a political, administrative, military, and economic center of the northeastern region.

#### Keywords

Jilin Ula, Jilin Ula Fortress, Jilin Shipyard, Immigration of Han People, Blockade Policy, Songhua River, Commercial Development



# 淸朝의 정책변화와 吉林地區의 사회경제적 변모

김영신 | 원광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어느 도시 혹은 지역의 발전과 쇠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통 만주라 불리는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적 변모와 성쇠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당국의 정책,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의 발전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동북지역에서도 길림지구<sup>1)</sup>는 이런 특징이 강하게 작용한 대표적 경우의 하나이다.

청대 吉林省城이 자리하였던 현재의 吉林市 및 그 주변의 永吉縣과 舒蘭市·蛟河市·樺甸市·磐石市를 아우르는 길림지구는, 백두산 지맥이 흘러내

※ 투고일: 2012년 7월 12일, 심사일: 2012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4일

1) 陳陶然, 2006, 「吉林城的興建與東北亞局勢的發展」,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7卷 第4期, 62쪽. 길림은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省名과 都市名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그 결과 오늘날 길림은 광의와 협의,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광의는 길림성 전체를 칭하는 것이고, 협의는 길림시와 그 일대를 칭한다.

러 형성된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분지임에도 해발고도는 그리 높지 않은 이 지역은, 제2송화강이 관통하여 형성된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는 등 지구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만주족의 발상지로 청조에게는 특별한 곳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 전역에 대한 지배체제가 공고화된 뒤 청조는 길림지구에 대해 내지와는 다른 군사와 행정관할을 시행하여 이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였다.<sup>2)</sup> 또한 명말 이후 이미 러시아 세력이 호시탐탐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어 변강지구의 관리와 국방강화가 절실하였고, 그 중심에 위치한 길림지역의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었다.

이런 까닭에 청조는 변강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순치 9년(1652) 寧古塔에 팔기병력을 배치하고, 昂邦章京으로 하여금 鎮守의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sup>3)</sup> 강희 10년(1671)에는 영고탑장군의 주재지가 협소한데다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음을 이유로 주재지를 현재의 길림시로 옮기도록 하였다.<sup>4)</sup> 강희 12년(1673) 길림성이 완성되고, 3년 후 영고탑장군이 주재지를 이곳으로 옮겼다. 영고탑장군이 주재지를 옮기면서 邊疆의 重鎮으로 자리잡은 길림은 발전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sup>5)</sup>

- 
- 2)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 第二卷, 吉林人民出版社, 211쪽; 張龍, 2009, 「論清代以來東北地區行政沿革及其變化」, 『牡丹江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8쪽. 入關 후 청조는 盛京(瀋陽)을 陪都로 정하고 正黃旗內大臣 何洛會를 盛京總管統兵鎮守로 삼아 '龍興之地'인 동북을 보존하고, 이곳에 잡거하고 있는 만주족·한족·몽고족 등 잡다한 민족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북의 범위가 너무 광대한데다 교통이 불편하고, 장기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수십만 팔기관병 및 그 가족의 입관으로 땅은 넓으나 인적이 드문 동북지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 3) 刁書仁, 1995, 「論清代吉林地區行政體制及其變化」, 『明清東北史研究論集』, 178쪽; 衣興國, 1994, 『東北近三百年土地開發史』, 吉林文史出版社, 4쪽
- 4) 何一民, 2010, 「清代東北地區城市發展與變遷」,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7쪽
- 5) 『清聖祖實錄』(華文書局影印本) 卷133. 이때 청조는 오랫동안 혼용되어 사용되던 寧古塔將軍·吉林烏拉將軍·船廠將軍의 명칭을 통일하여 吉林將軍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애초 영고탑장군을 둔 이유는 러시아 세력의 남침을 견제하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설치의도에 반하여 장군 주재지를 변경에서 내지로 옮긴 까닭은, 새 주재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유리한데다 盛京과 가까웠기 때문이었다.<sup>6)</sup> 영고탑장군이 주재하면서 길림은 동북 수륙교통의 요충이자 러시아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경제·군사의 본영으로써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sup>7)</sup> 또한 길림은 주변의 토지가 비옥하여 팔기관병을 위한 군량의 생산기지로써도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sup>8)</sup> 이상의 여러 환경은 길림지구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대 초엽 한동안 동북지구에서 ‘招民墾荒’이 시행되면서 길림지구까지도 관내에서 많은 窮民이 몰려들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내지의 죄수들까지 길림지구에 배치되어 개간에 나서면서 건륭 이전 길림지구에는 이미 官庄 50여 곳에 농지 6,000垧이 개간되어 있었다.<sup>9)</sup> 여기에서 적지 않은 旗地와 民地가 있어 길림지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었다.<sup>10)</sup>

관내로부터의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관내의 앞선 생산기술이 동북지구에서

- 
- 6) 佟冬 主編, 2006, 『中國東北史』 第五卷, 吉林文史出版社, 646쪽
- 7) 高士奇, 1986, 『扈從東巡日錄』(吉林文史出版社影印本), 100쪽; 李樹田·刁書仁, 1984, 「吉林船廠考略」, 『吉林師範學院學報』 第三期, 77쪽. 러시아 세력이 여러 차례 송화강에 진입하여 북변을 어지럽히자 순치 13년(1656) 吉林烏拉에 조선소(船廠)를 설립하였다. 또한 순치 18년(1681)에는 船廠에 水師營을 설립하여 수군을 훈련하고 戰船의 건조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영의 官兵·匠役·水手, 선창의 工匠, 駐防官兵, 민간인을 포함하여 성이 완성되기 전 吉林烏拉의 인구는 이미 12,000명 이상에 달하였다. 절대수로는 그다지 놀랄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으나, 인적이 드문 동북의 변경지대에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진 城鎮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특수하고 드문 경우였다.
- 8) 孟東風, 1994, 『吉林近代史稿』, 吉林文史出版社, 15쪽
- 9) 魏克威, 1998, 「乾嘉道時期的東北經濟」, 『東疆學刊』 第15卷 第1期, 48쪽;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297쪽. 청조가 길림지구에 관장을 둔 것은 러시아 세력의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세기 중엽 만주족의 입관을 틈타 러시아 세력이 부단히 흑룡강 유역을 침범하였다. 이에 맞서 청조는 팔기를 영고탑에 진주시키고, 러시아 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군대를 동원하였다. 출병 시 군량의 보급이 여의치 않자 청조는 길림과 영고탑 등지에 관장을 설치하였다. 당시 吉林烏拉 지역 관장은 庄丁 500명이 배치되었다. 장정 1명에게는 12垧의 경작지가 할당되었다.
- 10) 楊賓, 1936, 『柳邊紀略』(商務印書館影印本), 13쪽

전파되어 동북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동북지구에 한족 인구가 증가하자 ‘만주족의 본습’이 잊혀지고 旗人의 이익이 침점될 것을 염려한 청조가 봉금정책을 실시하였다. 물론 봉금령 집행기에도 길림지구로 유입되는 이주자는 끊이지 않았지만, 인구증가와 토지개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길림지구의 발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길림지구가 재차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邊防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민실변’으로 청조의 정책이 바뀌면서부터였다. 또한 이때부터 길림지구에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의 발전 외에도 근대적인 공상업이 흥기하기 시작하였다. 청조의 정책변화는 동북지구를 둘러싼 열강의 쟁탈전이 가열화된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청대 후기 길림지구의 변모는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점이 관내 여타 지역의 발전과정과는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17세기 중엽 변강의 증진으로 자리잡은 이후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길림지구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는 봉금령과 이민실변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큰 작용을 하였다. 정책변화의 이면에는 당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등 외재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청대 길림지구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로 인해 나타난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화 과정에서 출현한 제반 조치와 시설이 길림지구의 변화에 미친 영향의 배경과 결과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封禁令 집행기의 길림지구

장기전쟁으로 인한 파괴에 더하여 수십만 팔기관병 및 그 가족이 入關하여 청대 초엽 만주의 모든 것이 황폐하였다.<sup>11)</sup> 이에 순치 6년(1649) 4월 청조는 ‘招

民開墾令'을 반포, 궁핍한 漢人의 關外 이주를 허용하고 장려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때까지도 관내에는 개간 가능한 토지가 없지 않은데다, 민족적 압박을 두려워한 漢人들은 관외 진출을 꺼려하였다. 이런 까닭에 전국을 대상으로 반포된 초간령은 별다른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간령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 초간령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순치 10년(1653) 이주민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등을 포함하여 상관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마련한 '遼東招民授官例'가 반포되었다.<sup>13)</sup> 청조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주책을 마련하여 관내 漢人의 동북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장려하였다.<sup>14)</sup> 다만 이 시기의 이민장려책은 만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요동의 복구를 위한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인 이주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자 다소간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 동북의 사회경제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이가 없지 않았다. 특히 강희제는 漢人의 진출이 만주족의 습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하였다. 이에 고심 끝에 그는 '龍興之地'를 보호하고 '八旗生計'를 위해, 1668년 '遼東招民授官例' 폐지를 명하였다.<sup>15)</sup>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때의 조치는 '招民授官'<sup>16)</sup>을 폐지한 것일 뿐, '招

11) 馬汝珩·馬大正 主編, 1990, 『清代邊疆開發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쪽; 王振科, 1982, 「清代東北封禁政策初探」, 『四平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42쪽; 劉智文, 2003, 「清代東北封禁政策芻議」, 『學習與探索』第147期, 133쪽

12) 衣保中·吳北哉, 1999, 「論清前期東北墾荒政策的演變」, 『長白學刊』, 79쪽

13) 孔經緯, 1990, 『清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48쪽; 張杰, 1994, 「試論清前期的東北封禁」, 『社會科學輯刊』第5期, 114쪽

14) 衣保中·吳北哉, 1999, 앞의 글, 80쪽

15) 薛洪波, 2005, 「再析清代封禁東北之目的」,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期, 102~104쪽

16) 孔經緯, 1990, 앞의 책, 148쪽. '遼東招民授官例'는 모집한 이주 희망자의 숫자에 따라 초모자에게 文職은 知縣 이하, 武職은 守備 이하의 관직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직제수방법에 대해 초간령 실시 초기부터 반대의견이 없지 않았다.

墾畝'는 여전히 집행되었다.<sup>17)</sup> 이때의 조치는 출관하는 한족 궁민에게 '사전에 관할 관청에 출관을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전에 없던 수속을 요구한 것뿐이었다.

초간령이 폐지되었다 하여 漢人의 관외 진출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유롭게 만리장성을 넘나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청조는 가난한 백성들의 관외 진출에 대해 소극적 방임의 자세를 취하였다. 강희 30년(1691)에는 漢人뿐만 아니라 旗人들도 관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런 조치도 백성들의 관외 진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만 거두었을 뿐, 완전히 막지는 못하였다. 건륭대에 이르러 일반백성의 출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한조치가 연달아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건륭 4년(1739)까지는 '출입증'만 있으면 출관이 가능하였다.<sup>19)</sup> 건륭 5년(1740)에 이르러 동북지구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봉금이 시작되었다.<sup>20)</sup>

'遼東招民開墾畝'이 집행되던 강희 연간까지도 요동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미개간지가 남아 있었다. 이런 까닭에 이 시기에 동북으로 진출한 이주자들은 거의 전부 요동지역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순치와 강희 치세는 아직 漢人이 길

- 
- 17) 馬玉良·孔艷波, 2005, 「東北邊疆危機與清廷對東北的弛禁和全面開放」,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卷 第4期, 57쪽. 건륭 이후 청조는 동북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봉금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무렵 동북지구에 대한 봉금은 국부적이며 불철저하여 때로는 금령의 집행이 엄하고 때로는 느슨해지는 등 봉금에 관한 모든 조치들이 상대적이어서 出關의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 18) 楊賓, 1936, 앞의 책, 68쪽
- 19) 馬平安, 1999, 「清末清廷封禁政策轉變與東北地區的移民實邊」, 『遼寧教育學院學報』第1期, 36쪽; 張杰, 1994, 앞의 글, 113쪽.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封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순치 6년(1649), 강희 7년(1668), 건륭 5년(1740)설이다.
- 20) 孔經緯, 1990, 앞의 책, 151쪽; 楊余練 主編, 1991, 앞의 책, 168~169쪽. 당시 내려진 조치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해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둘째, 바닷길을 통해 요동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民人의 商船 승선을 제한한다. 셋째, 성경지구에서 보갑제도를 강화한다. 넷째, 봉천지역의 무주도지는 모두 旗人에게 경작권을 넘겨 일반백성의 개간을 엄금한다.

림지구로 본격 유입되기 전이었다. 강희 말년에서 옹정 초년에 이르러서야 길림지구로의 유입자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관내와 거리가 가깝고 생활환경이 나은 편이었던 요동지역의 토지개발이 이미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 동북으로 이주한 자들은 미개간지가 많은 길림지구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길림지구 인구증가의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옹정 5년(1727) 길림에 永吉州를 설치하고 현지에 정착한 이주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은,<sup>21)</sup> 이때 이미 적지 않은 漢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륭 4년(1739)에는 戶部의 주청에 따라 길림지구에 거주하는 선량한 漢人 가운데 입적을 원하는 자는 호적을 정리해 주고, 1인당 은 1전 5분을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sup>22)</sup> 이는 봉금령이 강화된 이후로도 길림지구로 이주한 자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이후 건륭과 가경 시기 청조는 여러 차례 영고탑 등지에서 적발된 불법이주자들을 길림으로 이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봉금시기인데도 길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만주족의 근본중지로 간주된 길림지구는 당연히 백성들의 사사로운 진입이 가장 강력하게 통제된 곳이었다. 건륭 6년(1741) 길림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선포한데 이어 건륭 27년(1762) 청조는 ‘寧古塔等處地方禁地流民例’를 반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길림지구로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속조치로 청조는 이주민의 유입을 제대로 막지

21)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217쪽. 옹정 이후 관내 한족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길림지구에는 수많은 촌락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농업생산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공업과 상업이 덩달아 발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官府에서는 민호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고, 수공업자와 상인들로부터도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旗民과 한족 사이에 교류가 빈번해지고 각종 안전이 발생하자 민인에 대한 관리를 전담할 관서의 설립이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인구와 호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옹정 4년 길림지구에 영길주가 설치되었다.

22) (清)阿桂·劉謹之 等 撰, 1983, 『盛京通志』(商務印書館影印本) 卷35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길림지구에 대한 금령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는데도<sup>23)</sup> 실제상황은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건륭 34년(1769) 한 해에만도 길림지구에 수백 호의 새로운 이주자가 잠입한 것이다.

봉금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진 뒤로도 길림지구로 찾아드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만주족의 중국 지배가 공고화되고 관내의 사회경제가 회복된 것이 오히려 窮民의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관외로 진출하게 만든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과잉과 토지경쟁의 심화, 빈번한 자연재해의 발생 등 가난한 이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여러 요인은 백성들을 동북으로 내모는 내부적 압력이었다.

한편 개간 가능한 토지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다 동북의 旗人 지주와 지방관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내심 이주자들의 유입을 환영한 것은, 이주민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으로 작용하였다.<sup>24)</sup> 동북지구에 광대한 영지를 소유한 황실과 만주 귀족들의 입장에서라도 농지경영을 위해서는 漢人의 노동력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광대한 토지가 널려 있으나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한 동북지구의 현실은 가난한 백성들의 출판을 부채질하였다.

여러 차례 금령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건륭 41년(1776) 12월 또다시 입경과 개간을 금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도 실제작용을 하지 못하여 길림지구로 유입되는 이주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sup>25)</sup> 근본증지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길림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봉금령이 집행되던 시기임에도 유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았음은 길림지구 民戶와 丁口의 변화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23)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301쪽

24) 楊余練 主編, 1991, 앞의 책, 178~180쪽; 劉智文, 2003, 앞의 글, 13쪽. 당시 동북지구의 지방관들은 丁稅와 租賦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주민의 정착을 눈감아주는 것이 통례였다. 농사에 서툰 기인들도 漢人 이주민에게 토지를 대신 경작시킴으로써 취하는 이익이 적지 않았기에 역시 이주자를 반기는 입장이었다.

25) 『清高宗實錄』(華文書局影印本) 卷1023

볼 수 있다.

인구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시기 길림지구에 거주하던 백성의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길림장군 관할구역에서 심사를 거쳐 민간인의 入籍을 허용한 것은 강희 50년(1711)부터였다. 이때 길림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은 33,025명으로 조사되었다.<sup>26)</sup>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건륭 36년(1771) 44,456명이던 길림청의 인구는 41년(1776) 74,631명, 46년(1781) 114,429명, 48년(1783) 142,220명으로 증가하였다.<sup>27)</sup> 곧 강희 50년부터 건륭 48년까지 약 70년 사이에 길림의 인구는 4배 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건륭 중엽부터 가경 연간의 40~50년 사이 길림지구의 인구가 5배나 증가하였다는 또 다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이상의 숫자가 당시의 실제상황이 온전하게 반영된 통계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대 중엽 이후 길림지구의 인구변화와 관련한 각종 통계는, 외견상 봉금령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되던 기간에도 길림지구의 인구가 부단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통계대로라면 강희 50년(1711)부터 건륭 36년(1771)까지 길림의 민인은 연평균 190명가량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봉금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건륭 36년부터 48년(1783)까지는 연평균 8,147명이 증가하였다.<sup>29)</sup> 이는 그 이전 60년(1711~1771)의 연평균 증가수의 약 50배 가량에 이르는 놀라운 수치이다. 늘어난 길림지구의 인구에는 물론 자연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길림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봉금정책이 강하게 집행되던 시기임에도 길림지구로의 이주자가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26) (清)長順 修·李桂林 纂, 1986, 『吉林通志』(吉林文史出版社影印本) 卷28, 食貨志一, 戶口, 498쪽

27) 王振科, 1982, 앞의 글, 47쪽; 孔經緯 主編, 1990, 앞의 책, 155~156쪽

28) (清)長順 修·李桂林 纂, 1986, 앞의 책, 498쪽; 何一民, 2010, 앞의 글, 12쪽

29) 趙中學, 1974, 「近代東三省移民問題之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四期, 614쪽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지역의 노동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내로부터 유입된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그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 길림지구의 경작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개인에 의해 개간된 황무지는 3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개간지가 늘어날수록 청조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이 증대되는 것이다. 요동지역에 비해 개간의 시작이 늦기는 하였지만, 옹정 14년(1736) 길림의 과세대상 토지와 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작지의 면적이 이미 653,603畝에 달하였다.<sup>30)</sup> 이주와 개발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가경 연간에 이르러 길림지구로 유입된 이주민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sup>31)</sup> 특히 이 기간 寧古塔·伯都訥(夫餘)·三姓(依蘭) 등지에 비해 길림지구의 개간지가 면적이나 증가율 등에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길림지구로 유입된 이주민이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개발의 성과 또한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곧 봉금령이 강력하게 집행되던 시기임에도 길림지구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숫자는 갈수록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황무지가 개간되어 농업생산의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농업생산에 두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주민의 증가와 경작지의 확대는 길림지구의 발전에 기초적인 조건을 제공하였다.

30) 『盛京通志』卷37

31) 『吉林外記』卷7

### III. 邊防의 강화와 길림지구 공상업의 발전

19세기 후반 중국은 심각한 변강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런 위기상황을 초래한 요인은 정치의 부패, 통치자의 무능, 경제의 쇠퇴, 군사력의 약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였다. 적절한 인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강지구가 황폐하고, 그 틈을 노린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 가속화된 것 또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sup>32)</sup> 당시 중국이 처한 변강위기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동시에 서북과 동북을 향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던 러시아였다.

명 승정 16년(1643) 일단의 원정대가 精奇里江 일대에 침입한 이래 호시탐탐 중국 영토로의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는,<sup>33)</sup> 19세기 초 이미 外興安嶺을 넘어 중국 동북부 깊숙이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러시아는 중국 동북 변강지역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사정을 간파하고 있었다.<sup>34)</sup> 러시아는 무장이민을 통해 강제로 중국의 영토를 침점하여 기정사실화한 뒤, 중국을 강박하여 愛琿條約·天津條約·北京條約 등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중국의 동북 영토를 강탈하였다.

청대 말엽 변강의 위기가 심화되는데다 관내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인구와 토지분배의 균형이 맞지 않고, 이는 농민반란으로 연결되었으며, 반란을 진압하느라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아울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북의 관병이 내지로 이동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邊防이 더욱 허술해져 외부의 침입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전개되었다.<sup>35)</sup>

32) 童元秀, 2004, 「試論近代移民對鞏固中國邊疆的作用」, 『黃岡職業技術學院學報』第6卷 第2期, 7~8쪽

33) 吳相湘, 1954, 『俄帝侵略中國史』, 正中書局, 23쪽

34) 馬玉良·孔艷波, 2005, 앞의 글, 56쪽

35) 馬平安, 1999, 앞의 글, 37쪽. 1852년부터 1857년까지 5년간 길림과 흑룡강의 관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세력이 동북지구에 미치기 시작한 외재적 요인 외에도, 경제생활 방식의 변화도 봉금 철폐 등 청조 변강정책의 변화를 불러온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청조 전기까지만 해도 자연자원은 풍부하나 미개발 상태에 놓여 있던 동북지구의 경제형태는 어로와 수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순치와 강희 연간 초강정책이 시행되어 앞선 기술과 문화를 지닌 관내의 漢人이 다수 이 지역에 몰려든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봉금령이 집행되던 시기에도 여전히 漢人의 관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북지구의 경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봉금정책을 고집하여서는 개발의 쟁결음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사회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봉금정책은,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인구 과잉과 토지겸병으로 나타난 부정적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내외의 객관적인 환경변화는 청조로 하여금 부득불 기존의 봉금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sup>36)</sup> 이 무렵 러시아는 愛琿조약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여러 차례 청조에 송화강을 개방하고 러시아 선박의 자유통항과 연안에서의 무역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37)</sup>

병 13,000여 명이 반란 진압을 위한 필요에서 내지로 이동하였다.

36) 范立君·許風梅, 2008, 「清末吉林省の開禁與移民」,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8쪽

37) 刁書仁, 1995, 「清代吉林·盛京圍場開放述略」, 『明清東北史研究論集』, 149쪽. 愛琿條約과 北京條約을 통해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탈취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에서 새로운 식량자원의 공급지를 개척하고자 송화강 유역으로 진출을 획책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전부터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송화강의 수운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러시아는 송화강 항행권의 획득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였다. 함풍 7년(1857)부터 동치 9년(1870)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10여 차례나 송화강에 불법으로 진입하여 밀무역을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후 5차례 원정대를 파견하여 三姓·呼蘭·吉林 등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세기 90년대에 접어들어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착수하였다. 철도 건설에 동원된 다수의 노동인력과 원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날로 심화되는 변강위기에 자극받아 관내로부터 이주자를 받아들여 동북 각지에 널려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1860년 청조는 길림의 일부 지구에 대한 閉禁과 招墾을 명하여 본격적인 '移民實邊'의 시작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sup>38)</sup> 다음 해 길림장군 景淳은 길림지구 관유황무지 개방을 중앙에 요청하였다.<sup>39)</sup> 동치 2년(1863) 관내의 빈곤한 농민과 노동자들을 초모하여 길림 서부지역에서 8만여 무에 이르는 황무지에 대한 개간작업이 진행되었다.<sup>40)</sup> 마침내 관내 漢人의 대규모 동북이민의 길이 열리고 길림지구의 농업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광서 초년, 동북의 형세가 갈수록 긴장되자 청조는 邊防을 강화하기 위해 길림지구에 대한 초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위기감을 느낀 일부 식자들은 “오늘날 동삼성의 방무가 가장 시급하며, 동삼성에서도 길림의 방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sup>41)</sup>며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광서 4년(1878) 청조는 길림장군 銘安의 주청을 수용하여 이민장려책을 실행하고 한족 부녀자의 관외 진출을 금지하던 법령을 폐지하였다.<sup>42)</sup> 아울러 銘安은 이주민의 개간사업을 지도하고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墾務局 설립을 주도하였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이 여러 차례 송화강에 출몰하여 불법무역을 행하였다.

38) 佟冬 主編, 2006, 앞의 책, 158쪽

39) 衣保中, 1993, 『中國東北農業史』, 吉林文史出版社, 303쪽; 馬玉良·孔艷波, 2005, 앞의 글, 57쪽

40) 許淑明, 1990, 「清代東北地區土地開墾述略」, 『清代邊疆開發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1쪽

41) 『清德宗實錄』(中華書局影印本) 卷37

42) 王先謙 纂輯, 1963, 『光緒朝東華錄』(文海出版社影印本) 第一冊, 695쪽. 한족 부녀자의 出關을 허용하기 전까지 동북이주자는 대부분 20~40세 홀몸의 청장년이였다. 그러나 이후 노인과 어린이 및 부녀자들이 이민대열에 합류하여 그간 불합리하던 동북의 성별, 연령대 인구구성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봉금을 부분적으로 해제하였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이민의 규모가 작고 개발의 성과도 더디었다. 반면 러시아의 침략야욕은 더욱 노골화하였다. 이에 청조는 광서 6년(1880) 吳大澂을 파견하여 銘安과 함께 동북의 방무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吉林省城에 도착한 오대징은 이민을 통한 변경지역의 개발이야말로 변방을 충실히 하는 요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였다.<sup>43)</sup> 그는 특히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으나 노동력이 부족하여 개간이 이루어지지 못한 길림지구의 개발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현지조사를 마친 오대징은 길림 변강에 대한 봉금지책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이민실변정책을 추진할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다.<sup>44)</sup> 이에 근거하여 청조는 放荒·免稅·補助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장려책을 내놓았다.<sup>45)</sup> 정책의 변화는 이주희망자들을 유인하는 흡인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장려책이 마련됨에 따라 청말 동북으로 몰려든 광대한 이민인구는 그 규모가 전례 없이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에 힘입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까지 길림지구에서는 이주민의 증가와 개간의 확대라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광서 8년(1882) 오대징은 북경에 거주하는 팔기 200호를 길림으로 이주시켜 屯墾을 시행하고, 생존을 위해 러시아 경내로까지 흘러 들어간 궁민들도 길림지구로 초치하여 경작의 기회를 줄 것을 청하였다. 오대징의 건의가 실행되

43)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 第三卷, 24쪽

44) 『清德宗實錄』(中華書局影印本) 卷114

45) 東北文化社 編, 1931, 『東北年鑑』(下), 1265쪽.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작가능지는 매 100무당 4串으로 민간에 불하하되 1인당 매입한도는 1,000 무로 한다. 땅을 경작하고 싶으나 매입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매 100무당 地租 600文을 납부하도록 한다. 둘째, 관유항무지를 민간에 불하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처음 5년은 면세로 하며 생산기초가 공고히 된 뒤에는 매 100무당 660문을 납부토록 한다. 수천 무 이상을 개간한 자는 약간년의 납조기간이 지나면(경지의 다과에 따라 연한의 장단을 정한다) 개인소유를 인정한다. 셋째, 남우수리지방은 환경이 열악하여 개간하려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조세를 면해 주고 매호당 보조비 32兩을 제공한다.

고 후속조치가 연달아 취해지면서 19세기 90년대 길림지구에서는 광대한 황무지가 옥토로 개간되는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sup>46)</sup>

이민실변의 추진과정에서 길림지구의 개발에 투입된 인원은 주로 산동과 요동반도 남부에서 생활하고 있던 빈곤한 농민들이었다. 耕牛를 비롯한 생산 도구를 공급받고 제도적·물적 뒷받침에 힘입은 개간민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여 수년 사이에 광대한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는 데 성공하였다.<sup>47)</sup>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도 길림 각지의 관유황무지를 민간에 불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주와 개간을 적극 유도한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 노동력의 확대에 힘입어 광서 20년(1894) 현재 길림지구에서는 1,379만 무의 관유황무지에 대한 개간이 완료되었다.<sup>48)</sup>

200년 동안 고수하던 봉금정책이 완화된 것은 정치의 부패, 경제의 파괴, 잦은 천재와 민란으로 인한 빈민의 증가라는 당시 중국 내부의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동북지역에 대한 러시아와 일본을 위시한 열강의 노골적인 침략야욕 증대라는 외재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sup>49)</sup> 네르친스크조약 체결 후 약 2세기 가까이 비교적 평온하였던 만주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19세기 중반, 청조는 만주의 안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였고,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민실변’이었다.<sup>50)</sup> 곧 19세기 중엽 이후 동북 이주자의 증가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려는 청조가 일부지역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고, 다수의 이주민을 흡수하여 변강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데서 그 배경을

46) 『吉林通志』 第31卷 上

47) 徐世昌, 1965, 『東三省政略』(文海出版社影印本), 242쪽

48) 『吉林通志』 第31卷 上; 董學增·翟立緯, 1986, 『吉林市沿革與大事』, 吉林人民出版社, 66쪽

49)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409쪽

50) 馬汝珩·馬大正 主編, 1994, 앞의 책, 95~96, 102~103쪽. 강희 이래 청조는 러시아의 침입에 대비하여 동북지역의 팔기군을 계속 증가시키는 ‘屯田戍邊’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어 건륭·가경·도광 연간에는 관내의 일부 팔기를 관외로 移駐시키는 ‘移京旗實邊’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날로 심각해가는 러시아의 동북진출과 영토잠식에 위기감을 느낀 청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대징을 길림지구에 파견하여 길림장군 銘安과 함께 동북의 방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오대징이 길림에 도착하기 전, 변강의 요충인데도 길림에는 아직 邊防을 전담하는 정규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길림지구의 기존 군대는 八旗와 練軍에 불과하였다. 寧古塔·三姓·伯都訥 등지에 주재하는 부도통이 관할하는 팔기병력의 대부분은 부도통아문 소재지에 주둔하였고, 변방의 요새를 지키는 팔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는 자연 변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길림지방의 練軍은 1860년대에 건립되었다. 관내 곳곳에서 대소 규모의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한 영향으로 이 무렵 길림지구의 상황도 매우 어지러웠다. 이에 길림장군 富明阿는 동치 6년(1867) 당시 동북지방에 횡행하던 마적 소탕을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연군 창설을 주청하였다.<sup>51)</sup> 오대징은 1880년 말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길림성성에 4개 防軍 13營 총 5,000명을 새로 모집 편제하였다. 다음 해 방군의 규모는 9,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靖邊軍’으로 불렸다. 더불어 오대징은 각지 駐防軍의 무기와 장비를 모두 신식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였다. 방군을 편제훈련하고 武備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오대징은 백은 8만 냥을 들여 대포 24문, 각종 소총 8천 자루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길림의 방군도 모두 ‘洋槍’과 ‘洋砲’로 무장하였다.

동북 각지에 주둔하는 병력이 증가하고 이들이 신식무기로 무장하면서 탄약과 소형 무기의 원활한 공급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오대징은 각 방면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광서 7년(1881) 길림성성에 기기국을 창설할 것을 건의하였다.<sup>52)</sup> 주청이 있는 지 18일 만에 청조는 신속하게 오대징의 요청을 비준하고 전후 35만 냥을 길림기기국과 요새포대의 건설비용으로 투입하였다. 그

51)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27~28쪽

52) 孟東風, 1994, 앞의 책, 39쪽

러나 내지의 기술자들이 변경에 위치한 길림까지 가기를 꺼려하여 건설과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공장에 배치할 대형 기기와 장비를 운반하는 것도 내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였다.

인적·물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광서 8년(1882) 3월, 길림성성에서 동남쪽으로 8리 떨어진 송화강 북안에 기기국을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다음해 10월 준공되었다. 1단계 공사에서는 총 25만 냥의 경비가 투입되었으며, 19.7만 m<sup>2</sup>의 대지 위에 각종 용도의 건물 227칸(후일 확장을 통해 425칸으로 증가)이 세워지고, 독일·영국·미국 등지에서 구입한 대소 규모의 각종 생산 설비 275대(건)가 비치되었다.<sup>53)</sup>

준공과 동시에 시험생산에 들어간 기기국은 광서 11년(1885)부터 정식생산을 시작하였다. 광서 12년(1886) 여름 첫 번째 확장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기국은 송화강 남안에 화약창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길림기기국은 대포제작, 탄약제조, 소총제작 등 크게 3부분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이 가운데 탄약제조에 생산의 중심을 두었다. 길림기기국에서 생산된 무기와 탄약은 주로 길림 변방군-靖邊軍-에 공급되었다.

길림기기국의 필요경비는 매년 호부로부터 은 10만 냥을 지원받아 충당하였다. 광서 21년(1891)부터는 흑룡강변방군에도 탄약이 공급되었고,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연군에도 소량의 탄약을 공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매년 4~5천 냥의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 운영과 생산에 단 한 명의 서양인도 쓰지 않고 모든 업무를 중국인이 전담한 것이 길림기기국의 특징이었다.<sup>54)</sup> 따라서 처음 개설 당시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천진기기국 提調 출신의 宋春鰲가 10년 이상이나 기기국의 운영을 도맡았다.

동북의 변방을 강화하고, 변방군의 군수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건립된 길림 기기국은 공장의 규모,<sup>55)</sup> 설비, 생산량, 노동력의 자질 등 모든 면에서 양무은

53)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100쪽

54) 王爾敏, 1978, 『清季兵工業의 興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18쪽

55) 佟冬 主編, 2006, 앞의 책, 132~133쪽. 1883년 완공 후 길림기기국은 1886년, 1890년, 1894년, 1896년 등에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길림기기국의 규

동 시기 동북에 건설된 대표적인 근대적 官辦 군수공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관내에 맨 처음 건설된 安慶軍械所보다는 비록 건설이 20년 늦었지만, 길림기 기국은 동북의 변방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또한 길림기국이 도입한 새로운 생산방식과 높은 생산력은 길림지구 내지는 동북 전체 산업의 근대화 과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길림기국은 관리권과 인사권이 정부의 손에 장악된데다 필요한 경비도 정부에 의지하는 관관 군수기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결국 광서 26년(1896) 말부터는 군수품 생산을 중단하고 정식으로 銀元廠으로 바뀌어 銀元만 생산하게 되었다.<sup>56)</sup> 1900년 의화단운동을 틈타 동북을 침점한 러시아군에 의해 길림기국은 심각한 파고를 당하였다.<sup>57)</sup> 이후 10년이 지나 서야 생산을 회복한 길림기국은 ‘吉林機械專局’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차 탄약생산과 총포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

청조는 만주족의 중국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치·군사·교육 등 모든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영향으로 이 무렵 동북에서도 관관 혹은 관상합관의 근대적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 길림지구에 출현한 다수의 근대적 공상기업은 종래 군사·정치 도시의 성격이 강하였던 길림을 동북의 공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용을 하였다.<sup>58)</sup> 청말 길림을 기반으로 출발한 다수의 기업들은 관내 각지에서 근대적 상공업이 발전한데 자극받아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길림지구에서 근대적 기업이 출현한 것은 관내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길림지구 공업발전의 속도와 성과는 관내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었다. 이런 평가는 길림의 경제발전과 민지개발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였다.

모는 양무운동 시기 관내에 건설된 대표적 군사공업시설인 福州船政局·江南製造總局·天津機器局에 비하면 중등규모의 근대적 기업 수준이었다.

56) 孫乃民 主編, 2008, 앞의 책, 102~103쪽

57) 佟冬 主編, 2006, 앞의 책, 290쪽

58) 孔經緯 主編, 1990, 앞의 책, 419~420쪽

#### IV. 開埠와 길림지구의 변화

근대 길림지구의 변모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 開埠를 들 수 있다. 남경조약의 규정에 따라 上海를 비롯한 다섯 항구가 대외무역항으로 개방된 것이 개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20세기 초엽까지 연해지역은 물론이고 내지의 도시들까지 포함하여 관내외에서 100여 곳이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sup>59)</sup> 이들 개항장은 대부분이 아편이나 염가의 공산품을 비롯한 외국상품의 수입항으로, 농·광산품과 저가 수공업품의 수출항으로서 기능하며 이권침탈의 교두보로 작용하였다.<sup>60)</sup> 이런 점에서 개항이 당시 중국의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개항장은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서구의 앞선 문물이 중국에 수입되고 전파되는 중개기지이기도 하였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아편전쟁 이후 청일전쟁 무렵까지 개방된 곳은 대부분 외국과의 조약규정에 따라 타의에 따라 개방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청일전쟁 이후, 특히 1898년부터 청이 멸망할 때까지 12년 사이에 개방된 곳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 자발적으로 개방을 결정한 곳이다.<sup>61)</sup>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내외 여러 곳, 특히 동삼성의 개방을 결정한 것은 당시 동북아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친 데 영향받은 것이다.

본격적으로 세력확장을 꾀한 열강의 압력에 따라 중국은 19세기 중엽 이후

59) 張玉法, 1986, 『中國近代現代史』, 東華書局, 93~96쪽; 徐柳凡, 1996, 「清末民初自開商埠探析」, 『南開學報』 第5期, 20쪽. 개항장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의 규정에 따라 개항이 결정된 곳이다. 둘째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곳이다.

60) 費成康, 1991, 『中國租界史』, 上海社會科學院, 10~22쪽 참조.

61) 楊天宏, 1998, 「清季東北'自開商埠'述論」, 『長白學刊』 1期, 93쪽. 이 기간 중에 52곳이 새롭게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그중에서도 40곳은 1904년 이후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방되었다. 특히 동삼성의 개항장 16곳은 모두 1905년 이후 개방이 결정되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항구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문호개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열강은 항만을 조차하고 세력범위를 획정하는 등 중국을 瓜分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 청조는 각국의 세력범위를 타파하고 열강 간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과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동시에 상업상으로도 외국 세력과 경쟁하려는 의도에서 대대적으로 상부를 개방하였다.<sup>62)</sup> 그 연장선상에서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길림을 위시한 동북 각지의 중요 도시들의 개부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봉금령이 해제되고 이민실변으로 청조의 정책이 바뀌면서 동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규모 이주민이 유입되고 이들을 통해 대대적인 개간과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 19세기 70년대 동북지역은 신속하게 동북아의 중요한 농산물 수출기지이자 임·광업의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한편 1861년 동북에서는 최초로 營口가 대외무역항으로 개방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세력이 본격적으로 동북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동북지구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자리하였다.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는 원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일본은 조선을 발판삼아 동북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대륙정책을 전개하였다. 한편 동북을 상품시장이자 원료공급지로 눈독들인 다른 열강은 특정국가가 동북지역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sup>63)</sup>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북의 중요 도시를 개방하도록 중국을 압박하였다.

동북아 국제환경이 격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와중에 의화단사건이 발

62) 張玉法, 1982, 『中國現代化的區域研究－山東省』,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71쪽

63) 衣保中, 2007, 「清末東北地區商埠的開闢與區域經濟的近代化」, 『北方文物』第2期, 79쪽. 러시아는 열강의 경제세력이 동북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 동북의 개방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나 영국·일본·미국 등 각국은 러시아의 독점기도에 맞서 동북 곳곳에 商埠를 개방하도록 연합전선을 펼쳤다.

생하였다. 이를 틈타 러시아는 동삼성 중요 거점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장기주둔의 태세를 갖추었다. 러시아군의 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담판이 벌어지고 있던 1901년 3월 21일, 호광총독 張之洞은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楊儒에게 중국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삼성 전역을 개방하지는 것이었다.<sup>64)</sup> 그러면 중국은 세금을 거두어들이 수 있고, 개방의 의향을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에 몰래 알리고 실력으로 중국을 도울 교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02년 4월 8일 중국과 러시아는 4개항의 ‘東三省撤兵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핵심은 향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 차례로 나누어 동북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중국은 이전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협정의 실효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sup>65)</sup> 그러나 러시아는 철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2기 철군의 최후기한이 지난 다음 해 4월 18일 청조에 철군의 교환조건으로 7개항의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였다. 그 세 번째 조항이 “러시아에 사전 통보 없이 이후 동삼성에서 새로운 商埠를 개방하거나 외국영사관을 설치할 수 없다”<sup>66)</sup>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의 무리한 요구는 즉각 청조와 열강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주중일본공사는 구두와 서면으로 절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하였다.<sup>67)</sup> 마침 이 무렵 청조와 새로운 통상조약 체결교섭을 벌이고 있던 미국도 러시아 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하였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러시아는 동북주둔군을 철수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동북을 개방하지는 장지동의 건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sup>68)</sup>

64) 趙德馨 主編, 2008, 『張之洞全集』第11冊, 武漢出版社, 237쪽

65) 郭廷以, 1987, 『近代中國史事日誌』, 中華書局, 1161쪽

66) 梁爲楫 主編, 1993, 『中國近代不平等條約選編與介紹』, 中國廣播電視出版社, 462쪽

67) 王芸生, 1980, 『六十年來中國與日本』, 三聯書局, 160쪽

68) 러시아군의 철수로 동북 개방논의는 일단 중단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세력이 중국 동북지역을 독점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 열강은 러시아군이 철수한 뒤로도 동북 지구의 개방을 거듭 촉구하였다. 만일 동북이 개방되면 미국 등 여타 열강도 자유

1903년 9월 商約大臣 呂海寰은 개항장으로 개방이 가능한 곳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각 지방당국에 지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개방 가능한 지역을 즉각 개방할 것을 주청하였다.<sup>69)</sup> 청조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장지동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북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sup>70)</sup> 장지동은 동북에서 러시아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열강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마침 이 무렵 중국은 10월 8일 미국과 17조에 이르는 ‘中美續訂通商行船條約’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일본과는 ‘中日通商行船條約’ 13조를 잇따라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은 奉天·大東溝·安東 등 동북지구의 세 곳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sup>71)</sup> 소식을 접한 장지동은 재차 외무부에 전보를 보내 “조약규정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商埠를 개방하여 각국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sup>72)</sup>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북개방에 대한 장지동의 주장이야말로 당시 청조 동북 변경정책의 기본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의 발발로 장지동의 주장이 또다시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동북을 무대로 전개된 전쟁은 동북 개방논의를 재점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찍부터 개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여해환은, 동삼성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재확인하고, 동북의 이익이 어느 한 나라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개방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였다. 조정의 명에 따라 현지에 파견되어 동삼성의 형세를 전면적으로 고찰한 徐世昌도 러·일 두 나라가 동북을 과점하는 현상을 막고, 세수를 증대하며 民智를 啓發하기 위한 필요에서 동북을 개방할 것을 역설하였다.<sup>73)</sup> 주미공사 梁誠과 산둥순무 孫寶琦 등이 같

롭게 동북에 진출하여 러시아와 각축을 벌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69) 沈雲龍 主編, 1974, 『近代中國史料叢刊』 第3編 58輯, 文海出版社, 341쪽

70) 臺灣銀行經濟研究室 編輯, 1997,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選輯』, 臺灣銀行, 376쪽

71) 王鐵崖 編, 1957, 『中外舊約章匯編』 第2冊, 三聯書店, 187쪽

72) 沈雲龍 主編, 1974, 앞의 책, 387쪽

73) 徐世昌, 1965, 앞의 책, 536쪽

은 주장을 개진하였으며, 신문과 잡지에서도 동북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화답하였다.

정치와 재정 등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청조의 처지에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러·일의 동북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러·일의 동북진출에 속수무책인 청조의 입장에서는 동북을 개방하고 열강 간 각축과 세력균형을 통해 동북에서의 주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간주되었다. 동삼성 개방은 오랜만에 조야의 의견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화두였다.

러일전쟁 후인 1905년 12월 22일, 일본은 청조를 강박하여 ‘中日東三省事宜條約’의 ‘正約’ 3조와 ‘附約’ 12조를 체결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 군대가 철수한 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북의 16곳을 개방한다”<sup>74)</sup>는 부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길림성성도 상부지에 포함되었다.

개부의 원칙만 정해졌을 뿐인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商埠地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였다. 이는 필요한 經費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길림지구는 內地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내지의 여러 곳에서도 경비부족으로 상부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비추어 많은 재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부터 외국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상부지 내 제반사업과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이 사업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길림상부지 개발은 ‘官辦’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商埠局을 설립하고 地界를 확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진 다음 상부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길림성성은 송화강 북안에 위치하여 남쪽과 동남쪽으로는 개발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서쪽으로는 야트막하기는 하지만 산으로 가로막혀 역시 개발의 여지

74) 梁爲楫 主編, 1993, 앞의 책, 559~560쪽. 당시 개방이 결정된 곳은 봉천성 6곳, 길림성 6곳, 흑룡강성 4곳이었다.

가 없는 형편이었다. 길림성성 주변의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결국 성 동북쪽 錢家屯 일대가 상부지로 정해지게 되었다.<sup>75)</sup> 이렇게 하여 정해진 길림성성 상부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으로는 후일 길림역이 들어서게 되는 길장철도용지까지, 서로는 성성 북쪽까지, 남으로는 송화강변에서 북으로는 蓮花泡 산록까지 동서로 0.5~1.5km, 남북으로 1~2.5km, 사방 7.5km에 총면적이 4.5km<sup>2</sup>에 달하였다.<sup>76)</sup>

상부지의 범위는 정해졌지만 향후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부지 범위 내 민간의 토지를 상부공사에서 통일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설령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해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를 제때에 마련하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을 것이었다. 관건은 경비 마련이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당시 길림의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상부지 범위까지 확정하였지만 경비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수 무책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동삼성총독 錫良, 길림순무 陳昭常은 濟南 등 관내 몇 곳<sup>77)</sup>의 예에 따라 상부지가 예정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탁지부에서 길림성성개부국에 3년에 걸쳐 100만 냥의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78)</sup> 후일 상부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세수가 있게 되면 중앙에서 지원한 경비를 갚아 나가겠다는 것이 두 사람의 의견이었다. 이들의 주청이 조정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었고,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경비마련에 슝통이 트이자 길림상부국은 관내 여러 개항장의 예를 참고 ‘吉

75) 徐世昌, 1963, 『退耕堂政書』(文海出版社影印本) 卷5, 332쪽

76) 編輯委員會 編, 1995, 『清代民國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文史出版社, 227쪽

77) 張玉法, 1982, 앞의 책, 171~173쪽; 王中茂, 2001, 「1905年所開東北16處商埠是自開商埠嗎?」, 『洛陽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9卷 第2期, 26쪽

78) (清)王彥威 輯, 王亮 編, 王敬立 校, 1933, 『清宣統朝外交史料』(北平排印本) 卷16, 6~9쪽

林商埠租建章程’을 마련하여 외무부의 비준을 받았다. 여기에는 국내의 상인들에게 임대할 토지의 등급과 임대료, 임대방식, 임대기한, 관리방식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sup>79)</sup> 길림성성은 비록 ‘中日東三省事宜條約’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개방과 운영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중국 측이 주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자발적인 개방’의 원뜻에 맞게 상부지의 선택이나 장정제도의 마련 과정에 철저하게 외국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런 원칙에 따라 길림상부지 내의 경찰, 위생, 의료, 검역, 도로, 수도, 전기, 우정 등 일체의 공익사업은 상부국의 소관업무로 획정하였다.

재원과 장정이 마련되어 이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부국에서 영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상부규획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지방관들의 무능과 건설자금 유용 등 비리가 계속 발생하여 건설작업이 매우 늦어지게 되었다.<sup>80)</sup> 그 결과 길림성성은 1907년 1월 14일야야 정식으로 개방될 수 있었다. 비록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하였지만 개방의 결정에서 실행까지 1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동북에서 가장 먼저 개방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길림성성이 지금까지 동북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역할하여 개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작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鄉紳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였던 관내 일부 지역과는 달리 길림지구에는 향신을 위시한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없었던 것도 개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이었다.<sup>81)</sup>

개부는 길림지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져왔다. 먼저 개부로 인하여 길림지구에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는 아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주민의 증가를 통한 생산력수준의 실제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길

79) 『清代民國吉林檔案史料選編』, 238~241쪽

80) 佟冬 主編, 2006, 앞의 책, 621쪽

81) 張朋園, 1983, 『中國現代化的區域研究－湖南省, 1860~191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10~111쪽

림성성이 상부지로 개방된 것은 길림지구에 대한 봉금이 완전히 해제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런 상징성에 더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길림지구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up>82)</sup> 그리하여 이전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자원의 비율이 극도로 부조화를 이루었던 현상이 크게 개선되었다.

둘째, 개부 이후 인구 유입의 가속화로 노동력이 증대되고, 노동력 증대는 자연 경지면적의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당국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농업경영에 주목하면서 농무총회, 농사시험장을 비롯한 농업생산 발전의 기틀이 될 근대적 기술과 시설이 속속 등장하였다. 농업생산기술의 근대화는 생산량 증가, 품종의 다양화 등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길림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관내 각지로 팔려 나가는 중요 상품이 되었다. 특히 다량의 大豆와 小麥이 해외로 수출되어 동북의 농업생산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일원으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sup>83)</sup>

셋째, 농업생산의 발전, 농산물의 상품화와 수출증대는 길림지구의 상업과 금융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개부 이전인 1902년 길림성 내에는 1천여 개에 이르는 각종 상점이 개업 중이었으며, 1906년에는 商務總會가 설립될 정도로 주변 여타 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전하였다.<sup>84)</sup> 이런 기초 위에 개부라는 호기를 맞아 길림성성의 상업은 더욱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업 발전은 근대적 금융기구의 출현을 가져왔다. 1909년 성립된 吉林永衡官銀錢號가 그것이다. 길림성성에 본점을 두고 장춘과 연길 등 동북지구는 물론 천진과 상해 등지에도 분점을 두었던 이 기구는, 길림성 최대의 관영 금융기구로서 길림지구의 금융발전엔 큰 영향을 미쳤다.

개부가 길림지구엔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지구발전이라

82) 編纂委員會 編, 1992, 『吉林省志』卷5, 人口志, 286쪽; 趙英蘭, 2010, 『清代東北人口社會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4쪽. 1908년 312,206명이던 吉林府의 인구는 2년 뒤 823,627명으로 증가하였다. 동일시기 華甸의 인구는 3,524명에서 61,181명으로, 磐石은 17,090명에서 160,783명으로 증가하였다.

83) 雷慧兒, 1981, 『東北的豆貨貿易(1907~1931年)』, 師範大學歷史研究所, 1~3쪽; 李澍田 主編, 1991,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500쪽

84) 孔經緯 主編, 1994, 『新編中國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03쪽

는 관점에서 볼 때 개부로 인하여 길림은 오히려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물론 이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임이 분명하며, 길림지구의 자체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없다. 길림성성과 동시에 개방되었던 장춘이 지니는 경쟁력이 한발 앞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개부가 결정되면서 길림성성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동시에 개방된 장춘이 지닌 지리와 교통상의 이점으로 인하여 상업과 무역의 중심적인 지위를 장춘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길림성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중심마저 길림에서 장춘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개부라는 한 가지 사실에 전적으로 연유하는 것은 아니고, 장춘이 남만철도와 동청철도의 연결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된 다른 중대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변강의 증진요 동북 역참교통의 중심이라는 길림이 지닌 몇 가지 우월한 조건도 시대가 바뀌면서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북 지구 전역이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세력권에 포함되면서 외국과의 직접교역에 불리한 길림의 지리적 한계는 그대로 지구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길림의 경우, 송화강을 끼고 있어 내륙수운이 발달할 조건은 갖추고 있었으나 연해의 도시와는 달리 외국과의 직접 교역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길림지구와 외지의 교통과 교역은 육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철도 개통은 종래 역참교통의 중심지였던 길림의 우월성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고 말았다.

청대 말엽, 길림지구는 근대적 교통기관인 철도교통의 혜택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동청철도와 남만철도의 교차점에 자리한 장춘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sup>85)</sup> 관내나 외국으로의 상품 수출을 위해서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인 장춘, 대외무역항으로 기능하고 있던 영구나 안동 등지를 통한 화물의 이송이 필연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비록 동북에서 가장 먼저 개방되기는

85) 衣保中, 2007, 앞의 글, 78쪽

하였으나 길림지구는 서양이나 일본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내륙 개항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 IV. 맺음말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혹은 그 정책의 집행이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가 당시의 사회현상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봉금정책은 ‘성스러운 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였을지는 몰라도, 당시의 시대와 사회상황을 거스르는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무시하고 국민의 관외 진출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봉금정책은 자유로운 ‘역내이민’을 방해하고 동북지구의 토지개발과 농업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봉금정책의 집행으로 동북의 경제발전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邊防의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청조 후기 러시아를 필두로 일본까지 거리낌 없이 동북을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은, 청조가 장기간 봉금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제국주의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봉금령이 집행되던 시기임에도 부단히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고 토지개발이 진행되어 17세기 중엽 이후 이미 동북의 정치·군사중심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던 길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그 성격과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된다. 이는 청조가 추진한 ‘이민실변’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개발이 확대된 데 영향받은 바 크다.

광대한 영토를 상실한 뒤로도 변강의 위기가 가시지 않자 청조는 종래 고수하던 ‘虛邊’과 ‘封禁’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험악한 국제정세의 압박 속에 청조는 邊防을 공고히 하고 邊疆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득불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강의 침략을 막고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에서 마침내 봉금을 해제하고 이민실변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청조의 변강정책이 확연히 바뀐 것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關內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의 고려가 작용한 결과였다.

이민실변이 추진되면서 길림지구의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여 경제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민자들은 농업과 수공업 등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길림지구로 전파하여 원래 단일적이고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지구의 생산력 발전에 이바지하고, 동북 변강과 내지의 경제적 차이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경지면적의 신속한 증가, 이에 바탕을 둔 농업생산의 확대로 길림을 위시한 동북지역은 신속하게 중국의 주된 농업생산기지로 변모하였다. 농업생산의 발전과 인구증가는 자연 상업의 변형을 가져왔고, 이에 수반하여 금융업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이민실변이 본격 추진되던 시기는 또한 관내에서 양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이기도 하였다. 그 영향으로 비록 시작은 관내에 비해 늦었지만, 19세기 말엽부터 길림기기를 시작으로 길림지구에는 근대적 공업시설이 속속 등장하였다. 변강의 군사요충인 길림의 특수성과 점증하는 러시아의 침략야욕은, 길림에 동북지구 최초의 근대적 군수공장인 길림기기가 들어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동북에 대한 열강의 침략이 가속화된 것이 길림구에 나타난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새삼 주목된다.

開埠는 길림지구의 변모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이었다. 길림성성이 동북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곳이 동북지구 교통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철도가 개통되기 전 동북지구 교통은 수로는 역참에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강희 연간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지구의 역참이 크게 발전하였고, 건륭과 가경 및 광서 연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노선이 확충되었다. 역참의 교통선에 위치한 여러 마을은 당연히 교통의 요충이자 경제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길림은 영고탑장군의 치소가 옮겨온 이래 동북에서 가장 중요한 역참의 기점이었다. 교통의 요충이자 교통의 편리로 인해 경

제중심으로 자리잡은 길림성성이 맨 먼저 개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관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길림성성도 개부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았다. 길림과 동시에 개방된 장춘이 중동철도와 남만철도의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상의 이점을 등에 업고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에 반비례하여 동북의 지역거점으로서 길림의 위상은 갈수록 낮아지고 말았다. 이후 동북 商埠의 진일보 개방과 철도의 개통으로 내외경제의 연계가 이전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길림지구의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개부와 근대적 교통수단인 철도의 건설은 길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清聖祖實錄』, 華文書局影印本  
 『清高宗實錄』, 華文書局影印本  
 『清世宗實錄』, 華文書局影印本  
 『清德宗實錄』, 華文書局影印本

- 高士奇, 1986, 『扈從東巡日錄』, 吉林文史出版社影印本  
 孔經緯, 1990, 『清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郭廷以, 1987, 『近代中國史事日誌』, 中華書局  
 臺灣銀行經濟研究室 編輯, 1997,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選輯』, 臺灣銀行  
 東北文化社 編, 1931, 『東北年鑑』(下), 東北文化社  
 馬汝珩·馬大正 主編, 1990, 『清代邊疆開發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孟東風, 1994, 『吉林近代史稿』, 吉林文史出版社  
 潘喜廷, 1994, 『東北亞研究－東北近代史研究』, 遼寧人民出版社  
 費成康, 1991, 『中國租界史』, 上海社會科學院  
 徐世昌, 1965, 『東三省政略』, 文海出版社影印本  
 徐世昌, 1963, 『退耕堂政書』, 文海出版社影印本  
 孫乃民 主編, 2008, 『吉林通史』, 吉林人民出版社  
 (清)阿桂·劉謹之 等 撰, 1983, 『盛京通志』, 商務印書館影印本  
 楊賓, 1936, 『柳邊紀略』, 商務印書館影印本  
 吳相湘, 1986, 『俄帝侵略中國史』, 正中書局  
 王芸生, 1980, 『六十年來中國與日本』, 三聯書局  
 王爾敏, 1978, 『清季兵工業的興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衣保中, 1993, 『中國東北農業史』, 吉林文史出版社  
 衣興國, 1994, 『東北近三百年土地開發史』, 吉林文史出版社  
 李澍田 主編, 1993,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林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 2002, 『吉林市志』, 吉林人民出版社  
 (清)長順 修·李桂林 纂, 『吉林通志』, 吉林文史出版社影印本  
 張朋園, 1983, 『中國現代化的區域研究－湖南省』,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張玉法, 1986, 『中國近代現代史』, 東華書局

- 張玉法, 1982, 『中國現代化的區域研究－山東省』,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趙德馨 主編, 2008, 『張之洞全集』第11冊, 武漢出版社
- 佟冬 主編, 2006,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 編輯委員會 編, 1995, 『清代民國吉林檔案史料選編』, 吉林文史出版社
- 曲曉范·李保安, 2001, 「清末民初東北城市近代化運動與區域城市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
- 馬平安, 1999, 「清末清廷封禁政策轉變與東北地區的移民實邊」, 『遼寧教育學院學報』第1期
- 費馳, 2010, 「晚清開埠通商與東北城市運動述論」,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 徐柳凡, 1996, 「清末民初自開商埠探析」, 『南開學報』第5期
- 薛洪波, 2005, 「再析清代封禁東北之目的」,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期
- 楊天宏, 1998, 「清季東北'自開商埠'述論」, 『長白學刊』第1期
- 王中茂, 2001, 「1905年所開東北16處商埠是自開商埠嗎?」, 『洛陽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19卷 第2期
- 魏克威, 1998, 「乾嘉道時期的東北經濟」, 『東疆學刊』第15卷 第1期
- 衣保中, 2007, 「清末東北地區商埠的開闢與區域經濟的近代化」, 『北方文物』第2期
- 李澍田·刁書仁, 1984, 「吉林船廠考略」, 『吉林師範學院學報』第三期
- 張杰, 1994, 「試論清前期的東北封禁」, 『社會科學輯刊』第5期
- 張龍, 2009, 「論清代以來東北地區行政沿革及其變化」, 『牡丹江大學學報』第18卷 第2期
- 趙中孚, 1974, 「近代東三省移民問題之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四期

**[ABSTRACT]**Political Change during the Qing Dynasty and  
Socioeconomic Change in the Jilin Region

Kim Youngsin

The Qing Dynasty deployed the Eight Banner troops to Ningguta to strengthen governance over the northeastern region and defense of the border areas. In 1671 the government moved the headquarters of the Ningguta General (C. *Ningguta jiangjun*) to today's Jilin Province. Jilin was chosen as the jurisdiction of the Ningguta General because that place gave advantage in defeating attacks from outside and was also close to the quasi-capital of Fengtian. Subsequently, Jilin became the northeastern strategic point for land and water transportation,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enter and military area for holding back invasion from Russia.

For a long time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eriods of the Qing Dynasty, Jilin was closed to Han people. However, the merger of lands in the Zhongyuan region became more serious as time passed and Han people in the Jilin jurisdiction searching for ways to make a livelihood flooded out of the jurisdiction to make the blockade policy of the Qing Dynasty. As a result, the labor population in the Jilin region increased and the farming area expanded to fulfill basic conditions for development. Such changes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Jilin reg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China encountered serious border

issues. Numerous elements caused this perilous situation. As they faced border issues and a number of difficult issues that accumulated due to the increased population in the jurisdiction, the Qing Dynasty abandoned its policy and had to adopt one of relocating people to border areas to develop those regions. The abolition of the blockade policy that the government had held for 200 years is not unrelated to external reasons, such as the increase of Russian and Japanese ambitions for invasion, in addition to socioeconomic reasons.

#### Keywords

Qing Dynasty, Ningguta, Migration, Open Port, Jilin, Han People, Labor Population

# 길림지역 韓人 정착과정에 보이는 문화적 보존과 변용

- 蛟河市를 중심으로 -

김주용 |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최근 동북지역의 長春과 圖們을 잇는 경계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국제정치의 민감한 지역이기도 한 이곳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관심지역이기도 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러시아와 일본은 중국의 변방인 이곳을 자신들의 침략 중심지로 삼고자 했다. 러일전쟁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미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았듯이 만주지역에 대한 보다 확실한 지배권을 행사하려 했다. 관동주의 성립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에서 대리 지배권을 완벽하게 행사한 것은 1932년 만주국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한인 이주의 패턴도 바뀌게 되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한인 이주는 자울이라는 무대에서 타울이라는 무대로의 이전을 뜻한다. 관동군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만주국은 건국이념을 協和로

※ 투고일: 2012년 5월 14일, 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4일

내세우면서 그 반대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의 기술을 선보였다. 치안숙정이 그것인데 이것은 역으로 ‘안전농촌’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만주사변, 만주국 성립 과정에서 파생된 안전농촌의 설립은 한인에게는 강제성의 또 다른 율타리이기도 하였다. 안전농촌을 세운 일제로서는 ‘치안의 담보’와 수탈의 가속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었지만 정작 농촌의 주역인 이주한인들은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게’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에는 크고 작은 한인 마을들이 만주 전역에 조성되었다. 일제에 의해 강제된 한인들은 해방 이후 연변을 비롯해 중국 동북지역 전역에서 중국 공민인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길림시구의 한 축인 교하지역 이주 한인의 문화적 충격을 통해 나타난 보존과 변용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인 이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sup>1)</sup> 하지만 만주국 성립 이후 추진되었던 한인 이주정책의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연변지역과 길림시구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독립운동의 활동무대였던 교하<sup>2)</sup>의 한인 이주와 현재 교하의 유일한 조선족향인 烏林조선족향의 문화적 보존과 변용에 대한 연구이다. 이 지역의 오림조선족향은 1937년 일제의 집단부락 정책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2,000여 명 정도의 조선족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주지의 현지 적응을 위해 초래된 문화적 변용도 있지만 민족적 색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인(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과 문화적 보존 및 변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생생한 구술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했다. 나아가 생활환경과 주거문화의 특징을 도출하여 한인 이주생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규

- 
- 1) 한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는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일본인 이민 ‘장려’·조선인 이민 ‘통제」, 『아세아문화』 18, 한림대학교 참조.
  - 2)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額穆으로 불렸다. 지금의 역목은 敦化市 역목진이지만 당시 역목은 교하를 일컫는다.

명하려고 한다. 일제 측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거주자의 구술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주 1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생존한 1세대와 2·3세대의 증언을 통해서 韓人 거주지의 특징과 그 지역 변화를 좀 더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보완을 통해 만주지역 이주 한인의 문화적 외연확대와 이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및 국제관계와 타민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지역의 전통적 구조와 이후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족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자신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지키면서 한편으로 중국 공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일정 부분 복원하려 한다.

## II. 吉會線의 부설과 교하

일제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해 병적으로 경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철도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는 침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길회선 부설을 서둘렀던 것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제는 길회선 부설에 앞서 청진과 회령 간 철도부설을 계획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바로 만주로 가는 첩경으로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완성하는 길이었다.<sup>3)</sup> 즉, 해로의 경우, 일본과 청진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개척해야 할 루트이며, 육로에는 철로를 부설하여 간도와 연결, 이를 다시 길림과 연결시켜 상품수송에 필요한 교통망을 완비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부터 철도부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3) 일제는 간도협약에서도 철도부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는 철도의 點과 線을 통하여 대륙침략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間島關係』(開放及調査) 1, 488쪽

1914년 경원선(서울과 원산), 1928년 함경선(원산과 회령, 청진), 1933년 도문선(會寧과 上三峯)이 실현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철도부설 열정은 대륙침략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일제는 청진과 회령, 나아가 길림을 잇는 철도부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식민지 철도부설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청진을 기점으로 한 경편철도공사는 1905년 8월 3일에 청진-수성이 완공되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수성-장항도 완공되었다. 일본군은 전후에도 회령까지 경편철도의 건설을 강행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제2차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주체는 제13사단 공병 제13대대였다. 철도부설을 위해 대량의 침목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부령 부근의 소나무가 소요되었다. 이처럼 일본군은 대한제국의 인력과 물자를 사용하여 '대륙침략의 광케이블'을 놓았던 것이다.

한편 길림-회령 철도부설에 이어 군사적·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회령-청진 간의 철도부설을 일제가 추진한 것은 그들의 '一線 二港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할 수 있다. 한 갈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진항과 다른 하나는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 육군 제19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羅南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통감부 시기 이미 간도지역의 상업상황을 조사하면서 일본 상품의 판매 루트 및 상권 형성과 함께 군사적 대륙침략 루트를 위해 필요한 기간시설의 확충을 계획한 이후 비로소 실현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청진항 개항 이래 지속적인 무역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수입에 비하여 간도의 수출은 저조하였다. 그 원인은 길림의 대화재와 같이 일본의 의도와는 무관한 데에도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무역품의 등가등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청진항은 간도지역의 수출입 무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sup>5)</sup> 1910년 당시 회령과 청진 간의 輕便철도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화물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는 경

4) 金靜美, 1992, 『中國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國民衆史序說』, 現代企劃室, 72쪽

5) 『朝鮮總督府月報』 제1권 1호, 1911, 55쪽

편철도를 기차철도로 개축하여 이를 간도 국자가로 연장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권을 확보하는 첩경이라고 인식하였다.

길회철도 부설은 대러시아 전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만주 침략의 수단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띠고 진행된 사업이었다. 청진과 회령 간의 경편철도와 청진과 국자가(연길) 간의 철도부설, 길림과 돈화 간 철도부설 등을 통해 결국 1933년에 길회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하지만 길회철도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1933년 5월 돈화와 도문을 잇는 철도 개통 축하식 때 항일무장단체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은 길회철도가 침략의 상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길회철도가 부설되면서 교하 역시 철도부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교하는 교통의 요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통팔달의 지리적 원인으로 몇 차례 구역의 확장을 겪게 된다. 다음은 행정구역 상 교하의 변화이다.

1909년 액목현이 설치되었으며, 중화민국 초기에 다시 길림성 연길도 관할이 되었다. 그 후 1929년 동북정무위원회가 성립된 후 도제가 폐지되고 성 직할 현이 설치되었다. 1938년 만주국 시기 보갑제가 폐지되고 가촌제가 실시되면서 額穆縣에 蛟河와 新站 양가가 설치되고 오림 등 16개 촌에 함께 설치되었다.<sup>7)</sup> 그 다음 해 교하현으로 개명되었으며 길림성에 속했다. 1949년 9월 전 현을 16개 구로 나누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烏林朝鮮族鄉의 경우를 보면 오림, 팔가자, 북위자, 조양, 창구, 태평, 남강구, 마창, 고림, 오림구, 상방점, 유가점 등 12개 촌을 거느렸다. 오늘날과 거의 같은 형태의 행정구역이 성립되는 1985년의 오림조선족향은 팔가자, 태평, 우의, 오림, 춘광, 창구, 오림구, 토문자, 유가점, 나권위자 등 10개 촌으로 구성되었다.<sup>8)</sup>

6) 金靜美, 1992, 앞의 책, 260쪽

7)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蛟河縣概況』, 3쪽

8)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위의 책, 7쪽

〈표 1〉 교하 행정일람표

구명	구정부소재	관할 행정촌
城關	蛟河	
新站	新站	신참, 쌍풍, 북안, 대길, 이룡, 보안, 향수, 인하, 애하, 노라령
奶子山	中崗	중강, 건설, 구흙, 산상, 신립, 승리, 공업
烏林	烏林	오림, 팔가자, 북위자, 조양, 창구, 대교구, 남강자, 마창, 고림, 오림구, 상방점, 유가점
黃松甸	黃松甸	전하, 황송전, 김사, 이도하, 백석산, 호림, 덕리, 우수하, 부태합
巴虎	巴虎	파호, 소교하, 석두하, 남황지, 흥농, 관문랍자, 남대, 평강, 정연
青背	青背	청배, 대청배, 이도구 선진, 소얼합, 소남구, 영안, 이안, 송화, 신둔
王家崗	王家崗	왕가강, 방우구, 고산, 서강, 영흥, 사합, 황격, 소지구, 대로하, 포수구, 차배구
池水	池水	보가, 지수, 단결, 우수림, 덕하구, 팔향지, 전자구, 나권구, 서산
拉法	拉法	납법, 황구, 신민, 북대, 애국, 진보, 해청, 향향, 치안, 소고가
龍風	龍風	대안, 부안, 용풍, 장유, 청량, 양어, 육가자, 대령, 민주, 석문, 보산, 쌍정자
退專	退專	대부하, 삼하, 단산자, 평지구, 의기강자, 태양, 액륙혁, 쌍성, 신발, 팔리보, 퇴전
天崗	天崗	쌍의, 태평, 천강, 칠도구, 오도구, 오가자, 협봉구, 과집구, 보림, 흥성, 육도하, 대라권구, 영풍, 양가자
天南	中興	중흥, 신개하, 화평, 부강, 해방, 육림, 양목구, 대해량, 오조, 요령, 서차구
天北	龍家	사하자, 사도구, 경풍, 고태구, 우가, 횡도하, 부강, 보건, 노동, 광영
橫道子	橫道子	화피전자, 횡도자, 타령구, 신발, 한충구

\*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蛟河縣概況』, 4~5쪽

### III. 안전농촌 설치와 교하

안전농촌은 일제가 만주국 성립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 설립한 계획적 마을이다. 안전농촌의 설립은 이후 집단부락의 설립과 연결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농촌 설립계획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던 것이다.

만주국은 각기 다른 민족의 융합과 협동을 건국이념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만주사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한인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와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한인 피난민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정책이 안전농촌의 설립이었다.

그렇다면 일제가 안전농촌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만주사변’으로 인하여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이주한인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9)</sup>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奉天北大營 주둔군이 각지로 흩어졌고<sup>10)</sup> 이로 인해 이주한인 마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즉, 관동군에게 패한 중국군들은 한인 마을에 들어가 약탈, 방화, 강간 등의 만행을 자행하였다. ‘치안’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한인들은 수확기의 농작물을 그대로 둔 채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봉천, 무순, 본계, 해룡, 안동, 영구, 장춘, 하얼빈 등지로 이동하였으며, 1932년 1월 초에 이미 그 수가 19,300여 명에 이르렀다.<sup>11)</sup>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주 각지

9) 손춘일, 2001,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하)』, 길림인민출판사, 296쪽

10) 孫邦, 1991, 『9.18事變資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276~281쪽. ‘만주사변’ 당시 북대영 군사대 대장을 맡고 있었던 李樹桂는 일본군의 침입 상황과 중국군의 퇴각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8일 10시 20분 유조구 방면에서 큰 굉음이 발생하였으며 일본군이 바로 북대영을 침습하자 이에 북대영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동대영으로 퇴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하여 일본군 침입에 따른 중국군의 일방적인 퇴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1)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473쪽. 林元根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만주지역 답사를 통해 이주한인의 실상과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을 알렸다. 1932년 말 그는 심양(봉천)의 피

의 피난 이주한인 문제는 일제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대두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으로 발생한 많은 이주한인 피난민에 대하여 외무성과 합동으로 직접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sup>12)</sup>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치안 확보에 있었다. 만주지역은 한국 독립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만큼 항일무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다. 일본 정부는 만주국을 건립한 이후 무엇보다도 '치안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정상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는 관동군으로 하여금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한편 만주국군을 창설하여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한인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다.<sup>13)</sup> 일제는 강압적인 인상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한인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한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전농촌을 그 대안으로 삼았다.<sup>14)</sup> 그러나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치안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봉계군벌 馬占山 등이 조직한 의용군, 구국군의 활동과<sup>15)</sup>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 산하 기관들의 조직적인 항일투쟁은 만주국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확립과 그들이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던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또한 일제는 잠재적 저항집단으로 여겼던 이주한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sup>16)</sup>

'안전한 지대(safety zone)'로 이동하던 이주한인에 대한 처리문제로 골몰하던 일제는 '독립군의 보급창고'라고 할 수 있는 한인사회를 직접적으로 통제·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농촌을 설립하게 되었다.<sup>17)</sup> 만주로의 이주 초

난 이주한인에 대하여 '5전짜리 인생'이라고 묘사하였다. 林元根, 1933,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三千里』 제5권 1호, 56쪽

12) 만주사변 직후 일제는 여비와 주거비용 등을 합해 가구당 100원 정도의 구제비를 책정하였다.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앞의 책, 473~475쪽

13) 『滿洲國軍』, 1970, 蘭星會, 402~404쪽

14)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앞의 책, 251·556쪽

15) 봉계군벌의 역사는 1912년 북양정부 임시대총통 원세개가 장작림을 육군 제27사단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면서 1928년까지 지속되고 이후 장학량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胡玉海, 『奉系軍史』, 遼海出版社, 1~2쪽

16)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앞의 책, 556~557쪽

17)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三源浦農場ニ關スル件」(국사편찬

기부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독립군과 한인사회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자보급과 인적 자원 지원 과정에서 크고 작은 파열음도 발생하였지만 그 유기적 관계는 지속되었다. 일제로서는 항일부대와 한인사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하였으며,<sup>18)</sup> 이를 통해 독립군세력의 약화와 한인사회의 통제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안전농촌의 설립 요건과 연결하면 좀 더 자명해진다. 안전농촌의 경우 토지 선정요건으로 치안문제가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sup>19)</sup>

다음으로 각 민족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주한인은 만주지역에서 주로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활안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항상 水田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수전 가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지를 전전하였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다.<sup>20)</sup> 이에 따라 1927년부터 이주한인에 대한 안전농촌 설치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주한인들은 수전개발에 강한 집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에서도 한족이나 만주족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수전개발과 영농을 놓고 각 민족 간의 갈등이 속출하기도 하였는데,<sup>21)</sup> 만보산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소장자료, 1935. 7. 31, 機密제399호)

18)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914쪽

19) 안전농촌 선정요건은 첫째 日滿군경이 주둔하고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확실하며 경비 가능 구역, 둘째 부근에 소작할 수 있고 경지 300정보 내지 400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점, 셋째 신탄 및 음료의 채취와 부락 구축에 필요한 재료 등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갖춘 곳, 넷째 앞으로 황무지 개발의 거점 또는 인근에 마을 수용수 이상의 귀농 또는 새로운 이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 다섯째 교통이 편리한 지점 등이었다(『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三源浦農場設置方ノ件」, 1935. 4. 16, 機密제198호).

20)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앞의 책, 554쪽

21) 일제가 안전농촌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무계를 조직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안전농촌 내부에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자치기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서 안전농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었다(『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4, 「安全農村ニ於ケル公共的事務處理ニ關スル件」, 1933. 4. 26, 公機密 378호).

수전개발은 농수로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만주지역은 상당히 풍부한 수자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수전개발에 필요한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한인과 한족, 만주족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sup>22)</sup> 따라서 일제로서는 야심찬(?) 계획 하에 건국된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주한인과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였다.<sup>23)</sup> 당시 일제는 민족 간 융합을 기치로 내세워 만주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만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인 간의 갈등은 민족적 대립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시 토지문제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일제로서는 ‘오족협화’를 실현하기 위해 만주국 설립 이전 지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던 이주한인과 중국인 지주 간의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24)</sup>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들 수 있다. 일제는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 대만을 비롯하여 조선에서도 끊임없는 쌀 증식 계획을 세웠으며 종자개량 등의 방법으로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제는 미개간지가 많은 만주에 집단적 안전농촌을 설립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만주사변’은 이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편된 정치 지형 속에서 일제는 이주한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안정적인 식량 수급<sup>25)</sup>과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꾀하였다.<sup>26)</sup>

22) 만보산 사건도 수로문제가 한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박영석, 1978, 『만보산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93~94쪽

23)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羅子溝農村問題調査資料進達ノ件」, 1935. 3. 28, 普通 제161호

24) 예컨대 1933년 봉천성의 경우 봄에만 30여 건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였다(『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三源浦農場設置方ノ件」, 1935. 4. 16, 機密 제198호).

25) 소화시기 공황 타개책은 일본 내의 농촌구제정책과 중국 침략이라는 2대 정책으로 모아졌다. 일제가 만주지역 농촌사회의 안정을 꾀한 것은 농촌구제책을 국방제1주의에 연계해서 시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1980, 『昭和恐慌』, 東京大學出版會, 123~124쪽

한편 1933년 4월 조선총독부는 안전농촌을 설치하면서 원활한 운영방안 또한 강구하였다.<sup>27)</sup> 이는 동아권업주식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민회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곧바로 민회를 조직하기에는 다른 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으며 농무계<sup>28)</sup>가 그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난 조선인 수용상 공공사무의 처리는 농경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를 수십 호 단위로 하고 각 마을에 나누어 각 마을마다 농무계를 설치하여 농무계장 및 평의원을 둔다. 둘째, 동아권업주식회사가 당분간 영사관 감독 아래 농촌의 어려운 공공 사무를 처리한다. 셋째, 농무계장은 안전농촌의 공공 사무를 전달한다. 넷째, 동아권업주식회사는 그 처리하는 공공 사무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농무계장에게 통지한다. 다섯째, 농촌 내에 전달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무계장에게 전달 주지시키고, 농무계장은 촌민에게 전달할 사항을 농무계 평의원에게 주고 이 경우 각 평의원의 분담 구역을 정한다. 여섯째, 동아권업공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조합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분할 처리는 농무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처리한다. 일곱

- 
- 26) 平井千乘, 1935, 12, 「滿洲に安全農村の建設」, 『朝鮮及滿洲』 제332호, 31~32쪽. 손춘일은 일제가 안전농촌을 설립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만주사변' 직후 국내 언론들이 만주 한인사회에 대한 실상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안전농촌 설치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손춘일, 2001, 앞의 책, 303~307쪽. 물론 이러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언론 보도가 안전농촌의 직접적인 설치 배경으로 보기에 어렵다. 안전농촌에 대한 설립 논의는 이미 1920년대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앞의 책, 554쪽
- 27)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4, 「安全農村ニ於ケル公共的事務處理ニ關スル件」, 1933, 4, 26, 公機密 378호
- 28) 농무계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주한인들에게 농업금융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봉천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농무계를 설치하였다(『東亞勸業株式會社十年史』, 1933, 307~310쪽). 조선총독부가 농무계를 설치한 주된 이유로 이주한인의 생활안전과 이주민의 상호협조를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주한인에 대한 금융통제와 관리,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째, 농촌 내 장정으로 자위단을 조직하고, 자위단은 농촌 주재 경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sup>29)</sup>

농무계는 조선총독부에서 이주한인에게 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농경자금 대출을 통해 한인사회를 통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동아권업을 통해서 농무계를 장악하고 다시 한인사회를 통제하는 연결고리를 구축하였다. 동아권업주식회사는 1921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大倉의 출자로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 지역의 농산 자원 개발과 이주한인의 생활안정 및 일본인의 경제적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up>30)</sup> 1920년대 이미 동아권업은 ‘自作農創定’을 목적으로 간도 지역에 안전농촌의 설치를 추진하였지만 일본 경찰력 등 공권력의 부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권업의 존재는 조선총독부의 안전농촌 설립목적과 부합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봉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아권업에 보조금을 주고 안전농촌 설치 운영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sup>31)</sup> 나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주일본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행 작업도 진행하였다.<sup>32)</sup>

교하에는 안전농촌은 아닐지라도 대규모 이주한인들로 구성된 마을들이 나타났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인구증가는 완만한 추세를 보였지만 1930년 이후부터는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즉, 1930년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29)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4, 「安全農村ニ於ケル公共的事務處理ニ關スル件」, 1933, 4, 26, 公機密 378호

30) 『東亞勸業株式會社十年史』, 1933, 1~3쪽, 「滿洲に安全農村の建設」(『朝鮮及滿洲』, 1935년 7월호), 31쪽. 동아권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토지의 취득과 경영, 농업과 기타 자원 개발을 이용하는 사업, 이민 모집과 부식, 건축물의 건조 및 임차, 매매,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 자금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31)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399쪽. 조선총독부는 계획이민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1936년 경성에 선만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만주국은 일본인과 조선인 이민을 대항할 만주척식회사를 만철과 합작으로 설치하였다. 遼寧省檔案館, 『滿鐵與移民』, 分卷 2-5, 9~24쪽

32) 「滿洲に安全農村の建設」, 『朝鮮及滿洲』, 1935년 7월호, 32쪽

이곳에 이주하면서 교하 인구도 급증했던 것이다. 물론 1920년에도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으로 보면<sup>33)</sup> 한인들은 교통이 편리한 교하지역에 만주국 시기 이전부터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인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오림조선족향의 한인들이 700호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하지역 전체는 약 1만여 명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4)</sup> 해방 전 교하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해방 전 교하 인구

연도	호수	인구	농업인구	비고
1912	4,466	37,616		
1917	4,897	48,482		
1924	4,937	46,238		
1930	13,371	85,238		
1935	20,817	112,557	94,772	
1938	22,282	139,693	112,019	
1942	29,086	116,482		

\*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앞의 책, 21쪽

\*\* 해방 전 한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음.

1964년 교하의 조선족 인구는 21,48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당시 교하 인구의 약 7%를 차지한 비율이다.<sup>35)</sup> 교하의 13개 민족 가운데 한족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교하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조선족들은 개혁개방이 진

33) 李光洙 主編, 『朝鮮族學校誌』, 289~290쪽

34) 박중호(오림조선족향 노인회장, 1940년생), 2011년 10월 1일 인터뷰

35)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앞의 책, 26쪽. 1964년과 1982년 조사에 따르면 교하 전체의 인구는 각각 323,990명, 518,26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족이 90% 차지하였으며, 조선족은 두 번째로 많은 약 6%에 달했다.

행되면서 거주지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특히 북경 등 대도시로의 이동이 촉진되면서 인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교하 조선족 마을의 문화적 보존과 변용의 간극도 빠르게 벌어졌다.

#### IV. 오림조선족향의 문화적 보존과 변용

烏林朝鮮族鄉은 교하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길림에서 연길 방향으로 교하 시내를 거치지 않고 팔가자와 태평촌으로 들어오면 너른 뜰이 보인다. 그 앞이 바로 오림조선족향이다. 오림조선족향은 교하의 유일한 조선족향이다. 오림조선족향 가까이에 위치한 라법진과 신참진의 조선족 인구가 1980년대 2천여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징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오림조선족향의 현재 호수는 540호 정도이다. 이 가운데 70호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sup>37)</sup> 해방 전 농장으로 형성된 오림조선족향은 전국에서 수전농사의 모범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농업생산력이 뛰어났다. 해방 직후 40~50호를 생산대로 조직하여 토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전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생산량을 확보했던 것이다.<sup>38)</sup> 수전농업 기술은 조선족 문화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했다.

오림조선족향은 교하 20개 조선족 마을 가운데에서도 가장 문화적 보존을 잘해 온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길림신문》에 실린 기사를 잠시 살펴보자.

그들은 조선족촌의 문화실건설에 중시를 돌려왔다. 현적으로 조선족촌

36)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앞의 책, 176쪽

37) 박종호, 2011년 10월 1일 인터뷰

38) 임성난(1926년생)은 해방 직후 오림조선족향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길림시 인민 대표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오림조선족향의 수전생산은 길림성 전체에서도 뛰어났다고 역설했다(2011년 10월 1일 인터뷰).

의 문화실이 도합 20개인데 오림향, 전진향, 신농향, 천북향, 라법향 내에 있는 조선족문화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로전형인 오림조선족향의 군중문화활동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로전형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지난해 그들은 현민위를 협조하여 오림조선족향 로인독보조를 로인협회로 발전시켰으며, 로인절기념일 활동을 잘 조직하기 위해 로인, 청년, 학생, 유치원이 4개 문예공작대를 조직하였고, 200명에 달하는 농악무용대를 2개나 조직 지도하여 오림조선족향으로 하여금 명실이 부합되는 문화향으로 불리우게 하였다. 그들은 조선족문예골간을 육성하였다. 지난 11월에 전 현 소수민족문예회보 공연을 조직하였었는데 12개 대표대회에서 70여 가지 절목을 공연하였고, 공연에 참가한 인수는 무려 260여명이었다. 그들은 문화관에서 육성해낸 문예골간들이었다. 올해 1월에 문화관내에서는 또 내자산진 흥승춘과 오림조선족향 팔가자춘에 사람을 파견하여 청년무대를 보급하게 하였고 청년공연대를 조직하게 하였다.<sup>39)</sup>

오림조선족향을 중심으로 조선족 중심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교하시 오림조선족향에서는 백방으로 불황에 처했던 향기업소들을 부추겨세우고 있다. 이 향에서는 일찍 화학공장, 전열공장, 음료공장 등으로 10여종에 달하는 향진기업을 차렸다. 하나 기초가 박약하고 기술이 낙후한데다 관리까지 따라가지 못한 원인으로 대부분이 결손보았는데 1987년까지 그 결손액이 212만원에 달했다. 존경제를 추켜세우려면 그래도 향진기업에 의거해야 함을 심심히 느낀 이 향에서는 1988년부터 새로 부임된 김상렬 향장의 인솔밑에 향의 기업소들에 대한 정돈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돈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방실정에 맞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고 발전전망이 있는 기업은 확대하거나 련합경영하였으며, 새로운 항목을 끊임없이 개척하였다. 이러한 방책에 의하여 그들은

39) 《길림신문》, 1985년 2월 14일자, “교하현 20개 조선족마을에 문화실”

우선 항목에 알맞지 않는 음료공장, 초대소 등을 도태시켰다.

(중략)

향진기업을 추켜세움에 있어서 그들은 또 자연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였다. 이 향에는 20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석탄층이 있다. 여기에 22만원 투자하여 지금 1기 공정을 끝냈는데 올부터 년평균 2만여톤의 석탄을 캐낼 수 있다. 이로써 이 향은 년 리운 50만원을 올릴 수 있는 4개 기업의 규모경영기초를 굳건히 닦아놓았다.<sup>40)</sup>

경제적인 원인으로 조선족들이 대도시로 나가고 공동체사회가 점차 붕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따라서 오림조선족향도 이 점을 숙지하여 자체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하여 조선족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했다.

오림조선족향의 대표적 학교인 오림조선족향 조선족중심학교는 1940년 초에 한인 유지들이 설립한 오림배재국민학교의 후신이었다. 그후 여러 차례 교명이 바뀌었으며, 1954년에 교명을 오림조선족 소학교로 정식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교장은 원주범이 역임했다. 여섯 개 반에 학생 267명이었으며, 교원은 12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민족전통 예의 교육교재를 향토교재로 만들어진 교하시 조선족 학교들에 배포하는 등 문화 보존에 심혈을 기울였다.<sup>41)</sup> 이 학교와 인접한 오림조선족향 팔가자 조선족 소학교 역시 해방 전에 설립된 학교였다. 1950년 공립으로 바뀌면서 교명도 팔가자조선족소학교가 되었다. 1981년 개혁개방의 여파로 오림조선족중심학교에 통합되었다. 이 학교에서도 예절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 전통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sup>42)</sup>

하지만 현재는 오림조선족향에 민족학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림조선족향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을까. 그들의 고민은

40) 《길림신문》, 1991년 1월 24일자, “교하시 오림조선족향 오금 꺾었던 향진기업 부진 씻고 일어나”

41) 이광수·남일성 주편, 1998, 『중국조선족학교지』,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284~285쪽

42) 이광수·남일성 주편, 1998, 위의 책, 284~285쪽

무엇인가. 현지 거주자들의 구술을 통해 그 현황을 정리·분석해 보려 한다. 그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오림향 우의촌 거주 조선족 구술자 현황

이름	출생연도(연령)	출신		이주시기		비고 (이주원인)
		본인	선대	중국	오림향	
박종호	1940(71)	용정(동성)	함경도	중국에서 태어남	1960	
최선옥	1934(78)	평남 부령	평남 부령	1940	1953	
박화분	1930(82)	함경도			1955	
정옥련	1933(79)	돈화	경북 영일		1949	
백여순	1926(86)	경기도 수원	경기도 수원	1943	1955	
이길년	1938(74)	경북 경주	경북 경주		1956	
김봉화	1923(89)	경남 창원	경남 창원	1930	1952	
김인숙	1942(70)	화룡	함경도	중국에서 태어남	1990	
임성남	1926(86)	강원도 울진	강원도 울진	1938	1945	
김혜숙	1951(61)	화룡	함경도		2010	

\* 2011년 10월 1일 구술

현지 거주자들은 개혁개방 및 한중수교 이전과 지금의 달라진 모습들, 그리고 오림조선족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 특징 가운데 첫째로, 수전농업에서 한전으로 생산방식이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림조선족향은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1970년대는 중국 전체에서 부녀공작이 가장 잘된 모범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수전농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족들이 농토에서 멀어지면서 그 자리를 한족들이 차지하였다. 1990년대 기준으로 이전에는 수전이 95% 이상이었는데, 한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는 90% 정도가 한전이 되었다.<sup>43)</sup> 한족들은 수전농법을 기피하

였으며, 옥수수과 콩이 생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문화적 사업을 통하여 민족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오림조선족향 향장 한광석은 민족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림조선족민속촌을 조성하였다. 먼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족음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교하시 거주 음식점 운영자 김혜숙에게 한향원이라는 한식당 개업을 권유했다.<sup>44)</sup> 오림조선족향은 대로를 기준으로 조선족 거주지의 우의촌과 한족 거주지의 오림촌으로 되어 있다. 오림촌의 조선족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 한족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족향에 조선족 음식점이 부재하다는 것은 전통 문화 보존차원에서 절실한 문제였다. 그러한 면에서 오림조선족민속촌의 운영은 문화의 보존과 변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다. 다음은 인터넷상의 오림조선족민속촌 소개 부분이다.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오림조선족민속촌은 교하시 오림조선족향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하시에서 12km 떨어져 있다. 이 촌은 민족정기가 농후한 곳이며 촌민들이 열렬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민족예절 거행식 및 민족가무로 환영한다. 현재 민족적 특색으로 화로에서 올린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주요 여행 활동은 조선족잡거와, 촌락공동가무, 민족생활풍속, 조선족 막걸리, 떡, 냉면, 산채나물, 개고기 등을 맛볼 수 있다.<sup>45)</sup>

이 민속촌은 향장과 노인협회에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위주의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6)</sup>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현재 노인들이 대부분인 오림조선족향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지 거주자들은 2008년부

43) 박종호 인터뷰(2011. 10. 1). 한국에 400여 명이 나가 있으며, 국내 각지에도 상당수의 오림조선족향 조선족들이 이동 거주하고 있다.

44) 김혜숙 인터뷰(2011. 10. 1)

45) 오림조선족향 홈페이지([www.land.gov.cn, wl](http://www.land.gov.cn, wl))

46) 박종호 인터뷰(2011. 10. 1)

터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하여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교하시 조선족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민족문화 보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향후 계획 문제인데, 오림조선족향에서는 길림성 九台시 조선족집거구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47)</sup> 오림조선족향 출신으로 중국 내 유력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거나 길림성 주요 민속촌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민족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족 사회와 한족 사회의 화합을 통해 문화적 공존과 문화적 보존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V. 맺음말

만주국 성립과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에는 크고 작은 한인 마을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만주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인의 이민을 추진하였지만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인들이 대체세력으로 모색되었다. 이 글에서 다룬 길림지구 교하지역은 19세기부터 한인들이 거주했던 북간도지역과 만주국의 수도인 장춘, 전통적 도시인 길림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오림조선족향을 비롯해서 한족 다음으로 많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교하지역이다. 길림지구는 전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교통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루트가 여전히 유효한 곳이기도 하다.

먼저, 교하 오림조선족향의 경우는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한인 마을로서 직접적으로 안정농촌의 계획과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농촌의 외피를 입었다 할 수 있으며, 초기 약 300호 정도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로 재귀환하지 않고 대부분 수전농업에 종사하면

47) 박종호 인터뷰(2011, 10, 1)

서 농업생산력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둘째,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문화적 충격 속에서 다수의 조선족들이 중국 내 대도시나 한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공동체의 붕괴 직전까지 갈 만큼 사회 자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대안으로 자체 민속촌을 조성하여 교하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향의 특색을 유지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 협회를 비롯해서 자치향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문화적 보존과 변용이라는 간극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변지역 조선족 마을과의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문화적 변용을 문화적 보존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들의 문화적 변용을 민족 자체의 문제만이 아닌 한족 등 타민족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록〉 오림조선족향 마을 전경과 조선족 민속촌



〈사진 1〉 오림조선족향 입구



〈사진 2〉 오림조선족 민속촌



〈사진 3〉 오림조선족향 조선족 거주지  
우의촌 전경



〈사진 4〉 면담자

## 참고문헌

『間島關係』(開放及調査) 1(영인본), 1991, 고려서림

《길림신문》

『滿蒙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雜件』 6, 「三源浦農場ニ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1935. 7. 31, 機密제399호)

『滿洲國軍』, 1970, 蘭星會

『朝鮮總督府月報』 제1권 1호, 1911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일본인 이민 '장려'·조선인 이민 '통제」, 『아세아문화』 18, 한림대학교

金靜美, 1992, 『中國東北部における抗日朝鮮・中國民衆史序說』, 現代企劃室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1980, 『昭和恐慌』, 東京大學出版會

民族問題研究所 編, 2000, 『日帝下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1, 韓國學術情報株式會社

박영석, 1978, 『만보산사건 연구』, 아세아문화사

孫邦, 1991, 『9.18事變資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손춘일, 2001, 『해방전 동북조선족 토지관계사 연구(하)』, 길림인민출판사

林元根, 1933, 「滿洲國과 朝鮮人將來」, 『三千里』 제5권 1호

中共蛟河縣委史誌辦公室, 1987, 『蛟河縣概況』

**[ABSTRACT]**Cultural Protection and Change in Korean Settlements in  
Jiaohe, Jilin Province

Kim Jooyong

Koreans immigrated to northeastern China in various ways before the country's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After 1910, many Koreans moved to the region due to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After the foundation of Manzhouguo, their emigration showed heteronomy. Manzhouguo emphasized "harmony" and suppressed its counterforce. The government strengthened public security and established "safe farming area." However, the construction of safe farming areas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foundation of Manzhouguo meant forced action for Koreans. Japan built regional safety and accelerated exploitation. As a result, Koreans in China could not help being exploited "safely" in the "unsafe region." In those days, many Korean villages were built throughout the region. Those people who were plundered by Japan have lived as ethnic Koreans (C. *Chaoxianzu*) in China since Korea's independence.

This paper analyzed the protection and the change of culture and lives of Koreans who have lived as ethnic Koreans in China. In particular, based on Wulin in Jiaohe, Jilin Province, features of Korean residence and regional change are restored vividly in this paper. Wulin was a Korean village built in the 1930s that did not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the plan for safe farming areas. However, the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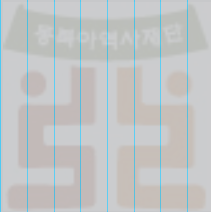
was also influenced by the plan, and began with about 300 houses. The residents did not return to Korea, worked in farming even after Korea's independence,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he region.

The condition of the ethnic Koreans' society was serious enough to be on the verge of collapse. As the ethnic Koreans were culturally shocked by China's reforms and opening up, most moved to large cities or to Korea. As an alternative, Korean folk villages were built and the features of an ethnic Korean village were protected in Jiaohe. Active government support of the ethnic Koreans' villages, including the elderly associations, can be an important asset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ultural protection and change. And if actively connected with neighboring areas, cultural change can be developed into cultural protection. At this point, it is desirable that cultural change be a way to prepare a larger frame within which to form a new cultural paradigm that can enhance cooperation with other ethnic groups, such as the Han Chinese.

#### Keywords

Manzhouguo, Wulin Village, Ethnic Koreans, Han Chinese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기후변화와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변천

## - 燕山 南北 지역을 중심으로 -

배진영 | 군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기후와 인류 문명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환경 악화에 대해 인간의 제어 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만약 그로 인해 환경과 생태의 변화가 수반된다면, 인류 생활과 환경의 변화도 동반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형성과 몰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에 따라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변천과정 중에서 예컨대, 夏家店上層文化처럼 기존 문화와는 상당히 이질적일 뿐 아니라 농업 문화로부터 돌연 유목문화 혹은 半農半牧문화로의 이행이라는, 생산방식 자체에도 커다란 변화를 수반한 문화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기후가 인류 사회 및 문화의 형성과 소멸에 관계가 있다는 관점은 오래전

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문명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더욱이 기상 이변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가장 중요한 연구 방향의 하나이다. 중국의 경우, 광대한 토양과 그에 걸친 기후대의 다양성으로 인해, 또 건조화, 특히 서북지역의 사막화에 따른 재해의 극복이라는 현재적 관심에서 기후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또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고 인류 활동에 대한 기후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후변화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다. 과거의 기후, 즉的古기후에 대한 연구는 全新世 시기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sup>2)</sup> 토탄층, 포자가루, 나이테 측정법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비교적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sup>

한편, 서로 다른 기후대가 맞물리는 지역은 각 기후에 따른 생산방식과 문화 등의 명확한 차이로 인해 기후뿐 아니라 경제구조, 문화 등의 비교 연구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북방의 農牧交錯地帶<sup>4)</sup>에 대한 연구로

- 1)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브라이언 페이건 저, 남경태 역, 2007,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예지; 볼프강 베링어 저, 안병옥·이은선 역, 2010, 『기후의 문화사』, 공감인; H. H. 램 저, 김종규 역, 2011, 『기후와 역사』, 한울아카데미; 高凱, 2006, 『地理環境與中國古代社會變遷三論』, 天津古籍出版社.
- 2) 施雅風·孔昭宸·王蘇民 等, 1992, 『中國全新世大暖期與環境的基本特征』, 海洋出版社; 吳文祥·葛全勝, 2005, 「全新世氣候事件及其對古文化發展的影響」, 『華夏考古』, 2005-3
- 3) 徐海, 2001, 「國全新世氣候變化研究進展」, 『地質地球化學』 29-2, 9~11쪽 참조.
- 4) 농경구와 목축구는 인류 경제생활 방식의 측면에 따라서 구분한 기본 구역으로 둘 사이에 있는 것을 농목교착지대라 한다. 중국 북방 농목교착지대의 범위는 매우 광대하여 대체로 大興安嶺 동쪽에서 遼河 중상류를 거쳐 陰山山脈, 鄂爾多斯高原의 동쪽을 돌아서 祁連山에 이르며 곧장 靑藏高原까지 이르러 요녕, 내몽고, 하북, 산서, 섬서, 寧夏, 감숙의 여러 省區를 잇고, 동서 길이는 수천 km에 달한다. 이 시대는 역사상 농업이나 목축업이 주요 생산방식인 시대가 출현하였는데 단 農·牧 혼합이 가장 대표성을 갖춘 지역 특징이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농목교착대라 칭한다. 중국 북방의 농목교착대는 農·牧 양종의 생산방식의 교착 분포구일 뿐 아니라 자연지대상으로도 半습윤과 半 건조, 온난대가 이웃하고 있는 지대로 이런 환경지대는 생태 민감 지대에 속한다. 농목교착대의 환경이 민감한 특징은 자연 속성상의 변화를 이끌 뿐 아니라 인류 경제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인류 역사의 초기에 이런 영향은 인류의 경제생활 방식에 거의 결정적인 규제와 억제작용을 일으켜

집중되었다.<sup>5)</sup> 그중 燕山 남북지역은 이 농목교착지대의 동부 끝자락에 위치하여 여러 고고문화의 변천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연산 남북지역 기후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농목교착지대라는 측면에서 다른 생산방식의 양립과 혼합 및 그에 따른 문화, 경제, 민족 등의 변천에 집중되어 연구되었다.<sup>6)</sup>

다만 연산 남북지구에 대한 연구는 광대한 농목교착지대의 일부로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숲 농목교착지대 연구 중 중핵을 이루는 서북지역, 내몽고 중부 지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적다. 또한 연산 남북지구 내 지역별 기후후 연구를 통한 구체적 분석<sup>7)</sup>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중 지역별 연구는 연산 남북지역의 광대한 범위 중 남쪽 자락에 해당되는 수도 북경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관심이 연산 남북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이 지역이 농목교착지대뿐 아니라 중원과 북방을 잇는 남북 교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고문화가 성립되고 소멸된 점에 착안하여 연산 남북지역 기후

각기 다른 생산유형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韓茂莉, 2005, 「中國北方農牧交錯帶的形成與氣候變遷」, 『考古』 2005-10, 57~58쪽

- 5) 史培軍, 1989, 「中國北方農牧交錯帶的降水變化與“波動農牧業”」, 『幹旱區資源與環境』 1989-3; 張蘭生·史培軍·方修琦, 1992, 「中國北方農牧交錯帶(鄂爾多斯地區)全新世環境演變及未來百年預測」, 『中國北方農牧交錯帶全新世環境演變及預測』, 地質出版社; 莫多聞·李非·李水城, 1993, 「甘肅葫蘆河流域中全新世環境演化及其對人類活動的影響」, 『地理學報』 51-1; 田廣金·史培軍, 1997, 「中國北方長城地帶環境考古學的初步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997-2; 索秀芬, 2003, 「內蒙古農牧交錯帶考古學文化經濟形態轉變及其原因」, 『內蒙古文物考古』 2003-1; 魏峻, 2005, 「內蒙古中南部考古學文化演變的環境學透視」, 『華夏考古』 2005-1; 韓茂莉, 2005, 「中國北方農牧交錯帶的形成與氣候變遷」, 『考古』 2005-10; 陳勝前, 2006, 「中國晚更新世—早全新世過渡期狩獵采集者的適應變遷」, 『人類學學報』 25-3; 烏蘭, 2007, 「全新世中國北方農牧交錯地帶的經濟形態與環境的關係」,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2007-10-15
- 6) 裴善文·李取生·夏玉梅, 1992, 「東北平原西部沙地古土壤與全新世環境變遷」, 『第四紀研究』 1992-3; 楊志榮, 2000, 「中國北方農牧交錯帶東南部環境考古研究」, 『幹旱區地理』 2000-4
- 7) 許清海·楊振京·陽小蘭·劉志明·梁文棟, 2006, 「燕山地區花粉氣候響應面及其定量恢復的氣候變化」, 『環境考古研究』 3輯, 北京大學出版社; 賈偉明, 2010, 「古環境的復原及全新世時期的上遼河流域」, 『華夏考古』 2010-4

변화와 고고문화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8)</sup>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변천과 기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고찰하는 시간 범위는 인류가 신석기시대로 진입하여 문명을 이루게 되는 전신세<sup>9)</sup> 시기 중 대온난기(기원전 약 6500~1000년 전)이다. 이 시기는 각 지역에서 고고문화가 형성되고, 또한 기후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러 차례의 기후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상을 엿보는 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다루는 공간 범위는 각 고고문화의 계승성과 이질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燕山 남북지대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지역은 여러 고고문화가 출현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제시하였듯이 특별히 농경과 목축의 교차지대이기 때문에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변화와 맞물려 각 시기별로 그 변화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상·공간상 범위 안에서 출현하는 고고문화의 주된 분석대상은 신석기(중기 이후)와 청동시기 고고문화 계보를 이루는 興隆洼文化－趙寶溝文化－紅山文化－小河沿文化－夏

- 8) 田廣金·史培軍, 1997, 앞의 글; 夏正楷·鄧輝·武弘麟, 2000, 『內蒙古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變遷的地貌背景分析』, 『地理學報』 55-3; 靳桂雲, 2004, 「燕山南北長城地帶中全新世氣候環境的演化及影響」, 『考古學報』 2004-4; 王樹芝·王增林·朱延平, 2004, 「內蒙古赤峰市大山前第一地點夏家店下層文化的植被和生態氣候」, 『華夏考古』 2004-3; 王守春, 2006, 「全新世中期以來西遼河流域動物地理與環境變遷」,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幹旱半幹旱地區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鄧輝, 2006, 「全新世大暖期燕北地區人地關係的演變」,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干旱半干旱地區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武弘麟·史培軍, 2006, 「全新世科爾沁沙地的環境變遷」,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干旱半干旱地區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索秀芬, 2007,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的人地關係」, 『環境考古研究』 4輯, 北京大學出版社; 陳勝前, 2011, 「燕山-長城南北地區史前文化的活應變」, 『考古學報』 2011-1
- 9) 全新世라는 용어는 홀로세(Holocene)로 불리는 약 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질시대를 칭한다. 전신세라는 호칭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 시기를 중석세 혹은 현세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홀로세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전신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家店下層文化-夏家店上層文化 등이라 할 수 있다.

연산 남북지역의 고고문화의 출현과 교체 및 융합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전신세 기후변화와 연산 남북지역의 생태환경: 이 장에서는 전신세 기후변화를 살펴본 후 이러한 변화가 연산 남북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전신세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와 경제구조의 변천: 이 장은 전신세 시기 각기 기후변화에 수반된 연산 남북지역 생태환경에서 온존한 이 지역 고고문화의 존재형태를 살피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각 고고문화의 존재형태를 검토해야 비로소 기후변화에 따른 각 고고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의 성쇠와 이산: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기후변화와 각 고고문화의 관련을 통해 기후가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의 형성 및 성쇠와 이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인류 생존 환경의 압박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추출하여 기후변화가 인간 삶에 끼친 영향과 그 결과를 추적해 보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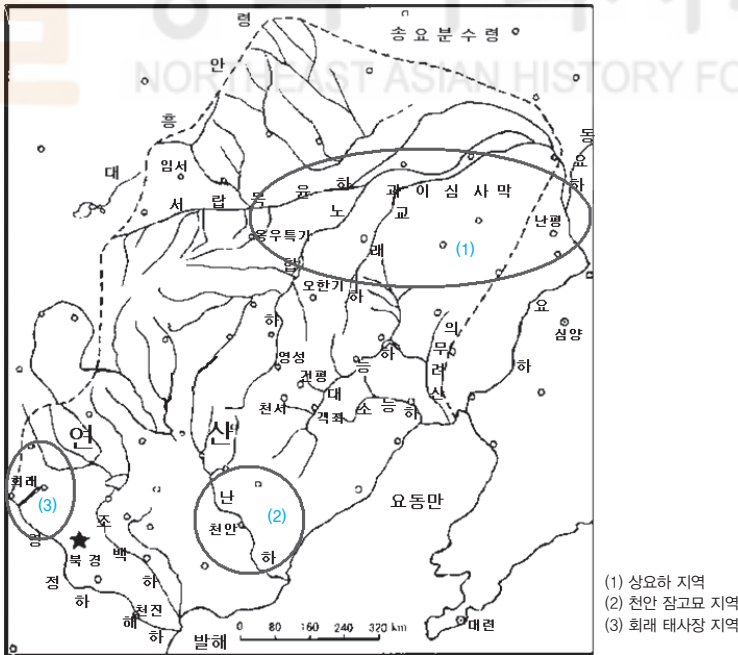
## II. 全新世 燕山 남북지역의 기후와 생태환경

빙하기(갱신세)<sup>10)</sup>가 끝나고 약 10000년 전부터 시작된 전신세 시기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며 약 8500년 전~3000년 전(기원전 약 6500~

10) 전신세 이전의 지질 시대이다.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대로,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기원전 200만년경~기원전 1만년경 사이를 말한다.

1000년) 사이에는 가장 따뜻한 이른바 ‘대온난기’를 맞이하게 된다. 단, 그 기간 내에서도 대략 5000년 전을 경계로 이전 시기는 비교적 온난하였던 반면, 이후는 점차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하여 약 3000년 전을 경계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며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기후변동이 나타난다. 이처럼 약 8500년 전부터 시작된 전신세의 온난한 기후환경의 전개와 맞물려 각 지역은 신석기 시대 중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연산 남북지역에서도 중기 신석기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8500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의 전신세 기후는 연산 남북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연산 남북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동으로는 醫巫閼山, 요동반도의 서안과 발해의 서안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蘇克斜魯山(대흥안령 남단), 昭烏達 고원 서쪽 변경지역, 연산산맥 서쪽 끝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松花江과 遼河 분수령에서 남으로는 永定河, 海河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그림 1〉 연산 남북지구 및 연산 남북지구 고기후 복원지역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의 하천은 烏爾吉木倫河, 西遼河(西拉木倫河, 老哈河, 敎來河), 大凌河, 小凌河, 灤河, 洶河, 潮白河, 永定河, 海河가 포함된다<sup>11)</sup>(그림 1 참조).

이 연산 남북지구는 고고학 연구에서 특수한 의미가 있는 지구이다. 몽고 고원에서 화북평원, 동북평원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海河유역의 북부, 灤河 하류가 그 남쪽 구역이 되며 난하 상류, 大·小凌河, 遼河 상류지역은 그 북쪽 구역이 된다. 또 중국의 강수량 분계선(400mm)이 이곳에 위치하며 북방 건조 지구와 半 건조-半 습윤지구의 중간지대이다. 지모로 볼 때, 이 구역은 주로 황토 구릉, 황토 계단지와 황토 비탈지가 조성되어 조기 농업 발전에 적합하다. 역사상 이 지구는 農牧분계선이자 농목교착지대이며 또한 민족교류와 융합의 지대이기 때문에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 또한 이 지구는 생태교착지대에 위치하며 온대삼림과 초원이 만나는 지대이기도 하다.<sup>12)</sup> 이러한 생태교착지대는 생태환경이 매우 약하며 기후변화가 이끄는 생태변화는 인류 활동에 대해 강렬한 영향을 끼친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또한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변화를 이끌며 이에 따라 식생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토양 침적물과 토양 중의 花粉과 포자의 종류, 농도 분석 등에 근거하여 식물 군락의 변천사를 추적하면 고기후 변천의 과정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고기후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은 최근의 경향이지만, 단 연산 남북지역에 관한 기후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지역 기후 연구의 토대가 매우 약하지만 최근 上遼河와 懷來 및 遷安 지역에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신세 기후가 연산 남북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1) N39~44 30', E115 30~123° 30'에 위치하며 대체로 동북-서남의 최장 길이는 약 730km, 서북-동남의 길이는 가장 넓게 약 400km로 총 면적은  $3 \times 10^6 \text{km}^2$ 이다. 索秀芬, 2007, 앞의 글, 253쪽

12) 陳勝前, 2011, 앞의 글, 1쪽

## 1\_ 上遼河 지역의 전신세 기후 복원

우선 현재 내몽고 동남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고대문명이 발육하였던 上遼河<sup>13)</sup>[그림 1의 표지 (1) 참조]를 흐르는 西拉木倫河와 老哈河 유역에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포자가루의 분석을 통해 복원한 전신세 고환경의 조사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이 지역의 고기후를 일부 복원해 보도록 하겠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초원의 식생구조는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건조초원, ② 稀樹건조초원, ③ 삼림초원형, ④ 삼림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4개의 식생 유형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차례로 건조초원 → 희수건조초원 → 삼림초원과 → 삼림으로 되며 또 表土의 花粉도 木本식물을 지표로 삼아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목본 비율의 열세 → 초목과 비례 비슷 → 목본의 우세로 가게 되며 강수량도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증가한다. 이를 통해 상요 지역의 식생 구조를 분석하면, 대략 기원전 6000~5500년경에 草木 포자가루가 85% 이상을 점하지만 木本과 蕨類(고사리 등 양치식물)는 모두 5%도 되지 않았다.<sup>14)</sup> 이는 목본 점유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강우량은 현재의 약 400mm와 비슷하지만 단 기온이 낮아서 연평균 영하 2℃ 정도에 이르러 현재 연평균 기온인 영상 6℃보다 평균기온이 약 8℃ 정도 낮았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다만 이후 시기부터 목본과 껌류가 모두 대폭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초목식물은 그에 비례하여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기원전 5000년경에 이르면 목본과 껌류는 이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초목의 비례는 내려가서 10% 정도에 이른다. 또 이 시기 기온과 강우를 대조하면 기온과 강우가 모두

13) 이 지역은 현재 내몽고 동남부에 위치하며 대체로 북위 41~45도, 동경 118~124도의 범위 내에 있다. 이곳의 지형은 서고동저로 대흥안령 남단에서 해발 1000~1500m의 고산이 동쪽을 향해 차차로 낮아져 20m의 遼河 평원에 이른다. 이 지구는 내몽고 고원이 遼河 평원에 연결하는 과도 지대로 上遼河의 물이 이 지대를 경유하며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科爾沁 沙地를 가로로 뚫고 간다. 賈偉明, 2010, 앞의 글, 139~140쪽

14) 賈偉明, 2010, 앞의 글, 141쪽

15) 賈偉明, 2010, 앞의 글, 140쪽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연평균 기온은 이미 상승하여 영상 3℃ 정도에 이르러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대략 5℃ 정도 상승하였으며 강우도 400mm보다 높게 나타난다.<sup>16)</sup> 다음으로 기원전 4000년 전후 시기가 되면 초목식물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심지어 90%를 넘기에 이르렀고 이후 2000년 동안에 비록 그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지만 약 2000년 동안 모두 80%를 상회하는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온과 강수를 대조하면 대략 기원전 4000년에 기온상승이 전신세의 최고점에 달하여 연평균 기온은 섭씨 영상 8℃ 정도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2℃ 정도 높았다.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5℃ 정도나 높은 것이다. 다만 그에 비해 강수량은 단지 약간만 상승하여 450mm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高溫 현상은 높은 증발을 가져와 당시 이 지역은 건조한 기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건조한 기후는 喜水性의 목본과 껌류의 생장에 대해 불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17)</sup> 온난한 기후임에도 강수량이 상승하지 않아 목본의 성장을 방해하여 초원 형태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요하 지역은 기원전 4000년 전후로 덥고 건조한 초원으로 극렬하게 변화하였다. 이후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상요하 식생 군락은 원래의 초원 유형이 건조초원 유형으로 변모하였고 희소삼림수목 유형은 더욱 희소하게 변화였다.<sup>18)</sup>

## 2\_ 연산 남부지역(遷安 蠶姑廟)의 전신세 기후 복원

遷安은 연산 동남부 京津唐 지구의 灤河 지류에 위치한다[그림 1의 표지 (2) 참조]. 이 분석은 遷安 蠶姑廟 토탄층의 단면을 응용하여 기원전 3050년(5000aB.P.) 이래 연산 남부의 기후변화를 정량화한 것이다.<sup>19)</sup> 이 분석에 따르

16) 賈偉明, 2010, 앞의 글, 140쪽

17) 賈偉明, 2010, 앞의 글, 140~141쪽

18) 賈偉明, 2010, 앞의 글, 142쪽

19) 許清海·楊振京·陽小蘭·劉志明·梁文棟, 2006, 앞의 글, 169~170쪽

면 이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감지된다.

① 기원전 3050~1150년의 기후 특징은 고온고습하며 7월 평균기온은 20.5~23.5℃, 연평균 강수량은 752~850mm로 이 단계는 온난다습한 기후기가 되며 전신세 시기 최적의 환경에 속한다.

② 기원전 1150~기원후 350년에는 기온은 분명하게 내려갔으며 강수가 먼저 하강하였고 나중에 상승한다. 7월 평균기온은 19.6~22.0℃, 강수량은 715~810mm로 기후가 한랭건조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나타낸다.

③ 기원전 3050년 이래 연산 남쪽지구에서는 두 차례의 降溫 사건이 발생하는데 1차는 기원전 2550~1950년경이 되고, 2차는 기원전 800년~기원후 200년경이 된다. 1차 강온시기의 7월 평균기온은 현재 기온에 비해 평균 2.9℃ 정도 낮았으며 강온과정이 분명하고 지속시간도 긴 편이다. 또 기원전 650~550년경 7월 평균기온이 현재보다 3.7℃ 정도 낮아 화북지구가 가장 한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기원전 약 50년 이 해의 연평균 강수량은 하강하기 시작하여 그전에 비해 50~100mm 정도 감소하였다.<sup>20)</sup>

### 3\_ 연산 서남부지역(懷來 太師莊)의 전신세 기후 복원

연산산맥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軍都山 남쪽에 위치한 하북성 懷來 太師莊 [그림 1의 표지 (3) 참조] 의 식생 구성으로 볼 때,<sup>21)</sup> 기원전 3750~3450년 전후 포자가루 조합은 喬木식물 화분 위주이며, 초목식물 화분은 그다음 지위를 점하여 저온현상이 명료하게 나타나며 식생 군락은 침엽림 위주의 針闊葉 混交林이 된다. 그러나 다음 시기인 기원전 3450~2850년이 되면 다시 낙엽활엽림의 식생이 발육하여 온난습윤의 기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그러나

20) 許清海·楊振京·陽小蘭·劉志明·梁文棟, 2006, 앞의 글, 170쪽

21) 이 분석은 하북 회래 太師莊의 토탄층 단면의 포자가루와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14 측정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변화의 기록을 얻었다. 靳桂雲, 2004, 앞의 글, 485쪽

22) 靳桂雲, 2004, 앞의 글, 494쪽

이 지역은 기원전 2850~2250년에 다시 기후의 급강하가 출현하여 침엽림 식생이 재발육한다.<sup>23)</sup>

이처럼 회래지역은 기원전 2850~2250년에 침엽림의 식생이 발육하게 됨에 따라 이전의 온난습윤의 기후환경이 한랭건조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기원전 2650~2250년에 매우 강력한 강온현상이 발생하여 전신세시기 한랭건조 기후의 최고점에 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강온현상 이후 기원전 2250~1430년에는 다시 침활엽 혼교림이 성장함에 따라 기온이 다시 상승하였고 이는 온난건조화의 경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 4\_ 전신세 연산 남북지역 고기후의 복원과 생태환경

이상 연산 남북지역 내의 동남부, 서남부, 중심지역 등의 세 지역에서 행해진 전문 분석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산 남북지역이 광활하고 앞서 제시한 연구가 각기 멀리 떨어진 지역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고 또한 이를 시기적·지역적으로 정확하게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큰 범위에서 본다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이의 연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또 이를 보완해 줄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루는 시공범위 내 시기별 기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기원전 6500~5500년: 기원전 6500년 전후에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난습윤한 기후가 이어지지만 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경 요하 유역은 비교적 한랭건조한 초원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원전 약 6000년경의 내몽고 敖漢旗 興隆洼 유지에서 출토된 사슴과 야생돼지의 뼈를 통해서 당시 초원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sup>25)</sup>

② 기원전 5500~4500년: 기원전 5000년경에 이르면 연평균 기온의 상승

23) 靳桂雲, 2004, 앞의 글, 494쪽

24) 靳桂雲, 2004, 앞의 글, 494쪽

25) 王守春, 2006, 앞의 글, 357~358쪽

(대략 5℃ 정도)과 강수량의 상승으로 인해 온난습윤한 기후를 보인다. 이러한 기후 상승과 초원의 형성은 기원전 5000~4000년경의 敖漢旗 趙寶溝 취락 유지에서 대량 출토되는 동물 뼈의 감정에서 증명된다. 이곳에서는 사슴과 다양한 동물의 잔골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고라니 수량이 가장 많으며 개, 담비, 오소리, 두더지, 몽고족제비 및 소와 곰의 뼈도 소량 존재한다. 특히 이 중 몽고족제비는 초원과 荒漠지대에 분포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출토는 서요하 유역 남부지구가 초원으로 구성되었음을 표명한다.<sup>26)</sup> 그런데 이러한 기온 상승시기 중 기원전 약 5100년경, 4600년경에 냉기가 찾아오게 된다. 다만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으며 이후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본다면, 기원전 약 5100년, 4600년경에 기후 하강이 찾아오지만, 갱신세에 비하여 온난한 기후를 맞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의 기후는 비교적 한랭건조한 초원 유형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원전 4500~3500년: 앞서 살펴본 상요하의 경우 기원전 4000년에 기온 상승이 최고치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기원전 4600년 전후로 한냉기가 찾아오지만 이후 온난한 기후를 보이며, 약 1000년 정도는 전신세 기간 중 가장 따뜻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조보구 유지 식생 군락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삼림-초원 유형으로 변하였다. 이는 서요하 유역에서 야생돼지 뼈가 광범하게 출현하였고 이는 당시 이들이 서식할 수 있었던 환경이 침활엽 혼교림 혹은 삼림초원형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여 준다. 敖漢旗 小山 유지와 翁牛特旗 小善德 유지에서 출토된 가래나무 과실, 산벚나무 종자와 자작나무 수피를 통해 볼 때, 기원전 4050년 전후의 조보구문화 분포지구는 가래나무와 자작나무로 조성된 낙엽 활엽림이 존재하였고, 숲 아래 혹은 광활 지대에서 李屬으로 조성된 관목 혹은 小喬木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sup>27)</sup> 또 연산지구와 서쪽으로 맞붙어 있는 岱海지구의 石虎山

26) 王守春, 2006, 앞의 글, 358~359쪽

27) 이외에 또한 기원전 약 5100~4000년 전후로 전신세 기후의 최적합기이며 중위도

제 I 취락 유적에서 대량의 물소 뼈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기후가 몹시 온난습윤한 상태였음을 시사해 준다.<sup>28)</sup>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전신세 기후 중 가장 따뜻하여 인류 문명 발달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본다. 이에 따라 기원전 4500년 이후는 전신세 기후의 최적합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온난 기후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3000년 전후에 기후 급강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약 1000년 동안, 즉 기원전 4500~3500년 시기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요하는 기원전 4000년 전후로 덥고 건조한 초원으로 변화했다.

④ 기원전 3500~2500년: 이 시기는 기후변동이 잦은 시기로 각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회래지역 고기후의 변화는 기원전 3750~3450년 저온화 → 기원전 3450~2850년 온난습윤 기후 → 기원전 2850~2250년 기후 급강하로 나타나며, 기원전 3000년경 상요하 지역의 한랭건조화, 천안 잠고묘의 경우는 비교적 늦어진 기원전 2550년경 강온사건이 발생한다. 이외에 포자가루 분석 결과 북경지구는 기원전 3600년(5620±100aB.P.) 전후에 기온이 비교적 크게 하강하였으며 가문비나무(雲杉), 전나무(冷杉)를 대표로 하는 침엽림 생장의 변성은 그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이는 아마도 춥고 습한 소빙기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요녕 남부지구에서도 기원전 3050년(5000aB.P.) 전후로 기온의 하강, 강수 감소의 추세가 출현하였다. 내몽고 중동부지구에서도 교목 화분 함량과 관목, 초목 화분 함량의 비교 수치에 근거하면 매우 명료한 저온건조화 시기가 나타난다. 이상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이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3500년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기원전 3000년 전후로 온난건조한 기후가 한랭건조의 추세로 변하기 시작하였다.<sup>29)</sup>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현대에 비해 3~4℃ 정도 높았으며 강수량도 증대하였고 난온대 낙엽활엽림대는 북으로 약 3 정도 확장되었다고 추정된다. 鄧輝, 2006, 앞의 글, 323~325쪽

28) 黃蘊平, 2001, 「石虎山 I 遺址動物骨骼鑑定與研究」, 『岱海考古(二)』, 科學出版社

29)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원전 3500년경 岱海 유적에서 볼 때 대해의 수면이 하강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약 3000년경에 호수 바닥을 드러내 거의 얼음으로 뒤덮인

⑤ 기원전 2500~1000년: 회래지역에서 강력한 강온현상 이후 기원전 2250~1430년에 기온이 다시 상승하여 온난건조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온난화는 기원전 2000~1500년의 유지로 추정되는 적봉시 大山前 유지 회갱 내에 목탄 잔조각 감정에서 나온 잣나무(油松) 68.78%, 몽고상수리나무(蒙古櫟) 14.43%가 군체의 대표 수종이며, 느릅나무(榆屬), 자작나무(白樺), 황단목(碩欏), 버드나무(楊屬) 등의 종류를 통해 볼 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낙엽 활엽림 및 溝谷雜木林이 분포되어 있어 생태기후가 온난조습 유형임을 보인다. 그리고 몽고상수리나무는 기후가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온난건조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sup>30)</sup>

따라서 기원전 1500년경의 적봉지구의 황토 구릉지대에는 온난대 침·활엽의 혼교림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보인다.<sup>31)</sup> 이러한 온난화는 또한 大甸子 묘지 제1117호, 제1123호, 제1242호, 제1145호 등의 무덤에서 출토된 내한성이 강한 소나무와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느릅나무, 호두나무, 소량의 가문비나무, 水生식물인 창포, 골쇄보(水龍骨) 등의 흔적은 당시 삼림과 초원이 존재하고 비교적 온난습윤의 환경이었음을 시사한다.<sup>32)</sup> 다만 천안 잠고묘의 경우에도 온난화의 추세에서 기원전 2550년에 강온 과정을 거친 후 기원전 1950년 이후부터 다시 기온이 상승하다가 기원전 1150년부터 분명하게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되었다.<sup>33)</sup> 이 시기는 기원전 2500년 전후에 기온 급강하를 맞이하지만 기원전 2000년 전후로 다시 온난화를 맞이하고 기원전 1000년 전후로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이상 이 시기 연산 남북지역의 기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전신세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編, 2000, 『岱海考古(一)-老虎山文化遺址發掘報告集』, 科學出版社, 5쪽

30) 王樹芝·王增林·朱延平, 2004, 앞의 글, 46~49쪽

31) 王樹芝·王增林·朱延平, 2004, 앞의 글, 50쪽

3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323~333쪽

33) 許清海·楊振京·陽小蘭·劉志明·梁文棟, 2006, 앞의 글, 170쪽

시기에 기후가 온난화의 추세로 변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지구는 신석기시대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후변화는 여러 차례 온난과 한랭을 교차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5100년과, 4600년 전후의 한랭건조화 및 기원전 3000년(3500년 - 시작은 이때부터)과, 2500년, 1000년(1500) 시기에 강력한 강온현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기원전 3000년 전후를 경계로 이전은 비교적 온난하였다면, 이후 시기는 한랭건조의 추세로 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강온현상 사이에는 온난 시기가 존재하였음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6000~5000년, 기원전 4500~3000년(3500), 기원전 2500~1000년(1500)은 강온시기 사이에 존재한 온난기로 볼 수 있다(표 1 참조).

### Ⅲ. 전신세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와 경제구조의 변천

이상으로 볼 때, 전신세 시기 연산 남북지역에는 몇 차례의 큰 기후변동이 존재하였으며 각기 온난습윤과 한랭건조의 과정을 반복하였지만, 이 시기의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이외에 강수량은 현재보다 100mm 정도 더 많아, 당시 연평균 온도는 4~15℃, 연평균 강수량은 500~800mm 정도였다. 이러한 기후를 보이는 연산 남북의 생태환경은 농업에 가장 적합하였고, 이는 당시 산구와 구릉지대에서 보이는 낙엽 활엽수림 및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혼교림과 삼림초원 및 서요하 평원의 초원 식생은 식물과 동물을 위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환경은 농업에 적합한 환경뿐 아니라 당시 광범위한 채집과 수렵의 물적 기초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산 남북지구의 문화권은 연산 남북 장성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北方 區系 중의 일부로 북방구계의 동단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리문화의 단위로 燕遼文化區와 遼西文化區라 칭한다.<sup>34)</sup> 기원전 약 6500년부터 1000년

경까지의 전신세 대오난기에 이 문화권에서는 주지하듯이 興隆洼文化, 趙寶溝文化, 紅山文化, 小河沿文化, 夏家店下層文化 및 夏家店上層文化 등의 고고문화가 차례로 출현한다.<sup>35)</sup>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고고문화는 대체적으로 筒形罐, 之字文, 玉器, 細石器를 전통으로 하며 비교적 발달한 농업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고고문화는 계승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산 남북지역은 농목 교차지역으로 기후나 생태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에 따라 이들 고고문화가 기반하는 생태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환경도 각자 특징과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구 신석기시대 문화의 기원과 발전은 특수한 지리환경과 더불어 전신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로 존재한다고 보인다. 즉, 기후변화에 따라 그 지역의 생태환경이 변하였다면,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그에 적응하는 인간집단의 문화나 사회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장은 기후와 생태에 따른 각 고고문화의 사회와 경제구조 및 그 변화상을 짚어보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 시기 연산지역에 출현한 고고문화의 출현시기, 그 분포 범위 및 문화적 특징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각 고고문화의 요소가 기후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 1\_ 興隆洼文化

기원전 6500~5500년의 기후는 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온난습윤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원전 6000~5000년 전후<sup>36)</sup> 연산 남북지역에서 출현한 고고문화는

34) 索秀芬, 2007, 앞의 글, 253쪽

35) 단, 이 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문화는 기원전 7000~6500년경의 小河西문화이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소하서문화를 잠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문화적 면모, 경제구조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 문화의 경제구조 등을 포함한 기후와의 보다 면밀하고 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이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는 홍릉와문화부터 다루고자 한다.

36) 이 문화의 연대를 추정해 보면, 8000~7000년 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興隆洼 119호 거주지의 연대를 기원전 5290±100년, 查海 유지 중기의 제1호 거주지 연대

홍룡와문화라고 할 수 있다. 홍룡와문화의 공간 분포는 서쪽으로는 冀遼산지로부터 동쪽으로는 遼河 하류지구에 달하며 남쪽으로는 연산 산지를 넘어 북경 평원의 洶河 유역에 달하고, 북쪽으로는 대홍안령 남단의 山前지구에 분포한다.<sup>37)</sup> 이 문화를 대표하는 도기의 특징은 之字文을 장식한 筒形罐이며 이러한 전통은 연산 남북지역에서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sup>38)</sup>

홍룡와문화 각 유지 중에서 발견되는 생산도구는 주로 석기와 골기류이다. 석기는 타제석기의 수량이 가장 많으며 그중 전형기물은 有肩鋤形器로 아마도 松土에 사용된 도구로 추정된다. 이외 斧, 鑿, 鏟形器,<sup>39)</sup> 石磨盤, 石磨棒이 나타나며 골기로는 錐, 匕形器, 魚鱗(작살) 등의 생산도구가 있다. 이 문화에서 골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상당히 정밀하게 제작되었고 모두 연마하였다. 특히 작살이 매우 정밀하게 가공된 것으로 보아 당시 어업이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한편 이미 이 문화에서 재배식물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우선 토양 중 식물 종자 10,000여 알을 발견하였고 대부분 비교적 작은 草本식물 종자에 속한다. 그중에는 탄화 黍(기장)의 낱알 1,500알, 100여 개가 못 되는 탄화 粟(조)의 낱

를 거금 약 7500년경, 白音長汗 유지의 제25호 방지 연대를 7040±100년 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추정해 보면, (사해)-홍룡와문화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8000~7000년경으로 그 초기 연대는 8000년 전 이전으로 넘어선다. 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114쪽

- 37) 홍룡와문화의 공간 분포는 일종의 지자문 통형관을 전형 도기군으로 하는 고고문화 공간의 연장, 확장 범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일종의 특정한 자연환경 하에서 형성된 人地생태계통의 종합체가 특정시간의 공간분포를 반영한다. 鄧輝, 2006, 앞의 글, 324쪽
- 38) 이 문화는 협사 갈색 압인문 筒形罐을 주요 특징으로 갖는다. 홍산문화, 내몽고 동남부의 富河문화, 下遼河 심양시 북쪽 교외의 新樂 下層文化에서도 출토되어 연산 남북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11쪽
- 39) 후기에 오면 일정 형태를 갖춘 石鏟이 출현한다.
- 40) 작살 중 한 종류가 자주 보이는데 길이 17.5cm이며 세 개의 미늘이 한 줄로 붙어 있고 다른 한 종류는 骨梗石刃이라는 작살로 잔품만 발견되었다.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18~119쪽

알이 있다.<sup>41)</sup> 또 출토된 생산도구로부터 추측하면 이 문화에 이미 농업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출토된 생산도구 중 농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적고, 이나마도 타제석기 위주의 농구라는 점과, 오히려 보존 상태가 좋은 물고기 뼈가 한 교혈에서 출토된 점, 매우 정밀하게 제작된 작살 등과 같은 어로와 수렵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의 농업생산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이 문화의 石斧는 수목을 감별하는 데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sup>42)</sup> 석마반, 석마봉은 곡류, 식물의 종자를 가공하는 데 이용하였으며 대량의 刮削器(긁개), 石葉의 발견은 이 문화에서 수렵과 채집경제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적지 않은 蚌飾品은 유지 주변에 물가가 항상 존재하여 어로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이 유지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우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물 근처에 취락유지가 거의 존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sup>43)</sup> 또한 유지 중 출토된 대량의 식물의 씨앗, 사슴 뼈, 개 뼈 등의 유물 정황으로 본다면 채집과 수렵이 홍릉와문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홍릉와문화 유지의 분포는 하나의 공동의 특징이 있는데, 즉 전부 인근 호수나 하류의 황토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모에서 성글고 부드러운 비옥한 황토는 원시의 석기를 이용하여 원시농업을 경영할 수 있고, 주위의 호수, 하류는 어로의 이익을 제공하며, 주위의 낮은 河谷이나 산전 평원에서 성장하는 난온대 삼림은 안정적인 채집식물을 제공하였고, 수풀 아래 혹은 초원에서 생활하는 사슴·노루도 당시 인간의 육식의 내원이 되었다고 보인다.<sup>44)</sup>

취락을 하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세가 높은 구릉 경사지에 건설하였

41) 趙志軍, 2004, 「探尋中國北方旱作農業起源的新線索」, 『中國文物報』 2004年 11月 12日

42) 斧는 일반적으로 10cm 전후로 나무 베는 데에 사용했다면 아주 작은 나무를 베는 데에만 적합하였을 것이다.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18쪽

43) 索秀芬, 2007, 앞의 글, 252쪽

44) 鄧輝, 2006, 앞의 글, 323쪽

다는 점, 확 트인 구릉 산지가 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강에 가까운 평야가 아닌 계획적·단기적 거주 형태<sup>45)</sup>를 보인다는 점은 모두 어로 및 수렵경제의 불안정성과 광대한 활동 범위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화 단계에서는 비록 당시에 농업활동을 하였을지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어로, 수렵, 채집이 주요 생계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6)</sup> 따라서 채집과 수렵 및 원시농업 등 다종의 경제적 구조로 구성된 복합형의 토지이용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7)</sup>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가 한랭건조한 초원 유형이었다는 점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

## 2\_ 趙寶溝文化

다음으로 기원전 5000년 전후에 출현한 연산 남북지역의 고고문화는 조보구 문화(기원전 5000~4500년)<sup>48)</sup>라고 할 수 있다. 조보구문화는 내몽고 敖漢旗 趙寶溝, 小山, 南臺地 유지 이외에 또한 내몽고 翁牛特旗 小善德, 林西 白音長汗,<sup>49)</sup> 水泉, 하북성 遷安현 安新莊, 遷西현 東寨, 西寨 등에서 주요 유지가

45) 또한 비록 홍릉과 유지를 비롯하여, 사해, 백음장한 유지에서는 일정 규모와 규율을 갖춘 취락이 존재하고 각 주택 내에는 화덕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이 문화 유지 중 하나인 姜家梁 초기 주택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유지의 주택 구조가 간단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화덕이 없어 그 당시 정주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韓建業, 2003, 『中國北方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文物出版社, 258쪽

46)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12쪽

47) 鄧輝, 2006, 앞의 글, 322쪽; 陳勝前, 2011, 앞의 글, 10~13쪽

48) 이 문화시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趙寶溝 유지의 연대는 기원전 4270±85년, 비교적 늦은 小山 유지는 기원전 4110±85년(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44쪽)으로 보기도 하며, 기원전 5000~4000년, 혹은 기원전 5200~4470년으로 잡기도 한다(田廣金, 2004, 『中國東北西遼河地區的文明起源』, 中華書局, 29~30쪽). 이는 각 유지 연대와 각 지역에서 전개된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상의 연대를 통해 볼 때 큰 범위에서 이 문화가 존속한 시기를 대략 기원전 5000년에서 4500년 전후로 정할 수 있다.

49)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白音長汗-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上)』, 科學出版社

발굴되었다.<sup>50)</sup> 그 분포 범위는 북쪽으로는 서랍목운하를 넘었으며, 동쪽으로는 敎來河 유역까지, 남쪽으로는 연산을 지나고 灤河 유역까지 분포한다. 西拉木倫河 이북은 비교적 전형적이고 풍부한 조보구문화 유적이 발견되었고 연산 남쪽의 산기슭에서도 풍부한 유적이 있고 오히려 중남부의 敎來河 유역, 牯牛河 유역, 翁牛特旗의 중부 역시 조보구문화 분포가 집중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sup>51)</sup>

조보구문화 역시 통형관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자문과 동물문이 중요 특징이고 통형관 수량도 많다. 이외 紅頂鉢이 있다. 조보구문화 석기류는 대형 석기와 세석기가 존재한다. 대형석기는 이전과 달리 마제석기 위주이며 제조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타제석기는 이미 부차적 지위로 전락하였고, 이를 대신하여 대량의 정지한 마제석기가 출현하였다. 마제석기의 전형기는 편평하고 긴 石斧와 石耜<sup>52)</sup>이다. 홍룡와문화의 타제 石鋤와 비교하면 翻土도구가 매우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이외에 鑿, 刮削器, 석마반, 석마봉, 窄條形 石片 및 石核 등이 있어 일부는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토된 짐승 뼈 중 돼지와 개는 사육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이외에 사슴 위주의 야생동물 뼈가 대량 출토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일 년 내내 사냥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수렵은 식량 취득의 중요 수단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문화의 취락 규모는 홍룡와문화 시기를 능가하는데 분명 농업생산 수준의 제고는 조보구문화 취락규모 확대의 경제기초였을 것이다. 또 마제의 정교한 石耜 등의 번토도구는 간접적으로 당시의 농업 토지 이용 수준이 홍룡와문화 시기를 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sup>54)</sup>

50)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44~145쪽. 이에 따르면 이 문화의 분포 범위는 연산 이북의 西遼河 유역 위주이며 연산 이남지역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郭大順(2005),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217쪽

52) 石耜의 형태는 비교적 작아서 그 길이가 보통 홍산문화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53) 鄧輝, 2006, 앞의 글, 324쪽

54)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49쪽

### 3\_ 紅山文化

연산 남북지역에서 조보구문화 다음으로 나타나는 고고문화는 홍산문화이다. 홍산문화가 존속한 시기는 넓게는 기원전 4500~3000년 전후라 볼 수 있다.<sup>55)</sup> 분포범위를 보면 홍산문화의 北界는 서랍목운하를 넘어서고 또한 몽고 초원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동쪽으로는 의무려산을 넘어 下遼河 서안에 달하며 남쪽 경계의 동쪽 끝은 발해 연안에 달하고, 서쪽 경계는 연산산맥을 넘어 화북평원 남부에까지 달하고 있다. 이에 하북성 張家口 지구의 桑干河 상류 및 더 북쪽의 내몽고 烏蘭察布盟 商都縣에서는 모두 홍산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는 현상이 발견되므로 이 일대가 홍산문화 분포의 서쪽 경계점이라 할 수 있다.<sup>56)</sup>

홍산문화의 특징은 之字形 문양을 압인한 통형관,<sup>57)</sup> 채도, 독특한 형태의 掘土도구, 발달한 玉器를 특징으로 하며 석기가 많이 출토된다는 점이다. 석기 종류는 마제석기, 타제석기, 세석기가 발달하였는데 타제석기 비중이 높고 다음이 마제석기, 세석기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 대형석기가 많이 보이는데, 그 종류는 몸체가 좁고 길며 날 부위가 좁은 石斧, 有肩平扁石耜, 鞋底形石耜, 桂葉形 혹은 장방형 雙孔石刀, 石鏃, 석마반, 석마봉 등이 있다. 한편 桂葉形 有孔石刀는 매우 정밀하게 마제되어 몸체가 얇은데다 두께도 일정하다. 이것이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석기이다. 또 세석기는 삼각형 석촉, 골제의 자루에 끼워 날을 사용하는 細長石片 등이 특징이 된다.

한편 농업과 관련된 것은 도끼와 石耜와 같은 굴토도구이며, 또 석도, 석

55) 楊虎, 1994, 「遼西地區新石器銅石並用時代考古學文化序列分期」, 『文物』 1994-5. 이에 따르면 기원전 4710~2920년 정도로 잡고 있다. 이 문화 역시 존속범위에 대해 편차가 있는데 이 역시 지역과 유지 연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이 문화시기에 대해서 기원전 4000~3000년 전후로 보기도 한다.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37쪽

56)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36쪽

57) 협사회도의 특징은 기형은 간단한 형태의 통형관으로 문양은 주로 압인지자문과 평행선문이다.

마반, 석마봉 등 수확 및 가공 도구 등이 존재한다. 이는 분명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농업이 발전하였음을 반영하며 원시농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농업과 관련된 석기 중 대형 감별기와 石耩 등의 耩土도구가 중심을 이룬다. 또 細作 시 사용하는 鏟 등의 도구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간면적은 넓지만 조방형의 경작을 위주로 한 당시의 농업생산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인다.<sup>58)</sup>

이처럼 석제 농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홍산문화의 농업생산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분명하겠지만 석기 중 얇은 몸통에 날카로운 날을 가진 타제석기와 세석기가 많다는 점은 수렵과 목축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들 세석기류는 가죽 및 고기 처리에 사용된 도구이며, 돌화살촉의 주요 기능은 수렵이라는 점과, 소·양·돼지 등 가축의 뼈와 야생의 사슴·노루 등 동물 뼈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이전 시기에 비해 농업이 활성화되었을지라도 수렵과 목축 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적 대부분이 초원, 삼림에서 평원으로 이행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한 점과 또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입지하는 점 등은 농업과 수렵, 목축을 비롯한 다원화된 종합적 경제유형이 갖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정주생활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 4\_ 小河沿文化

그런데 이상에서 제시한 문화는 대체로 之字文 장식을 대표로 하는 문화이지만 홍산문화 이후 등장한 소하연문화<sup>60)</sup> 시기에는 이 전통이 사라지고 그 대신 기하문과 (연산 이남지구에서 들어온) 繩文의 전통이 보이기 시작한다. 소하연

58) 郭大順, 2005, 앞의 글, 17쪽

59) 郭大順, 2005, 앞의 글, 17쪽

60) 遼寧省博物館 等,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 『文物』 1977-12

문화의 연대는 기원전 2900~2400년으로<sup>61)</sup> 문화 분포는 요서와 내몽고 동남부가 중심이 되며 북으로는 서랍목윤하, 남쪽으로는 발해에 도달한다. 또 남쪽으로는 연산산맥을 넘어서 화북평원 북부에 도달한다.<sup>62)</sup>

도기는 통형관, 鉢, 盆形器와 壺 위주로 홍산문화와 같다. 이 문화의 도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盆에서 盂로 변한 점이다. 채도 문양은 鱗紋에서 雷文으로, 통형관은 大口深腹罐으로 변하며, 罐의 문양은 交叉繩文에서 차차 雷文과 方格文으로 변화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투각의 豆(鏤孔豆), 高足杯, 高頸尊, 雙耳侈口盆, (罐), 折腹盆, 盂形器 등은 이 문화의 독특한 특징으로 그중 盂形器와 折腹盆은 하가점하층문화로 발전하기 이전의 과도적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기존 전통인 압인 之字文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채도 장식이 발달하였으며, 八角星文, 回字文, 각종 기하형 도안이 출현하였다.<sup>63)</sup>

석기는 石斧, 石鏃, 石鏟, 石刀, 石鑿, 石磨盤, 杵, 圓形 有孔石器, 세석기 등이 존재한다.<sup>64)</sup> 그런데 이 문화의 농구는 홍산문화의 수량처럼 많지 않고 홍산문화 중 상견되는 鞋底形 石耜, 雙孔 桂葉形 石刀는 모두 보이지 않는다. 농구 수량이 적게 변하는 것으로 볼 때, 소하연문화의 농업수준은 높지 않았고 적어도 홍산문화의 농업수준에 비해 낮았다고 보인다.<sup>65)</sup> 또한 특대형이나 대형 유지가 없으며 燕北지구에서 소하연문화 유적은 매우 적게 발견되었다. 그나마 유적 대다수는 묘장이며 거주지는 또한 오한기 小河沿鄉 한곳에서만 발견된다. 발견된 4기의 주거지는 모두 반수혈식으로 두 종류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타원형이고 하나는 원형의 雙室이다. 그런데 원형 쌍실 주거지 내에서는 柱棟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반수혈 몽골 包式 건축으로 추측된다. 타원형

61) 田廣金, 2004, 앞의 글, 36쪽. 이 문화의 시기도 여러 편자가 나타난다. 기원전 3000~2500년, 기원전 2500~2000년, 4345±80B.P., 나이테 교정 연대는 4830±180 B.P.(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58쪽) 등이 있다.

62)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57쪽

63)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58~159쪽

64)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59쪽

65) 鄧輝, 2006, 앞의 글, 328쪽

주거지에서는 주동이 있지만 수량이 매우 적고 건축 형식도 비교적 원시적이다. 이러한 점은 아마도 소하연문화의 정착생활이 불안정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일부 半정주의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66)</sup> 또 주거지 내에서 발견된 퇴적을 이룬 다슬기, 조개껍질 및 동물 부서진 뼈조각 등은 아마도 어렵 경제의 비레가 크게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묘지 형태가 매우 특징적인데 발견된 4곳 중 2곳이 洞穴묘지이며 나머지는 高山묘지이다. 이런 형태의 묘지는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sup>67)</sup> 또한 大南溝 유지에서 77기의 무덤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산꼭대기에 위치하며 토광수혈묘로 특이한 점은 양신굴지장이다.<sup>68)</sup>

## 5\_ 夏家店下層文化

약 기원전 2000년 전후에 연산 남북지구의 고고문화는 청동시대로 발전하게 된다. 기원전 2500~1500년의 연산남북을 대표하는 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의 공간 분포는 북쪽으로는 서랍목윤하를 경계로 하고 동쪽은 의무려산으로 그 경계는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또 남쪽은 발해만 연안에까지 이르며 서남쪽으로는 연산산맥을 넘어 화북평원에까지 들어선다. 서쪽 경계는 하북성 張家口 지역의 壺流河 유역 일대가 되며 최남단은 拒馬河 유역을 넘어선다. 따라서 이 문화가 발전해 나간 주요 방향은 남쪽의 발해와 하북평원이 되며 북부 초원이 아니다. 이는 홍산문화가 남쪽으로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북방의 몽골 초원으로 계속 확장하는 추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9)</sup>

문화적 특징은 채도와 筒形鬲(筒復鬲),<sup>70)</sup> 승문<sup>71)</sup> 등으로 대표된다. 승문은

66) 鄧輝, 2006, 앞의 글, 328쪽

67)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60쪽

68)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61쪽

69)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296쪽

70) 楊建華, 2008, 「試論冀北地區夏至早商時期的外來文化及其影響」, 蔣剛·楊建華, 『公元前2千世紀的晉陝高原與燕山南北』, 科學出版社, 248쪽

71) 문양은 승문, 승문과 현문을 동시에 장식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소수의 남문, 획

전통적인 지자문 문화와는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더욱이 통형관의 전통을 가진 이 지역에 전혀 다른 형태인 鬲의 출현은 매우 두드러진 현상으로 통형의 鬲은 이 문화의 표지적 성격을 가진 기물 종류의 하나이다.<sup>72)</sup>

출토된 석기는 마제석기 위주지만, 타제도 많고 세석기도 종종 발견된다. 斧, 鏟, 鋤, 鑿, 刀, 鏃 등이 있으며, 斧의 종류는 일반적인 단면의 타원형 斧도 있지만 새 형식의 편평한 장방형 斧도 있다. 석재, 골재 등의 재료로 제작된 농구는 하가점하층문화 생산도구의 주요 성분을 이루는데 가장 특색 있는 농구는 窄頂寬刀邊의 타제 石鋤, 장방형 마제 石鏟, 단면이 장방형 혹은 삼각형으로 된 마제의 石刀이다. 이들은 매우 전형적인 농구로 당시 경제 형태와 토지 이용방식이 농업 위주였음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된다.<sup>73)</sup>

寧城 南山根 유적의 경우 마제석기가 66%를 차지하며 세석기는 18%, 타제·마제의 검제석기는 16%를 차지한다. 이 중 마제의 石鏟, 石刀와 타제 石鋤는 모두 농구로 이 중 석산의 출토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석산은 耒土農 도구인데 이 마제 有肩石鏟은 크기가 작고 매우 얇아서 일반적 굴토도구가 아니라 中耕 단계에서 흙을 고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시 농경에서 細作이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sup>74)</sup>

또 석도 중 장방형 석도는 손에 묶어 사용하는 일종의 수확용 도구에 해당된다. 이 농구는 동북지구의 旱地농업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또 北票 豐下, 建平 水泉 유지에서 구덩이에 저장된 대량의 조가 발견되었다.<sup>75)</sup> 이는 하가점하층문화에서는 조 위주의 농업을 경영한 것을 의미한다.<sup>76)</sup> 이러한 생산 도구, 식량작물 유물, 대량의 돼지 뼈 등을 분석하면, 이 시기의 사람들이 耕作

문, 이병과 부가퇴문 등이 있다.

72) 이외에도 鬲이 많으며, 尊, 盆, 대형의 瓮, 豆, 杯 등이 있으며 일부 鬻와 爵 등이 수장되었다.

73) 鄧輝, 2006, 앞의 글, 330쪽

74)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301쪽

75) 遼寧文物干部培訓班, 1976,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1976-3

76)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301쪽

농업 위주의 토지 이용방식을 경영하였고 안정적 정착생활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또 어업도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동시에 돼지, 양, 소, 개 등의 가축을 사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 6\_ 夏家店上層文化

기원전 1500년 이후가 되면 하가점상층문화는 연산 남북지구에 광범하게 분포하였고 그 남쪽 경계는 하가점하층문화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북쪽 경계는 더욱 확대되어 대홍안령 남단지구에까지 분포하였다. 동쪽과 남쪽은 대능하유역까지 들어가지만 다시 동남쪽으로 가면 그 분포가 약해지고 의무려산과 발해만 연안까지 이르지 않는었다. 서쪽으로는 七老圖山을 넘어서 하북성 서북의 張家口까지 미쳤다.<sup>78)</sup>

하가점상층문화는 하가점하층문화에 비해 주거지나 유물의 발견이 많지 않으며 생산도구도 크게 변화하여 하가점하층문화 중 풍부한 특징적 농구인 굴토나 송토도구인 석산이나 석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일종의 收割용의 반월형 석도나, 갈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석마반과 석마봉이 있을 뿐이다.<sup>79)</sup> 이에 비해 大井 등 유지에서 출토된 사슴, 노루, 야생말과 여우, 곰, 토끼 등 대량의 야생동물의 뼈가 발견되었고, 가축으로는 양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수렵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赤峰 이남에서는 돼지, 개, 말, 소, 양 등의 가축의 뼈가 많고 돼지 뼈가 특히 많다. 이외 建平 水泉에서 출토된 탄화곡물을 저장한 교장과 대형 저장용기인 甗의 발견으로 볼 때, 정착 농업이 경제생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목축업과 같이 경영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0)</sup> 한편 이 시기 청동기는 매우 발달하였고 특히, 청동무기와 마구가 발달한 점으로 볼 때, 이들 문화는 일정한 농업 성분

77) 鄧輝, 2006, 앞의 글, 330쪽

78)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467~468쪽

79)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473쪽

80)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473쪽

을 포함한 목축업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연산 남북지역에서 전개된 각 고고문화를 출현시기, 분포범위, 특징과 경제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검토하였던바 대온난기에 기후변화는 여러 차례 냉온을 교차하였고, 기원전 5100년, 4600년, 3000년(3500), 2500년, 1500년(1000) 전후로 온도가 내려가고 건조하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그 사이인 기원전 6000~5000년, 기원전 4500~3000년(3500), 기원전 2500~1500년(1000)은 온난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후변동 시기와 연산지역 고고문화인 흥릉와문화,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소하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하가점상층문화의 출현과 쇠락 시기는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들어맞는다.

실제 기원전 6000년경의 흥릉와문화는 기원전 6500년 전후로 시작된 대온난기를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며 기원전 5100년에 발생한 강온 시기에 쇠락한 후 다시 기온이 상승한 기원전 5000년 전후 조보구문화가 출현한다. 한편 기원전 4600년 전후 다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이후 기온 상승을 배경으로 기원전 4500년 전후부터 홍산문화가 발생하고 이 문화는 기원전 3000년경 급격한 기온 하강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홍산문화를 계승한 소하연문화가 기원전 3000년 전후로 출현하다가 강온 현상이 나타나는 기원전 2500년 전후가 되면 다시 하가점하층문화로 대체된다. 이후 기원전 1500년(1000)경의 강온사건은 하가점하층문화를 하가점상층문화로 대체시키게 된다. 이처럼 각 문화의 출현과 쇠락은 기후변화 시기와 일정하게 맞물린다. 이는 각 고고문화의 후기에는 모두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게 되는데 새로운 문화는 일부 환경 악화나 개선 등을 계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보구문화가 흥릉와문화를 대체하고, 홍산문화는 조보구문화를, 소하연문화는 홍산문화를 대신하며 하가점하층문화는 소하연문화를, 하가점하층문화는 하가점상층문화에 의해 교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산 남북지역 기후변화 추세와 고고문화의 교체

시기	기후 추세	기후 특징	고고문화
B.C. 6000~5000	비교적 온난	온난기	홍룡와문화 (B.C. 6000~5000)
B.C. 5100		降溫 현상	
B.C. 5000~4500		온난기	조보구문화 (B.C. 5000~4500)
B.C. 4600		강온 현상	
B.C. 4500~3000(3500: 시작점)		온난기	홍산문화 (B.C. 4500~3000)
B.C. 3000(3500)	급격한 강온 현상	급격한 강온 현상	
B.C. 3000(3500)~2500	한랭건조 추세	한랭건조 추세	소하연문화 (B.C. 2900~2400)
B.C. 2500		급격한 강온 현상	
B.C. 2500~1500(1000)		온난기	하가점상층문화 (B.C. 2000~1500)
B.C. 1500(1000)		급격한 강온 현상	
B.C. 1500~		한랭건조 추세	하가점상층문화 (B.C. 1500~800)

#### IV.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의 성쇠와 이산

이상 제2·3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후변동이 고고문화의 형성과 쇠락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고고문화의 성쇠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고고문화의 성쇠과정은 새로운 문화로의 이행 혹은 교체, 타 문화 요소와의 융합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교류와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료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이 장에서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라 출현과 쇠락을 동반하였던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를 통해 기후가 고고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홍릉와문화 시기에는 비교적 한랭건조하였을지라도 복합형 토지 이용방식 등을 통해 정주생활을 상당량 유지하고 취락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신세 대온난기로 진입하여 온난화의 추세를 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의 변천과 기후 및 생태환경의 변화는 서로 관련이 있어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의 환경이 인류 생존에 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산문화 후기 단계의 변형은 당시 생산방식이 불안정한 정주생활을 반영하는 다원화된 종합적 경제유형을 갖추었을지라도 이 시기 온난습윤한 기후환경이 이전에 비해 농업생산량의 제고를 유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측면은 주로 농구에서 표현되는데 유지 중 출토된 石鏟, 石鋤, 石刀 등 농업경작 및 곡물 수확용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수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그 제작 수준도 높아져 농업생산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확용구는 이전에 비해 증가하여 이는 농경면적의 확대와 농업생산량의 제고를 시사한다.

이 시기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制玉, 制陶, 制骨牙蚌, 방직 등의 공예기술 및 대형 제단 등과 같은 건축기술도 이러한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통해 가능하였을 것이며 대형 종교 유지와 이를 통해 본 계층분화는 홍산문화의 고도로 발달한 사회조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온난습윤한 기후상황은 고대 농업문화 발전의 중요 조건의 하나이며 홍산문화 후기의 변형과 발전은 이런 환경 하에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한편으로는 홍산문화의 공간분포와 이전 문화의 공간분포 범위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문화유존의 밀도는 이들을 훨씬 능가하였으므로 홍산문화 시기의 인구수는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낼 것이다.<sup>81)</sup> 다만 이처럼 발달한 문명사회를

81) 백음장한 유지는 홍릉와문화,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소하연문화 시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중 홍산문화 주민 거주 시간이 길었고 그 밀도도 높았다. 이

이룩하고 상당량의 인구를 가졌던 홍산문화는 문명의 최고봉에서 돌연 쇠락하게 되며 그를 이은 것이 소하연문화이다.

기원전 3000년경에 연산 남북지구는 한랭건조한 기후가 극에 달하였으며 이는 변영한 홍산문화를 돌연 쇠퇴하게 하였다. 또 이를 계승하여 출현한 소하연문화의 성분은 분명 문명의 쇠락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홍산문화 후기의 취락 수량이 많고 취락 분포의 북쪽 경계가 북위 44도인데 비해, 소하연문화 시기에 이르면 취락 수량이 대폭 감소되고 취락의 공간분포범위는 현저하게 南移하여 북쪽 경계가 북위 42.5도에 달하면서 인류 활동범위가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sup>82)</sup>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하연문화 시기에는 특대형·대형의 유지가 없고 중형·소형만 존재한다. 유지 규모는 사회구조에서 결정되며 동시에 자연 환경에 견디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감당 능력이 저하될 때는 유지의 규모도 작아진다. 또 수정주생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또 농업수준의 낙후성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홍산문화 말기와 소하연문화 시기에 농경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최종적으로 이전 문화의 쇠락으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83)</sup>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합하 유역의 고 지모 분석을 통해 기원전 3000~2000년에 이 지역에 사막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4)</sup> 물론 사막의 확대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랭건조한 기후도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모의 변천은 홍산문화 말기에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동식물군의 변화를 유도하여 수렵과 목축 경제의 쇠퇴뿐 아니라 경작지가 파괴되고 가경지가 감소되어 농업경제가 신속하게 쇠퇴하여 이에 홍산문화는 소하연문화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는 홍룡와, 조보구문화에 비해 홍산문화 시기의 인구밀도와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陳勝前, 2011, 앞의 글, 16쪽

82) 靳桂雲, 2004, 앞의 글, 495~496쪽 참조.

83) 靳桂雲, 2004, 앞의 글, 496쪽

84) 武弘麟·史培軍, 2006, 「全新世科爾沁沙地的環境變遷」,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干旱半干旱地區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312쪽

배제할 수 없다.<sup>85)</sup>

소하연문화의 생산도구는 농업 수준의 저하 현상을 반영하며 또 홍산문화에 비해 조악하고 낙후한 건축 상황이나 制陶 공예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하연문화 시기에도 역시 한랭건조의 저온현상 등은 약해진 농업 경제 구조를 붕괴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다. 일단 문화가 의존하는 환경 조건이 사라지면 그에 의존한 문화의 쇠락도 뒤따른다. 소하연문화의 유물 수량이 매우 적은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半정주생활의 가능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 시기 인구 감소를 또한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之字文을 대신하여 출현한 繩文과 大汶口文化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이 문화 중에 보편적으로 출현한 陶豆, 그리고 서북부에서 유행하던 굴지장 및 雙耳小口罐 등 새로 출현한 대량의 외래문화 요소<sup>86)</sup>는 연산 남북지역 토착의 문화전통과 서로 융합하는데 이는 남북 문화계통의 교류현상을 반영함<sup>87)</sup>과 동시에 당시의 사회경제 구조의 불안정성, 즉 기존 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여러 구조적 모순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이 외래문화 요소와 현지문화 요소가 상호 융합되는 특징으로 표현된 것이다.<sup>88)</sup> 한편으로 소하연문화에서 보이는 葬俗과 속성은 기후 하강에 따라 열악해진 서북방의 일부 세력이 연산 남북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강렬한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러한 환경 악화에 따른 생존환경의 압박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불안정성은 소하연문화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연산 이남을 넘어 서쪽과 남쪽을 향해 이동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북경과 하북 북부 지역에 도달하여 전통적인 통형관, 굴지장, 채도를 가지고 당지의 토착세력과 결

85) 靳桂雲, 2004, 앞의 글, 496쪽

86) 소하연문화에서 유행한 굴지장은 홍산문화와 하가점하층문화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장속은 서북부지역의 신석기시대 諸문화에서 유행한 것이다. 또 雙耳小口罐 등의 도기형태 및 기물 내벽의 채색이 비교적 발달하였는데 이것 역시 서북의 고문화와 연관된다.

87)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67~168쪽

88) 鄧輝, 2006, 앞의 글, 327~328쪽

합하여 素面陶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 즉 雪山 1기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한다.<sup>89)</sup> 이처럼 이 시기에 소하연문화의 영향을 받아 太行山 동록 일대에 변혁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鼎에서 犧사의 平底罐, 瓮 등의 기물을 채용하여 취기로 삼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충격의 배경에는 강력한 문화집단의 존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90)</sup>

또 하북 陽原 姜家梁 유지와 묘지 중 묘장 형태가 토갱수혈묘와 동실묘 두 종류가 있고 葬式이 굴지장이 많아 소하연문화 묘장 형태와 장식이 매우 비슷한 면이 많고 도기도 채도와 기하문, 犧사회갈도가 많아 이 도기군은 설산 1기와 소하연문화 도기군과 비슷한 점이 많다.<sup>91)</sup> 이는 소하연문화의 일부 다른 세력은 서쪽을 향해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강가량 묘지 인종의 성분의 복잡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체로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각각 古 化북형 체질적 특징, 石棚山 묘장 체질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강가량 묘지에는 연산 이북에서 온 人群의 존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sup>92)</sup>

이처럼 홍산문화의 쇠락과 소하연문화의 출현 및 그 성격을 통해 볼 때 문명 성쇠와 융합 및 창출의 과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존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점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후와 생존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문명 성쇠의 과정은 각 유지의 수량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전신세 초기에는 연산 남쪽에 위치한 북경의 북쪽인 懷柔의 轉年 유지, 내몽고 동남부 지구의 小河西 문화유지의 수량이 비교적 적었다. 이에 비해 기원전 6500년 전 이후 전신세 대온난기에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가 많아짐에 따라 생존환경의 개선과 풍부한 자원의

89) 郭大順·張星德, 2005, 앞의 글, 171~172쪽

90) 田廣金, 2004, 앞의 글, 62~63쪽

91) 河北省文物研究所, 1999, 「河北省考古五十年」, 『新中國考古五十年』, 文物出版社, 44쪽

92) 索秀芬, 2007, 앞의 글, 254쪽

출현이 뒤따르게 되고 이후 출현한 홍룡와문화, 조보구문화 유지 수량이 점차 증대하고, 인구도 상승 추세로 나타난다. 즉, 소하서문화는 각 100년 동안의 유지 수량은 3.5개, 홍룡와문화는 10.2개, 조보구문화는 9.4개로 집계된다. 또 기원전 4500~3000년 전후 홍산문화 성립 시기의 기후는 인류 생존환경이 가장 적합한 최고의 시기로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각 100년 동안의 유지는 48.8개로 증가된다. 그러나 이후 급격히 쇠퇴하는데 이는 기원전 3000년 이래 기후가 악화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후 출현한 소하연문화의 유지는 수량이 급감하여 유지 수량은 9.4개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하연문화와 홍산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93)</sup> 소하서문화 시기부터 본다면, 기후가 온난해지기 시작하는 소하서문화 시기에는 유지가 비교적 적고 이후 홍룡와문화, 조보구문화는 지속적으로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홍산문화 시기는 최고봉에 달하였으며 이후 소하연문화 시기가 되면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지 수량 분석으로 본다면 기후와 환경은 유지 수량 및 인구 증가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기원전 2500년경에 다시 한 차례 강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온이 다시 올라가서, 온난건조화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출현한 문화가 바로 하가점하층문화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거주지의 분포 밀집도, 건축 규모 및 장기 사용 흔적, 농업경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볼 때 이 문화는 매우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이루었고 인구가동 현상도 매우 적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내몽고 중남부지역에서 원류한 袋足を 가진 甗의 전통이 돌연 이 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은 통형관이라는 기존 전통과 단절적 측면은 있지만 이 문화는 기존 고고문화의 전통 위에서 이를 계승한 것이며 이는 筒形甗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이 문화의 공간분포 중 북쪽 경계는 대략 북위 43도 이남 일선이 되는 데, 그 북쪽 경계는 홍산문화 북쪽 경계와 비교하면 분명 명료하게 남쪽으로 퇴각하여 대략 남쪽으로 1도 정도 내려온다. 아마도 하가점하층문화가 존재한

93) 索秀芬, 2007, 앞의 글, 254~255쪽

기원전 2500~1500년의 시기는 자연환경이 비교적 좋지만 단 이전의 최적기와 비교하면 온도가 낮아졌고 강수량도 적어져 최적기의 평균온도와 비교하면 1℃ 정도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적기에 비해 온도가 약간 낮고 강수량이 감소한 온난건조 기후 하에서 하가점하층문화의 마제석기로 경영한 耕作 농업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마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石城과 石圍牆이 이 시기부터 대량 출현한 것에서 각 지역 간, 혹은 내부 투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sup>94)</sup> 즉, 이러한 투쟁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 악화는 경작지의 축소와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이들 간의 쟁탈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원전 1000년경 급격한 기후변화는 농경문화 위주의 하가점하층문화 세력을 연산 남북지역에서 몰아내고, 목축업 위주의 하가점상층문화로 교체되기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교체는 기후의 급격한 하강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이러한 문화의 극적인 교체와 생산구조의 변경은 자연환경의 변화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이 시기는 바로 전신세 대온난기의 종말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대온난기의 종말이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 보다 더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는 기존 사회와 문화 및 人羣의 교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기후변화가 끼친 생태환경의 변화는 각 고고문화의 변천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것이 기존 고고문화의 종말과 새로운 문화로의 이행(계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과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은 시기에는 북방의 문화가 남방으로 천이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소하연문화의 이동과정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온난다습할 경우 역으로 남쪽의 문화가 북방을 향해 확대되었던바, 예컨대 조보구문화에서 보이는 홍정발의 경우 하북지역 后崗文化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시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남쪽 중원과

94) 韓建業, 2003, 앞의 글, 263쪽

산동의 지역문화가 북쪽을 향해 이동, 확대되는 반면, 기온이 낮고 강수가 적을 경우에는 연산 이북의 문화가 남쪽을 향해 확장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존공간을 구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전신세 대온난기(기원전 6500~1000년)에 전개된 기후변화와 연산 남북지구의 고고문화의 변천을 통해 기후변화가 고고문화의 성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전신세 대온난기에 여러 차례 기후변동이 수반되었으며, 특히 강온현상으로 인한 환경의 악화가 수반되었을 때는 기존 문명의 쇠락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로 이어졌다.

이른바 전신세 대온난기에 기후변화는 여러 차례 냉온을 교차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원전 5100년, 4600년, 3000년(3500), 2500년, 1500년(1000) 전후로 온도가 내려가고 건조하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그 사이인 기원전 6000~5000년, 기원전 4500~3000년(3500), 기원전 2500~1500년(1000)은 인류가 거주하기 좋은 온난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기후변동과 맞물려 연산 남북지역 고고문화인 홍릉와문화, 조보구문화, 홍산문화, 소하연문화, 하가점하층문화 및 하가점상층문화가 각기 출현하고 또한 쇠락을 동반하게 되었다. 즉, 조보구문화가 홍릉와문화를 대체하고, 홍산문화는 조보구문화를, 소하연문화는 홍산문화를 대신하며, 하가점하층문화는 소하연문화를, 하가점하층문화는 하가점상층문화에 의해 교체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체에는 각 문화 간의 계승과 융합, 교체, 혹은 이동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연산 남북 일대의 고고문화의 변천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문명의 출현과 성쇠의 원인 중 가장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인간이며 그 과정은 인간의 행동

과 인간이 만든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적응방식에 따라 기존 문화의 쇠락과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새로 형성되는 문화는 기존 문화로부터의 계승성, 외래문화로부터의 이질성, 또 새로운 문화로의 창조 등과 다양한 속성을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문명의 출현과 쇠락의 배경에는 기후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적극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후 변화가 끼친 생태환경의 변화는 각 고고문화의 변천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것이 기존 고고문화의 종말과 새로운 문화로의 이행과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H. H. 램 지, 김종규 역, 2011, 『기후와 역사』, 한올아카데미
- 볼프강 베링어 지, 안병옥·이은선 역, 2010, 『기후의 문화사』, 공감인
- 브라이언 페이지 지, 남경태 역, 2007,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예지
- 高凱, 2006, 『地理環境與中國古代社會變遷三論』, 天津古籍出版社
- 郭大順, 2005, 『紅山文化』, 文物出版社
- 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編, 2000, 『岱海考古(一) - 老虎山文化遺址發掘報告集』, 科學出版社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白音長汗 - 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上)』, 科學出版社
- 雅風·孔昭宸·王蘇民 等, 1992, 『中國全新世大暖期與環境的基本特征』, 海洋出版社
- 田廣金, 2004, 『中國東西北遼河地區的文明起源』, 中華書局
- 韓建業, 2003, 『中國北方地區新石器時代文化研究』, 文物出版社
- 賈偉明, 2010, 「古環境的復原及全新世時期的上遼河流域」, 『華夏考古』 2010-4
- 裘善文·李取生·夏玉梅, 1992, 「東北平原西部沙地古土壤與全新世環境變遷」, 『第四紀研究』 1992-3
- 靳桂雲, 2004, 「燕山南北長城地帶中全新世氣候環境的演化及影響」, 『考古學報』 2004-4
- 鄧輝, 2006, 「全新世大暖期燕北地區人地關係的演變」,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幹旱半幹旱地區 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 莫多聞·李非·李水城, 1993, 「甘肅葫蘆河流域中全新世環境演化及其對人類活動的影響」, 『地理學報』 51-1
- 武弘麟·史培軍, 2006, 「全新世科爾沁沙地的環境變遷」,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幹旱半幹旱地區 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 史培軍, 1989, 「中國北方農牧交錯帶的降水變化與“波動農牧業”」, 『幹旱區資源與環境』 1989-3
- 索秀芬, 2003, 「內蒙古農牧交錯帶考古學文化經濟形態轉變及其原因」, 『內蒙古文物

- 考古』2003-1
- 索秀芬, 2007,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的人地關係」, 『環境考古研究(4輯)』, 北京大學出版社
- 徐海, 2001, 「國全新世氣候變化研究進展」, 『地質地球化學』29-2
- 楊建華, 2008, 「試論冀北地區夏至早商時期的外來文化及其影響」, 蔣剛·楊建華, 『公元前2千世紀的晉陝高原與燕山南北』, 科學出版社
- 楊志榮, 2000, 「中國北方農牧交錯帶東南部環境考古研究」, 『幹旱區地理』2000-4
- 楊虎, 1994, 「遼西地區新石器銅石並用時代考古學文化序列分期」, 『文物』1994-5
- 烏蘭, 2007, 「全新世中國北方農牧交錯地帶的經濟形態與環境的關係」,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2007-10-15
- 吳文祥·葛全勝, 2005, 「全新世氣候事件及其對古文化發展的影響」, 『華夏考古』, 2005-3
- 王樹芝·王增林·朱延平, 2004, 「內蒙古赤峰市大山前第一地點夏家店下層文化的植被和生態氣候」, 『華夏考古』2004-3
- 王守春, 2006, 「全新世中期以來西遼河流域動物地理與環境變遷」, 侯仁之·鄧輝 主編, 『中國北方幹旱 半幹旱地區歷史時期環境變遷研究文集』, 商務印書館
- 遼寧文物幹部培訓班, 1976,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1976-3
- 遼寧省博物館 等, 1977, 「遼寧放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 『文物』1977-12
- 魏峻, 2005, 「內蒙古中南部考古學文化演變的環境學透視」, 『華夏考古』2005-1
- 張蘭生·史培軍·方修琦, 1992, 「中國北方農牧交錯帶(鄂爾多斯地區)全新世環境演變及未來百年預測」, 『中國北方農牧交錯帶全新世環境演變及預測』, 地質出版社
- 田廣金, 1997, 「內蒙古中南部史前考古」, 『考古學報』1997-2
- 田廣金·史培軍, 1997, 「中國北方長城地帶環境考古學的初步研究」, 『內蒙古文物考古』1997-2
- 趙志軍, 2004, 「探尋中國北方旱作農業起源的新綫索」, 『中國文物報』2004年 11月 12日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陳勝前, 2006, 「中國晚更新世-早全新世過渡期狩獵采集者的適應變遷」, 『人類學學報』25-3

- 陳勝前, 2011, 「燕山—長城南北地區史前文化的活應變」, 『考古學報』 2011-1
- 河北省文物研究所, 1987, 「河北容城縣午方新石器時代遺址試掘」, 『考古學集刊』 第5集, 文物出版社
- 河北省文物研究所, 1999, 「河北省考古五十年」, 『新中國考古五十年』, 文物出版社
- 夏正楷·鄧輝·武弘麟, 2000, 「內蒙古西拉木倫河流域考古文化演變的地貌背景分析」, 『地理學報』 55-3
- 韓嘉毅, 2000, 「河北平原兩側新石器文化關係變化和傳說中的洪水」, 『考古』 2000-5
- 韓茂莉, 2005, 「中國北方農牧交錯帶的形成與氣候變遷」, 『考古』 2005-10
- 許清海·楊振京·陽小蘭·劉志明·梁文棟, 2006, 「燕山地區花粉氣候響應面及其定量恢復的氣候變化」, 『環境考古研究』(3輯), 北京大學出版社
- 黃蘊平, 2001, 「石虎山 I 遺址動物骨骼鑑定與研究」, 『岱海考古(二)』, 科學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of Ancient Cultures in the Yanshan Area in Northeast Asia

Bae Jinyoung

This paper investigates and describes the role of climate change in the vicissitude of ancient cultures through examination of climate changes in the Holocene megathermal period (BCE 6500–1000) and the vicissitude of the ancient culture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s of the Yanshan area in China.

There were several climate changes in the Yanshan area during the Holocene megathermal period.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during periods of sudden falls in temperature triggered the decline of the existing cultures and the advent of the succeeding new cultures.

During the so-called megathermal periods, changes between cold and warm climates occurred several times. And during the times between the changes, specifically BCE 6000–5000, BCE 4500–3000 (3500), and BCE 2500–1500 (1000), the climate provided one of the best environments in which humans could reside.

However, the advent and decline of the archeological cultures in the Yanshan area, such as the Xinglongwa culture, the Zhaobaogou culture, the Hongshan culture, the Xiaohayan culture, the Xiajiadian xiaceng culture, and the Xiajiadian shangceng, followed after the climate changes during the Holocene period. Specifically, in chronological order, Xinglongwa culture was replaced by the

Zhaobaogou culture, which was replaced by the Hongshan culture, which was replaced by the Xiaoheyan culture, which was replaced by the Xiajiadian xiaceng culture, which was replaced by the Xiajiadian shangceng culture. Undoubtedly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e advent and decline of civilizations are those of humans. However, the climate is a critical variable to the advent and decline in the environment for a civilization.

In other words, there are strong correlations between the changes in ecosystems by climate and the changes in archeological cultures. And it may be thought that sudden climate changes trigger the decline of the existing cultures and the advent of the succeeding new cultures.



Keywords

Holocene, Climate Change, Yanshan Area





# 발굴결과로 새롭게 본 강동24개돌 유적의 건축적 성격

이병건 ■ 동원대학교 실내건축과 부교수



## I. 서론

### 1. 연구목적

본 글은 中國 吉林省 敦化市에 있는 江東24개돌 유적이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와 함께 발굴이 이루어져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강동유적을 포함한 24개돌유적 연구논문을 몇 편 작성한 바 있다.<sup>1)</sup> 그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4일

- 1) 강동24개돌 유적과 관련된 필자의 글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이병건, 2001,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秉建, 2002-12, 「발해 강동24개돌유적의 추정 복원안 연구」, 『白山學報』 第65號, 白山學會; 이병건, 2003-6,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권 6호(통권 176호), 大韓建築學會; 이병건, 2003-10, 「한반도지역 고상식 건축과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권 10호(통권 180호), 大韓建築學會; 李秉建, 2003-12, 「遺蹟을 통해 본 渤海建築의 獨自性 研究」, 『白山學報』 第67號, 白山學會; Lee Byeong Gun, 2009, "New Perspective on the Gangdong 24 Stones Relics which has the Fuel hole and

러나 유적은 2005년 敦化에서 延吉과 寧安으로 통하는 길을 새로이 정비하면서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으며, 이를 계기로 발굴도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유적 발굴은 중국에 있는 총 9개의 24개돌유적 가운데 최초로 이루어져 유적의 쓰임새와 건축적 성격 규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sup>2)</sup> 더욱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유적 서쪽으로 2.6m 떨어진 곳 동일 층위에서 온돌자리(아궁이+고래자리)가 드러났다고 한다. 중국 측 발굴자는 이 자리를 24개돌유적이 조성될 당시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4개돌유적은 다른 일반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유적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발해시기와 그 이후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둘째, 당시의 주요 도로변에 자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다. 넷째, 건물 규모와 평면형식이 거의 같다. 다섯째, 주춧돌 숫자가 일률적으로 24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지면에 노출되어 있는 주춧돌 높이가 평균 71cm 정도로 다락집 성격을 가지고 있다.

24개돌유적은 중국과 북한지역에 총 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sup> 지역별 분포를 보면 발해의 역사 229년 가운데 150여 년을 수도로 했던 黑龍江省 寧安市에 있는 上京龍泉府 上京城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돈화시 부근에

the Chimney fuel in Dunhu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ndol*, International Society of Ondol

- 2) 중국에 있는 9개의 24개돌유적 가운데 강동유적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해청방24개돌(海靑房·林勝二十四塊石) 유적도 조사되었으나 지표조사와 부분 발굴만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에 있는 3개의 24개돌유적 가운데 함경북도 어랑군 회문리24개돌 유적은 198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 발굴하였다. 리준길, 1984-2, 「새로 발굴된 24개돌」, 『력사과학』, 력사과학출판사, 49쪽
- 3) 12개 이외에 러시아 연해주에도 24개돌유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해 보았다. 2004년 E. I. 켈만이 발굴한 고르바트카 성 안의 주춧돌 건물지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유적에 비해 주춧돌 간격과 높이가 모두 달랐다. 다른 지역에 있는 24개돌유적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추정인 것 같다. E. I. 켈만, 2005, 「고르바트카 성터 발굴 보고서」,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그림 208~211

4개(江東24개돌·官地24개돌·海靑房24개돌·腰甸子24개돌), 이 길과 연결되어 있는 鏡泊湖 부근에 2개(慶豊24개돌·彎溝24개돌) 등 6개가 있다. 또한 東京龍原府에서 상경용천부로 가는 길목인 가야하(嘎呀河) 연안 汪清縣 百草溝鎮 興隆村에 1개(興隆24개돌),<sup>4)</sup> 두만강 연안 교통 요충지에 2개(馬牌24개돌·石建坪24개돌), 그리고 북한지역에 3개(松坪區域24개돌·會文里24개돌·東興里24개돌)가 발견되었다.

강동24개돌은 다른 유적에 비해 정비와 보존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주춧돌 머리에 귀틀자리가 있어 다락식으로 된 귀틀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건축적 특징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새롭게 밝혀진 강동24개돌 유적의 건축 평면 및 구조형식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유적의 쓰임새(용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 2\_ 연구내용과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목적에서 밝힌 유적의 건축적 특징과 쓰임새를 규명하기 위해 발굴 이전과 이후에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발굴 이전 잘못 기술된 유적현황을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한다. 이는 발굴 이전에는 유적 옆에서 온돌자리가

4) 홍릉24개돌 유적은 길림성 도문시 왕청현 백초구진 홍릉촌에 있다고 한다. 1964년 연변대학 박진석 교수가 답사한 적이 있어 개략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근래 延邊大學 歷史系 尹鉉哲 교수가 원고를 입수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에게 원고를 보내와 유적의 개략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윤현철, 2002-9, 「홍릉24개돌 유적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 『白山學報』 第63號, 白山學會. 유적은 지금까지 개략적인 위치만 확인되었던 西巖子24개돌(방학봉, 2000, 「발해 24개돌 유지에 대하여」, 『발해의 주요 교통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262 쪽) 유적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둔다.

확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발굴자의 주장대로 유적과 온돌자리가 같은 시기에 조영된 것이라면 유적의 건축적 성격 규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둘째, 유적과 온돌자리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온돌자리와 24개 돌유적이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각 독립적인 것인가의 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굴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온돌자리가 나온 다른 발해시기 유적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는 발해시기의 난방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적에서 발견된 온돌자리는 남북 방향으로 고래의 길이는 1.9m, 너비는 15~20cm, 깊이는 5~16cm이고, 동서 방향으로 고래의 길이는 86cm, 너비는 20cm, 깊이는 5cm이다. 다른 발해시기 온돌자리에 비해 소규모여서 거주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발굴자에 따르면 온돌자리가 유적 쪽으로 가다가 점차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발견된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동일시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시기의 유적일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의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각각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넷째, 위의 연구내용에 따라 제Ⅱ장에서는 강동24개돌 유적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본다. 지금의 유적현황과 발굴결과를 살펴보고 발굴 전후 유적의 변화양상을 고찰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유적에서 드러난 온돌자리에 대해 고찰해 본다. 온돌자리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발해 온돌자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규명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건축적 특징과 쓰임새를 규명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 II. 유적의 변천과 현황

강동24개돌 유적은 중국 길림성 돈화시 시내 동남쪽 주변지세가 평탄한 곳에 있다. 서쪽으로 30m 거리에 長春~圖們 철도가 지나고 있고, 남쪽으로는 敦化~延吉 도로와 접해 있다. 이 유적은 주택과 도로변에 있는 관계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탐문에 따르면 현지인들이 이곳에서 흙을 퍼 가서 현재 유적 부근에 일부 깊은 구덩이가 생겼는데, 1980년대 쓰레기로 구덩이를 메워 지금과 같은 지형이 되었다고 한다.<sup>5)</sup>

유적 북쪽으로는 牡丹江을 끼고 있으며, 부근 반경 10km 이내에 城子山城(東牟山), 永勝遺址, 敖東城, 六頂山渤海古墳群 등 발해의 주요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일대가 발해 초기 도읍이자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유적은 1.5m 정도 높이의 철책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대부



〈그림 1〉 강동24개돌 유적 전경(남서 방향에서, 2008. 7)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09-6,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考古雜誌社, 57쪽



〈그림 2〉 전면도로와 동일 높이에 유적이 있었던 2005년 이전의 모습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강동24개들 유적 전경(북동 방향에서, 2009. 4)



〈그림 4〉 강동 24개돌 유적 실측도(2000년 필자 작성)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강동24개돌 유적 전경(남쪽 방향에서, 2010. 5)

분의 A줄과 B줄 주춧돌이 옆으로 눕거나 기울어져 있고, 위치 또한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다.

2004년까지만 해도 유적은 길 변에 일정 거리를 두고 도로와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 있었던 유적 전면 도로의 지하화로 지금은 도로와 약 8m 정도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량의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철로와 교차되는 지점을 입체 교차로로 만든 결과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로 고대 유적들이 차츰 원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 모습이다. 유적 바로 앞까지 땅을 파내고 벽돌로 옹벽 처리하여 유적 지층은 많은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적 재료는 현무암으로 8개씩 3줄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남북을 향해 배열되어 있다. 지금은 가운데 줄 5번째(B5) 주춧돌이 없어서 23개의 주춧돌만 남아 있다.<sup>6)</sup>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와 같이 유적의 정면길이는 주춧돌 간 중심거리가 A줄이 9.64m(10.3m), B줄이 8.95m(9.9m), C줄이 9.24m(10.2m)이고, 측면길이는 각각 6.95m 정도이다. A줄의 주춧돌 상태는 세 줄 가운데 교란이 가장 심했다. 다른 주춧돌 간 중심거리가 대부분 1.07~1.45m인 반면 A1 주춧돌과 A2 주춧돌 사이는 1.9m 정도여서 다른 주춧돌에 비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B줄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춧돌이 제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C줄은 다른 줄에 비해 위치와 기울기가 원래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최근 유적은 전면 도로의 절개에 따른 不同沈下로 A1 주춧돌이 앞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었다. 공사 당시 예측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침하는 유적 전체로 번져갈 것이다. 옹벽 보강공사와 覆土로 더 이상

6) 주춧돌 위치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C	●	●	●	●	●	●	●	●
B	●	●	●	○	●	●	●	●
A	●	●	●	●	●	●	●	●
	1	2	3	4	5	6	7	8

예) A줄 / B줄 / C줄 · 1열 / 2열 / 3열 / 4열 / 5열 / 6열 / 7열 / 8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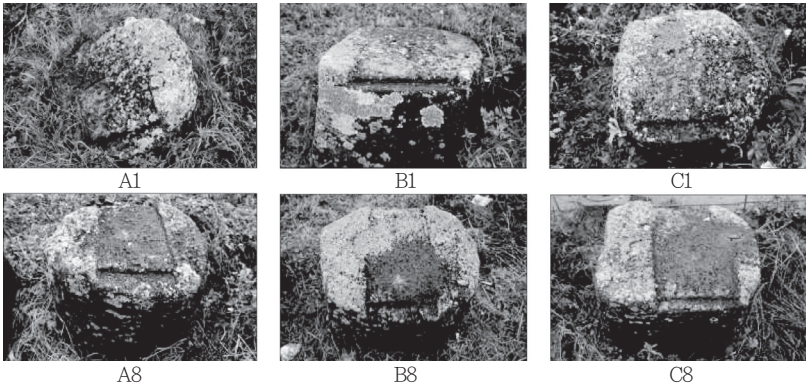
7) 위의 각 줄과 열 간 주춧돌 간격은 2000년에 필자가 실측한 것이며, 괄호 안 숫자는 2005년 발굴시 중국 조사자가 실측한 것이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로공사로 주변이 어수선했던 관계로 유적이 훼손되었거나 주춧돌 간 중심거리와 전체길이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6〉 도로변(남쪽) 쪽으로 넘어진 A1 주춧돌(2011. 5)

의 훼손은 막아야겠다.

각 줄 간 중심거리를 살펴보면 A줄과 B줄 사이가 3.69m(3.6m), B줄과 C 줄의 사이가 3.26m(3.4m)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줄별 주춧돌 간 중심거리는 대부분 1.07~1.38m(1.2~1.5m)를 유지하고 있었다. 각 주춧돌에 기둥을 직접 세우는 구법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주춧돌들의 형상은 원형 또는 방형으로 잘 다듬어진 상태이다.



〈그림 7〉 강동24개돌 유적 귀틀 자국이 있는 주춧돌



〈그림 8〉 유적 동쪽 옹벽에 새겨진 한글·한자 설명문

한편 주춧돌 가운데 A1, A8, B1, B8, C1, C8, 즉 네 모서리 주춧돌은 그림 7과 같이 평평하게 잘 다듬은 주춧돌 윗면에 종 방향으로 길이 58.5~79cm, 폭 35~46cm, 깊이 1~2cm의 홈을 파다. 또한 그 끝 부분에 약 3~4cm 정도의 홈을 더 파 턱을 두었다. 각 주춧돌 홈의 길이와 폭을 보면 A1 58.5×41.5cm, A8 35×60cm, B1 79×46cm, B8 63×36cm, C1 70×44cm, C8 72×36cm였다. 이러한 주춧돌 머리의 홈은 부재를 걸쳤을 때 미끄럼 방지의 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24개돌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로 건물 몸체를 튼튼하게 받치기 위해 고안된 보강 방법이었을 것이다. 즉, 귀틀재를 걸치기 위한 홈이라고 추정된다.

주춧돌 높이는 각기 다르나 대략 80cm 정도였다. 지표면 아래에서 기초차리가 발견되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을 독립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줄별로 잡석 줄기초를 했던 것으로 발굴결과 밝혀졌다. 유적 주위에는 발해시기 적갈색과 회색의 베투니기와, 암·수키와, 막새기와가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유적은 기와지붕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적은 1981년 '延辺朝鮮族自治州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바 있고, 1999년 '吉林省重點文物保護單位'로 격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적 하단부 남쪽 옹벽에 한글과 한자로 유적

명칭을 새겨 넣었으며, 동쪽 옹벽에 유적에 대한 설명문이 한글과 한자로 붙어 있다.

### Ⅲ. 발굴결과

#### 1\_ 발굴결과 분석<sup>8)</sup>

강동24개돌 유적 발굴은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돈화시 강동 입체교차로 건설에 맞추어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와 敦化市 文物管理所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발굴은 유적 네 방향 주춧돌 가장자리 밖으로 4m까지를 범위로 했다. 발굴된 총 면적은 288㎡(82.27坪)이다. 발굴 전 유적 주변의 토층이 이미 파괴되어 유적 바깥쪽과 연관된 토층은 남아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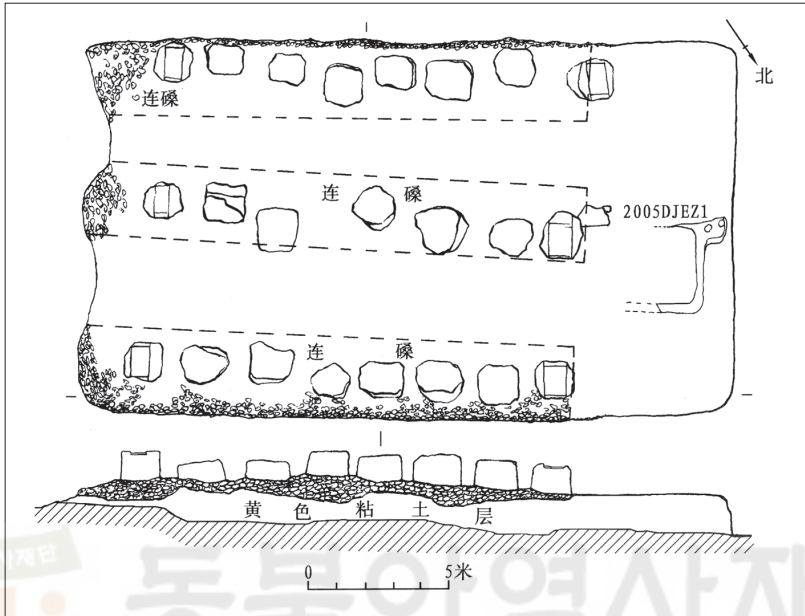
발굴 범위 내의 층위는 4개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층: 표토층. 흑갈색을 띠며, 토질은 푸석푸석하다. 두께는 5~20cm이다.

제2층: 현대에 조성된 쓰레기 층. 주로 유적 주변에 분포했다. 일부 黃砂와 홍갈색 매립토가 포함되어 있다. 두께는 5~20cm이다.<sup>9)</sup>

제3층: 원래 있던 건축물이 무너졌을 때의 퇴적층. 지금의 기단 표면 일부

- 
- 8) 강동24개돌 유적 발굴결과는 다음 글을 주로 정리하였다.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 文物管理所, 2009-6, 앞의 글, 57쪽~61쪽;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돈화시문물관리소 씬, 정원철 옮김, 2011-3, 「길림 돈화시 강동·임승“24개돌”유적의 조사와 발굴」, 『高句麗渤海研究』 第40輯, 高句麗渤海學會, 197~208쪽
- 9) 옮긴이 주에 따르면 원문에는 두께가 0.5~2m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적의 주춧돌이 이미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발굴조사 후 확인된 주춧돌 높이가 81~92cm라고 하므로 조사 범위 내 토층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울 수는 없다. 수치와 단위의 오타로 보았다.



〈그림 9〉 강동24개돌 유적 평·단면도

자료: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58쪽

구역에만 남아 있다. 황갈색을 띠며 비교적 단단하다. 가장 두꺼운 곳은 약 15cm이다. 약간의 회색과 황색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 층 아래로 제4층과 중첩된 아궁이터(竈址, 2005DJEZ1)가 확인되었다.

제4층: 황색 점토층. 유적 주변에서만 확인되었다. 토질은 밀도가 높고 비교적 단단하다. 가장 두꺼운 곳은 약 20cm이며, 토층 내에서는 점토 이외에 어떠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유적은 이 층 위에 세워졌다.

제4층 아래는 생토층이다. 홍갈색을 띠는데 토질은 매우 단단하며 점성이 높다.

세 줄의 주춧돌 아래는 주춧돌보다 너비가 넓은 동서방향의 구덩이를 각각 줄별로 파고 안쪽에 황색 점토를 깨진 현무암과 섞어가며 채워 넣어 줄기초(連礫) 판을 구축했다. 주춧돌 밑 부분이 줄기초 안쪽으로 약 10cm 깊이로 들어가 있다. 줄기초를 채운 흙은 제4층의 황색 점토층과 같으며, 이곳을 메우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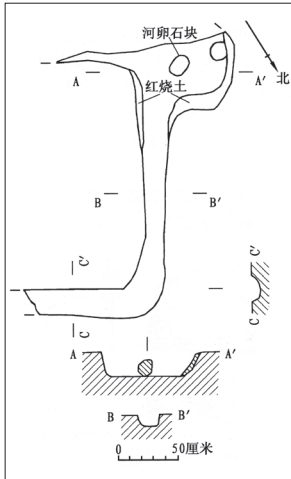
〈그림 10〉 발굴 당시 강동24개돌 유적

자료: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도판16

사용된 잡석은 주춧돌로 사용된 돌과 같다. 남쪽인 A줄과 북쪽인 C줄 주춧돌 아래 줄기초 가장자리가 훼손되었다. 그 결과 기초판에 심어져 있었던 주춧돌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줄기초 너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중간인 B줄 주춧돌 아래 기초판만은 보존상태가 좋았다. 동서길이는 약 11.2m, 남북너비는 약 1.86m, 깊이는 약 66cm였다. 그림 9와 그림 10에서와 같이 기초판 서쪽 끝과 서쪽 끝 주춧돌 기단부(가장자리, 外緣)가 평평하고 가지런하다.<sup>10)</sup> 약 1.4m 정도가 주춧돌로부터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유적은 최소한 네 방향으로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서 1.4m 확장된 기단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발굴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던 아궁이자리가 유적 서쪽으로 약 2.6m 떨어진 곳, 즉 B1 주춧돌에서 밖(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에서 발견되었다. 아궁이자리는 제3층 아래에 있었으며, 제4층을 파괴시켰다. 남아 있는 부분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에 가깝다. 벽이 비스듬하며 바닥은 평평했다. 동서너비는 74cm, 남북방향의 남은 길이는 72cm, 남은 깊이는 20cm였다. 아궁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09-6, 앞의 글, 58쪽



〈그림 11〉 아궁이 평·단면도

자료: 발굴결과보고서, 59쪽



〈그림 12〉 서측 아궁이와 고래(烟道)(동북→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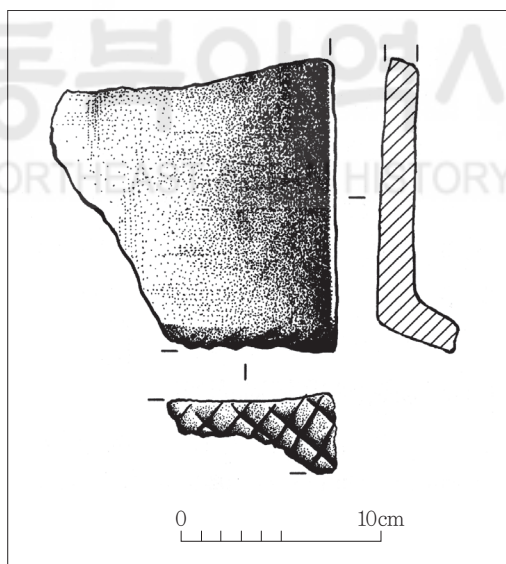
자료: 발굴결과보고서, 도판16

이 가장자리에는 붉은색으로 단단하게 구워진 토층이 남아 있는데 두께는 5~15cm였다. 아궁이자리 안쪽은 황갈색 흙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토질은 푸석푸석하였다. 그 안에 다량의 검은 재와 붉게 구워진 흙덩이, 그리고 꽤 큰 강자갈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다. 바닥을 메운 흙에서는 회색 암키와(泥質灰陶板瓦) 편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아궁이 북쪽에서 굽은 'ㄱ'자('ㄴ'자) 형태로 고래(烟道)가 연결되어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뻗은 고래의 일부 길이는 1.9m, 너비는 15~20cm, 깊이는 5~16cm였다. 고래에 채워진 흙은 황갈색을 띠며, 재질은 푸석푸석하였다. 안쪽에는 검은 재와 붉게 구워진 흙덩이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흙질로 된 회색 암키와와 편이 확인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꺾인 부분의 남은 길이는 86cm, 너비는 20cm, 서쪽 끝부분(꺾인 곳)의 깊이는 5cm였다. 고래는 동쪽으로 뻗어나가다가 차츰 알아지면서 사라진다. 이 구간 고래는 황갈색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토질은 단단하며, 아무런 포함물 없이 깨끗하였다고 한다. 아궁이 동벽 중간에서 동쪽으로 꺾인 붉은색으로 그슬린 토벽이 확인되었다. 지금은 북쪽 벽만 남아 있는데, 불에 그슬린 토벽 두께는 6~9cm였고, 남은 길이는

65cm, 깊이는 약 18cm였다. 발굴자는 남아 있는 고래 일부로 판단하였다. 온돌자리(아궁이+고래)와 24개돌유적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며, 층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고래 안에서 출토된 암키와 편이 24개돌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동일하여 24개돌유적과 온돌자리는 동일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sup>11)</sup>

출토된 유물 가운데 대부분은 현대에 조성된 쓰레기 층에서 발견되었고, 원 퇴적층에서 출토된 것은 극히 적었다. 유물 종류는 모두 암키와로 단순하며, 수키와는 보이지 않았다. 암막새 1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잘게 부서진 암키와 편이었다. 암키와는 두껍고 무거우며, 소성 온도가 비교적 높았다. 모두 굵은 모래가 섞인 회색 위주이며, 황갈색과 홍갈색을 띤 조각도 어느 정



〈그림 13〉 암막새 조각 실측도  
자료: 발굴결과보고서, 59쪽

11)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돈화시문물관리소 씌, 정원철 옮김, 2011-3, 앞의 글, 202쪽

도 되었다. 암키와 속면(凹面)에는 베무늬(布紋)가 있었고, 겹면(凸面)에는 무늬가 없었다. 암막새는 굵은 모래를 함유하고 있으며, 황갈색을 띤다. 그러나 이미 깨져 있었다. 기와 앞의滴水는 비교적 길며,滴水 표면에 方格紋이 찍혀 있었다. 남은 길이는 약 16cm, 너비는 15.5cm였다고 한다.

## 2. 발굴결과 추론

2005년 발굴에서 드러난 온돌자리(아궁이+고래자리)는 강동24개돌 유적의 건축적 특성과 쓰임새를 규명하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온돌자리와 강동24개돌 유적이 동일시기의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추론에 상정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우선 동일시기의 것으로 본다면 근거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발굴자도 밝혔듯이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가까이 있고, 두 유적 층위가 동일하며, 온돌자리 출토 암키와 편이 24개돌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보아 유적과 연관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같은 건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24개돌유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길이 유적 내부까지 고래(烟道)가 뻗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점차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적은 주춧돌이 지상으로 80cm 가까이 드러날 만큼 다락집 형식의 건물이다. 고래가 허공으로 노출되는 격이 된다. 그렇다면 '이 온돌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강동24개돌 유적은 다락집으로 지상에서 떠 있는 창고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락집이다 보니 건물 내부에서 취사는 곤란하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건물 내부에서 난방을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궁이자리가 있는 곳은 본 건물과는 별개로 취사를 위한 작은 규모의 부엌을 갖춘 초소로 지었던 부속건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온돌 고래 길이가 190cm와 86cm, 폭이 20cm 내외이다. 추운 겨울 앉거나 몸을 잠시 눕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 당시 발굴에서 고래 내부에 비교적 큰 강자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sup>12)</sup> 결과로 볼 때 이것을 온돌자리로 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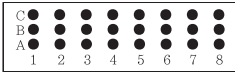
〈그림 14〉 체르나찌노 2 발해 주거유적지 쪽구들

자료: 문화재청 2007년 8월 24일 보도자료 그림5

있다. 두 유적을 동일시기의 것으로 본다면 간단한 취사와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24개돌유적을 지키는 초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14와 같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체르나찌노 2 주거유적지에서 발굴된 발해시기 아궁이와 온돌자리와는 규모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두 유적이 동일시기가 아닐 것으로 본다면 근거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발굴자는 두 유적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적 간 거리가 가깝다 못해 너무 붙어 있다. 더군다나 온돌자리는 땅속에 설비되어 있고 24개돌 유적은 다락집이다. 위에서처럼 초소로 본다면 온돌자리가 있는 곳에서 불을 피운다면 열과 연기가 24개돌유적 쪽으로 번져 설비와 방화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아궁이자리에서 시작된 고래가 뺨어 나가다가 24개돌유적이 있는 곳에서 점차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는 온돌이 갖추어진 집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24개돌유적이 온돌자리를 잠식해 가며 새롭게 건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굴자가 두 유적이 동일시기의 것이라고 본 것은 무리

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09-6, 앞의 글, 57쪽



〈표 1〉 발해 24개돌유적 종합분석표

명칭	소재지 자료 출처	방위 위치	재료	배열	정면×측면 길이(m)	크기 ㎡·坪	현존 초사수	초석간격 (m)	줄간격 (m)
①江東24개돌	吉林省 敦化市 市内 敦化市 文物志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 石”遺跡的調查和發掘	남북향 도로변 牡丹江	현무암	8×3	A:9.64×6.95 B:8.95×6.95 C:9.24×6.95	64.46 19.53	23 소실:B5	1.07~1.45	3.69 3.26
②官地24개돌	吉林省 敦化市 官地鎮 住宅内 敦化市 文物志	동서향 도로변 牡丹江	현무암	8×3	9.40×7.95 9.40×8.25	76.14 23.07	23 소실:C1	1.20~1.66 0.30(안목)	3.80 3.95 4.45
③海靑房24개돌	吉林省 敦化市 林勝(海靑房)鄉 敦化市 文物志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 石”遺跡的調查和發掘	남북향 들관 위 牡丹江	현무암	8×3	A:9.70×7.50 B:9.40×7.50 C:9.25×7.50	70.87 21.47	24	1.00~1.70 0.60(안목)	3.70 3.80
④腰甸子24개돌	吉林省 敦化市 大山嘴子鄉 腰甸子 村 敦化市 文物志	남북향 들관 위 牡丹江	현무암	8×3	A:8.80×7.10 B:8.83×7.10 C:8.62×7.10	62.12 18.82	24	1.10~1.65 0.65(안목)	3.50
⑤慶豐24개돌	黑龍江省 寧安市 鏡泊湖鄉 慶豐村 住宅内 발해사연구 2	동서향 도로변 牡丹江	현무암	8×3			12	1.20	3.25
⑥鸞溝24개돌	黑龍江省 寧安市 鏡泊湖鄉 鸞溝村 발해사연구 2	남북향 들관 위 牡丹江	현무암	8×3	A:8.70×7.14 B:9.10×7.14 C:8.85×7.14	63.42 19.21	24 人爲的 完型	1.10~1.43 0.50(안목)	3.34 3.80
⑦興隆24개돌	吉林省 圖門市 汪清縣 百草溝鎮 興 隆村 延辺大學 渤海史研究所 尹鉉哲教 授 제공	동서향 언덕 위 嘎呀河	현무암	8×3	8.68×7.30	63.36 19.20	21 A줄 1·2·4	1.24	3.65
⑧馬牌24개돌	吉林省 圖門市 月晴鄉 馬牌村 第3 生産隊 圖門市 文物志	남북향 도로변 頭滿江	현무암	6×4	10.00×7.50	75.00 22.72	24	1.05~1.30 1.53(실측)	2.80 2.50
⑨石建坪24개돌	吉林省 圖門市 月晴鄉 石建村 第7 生産隊 圖門市 文物志	동서향 언덕 위 頭滿江	현무암	8×3	20.00×8.00		5		
⑩松坪區域24개돌	咸鏡北道 清津市 松坪區域	東海岸							
⑪會文里24개돌	咸鏡北道 漁郎郡 會文里 력사과학, 1984-12	동서향 들관 위 東海岸	현무암	8×3	10.00×7.80	78.00 23.63	24	1.40	3.90
⑫東興里24개돌	咸鏡北道 金策市 東興里 조선고고연구, 1991-4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2011	남북향 들관 위 南大川	대 충 듬돌	8×3	11.00×8.00	88.00 26.66	12	1.40	2.10 2.20
T 24개돌유적 종합	목단강 연안: 6개 가야하 연안: 1개 두만강 연안: 2개 동해안 연안: 3개	남향 6개 동향 5개	현무암	8×3형 유지	9.34×7.57 정면·측면 1.23·1.00	72.25 21.88	完型 6개	1.31 0.51(안목)	3.37

초석높이 (m)	초석직경 (m)	출토 유물	주변 유적	특 징
0.80(地上) 0.50(地下) 0.90(碎石)	0.80	베무늬기와 암수키와 막새기와	敖東城(강 맞은편) 六頂山渤海古墳群(6km) 永勝遺址 城山子山城(東牟山)	A1·A8·B1·B8·C1·C8 초석 위 가공(귀틀자국, 79×45×2cm) 각 줄별 잡석줄기초. 최근 도로건설 여파로 일부 초석 좌굴 유적 서쪽 2.6m 지점에서 아궁이와 고래자리 발견(2005) 철길 입체교차로 건설로 도로에서 높은 옹벽 위에 자리
0.45	0.60~0.90	베무늬기와 암수키와 질그릇조각 자기조각	石湖古城(서남 2.5km) 江東24개돌과 28km	관지·해청방·요전자는 초석 윗면을 가공하지 않음
0.40	0.83	베무늬기와 암키와·막새기와 수키와 목탄·재·불계 군 흙덩이	官地24개돌과 10km	지표조사와 부분절개 발굴조사(2005) 유적 서남모서리에 정남북으로 3.5×4.5m의 트랜치 구획 줄별 (현무암 잡석·황색 점토) 연속줄기초-강동유적과 동일 발굴시 쇠못과 암막새 각 1점 출토
0.49~0.95	0.65	암수키와 막새기와 질그릇조각	渤海建築址(동 0.5km) 북쪽 산에 城要害 海靑房24개돌과 27km	강동·관지·해청방은 목단강 동쪽, 요전자는 서쪽 연안에 위치 초석 길이 묻혀 있음(25~80cm). 보존상태 좋음 보도 불럭으로 유적 기반부 테두리와 진입로 포장(2009) 원래 주춧돌 B4가 없어 23개 있음(2011년 24개로 정비)
0.70	0.40~0.57	베무늬기와 1개	南海頭古城(서 2.5km) 鏡泊湖·房身河 彎溝24개돌과 15km	삼하게 파괴되었음 일정간격 유지된 초석열은 주벽 내에 있음(5개) 나머지 7개는 원래 자리 훼손
0.80~0.85	0.53~0.57	베무늬기와 막새기와 구운흙	彎溝古城址(북 5km) 上京城(북 50km) 松乙河	기단이 있었음(높이 1m, 남북 5m, 동서 3m) 남쪽에 계단흔적 있음. 보존상태 좋음 牡丹江 支流인 松乙河 附近
0.50~0.60	0.50~1.00	갈색·회색기와조각 指壓紋·獸面紋기와 조각 질그릇조각 쇠활촉	홍릉옛성새 목단천옛성 안전옛성새 신화려옛성	연변대학 박진석 교수가 조사한 1964년 당시의 상태 현재 유적은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 찾기 어려움 조사상태에서 검토 후 간격 보정. 평균산정시 제외
0.81~0.86	0.59~0.78	수키와 막새기와 사계기와 귀면와	石建坪24개돌과 6.5km 발해성터(남 0.5km)	몹시 파괴되었음. 원위치 훼손. 요즘시대 유물 혼재 “△” 형태의 주춧돌 원래 주춧돌 17개였으나 6×4=24개로 정비(2011) 2~4개는 앞 개울에, 1개는 주변 토성에 묻혀 있음
0.80~0.95	0.47~0.60	베무늬기와 암수키와		삼하게 파괴(유적규모 불명확) 넓은 개활지. 집 지으면서 초석위치 훼손 유적 동쪽 500m 지점에 圖們江 광복 전 이미 파괴
0.70~0.90 0.30(地下) 0.70(碎石)	0.70~0.90	기와조각 자기조각 도기조각	지방리산성 漁郎川에 堡壘 3곳 교통요충지	19.2×13.5m, 높이 1m의 흙으로 쌓은 기단 위에 있음 3줄의 줄기초(10×1×1m)
0.80~1.00	0.70~0.80	암수키와 질그릇·자기그릇 단지·살함지박	발해유적 다량 분포	기단(13×9×0.5m) 3줄의 줄기초(11×1×0.7)+0.2진흙다짐+0.2m강자갈
0.71	0.68	암키와·수키와 막새기와·귀면와 베무늬기와 指壓紋기와	24개돌유적 발해 유물 다량 출토 발해 중요 유적 위치	기단이 있는 곳: 3개 계단이 있는 곳: 1개 줄기초 있는 곳: 4개

자료: 이병진, 2001,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쪽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2012년 5월 18일 기준)

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온돌과 24개돌의 다락집은 동일 몸체일 가능성이 없다. 만일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라면 24개돌유적을 지키는 초소일 가능성이 있다. 취침이 가능한 숙소라기보다는 추위를 피하는 간이 쪽구들 정도의 취사와 난방설비가 갖추어진 소규모였을 것이다. 그럼 14 유적과 같이 다른 발해시기의 온돌유적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기에서도 엄연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적 간 거리가 너무 붙어 있고, 온돌자리가 24개돌유적 가까이 가며 점차 사라진다는 것은 점차 온돌자리가 깎여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시기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유적은 시기를 달리하며 각각 존재했었던 건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유적이 있는 근방의 온돌유적과 다른 24개돌유적에 대한 발굴 등 좀 더 많은 고고학적 결과가 보태져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강동24개돌 유적과 온돌자리의 상관관계 분석표

	추론 I	추론 II
	두 유적이 동일시기일 경우	두 유적이 동일시기가 아닐 경우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가깝다. (발굴자)</li> <li>• 두 유적 층위가 동일하다. (발굴자)</li> <li>• 온돌자리에서 출토된 암키와 편이 24개돌유적의 것과 형태가 동일하다. (발굴자)</li> <li>• 유적을 지키는 초소였을 것이다. (필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너무 가깝다. (필자)</li> <li>• 구들자리가 유적 쪽으로 가며 점차 사라져갔다는 것은 원래 구들이 놓인 집터가 있었고, 그 후 24개돌유적이 온돌자리를 잠식하여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필자)</li> </ul>
결론	<p>• 온돌과 다락형식의 집은 같은 몸체일 가능성이 없다.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라면 24개돌유적을 지키는 초소일 가능성이 있다. 취침이 가능한 숙소라기보다는 추위를 피하는 간이 쪽구들 정도의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적 간 거리가 너무 붙어 있고, 온돌자리가 24개돌유적 가까이 가며 점차 사라진다는 것은 점차 온돌자리가 깎여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시기의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기를 달리하며 각각 있었던 건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p>	

## IV. 건축형식과 쓰임새

### 1. 배치와 평면형식

강동24개돌 유적은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는 단독 건축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배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방위를 살펴보면 남북향을 하고 있었다. 강동유적 이외의 다른 24개돌유적의 향을 살펴보면 조사된 11개의 유적(송평구역24개돌 유적 제외)<sup>13)</sup> 가운데 남북향<sup>14)</sup>이 6개(강동·해정방·요전자·만구·마패·동흥리)이고, 동서향이 5개(관지·경풍·홍릉·석문평·회문리)이다. 즉,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전망 좋은 곳에 동향 혹은 남향으로 건축물을 배치했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표 1> 발해 24개돌유적 종합분석표 참조)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유적의 측면 對 정면 평균 길이는 6.95m : 9.28m로 평균 비율이 약 1 : 1.34의 정방형에 가깝다. 발해의 다른 건축 유형과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 발해 상경성에 남아 있는 도성유적 가운데 궁전·사찰 등 중요 건축물의 측면 : 정면 비율은 1 : 2 정도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sup>16)</sup> 이에 비해 강동24개돌 유적은 정방형에 가까워 주거 혹은 상주용 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주춧돌 숫자로 칸수를 세어 보면 1줄에 8개씩 3줄의 주춧돌이 있으니 정면 7칸에 측면 2칸으로 너무 극단적이다. 만일 각 주춧돌에 기둥이 올라가는 구조라면 童子柱로 된 樓下柱 성격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

13) 12개 유적 가운데 한반도 동해안에 있는 송평구역24개돌 유적은 광복 전 이미 파괴되어 위치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건물 방위를 따질 때 동향 혹은 남향 등 어느 한 방향을 지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4개돌유적은 조사보고서마다 방위를 남북향 혹은 동서향으로 표현하였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자도 이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다만 남북향이라면 남쪽을, 동서향이라면 동쪽을 정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이병건, 2001, 앞의 책, 96쪽

16) 이병건, 2001, 앞의 책, 97쪽

〈표 3〉 24개돌유적과 발해 궁전유적의 평면형식 비교표

부 문	24개돌유적 평균치	발해 궁전유적						
		제1궁전터	제2궁전터	제3궁전터	제4궁전터	제5궁전터	평균치	
평 면 형 식	정면 (m)	9.34	50.27	-	26.95	21.60	34.65	33.37
	측면 (m)	7.57	18.28	-	15.40	12.00	15.75	15.36
	크기 (㎡)	72.25	918.94	-	415.03	259.20	545.74	534.73
	비율 (측면: 정면)	1:1.23	1:2.75	-	1:1.75	1:1.8	1:2.2	1:2.13
	칸수 (정면×측면)	7×2	11×4	-	7×4	9×5	11×5	

자료: 「遺蹟을 통해 본 渤海建築의 獨自性 研究」, 834쪽

〈표 4〉 24개돌유적과 발해 다른 유형 건축유적의 평면형식 비교표

부 문	24개돌 유적 평균치	발해 건축유적(공공·정원·사찰·살림집)							
		제1관청터	제2관청터	정원터내 다락집터	제1사찰터	제9사찰터	서구 살림집터	제4궁전터 서쪽채터	
평 면 형 식	정면 (m)	9.34	27.10	28.00	24.15	17.90	13.50	26.70	27.00
	측면 (m)	7.57	8.00	7.70	13.80	14.32	10.10	15.00	15.00
	크기 (㎡)	72.25	168.80	215.60	333.27	256.33	136.35	400.50	405.00
	비율 (측면: 정면)	1:1.23	1:3.39	1:3.64	1:1.75	1:1.25	1:1.34	1:1.78	1:1.80
	칸수 (정면×측면)	7×2	10×4	7×2	8×5	5×4	5×4	10×5	9×5

자료: 위의 글, 834쪽

동24개돌 유적 주춧돌 머리에 새겨진 귀틀자리로 볼 때 누하주는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구조형식

유적의 기초를 보면 먼저 A, B, C 각 줄별로 주춧돌이 놓일 자리를 파고 현무암 재질 쇄석과 흙을 혼합하여 90cm 정도 다져 쌓고, 그 위를 다시 흙으로 50cm 다진 후 주춧돌을 세웠다. 각 줄별 경계 부분에서 쇄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줄별로 기초판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립기초가 아니라 연속 줄기초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초보다 상당히 견고한 기초판을 구축하였다. 이는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춧돌은 23개가 남아 있지만 원래는 24개였을 것이다. 해청방, 만구, 회문리24개돌 유적의 주춧돌이 24개인 것으로 보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재료는 현무암이었고, 형태는 방형과 유사원형 등 다양했다. 지상에 노출된 주춧돌 높이는 80cm 정도지만 근래에 버려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주춧돌 높이는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각 줄별 주춧돌 간 중심거리는 대부분 1.07~1.38m(1.2~1.5m)를 유지하고 있어 각 주춧돌마다 기둥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유적의 쓰임새를 건축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sup>17)</sup>

목조건축 구조방법에는 크게 기둥과 보와 도리로 구성하는 가구식 구조와 나무를 ‘#’ 형태로 수평으로 눕혀 쌓는 귀틀식 구조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둥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귀틀식의 건축물뿐이다. 가구식이었다면 유적과 같이 좁은 간격으로는 불합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동24개돌 유적은 다락형태의 귀틀집이라고 추정할

17) 차성파, 1991, 「두만강연안 <24개돌> 유적에 관한 초보적탐구」,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37~141쪽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24개돌유적이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는 지금도 다락형태의 귀틀집이 집집마다 있으며, 그 쓰임새는 주거용보다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24개돌유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연구대상인 강동24개돌 유적 주춧돌에는 종 방향으로 귀틀재를 걸치기 위한 홈을 파 놓았다. 주춧돌 가운데 A1, A8, B1, B8, C1, C8, 즉 변두리 주춧돌은 평평하게 잘 다듬은 주춧돌 윗면에 길이 60cm~79cm, 폭 35~46cm, 깊이 1~2cm의 홈을 파다. 또한 그 끝 부분에는 약 3~4cm 정도의 홈을 더 파 턱을 두었다. 부재를 끼웠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주춧돌 머리에 새긴 귀틀 홈은 다른 24개돌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다른 유적에 비해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방법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24개돌유적은 각각의 주춧돌별로 기둥을 세우는 가구식 구조가 아니라 목재를 가로로 뉘어 쌓는 귀틀식 구조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유적에는 주춧돌과 유적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약간의 유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바닥 및 벽체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밝혀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림 15〉 일본奈良 唐招提寺 귀틀집 寶藏(2010. 2)



〈그림 16〉 汪淸縣 仲坪鄉 高城村 주택 내부의 부경(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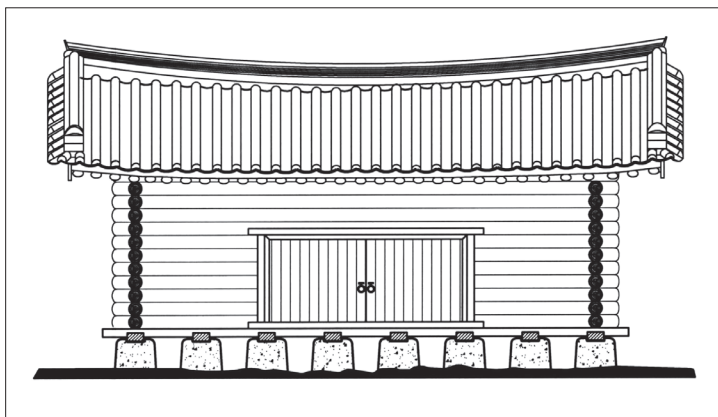
〈그림 17〉 강동24개돌 유적 C8 주춧돌 상부 귀틀자국

는 없다. 현 상황에서 바다 및 벽체 구조를 추정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주춧돌 배열과 주춧돌 형상 그리고 유적 주변 유물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이 건축물이 어떠한 구조였을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벽체의 구성방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4개돌유적은 발해의 다른 유형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주춧돌이 서 있다. 또한 주춧돌 윗면에 기둥을 세우기 위한 柱座를 새긴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윗면에 기둥을 세웠던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다른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강동24개돌 유적만은 귀틀재를 걸치기 위한 흙이 주춧돌 윗면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유적 주변에서 벽체를 구성했음직한 어떠한 재료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붕 재료인 기와장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유독 벽체를 구성한 재료만 없다는 것은 재료가 돌이나 벽돌이 아니라 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강동24개돌 유적은 높은 주춧돌을 세우고 나무로 바닥판을 구성한 다음 나무를 가로로 누어 쌓은 귀틀형식의 벽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유적 주변에서 발견된 출토 유물로는 여러 색의 베무늬기와, 암수기와, 막새기와 조각 등 기와지붕과 관련되는 유물들이다. 여러 가지 기와 장식물로 보아 24개돌유적은 맞배, 우진각, 팔작지붕 등 고급의 기와지붕이었을 것이다. 건축물은 면적이 19,53㎡ 정도로 규모에서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 또한 출토된 기와류는 발해의 도읍이었던 상경성에서 수습된 기와와 무늬 및 색채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개인집이라기보다 중앙정부나 지방관청에서 발주된 공공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붕이 기와집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과연 지붕모양이 어떠한 것인가가 의문이다. 유적의 평면형태를 보면 측면 對 정면 비율이 1 : 1.34로 정방형에 가깝다. 이러한 비율로 지붕을 우진각으로 하면 용마루가 너무 짧아 지붕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 강동24개돌 유적에서 최소 1.4m 정도의 기단자리가 발견되었다. 유적 네 방향으로 기단이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구24개돌 유적에서도 기단자리가 발견되었는데, 정면 쪽으로는 주춧돌로부터 5m, 측면 쪽으로는 3m로 각기 다르다. 또한



〈그림 18〉 강동24개돌 유적 추정 입면도

김책시 동흥리24개돌 유적의 경우도 전·후면으로는 1m, 좌·우면으로는 50cm 정도의 기단 폭을 보이고 있으며, 회문리24개돌 유적도 전·후면과 좌·우면의 기단 돌출길이가 각각 다르다. 기단 폭의 차이는 팔작 및 우진각지붕보다 맞배지붕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은 처마의 돌출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단 폭 또한 전후좌우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sup>18)</sup> 따라서 강동24개돌 유적은 기와로 덮은 맞배지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강동24개돌 유적의 형태를 추정해 보면 그림 19와 같다.

### 3\_ 쓰임새

‘24개돌유적의 쓰임새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각 연구자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발해 왕족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였다. ② 신앙과 관련된 제례를 지내는데 쓴 발해시기 건축물이었다. ③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승배

18) 이병진, 2001, 앞의 책, 104쪽

하던 종교적인 대상물이었다. ④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역참이었다. ⑤ 발해 왕실의 기념성 건축물이었다. ⑥ 건조실이었다. ⑦ 창고였다. 이 가운데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각 주장에 대해 그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발해 왕족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였다고 보는 견해이다.<sup>19)</sup> 이 주장은 당시 도읍지였던 상경성에서 발해 왕족 무덤들이 있었던 돈화시 육정산으로 가는 목단강 유역에서만 24개돌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제기된 주장이다. 그러나 그 이후 24개돌유적이 목단강 유역뿐 아니라 두만강 유역(마파 · 석견평 유적)과 한반도 동해안 지방(송평구역 · 회문리 · 동흥리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왕과 왕실 귀족이 죽으면 모두 육정산에 모시는 것이 아니었다. 상경성에서 현무호가 있는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어느 왕 무덤인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三靈墳이라는 발해 왕족 무덤이 있고, 발해의 세 번째 왕인 문왕 대흠무 넷째 딸인 정효공주도 육정산이 아닌 화룡시 용두산에 안장되어 있다. 또한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건물의 규모와 격식에서도 너무 큰 건물인 것 같다. 이상의 근거로 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이다.

② 신앙과 관련된 제례를 지내는데 쓴 발해시기 건축물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20)</sup> 주장의 근거로는 유적 모양과 구조가 통일되었다는 점, 건축물이 배산임수형의 수려한 경관에 있다는 점, 비교적 넓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주로 주 · 현 소재지 부근에 있어 제례를 지내는데 편리한 곳에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적들이 남향 혹은 동향으로 주변 지형과 산세에 맞게 건물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대부분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이 높은 곳 혹은 기단을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해서 제례를 지내는 장소로만 볼 수 없다. 제례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남향을 한 유적은

19) 吉林大學歷史系敦化文物普查隊第二小組, 1958-3, 「敦化縣二十四塊石遺址調查記」, 『吉林大學人文科學學報』, 吉林大學學報編輯部; 方學鳳 · 鄭永振 主編, 2000, 『渤海貨幣及二十四塊石論著匯編』, 吉林人民出版社, 156쪽

20) 부경만 · 황림계 저, 최태길 역, 1991, 「〈24개돌〉 유적지 조사기록」,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19쪽

11개 유적 가운데 6곳인 반면 동향을 한 유적도 5개나 된다. 건축물로 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유적지 주변에서 제례를 지냈다고 주장할 만한 유물이 전혀 발견된 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③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던 종교적인 대상물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21)</sup>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의 돌이 주춧돌이 아닌 사람이 숭배하던 신비한 돌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는 남아 있는 돌의 크기가 주춧돌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점, 돌과 돌 사이 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둥을 세울 수 없다는 점, 돌 밑 기초가 일반적인 방법보다 과중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 돌 윗면을 가공한 것도 있지만 자연석 그대로인 것도 있다는 점, 길림성 集安市 東台子 건물터 정중앙에 있는 큰 돌과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 돌 숫자가 24개인 것은 동서남북 24방을 상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며,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목조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방법을 살펴보면 기둥과 보와 도리로 뼈대를 구성하는 가구식이 주를 이루지만 나무를 ‘#’ 형태로 수평으로 누어 쌓는 귀틀식 구조방법도 있다. 유적이 귀틀집이었다면 주춧돌 간격이 좁아도 충분히 건축물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24개돌유적이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필자는 많은 귀틀집을 보아왔으며, 집안시에 있는 고구려 고분인 麻線溝第一號墳 벽화에 그려진 창고(桴京) 그림도 귀틀집 형식의 다락집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건축물로서 가능한 구조방법을 모두 고려해 보지 못한 결과이다.

④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역참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22)</sup>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sup>23)</sup> 『圖們市文物志』

21) 차성파, 1991, 앞의 글, 137~141쪽

22) 방학봉, 2000, 앞의 글, 286~289쪽.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지금까지 발견된 12개의 24개돌유적은 모두 발해 국경 내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다. ② 24개돌유적은 모두 모양, 짜임새, 크기, 재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같다.

23) 李殿福, 1992-2, 「渤海考古學的主要收穫」, 『博物館研究』, 吉林省博物館學會·吉林省考古學會; 李殿福, 1994, 「渤海的考古學」, 『東北考古研究(二)』, 中州古籍

에서는 여러 가지 추정될 수 있는 쓰임새 가운데 역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였다.<sup>24)</sup> 李殿福은 24개돌유적은 발해의 교통로에 있는 ‘정각식건축’이라 하였고,<sup>25)</sup> 리대희는 한반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동흥리와 회문리24개돌 유적을 근거로 역참이라고 주장하였다.<sup>26)</sup> 李建才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24개돌유적이 역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sup>27)</sup> 孫秀仁은 선학들의 근거를 종합하고 본인의 연구성과를 첨가하여 역참유적이라는 주장을 재확인하였다.<sup>28)</sup> 쓰임새 규명에 있어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역참이라는 것에 대해 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다만 역참을 다락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유적 주변 대부분의 건축물은 땅에 접해 있는 접지식 지상건축물이다. 역참이라면 사계절 내내 이용되는 곳인데 ‘추운 겨울<sup>29)</sup> 어떻게 난방을 했을 것인가?’이다. 역참이란 잠시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날을 그곳에서 체류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주춧돌 높이가 70cm 이상이면 건축물 바닥 높이는 적어도 90cm를 넘었을 것이며 바닥도 마루였을 것이다. 따라서 침실을 구비해야 하는 역참일 가능성은 낮다. 또한 역참이라면 사람이 생활을 하든 업무를 보든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최근 발굴된 유적 옆의 온돌자리가 동

出版社：張泰湘，1994，「渤海考古學綜述」，『東北考古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金太順，1997，「黑龍江省渤海考古的主要收穫」，『高句麗渤海研究集成(渤海卷三)』，哈爾濱出版社；李建才，1992-2，「二十四塊石考」，『北方文物』，北方文物雜誌社

- 24)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1986，『圖們市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43~46쪽
- 25) 李殿福，1992-2，앞의 글
- 26) 리대희，1991-3，「발해의 력참로」，『역사과학』，과학백과사전출판사，54쪽
- 27) 李建才，1992-2，앞의 글. ㉠ 24개돌유적이 있는 곳은 옛날 도로가 있던 곳이다. ㉡ 24개돌유적 간의 거리는 과거 고대 역참 간의 간격과 유사하다. ㉢ 유적 주변에는 渤海 및 金나라 古城이 분포되어 있다. ㉣ 遼나라 역참유적에서 출토되던 기와가 24개돌유적에서도 발견된다.
- 28) 孫秀仁，1993-4，「渤海國二十四塊石之謎解釋」，『北方文物』，北方文物雜誌社
- 29) 이 지역 겨울기온(1월 평균기온)은 -18~-30℃로 몹시 춥다(地圖出版社，1984，『中華人民共和國地圖集』，地圖出版社，39쪽). 또한 이 지역의 보편적인 煖房法은 온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시기의 건물자리라고 가정해도 침실로 쓰기에는 너무 좁아 상주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역참이라면 각 유적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도<sup>30)</sup> 역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사항이다.

⑤ 발해 왕실의 기념성 건축물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31)</sup> 역참설이 제기되기 전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했었다. 주장의 근거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24개돌유적이 형태, 구조,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축물의 쓰임새가 무엇인가를 떠나 정부 관여 아래 지어진 건축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덧붙여 궁전, 관청, 사찰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12개 유적 주변에는 이와 더불어 있어야 할 부속건물 흔적이 보이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적의 측면 對 정면 비율이 발해의 궁전, 관청, 사찰 등 공공건물 비율과 맞지 않는다. 대부분 발해의 중요 건축물의 측면 : 정면 비율은 1 : 2 정도이다.<sup>32)</sup> 그러나 24개돌유적의 측면 : 정면 평균 비율은 1 : 1.23으로 정방형에 가까워 중요 건축물 비율과 맞지 않는다.

⑥ 건조실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sup>33)</sup> 2011년 최근에 제기된 주장이다. 근거로는 첫째, 바다에서 일정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 통풍이 잘되며, 짐승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동북지역에서는 음식물을 장기간 놓아둘 상황이 안 되므로 건조된 음식을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셋째, 발해 사회는 모계사회를 이루었는데, 유적 규모가 일정 모계사회 단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크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공적 공간으로서 건조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건조실로만 보기에 기초와 주춧돌이 너무 과중하다는

30) 실제 각 유적 간 거리를 살펴보면 마패와 석진평유적 사이 거리는 6.5km인 반면 강동과 관지유적 사이는 28km로 서로 간 거리 차이가 크게 난다. 역참이라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효용성이 높았을 것이다.

31) 王承禮, 1962-11, 「吉林敦化牡丹江上流渤海遺址調查記」, 『考古』, 考古雜誌社

32) 이병건, 1992, 『발해시대 사찰건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쪽

33) 黃金波, 2011-3, 「淺談渤海國二十四塊石功用」, 『黑龍江史志』, 黑龍江史志雜誌社, 8~10쪽

것이다. 차라리 창고로서 건조실을 겸한 것이라면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⑦ 창고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주장을 언제 어떤 선편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sup>34)</sup> 필자도 24개돌유적은 중앙 혹은 지방 정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고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35)</sup> 이러한 근거로는 첫째, 함경북도 김책시 동흥리에서 발견된 동흥리24개돌 유적 주위에서 쌀 함지박·그릇 등 곡물과 관계되는 도구가 다량 발견되었다. 둘째, 12개 유적 모두가 다락집으로 주거공간보다 창고 등 수납공간으로 보는 것이 주변지역 건축구법과도 맞아떨어진다. 셋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桴京’과 유적을 비교해 볼 때 바닥에서 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三國志』魏書 卷30 東夷傳 高句麗條에 “나라 안 고을에서는 해가 저물어 밤이 되면 남녀가 모여 서로 나아가 노래하며 즐겼는데,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었다. 이름하여 ‘桴京’이라 했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큰 창고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2개 유적 모두는 다락집에 24개의 주춧돌을 사용했으며, 구조방법·모양·규격·재료·크기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적이 있는 주변에는 집집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작은 다락창고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유적들이 주요 도로변에 있다. 여섯째, 최근 유적 바로 옆에서 드러난 온돌자리는 아궁이와 짧은 고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여러 사람이 상주하기에는 너무 좁다. 온돌자리가 강동24개돌 유적과 동일시기에 조영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창고를 지키는 초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유적을 동일시기의 것으로 보기에 가능성은 낮다.

34) 이 주장을 언제, 누가, 어떠한 근거로 주장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여러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그 원출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吉林地方志』 「鷄林田間錄」(魏聲和 著, 民國二年 出版)과 『吉林地理紀要』라는 책에 강동24개돌 유적을 설명하면서 유적은 발해시기의 창고터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吉林大學歷史系敦化文物普查隊第二小組, 1958-3, 앞의 글; 方學鳳·鄭永振 主編, 2000, 앞의 책, 156쪽

35) 이병건, 2001, 앞의 책, 65쪽

이상과 같이 각각의 견해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쓰임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위의 각 견해 가운데 주변 지역의 정황과 유적의 건축적 특징을 참고해 볼 때 필자는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다락식 창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 V. 결론

강동24개돌은 다른 유적에 비해 정비와 보존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주춧돌 머리에 귀틀자리가 있어 다락식으로 된 귀틀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새롭게 밝혀진 강동24개돌 유적의 평면 및 구조형식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유적의 쓰임새를 추정해 보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 제Ⅱ장에서는 발굴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변천과 현황을 정리해 보고, 발굴 전후 유적의 변화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유적에서 드러난 온돌자리(아궁이+고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유적의 건축적 특징(배치와 평면형식, 구조형식)과 쓰임새를 추론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핵심은 발굴시 드러난 온돌자리와 강동24개돌 유적이 동일시기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검토 결과 각각의 유적은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건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근거는 ① 남북으로 가다가 동서로 꺾인 고래가 24개돌유적 가까이에 이르러 점차 사라진다고 한 것은 온돌자리 건물이 있던 자리를 강동24개돌이 잠식하여 새롭게 건물을 구성했다는 증거가 된다, ② 온돌자리 건물은 접지식인 반면 24개돌유적은 다락식 건물이다. 두 건물이 조합하는 방법은 높이에 차이가 나므로 불가능하다, ③ 동일시기의 것이라면 두 건물 간격이 너무 좁다 등을 들 수 있다.

발굴자는 온돌자리와 24개돌유적이 인접해 있고, 두 유적 층위가 동일하며, 온돌자리 출토 암키와 조각이 24개돌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가 같다는 것을 들어 두 유적을 동일시기의 것으로 보았다. 만일 같은 시기의 것이라면 온돌자리는 24개돌유적을 지키는 초소일 가능성이 있다. 취침이 가능한 숙소라기보다 추위를 피하는 간이 쪽구들 정도의 취사와 난방설비가 갖추어진 소규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발해시기의 온돌유적과 비교해 보아도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24개돌유적의 쓰임새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면 ① 발해 왕족 시신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였다, ② 신앙과 관련된 제례를 지내는데 쓴 발해시기 건축물이었다, ③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던 종교적인 대상물이었다, ④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역참이었다, ⑤ 발해 왕실의 기념성 건축물이었다, ⑥ 건조실이었다, ⑦ 창고였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 더 많다. 이 가운데 역참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다.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이 견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역참을 다락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다. 유적 주변 대부분의 건축물은 땅에 접해 있는 접지식 지상건축물이다. 역참이라면 사계절 내내 이용되는 곳인데 추운 겨울 난방이 문제이다. 역참이란 잠시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날을 그곳에서 체류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주춧돌 높이가 70cm 이상이면 건축물 바닥 높이는 적어도 90cm를 넘었을 것이며 바닥도 마루였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 생활을 하든 업무를 보든 상주하는 인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최근 발굴된 유적 옆의 온돌자리가 동일시기의 건물자리라고 가정해도 침실로 쓰기에는 너무 좁아 상주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역참이라면 각 유적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도 역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연구자는 24개돌유적을 중앙 혹은 지방 정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창고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거로는 ① 유적 주위에서 곡물과 관계되는 도구가 다량 발견되었다, ② 12개 유적 모두가 다락집으로 주거공간보다 창고 등 수납공간으로 보는 것이 주변지역 건축구법과도 맞아떨어진다, ③ 고구려 고분벽

화에서 보이는 부정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다락식 구조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유적은 공통적으로 24개의 높은 주춧돌(高石柱)을 사용했으며, 구조방법·모양·규격·재료·크기에서 서로 매우 유사하다, ⑤ 대부분의 유적이 발해시기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4개돌유적이 발해시기에 처음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지금까지 없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발해시기로 보는 근거가 되어 왔던 베무늬 기와 형태만으로는 그 시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강동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서고성·팔련성의 것과 차이가 나며, 오히려 金代의 것과 동일하여 遼·金代 유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발굴자는 24개돌유적을 발해시기에 처음 건설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요금시대 유적으로 보는 입장이 더 강하다. 그렇다고 발해시기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재가 밝혀진 12개의 24개돌유적 분포를 보면 모두 발해시기의 강역에서만 보인다. 강동과 해청방24개돌 유적이 있는 지역은 당시의 요·금 관할구역으로 볼 수 있지만, 한반도 동해안 일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동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24개돌유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베무늬 기와가 발해시기의 전형적인 기와였으므로 이를 사용한 건물을 발해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강동을 포함한 24개돌유적은 발해시기에 처음 건설되어 사용되다가 요금시기에도 계속 연용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좀 더 명확한 고찰을 위해 다른 24개돌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겠다.

## 참고문헌

- 吉林大學歷史系敦化文物普查隊第二小組, 1958-3, 「敦化縣二十四塊石遺址調查記」, 『吉林大學人文科學學報』, 吉林大學學報編輯部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09-6,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考古雜誌社
-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돈화시문물관리소 씬, 정원철 옮김, 2011-3, 「길림 돈화시 강동·임승“24개돌”유적의 조사와 발굴」, 『高句麗渤海研究』第40輯, 高句麗渤海學會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6, 『圖們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金太順, 1997, 「黑龍江省渤海考古的主要收穫」, 『高句麗渤海研究集成(渤海卷三)』, 哈爾濱出版社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리대희, 1991-3, 「발해의 력참로」, 『력사과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준걸, 1984-2, 「새로 발굴된 24개돌」, 『력사과학』, 력사과학출판사
- 방학봉, 2000, 「발해 24개 돌 유지에 대하여」, 『발해의 주요 교통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方學鳳·鄭永振 主編, 2000, 『渤海貨幣及二十四塊石論著滙編』, 吉林人民出版社
- 부경만·황림계 저, 최태길 역, 1991, 「〈24개돌〉 유적지 조사기록」,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 孫秀仁, 1993-4, 「渤海國二十四塊石之謎解釋」, 『北方文物』, 北方文物雜誌社
- 王承禮, 1962-11, 「吉林敦化牡丹江上流渤海遺址調查記」, 『考古』, 考古雜誌社
- 李建才, 1992-2, 「二十四塊石考」, 『北方文物』, 北方文物雜誌社
- 이병진, 2001, 『발해 24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秉建, 2002-12, 「발해 강동24개돌유적의 추정 복원안 연구」, 『白山學報』第65號, 白山學會
- 이병진, 2003-6,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권 6호(통권 176호), 大韓建築學會
- 이병진, 2003-10, 「한반도지역 고상식 건축과 발해 24개돌유적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9권 10호(통권 180호), 大韓建築學會
- 이병진, 2011, 「건축적 관점에서 본 발해유적에 대한 한국의 연구동향」, 『高句麗渤海

研究』第41輯, 고구려발해학회

李殿福, 1992-2, 「渤海考古學的主要收穫」, 『博物館研究』, 吉林省博物館學會·吉林省考古學會

李殿福, 1994, 「渤海的考古學」, 『東北考古研究(二)』, 中州古籍出版社

張泰湘, 1994, 「渤海考古學綜述」, 『東北考古研究(一)』, 中州古籍出版社

차성파, 1991, 「두만강연안 <24개돌> 유적에 관한 초보적탐구」, 『발해사연구』 2, 연변 대학출판사

黃金波, 2011-3, 「淺談渤海國二十四塊石功用」, 『黑龍江史志』, 黑龍江史志雜誌社

E. I. 겔만, 2005, 「고르바트카 성터 발굴 보고서」,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Lee Byeong Gun, 2009, “New Perspective on the Gangdong 24 Stones Relics which has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in Dunhu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ndol*, International Society of Ondo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 The Architectural Character of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Lee Byeongg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architectural character of the Gangdong (江東) twenty-four stones relics, and to consider their usage.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that appeared during the excavation must be related to the remains as they are found in the same layer with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consider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as the same building as that where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were located. This is because if they were the same buildings,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should extend to the inside of the twenty-four stones relics, but they do not.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has an upper risen architectural feature in that they come to the ground about 70 centimeters high. Therefore,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and the place where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were found should be regarded as different buildings. It is believed that the building where the fuel hole and the chimney fuel were located was an attached building which had a small kitchen for cooking separately from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usage of th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but the view that they were the upper risen storehouse is the most persuasive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surroundings and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remains.

#### Keywords

Balhae, Gangdong Twenty-four Stones Relics, Dunhua City, Upper Risen Architecture, Storehouse, Ondol, Architectural Form, Site and Planning Form, Construc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장순순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기록에 따르면,<sup>1)</sup> 조선후기 울릉도에서 조일 두 나라 백성들이 직접 만나기 시작한 것은 1692년(숙종 18, 元祿 5)이었다. 1625년 막부로부터 '竹島渡海免許'를 받고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해 왔던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요나고[米子]의 어부들은<sup>2)</sup>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조선인을 만났지만 수적인 열세로 어로를 포기하고 귀향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3년(숙종 19, 元祿 6) 3월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4일

\* 본 연구는 2011년 동북아역사재단(연구지원과제: 동북아 2011-한일(단독)-2)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1) 『元祿六年西四月朝鮮人召つれ參候時諸事控』, 『大谷家文書』;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45쪽 재인용
- 2) 도쿠가와막부는 1625년(인조 3, 寬永 2) 돗토리번령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와 무라카와 兩家에 '竹島渡海免許'를 발급하였다. 막부가 발급한 竹島渡海免許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은 이 도해면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竹島(울릉도)를 왕래하였으며, 울릉도 해역의 이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해 왔다. 池內敏, 2006a, 「竹島渡海と鳥取藩」,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중순경 출어를 맞이하여 다시 竹島(울릉도)<sup>3)</sup>에 출어했는데, 조선인들이 또 다시 그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竹島에서의 어업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요나고의 오야가[大谷家] 어부들은 어로를 포기하고 대신 조선인 일행 가운데 두 명, 안용복과 박어둔을 붙잡아 귀항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는 竹島에서의 어로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오야가 배의 선장 구로베[黒兵衛]와 다이라베[平兵衛]는 鳥取藩 家老에게 竹島出漁를 보호해달라는 口上書를 제출하였다. 결국 1692·1693년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사건을 계기로 돛토리번을 비롯하여 일본 내에서는 조선인의 竹島 도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돛토리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 받은 江戸幕府는 쓰시마번에게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에 송환하도록 하고, 竹島에 조선인의 竹島渡海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라는 내용의 對조선 교섭을 지시하였다.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조선에서는 ‘울릉도 쟁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잇켄[竹島一件]’ 또는 ‘겐로쿠다케시마잇켄[元祿竹島一件]’)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교섭을 진행하도록 지시받은 쓰시마번은 이전부터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sup>4)</sup> 그런데도 막부의 의견을 그대로 조선 정부에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自藩의 이익을 의식하면서 교섭에 임했다. 즉,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교섭에서는 울릉도의 일본 영유를 주장하였고, 심지어 1609년 1월 막부가 竹島(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渡海禁止令’이 내려졌을 때조차도 바로 조선에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

일찍이 조선전기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쓰시마가 왜 이때에 와서 일본 영유를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을까? 본 논문은 이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초점을 둔 것

3)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竹島(또는 磯竹島)라고 불렀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료에 기초하여 명명하겠지만, 논지 전개상 일본 측 주장은 竹島로, 조선 측 주장은 울릉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라면, 본 연구는 조선후기 江戶幕府의 대조선통교권을 독점했던 쓰시마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논지의 전개를 위해서 먼저 1693년 안용복의 납치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쓰시마가 인식한 울릉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693년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 감으로써 촉발된 울릉도 영속시비 즉 ‘울릉도 쟁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쓰시마, 幕府) 논의 및 교섭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쟁계를 통해서 드러난 17세기 후반 일본(쓰시마)의 대조선 교섭자세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근대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의 촉발 요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쓰시마번의 위상과 역할 규명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 II. 1693년 이전 對馬藩의 울릉도 인식

15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를 空島化하고<sup>6)</sup> 조선인의 거주 및 도항을 금

- 5) 독도가 한일 양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근대의 일이다. 전근대에는 울릉도의 풍부한 물산과 주변 해역의 어로자원 때문에 독도보다는 울릉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울릉도 영속시비(울릉도 쟁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근에 들어 영토 분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울릉도·독도 문제를 한일관계의 틀 속에서 파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池內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 제7장, 제8장, 제9장; 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교섭과 울릉도-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을 중심으로」(『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를 들 수 있다.
- 6) ‘공도정책’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최근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공도정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다. ‘공도’라는 표현은 사료상 나오지 않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태종의 울릉도민 쇠환정책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 포기라 아니라 정책적으로 울릉도 거주 도민들을 쇠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호동, 2005, 「조선훈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지하였는데, 그러한 조치는 島嶼地域에 출몰하는 왜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收稅를 피하여 섬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추쇄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치권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sup>7)</sup>

주지하다시피 쓰시마는 섬 전체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자연환경이 매우 척박한 곳이다.<sup>8)</sup>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경제적으로 조선에 의지하여 생활을 유지하였다.<sup>9)</sup> 마침 조선에서 울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쇠환하자 쓰시마 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는 1407년(태종 7) 사람을 보내어 쓰시마 내 여러 부락을 이끌고 茂陵島(울릉도)에 옮겨 살기를 청하였다.

對馬島 守護 宗貞茂가 平道 土物을 보내 土物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貞茂가 武陵島를 청하여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日本國王이 나더러 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 하니, 南在가 대답하기를, “왜인의 풍속은 叛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일상적인 일로 여겨 禁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

한편으로는 ‘공도정책’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공도정책이 영토의 포기가 아님은 세종조의 巡審敬差官 파견이나 숙종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搜討制度가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6쪽

- 7) 한편 조선은 전기부터 관 주도하에 공적으로 울릉도에 대한 순찰 및 관리를 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송병기, 2010, 「고대·고려·조선초기의 우산·무(울)릉도 경영-조선 초기 지리비 기사를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김호동, 2007, 「조선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손승철, 2011,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참조.
- 8) 쓰시마는 섬이라기보다는 바다에 떠 있는 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섬 전체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조선에 의지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지금도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계곡 사이와 일부 해안지대에서만 농사가 가능한데 그 면적도 섬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전근대 쓰시마의 조일 양속관계에 대해서는 손승철, 1996, 「대마도의 조·일 양속관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참조.
- 9) 쓰시마가 조선에 경제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인들은 쓰시마에 대해서 ‘대마고토의식’, ‘대마병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한국인의 對쓰시마 인식에 대해서는 하우봉, 1996, 「한국인의 대마도인식」,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참조.

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境內에서는 常事로 여기지만, 만일 越境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sup>10)</sup>

쓰시마의 이런 요구에 정부는 ‘越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쓰시마인들의 울릉도 이주를 허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越境’이라는 표현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표현으로, 결국 쓰시마의 울릉도 이주 계획은 백지상태로 돌아갔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614년(광해군 6) 6월에 왜선 세 척이 노인을 대동하고 와서 礮竹島를 조사한다 하고,<sup>11)</sup> 이어서 쓰시마 주민을 이주 시키겠다고 알려 왔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이전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울릉도는 버려둔 땅이 아니라 조선에 속해 있는 것이 『輿地勝覽』에 명시되어 있고, 정부는 그 지역에 대해서 方物을 거두기도 하고, 섬사람들을 쇠환한 典故가 분명하므로, 경상감사와 부산의 邊臣은 온 배에 특별히 유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쓰시마 도주로 하여금 禁約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sup>12)</sup> 위 사항에 대해서 조정에서는 예조 명의의 서계가 아닌 동래부사 윤수겸과 그 후임朴慶業 명의로 된 서계를 그해 7월과 9월에 쓰시마에 보냈다. 礮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쓰시마가 임의로 가로챌 수 없는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礮竹島 즉 울릉도에 대한 쓰시마인의 도항 및 入居 요구는

10) 『태종실록』 태종 7년 3월 경오(16일)

對馬島守護宗貞茂, 遣平道全, 來獻土物, 發還俘虜. 貞茂請茂陵島欲率其衆落徙居, 上曰若許之, 則日本國王謂 爲招納叛人, 無乃生隙歟 南在對日 倭俗叛則必從他人, 習以爲常, 莫之能禁, 誰敢出此計乎 上曰在其境內, 常事也若越境而來, 則彼必有辭矣.

11) 『邊例集要』 권17, 甲寅(1614)

12) 『광해군일기』 광해군 6년 9월 신해(2일)

備邊司啓曰 鬱陵島禁止倭奴來去之意 前日禮曹書契中 已爲據理回諭矣 今者島倭猶欲來居鬱陵島 又送書契 殊爲可駭 本島之屬於我國 在輿地勝覽 或收方物或刷島民 明有典故 將此事節 具載於回答書契之中 據義切責 以杜奸猾之計 似爲便益 移文于慶尙監司釜山邊臣 另諭來舡 專齎此書 作速歸報島主 俾遵朝廷禁約 從之.

무위로 돌아갔다.<sup>13)</sup>

1620년(광해군 12)에는 몰래 竹島에 도해했던 쓰시마의 와카자카 야자에몬(鷺坂彌左衛門)과 니에몬[仁右衛門] 부자가 이소다케시마, 즉 울릉도를 무대로 潛商(밀무역)을 한 혐의로 막부의 명령을 받은 쓰시마번에 체포되어 京都로 압송, 처벌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sup>14)</sup> 당시 그들을 잡으러 왔던 쓰시마의 무사는 막부로부터 받은 朱印狀을 가지고 있었다. 竹島에 오면서 막부가 발급한 주인장을 지참했다는 사실은 당시 막부나 쓰시마 모두 竹島가 일본령

- 13) 『竹島考證』上(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 Ⅱ), 38~39쪽

“慶長 19년에 宗氏が 竹島에 관해 요청할 일이 있어 사자를 조선에 보낸 적이 있다. 조선은 동래부사 윤수겸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竹島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때의 글이 『善隣通書』 및 『朝鮮通交大紀』에 실려 있다. 대략 ‘글 속에 磯竹島를 자세히 조사하자는 말이 있으니 심히 놀랍고도 의아합니다. 이 계획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 섬이 경상과 강원 두 도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이르니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울릉도라는 곳입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부사 박경업의 서신에서 보면 ‘貴島가 磯竹島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집착하고 있으니 심히 이상합니다. 이 섬이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묵下が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貴島가 가로챌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면서 앞질러 엿보려고 하니 이는 실로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아마 좋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磯竹島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입니다.’…….”

- 14) 『通航一覽』 권129, 「朝鮮國部」 105, 貿易

元和六庚申年, 宗對馬守義成, 命によりて, 竹島朝鮮國屬島に於て潛商のもの二人を捕へて, 京師に送る …….

對馬島宗家文書, 『元和六年庚申磯竹島彌左衛門仁左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內入』(국사편찬위원회소장, 기록류 No. 6580).

元和六年庚申台徳院様より, 磯竹島ニ罷在候日本人彌左衛門仁右衛門與申者, 召捕差上候様ニ與, 義成様へ被仰付候, 磯竹島ハ朝鮮國之内鬱陵嶋與云所ニ而候, 審ニ朝鮮本芝峰類説見ヘタリ …….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研究』下, 吉川弘文館, 457~458쪽에 따르면 『日鮮通交史 附釜山史』를 인용하여 “柚谷記가 말하기를 磯竹島는 옛날 鷺坂彌左衛門 부자가 이 섬에 건너가서 은거하였던 섬이다. 막부로부터 받은 주인장을 가지고 쓰시마의 무사와 府中の 시골 사람이 작은 배 두 척을 타고 가서 이들을 잡았다. 이는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柚谷記ニ曰, 磯竹島は, 昔鷺坂彌左衛門父子此島隱居, 自公儀以御朱印, 對馬侍府中田舍者小舟二艘以行捕之來也, 是自日本行事禁法故なり); 『元祿六癸酉年竹嶋一件拔書』(동북아역사재단, 2009,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 1)

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637년(인조 15) 6월 29일 竹島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귀국하는 길에 무라카와 이치베[川口市兵衛] 등 30여 명의 일본인이 표류하여 조선 연안에 표착한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쓰시마번의 공문서에 “白耆國의 배는 竹島에 무역을 하기 위해 온 배로서 표류하여 조선의 울산에 도착하였다”, “이소다 케에 간 배가 조선에 가도록” 등으로 기재된 사건이다. 왜관에서 이들 표류민을 취조했을 때 그들은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에게서 받은 연명서 사본을 지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본을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竹島渡海免許’로 보고 있다. 어쨌든 이들 30명의 표류민들을 조선 측에서 양도받을 때 왜관에 있던 쓰시마번 관리는 “지금처럼 竹島에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장군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듣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15)</sup>

그리고 1666년(현종 7, 寬文 14) 7월에도 호키 요나고의 오야 구에몬[大谷九右衛門]의 선원 22명이 울릉도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태풍을 만나 조선 연안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들 표류민을 구조하여 역시 표류민 송환 절차대로 왜관으로 보냈고, 그들은 무사히 귀국하였다.<sup>16)</sup>

위와 같이 조선전기 이래 쓰시마번은 기본적으로 竹島가 조선령이며,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인의 竹島 도항 및 거주를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5) 「深見彈右衛門古帳之書」寬永 14年 7月 9日; 池內敏, 2006a, 앞의 글, 250쪽 재 인용. 今程竹嶋二船渡申上候事, 從公儀御法度樣二承及申上候.

16) 對馬島 宗家文書, 『分類紀事大綱』 14, 「日本漂民之一件」, 寬文六年 八月一日; 『竹島考』 上

### Ⅲ. 對馬藩의 대조선 교섭과정과 울릉도 영속시비

#### 1\_ 안용복·박어둔의 피랍과 송환

1692년(숙종 18) 3월 말, 조선 어민 53명, 일본 어민 21명이 울릉도 해역에 출어했는데, 서로 간에 충돌은 없었다. 다만 돛토리번 호키슈[伯耆州]의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어민들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어장을 불법 침입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수적인 열세로 제지도 못하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4월 5일에 호키슈 요나고로 귀국했다.<sup>17)</sup>

다음 해인 1693년 3월 중순경 울릉도에 간 오야가 일행은 또다시 안용복·박어둔을 비롯한 조선의 연해 어민 40여 명과 만나게 된다. 4월 18일이었다. 조선인들의 출현으로 2년 연속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두 가문의 어민들은 돛토리번청에 사건의 처리를 요청할 생각으로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조선인 두 사람, 즉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했다.<sup>18)</sup> 당시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선원들은 竹島에서 자신들의 조업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돛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제소하고자 한 것이다. 돛토리번이 요구한 것은 앞으로 竹島에 조선인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의 출어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돛토리번령 요나고 주민이 竹島산 전복을 배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전처럼 돛토리번에서 막부에 전복 현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탄원이었다.<sup>19)</sup>

피랍된 안용복과 박어둔은 隱岐의 番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요나고로 옮

17) 田保橋潔, 1931,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報』 제3호, 15쪽

1692년 일도 돛토리번에서는 막부에 보고를 했다. 돛토리번의 번주가 막부의 노중인 阿部豊後守에게 대처방법을 물었더니, 막부에서는 이미 조선인이 竹島에서 물러났다면 상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18) 『竹島紀事』元祿 6년 6월綱,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鬱陵島」, 甲戌(1694)正月

19) 池內敏, 2006b, 「竹島一件の再檢討」,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76~278쪽

겨져 오야가 선주의 집에 구류되었다. 요나고에서 돛토리번의 가로인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의 취조를 1개월여 동안 받았으며, 그 조사내용은 돛토리번의 에도번저에 보고되었다. 안용복과 박어둔은 막부의 송환 명령이 있기까지 약 2개월을 요나고에서 억류되었으며, 이후 나가사키로 출발하기 전에 돛토리로 옮겨져서 1주일 동안 취조를 받았다.<sup>20)</sup>

막부의 명령으로 나가사키 → 쓰시마를 통한 송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안용복과 박어둔은 납치된 ‘범죄인’으로서 억류된 생활을 하였다. 『증보동국문헌비고』<sup>21)</sup>에 따르면 안용복 등이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고,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당시 伯耆州 태수가 관백에게 품의하여 안용복 등에게 “울릉도는 일본의 경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계를 만들어 주어 받았으나 쓰시마에 이르러 빼앗겼다고 한다. 『성호사설』<sup>22)</sup>에는 ‘伯耆州 태수’가 막부에 품의하여 ‘契券’을 작성하여 주어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안용복이 말한 伯耆州는 돛토리번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안용복이 돛토리번주에게서 서계를 받았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막부가 돛토리번의 품의를 받고 서계를 써주도록 명령하였다고 하는 것은 당시 조일 간의 외교 규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서계란 국가 간의 외교담당자가 주고받은 문서일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은 쓰시마를 유일한 외교통로로 설정하여 상대국에 대해 외교교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일 간에 주고받은 서계는 ‘예조와 쓰시마번주’ 사이에서만 왕래할 수 있는 문서였던 것이다. 다만 1696년 안용복이 직접 渡日할 당시 안용복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이 지참한 물건 중에 문서가 있어 베껴 놓았다는 기록<sup>23)</sup>으로 미루어, 안용복이 1693

20) 池內敏, 2006b, 위의 글

21) 『增補東國文獻備考』 권31, 「여지고」 19, 于山鬱陵島;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무인(25일)

22) 『성호사설』, 「울릉도」

23)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4년 전 계유년 11월에 일본에서 받은 물건들과 문서(書付)를 기록한 책 한 권을 내놓았으므로 즉시 베껴 적었습니다.” 손승철, 2006, 「안용복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년 피랍 당시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번주나 아라오 슈리와 같은 돗토리번의 가로로부터 울릉도의 어업권 내지 영유권이 조선에 속한다는 내용이 쓰여진 모종의 문서를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sup>24)</sup>

돗토리번의 청원을 받은 도쿠가와 막부는 같은 해 6월 3일 쓰시마번에 조선인의 竹島出漁禁止 및 표류민 송환의 업무를 지시·부여하고 조선과의 교섭을 지시했다.<sup>25)</sup> 안용복·박어둔은 8월 14일 長崎奉行所에서 쓰시마번의 사자에게 인계되었고, 9월 3일 쓰시마 府中에 도착하였다. 쓰시마번은 그해 10월 22일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多田與左衛門]를 대조선 교섭을 위한 봉행차와의 정사로 임명하였다. 다치바나 일행은 예조참판 앞 서계를 지참하고, 안용복과 박어둔을 데리고 쓰시마를 출발, 11월 1일 절영도에 도착하였으며, 다음 날 초량왜관에 들어갔다. 이후 이들은 12월 10일 동래부에 신병이 넘겨질 때까지 왜관에서 1개월 9일을 더 체류하게 된다.<sup>26)</sup>

안용복이 일본인들에게 피랍된 1693년 3월 중순부터 봉행차와 다치바나 편에 귀국하여 왜관을 통해 동래부에 신병이 인도되기까지의 행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27)</sup>

안용복과 박어둔의 송환 과정은 전형적인 표류민 귀국 절차와 동일하다.<sup>28)</sup> 그들의 송환은 ‘오야가의 피랍 → 돗토리번 이송 조사 → 에도 돗토리번저에 보

24) 『增補東國文獻備考』 권31, 「여지고」 19, 于山·鬱陵島. 한편 『성호사설』 울릉도 조에는 “對馬島主는 다시 그 서계를 빼앗고 50일을 구금하였다가 동래부 왜관으로 보냈는데, 왜관에서 또 40일을 구류시켰다가 동래부로 돌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25) 對馬藩政史料 『(國元表書札方)每日記』(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表書札方 Aa-1/75) 元祿 6年 6월 3일

26) 『竹嶋考』 下; 박병섭·나이토 세이쥬 저, 호사카 유지 역,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도서출판 보고사, 100쪽

27) 안용복의 피랍에서 귀국까지의 일정은 池內敏, 2006b, 앞의 글과 홍성덕, 2010, 앞의 글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으며, 『竹島紀事』, 『竹島記下書』 등의 사료를 추가 보완한 것이다.

28) ‘표착지 → 長崎 → 對馬島 → 부산왜관’의 표류민 송환 절차는 1640년대 후반에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이훈, 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117~123쪽

〈표 1〉 안용복·박어둔의 송환 과정

일 시	주요 행적	근거
1693년 3월 16일	안용복·박어둔 등을 울릉도에서 유인 피랍	『鳥取藩史』
1693년 3월 20일	隱岐島 福浦에 기착, 在番役人の 조사를 받음	
1693년 3월 23일	隱岐島 福浦를 출발	
1693년 3월 27일	米子에 도착, 鳥取藩의 가로 荒尾大和, 荒尾修理의 조사를 받음	
1693년 4월 말일	‘조선인의 구술서’를 에도의 번저에 보냄	
1693년 5월 10일	鳥取藩 에도번저에서 막부의 月番 노중인 土屋相模守正直에게 보고	御用人日記
1693년 5월 13일	막부에서 조선인을 長崎로 이송할 것을 지시, 쓰시마번 江戸留守居에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 이송하고 조선 어민의 竹島 출어금지를 조선 측에 요청할 것을 지시	元祿六癸酉年 竹嶋一件拔書
1693년 5월 26일	막부 지시 鳥取藩에 도착	鳥取藩政史料, 『控帳』
1693년 5월 29일	안용복 등 米子를 출발	
1693년 6월 1일	안용복·박어둔 鳥取藩 城下에 도착, 荒尾大和의 저택과 町會所에서 유숙	鳥取藩政史料, 『控帳』
1693년 6월 3일	막부 지시 對馬藩에 도착	竹島紀事
1693년 6월 7일	안용복 일행 長崎로 출발	
1693년 6월 30일	안용복 일행 長崎에 도착	竹島紀事
1693년 7월 1일	안용복 일행 長崎奉行所에 인계	
1693년 8월 14일	안용복 일행 對馬藩에 인계	
1693년 9월 3일	對馬島에 도착(鳥取藩의 서계 탈취?)	竹島紀事
1693년 10월 22일	對馬島 출발(봉행차와 橘眞重[多田與左衛門])	竹島記下書
1693년 11월 1일	橘眞重 절영도 도착	竹島紀事
1693년 11월 2일	橘眞重 초량왜관에 도착/ 예조참판 및 예조참의, 동래부사·부산첨사 앞 서계 지참	竹島紀事
1693년 12월 7일	접위관 洪重夏 동래부 도착	竹島記下書
1693년 12월 10일	봉행차와 굴진중과 접위관 洪중하와 교섭 안용복 등 인계, 서계 전달	竹島紀事

고 → 막부보고 → 막부명령하달 → 나가사키로 이송 → 쓰시마로 인계 → 봉행차와 파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1693년 이전에도 돗토리현에는 막부의 지침에 따라 여덟 차례나 조선 표류민을 송환한 경험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안용복 등은 일본 측 어로권의 침입이라는 죄목으로 오야가에 납치되어 돗토리번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송환은 범죄자의 송환이 아닌 일반적인 표류민의 송환 절차였다는 점이다.<sup>29)</sup>

다음은 에도에 있던 다시마 주로베[田嶋十郎兵衛]가 쓰시마번에 전달한 문서다.

금년에 또 40여 명의 사람들이 건너와 어럽을 하였기에 위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구류하고 장군에게 보고하자, 長崎奉行所를 거쳐 對馬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長崎奉行所에서 말해 줄 것이니, 향후 다시는 오지 않도록 조선에 강하게 전달하도록 본국(쓰시마번-인용자 주)에 전할 것을 相模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위의 일을 막부에서 高城越前守에게 명령하셨으므로 그쪽에서도 연락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元右衛門이 들었습니다. 위의 竹島라는 곳은 伯耆守님의 영내가 아니고 因幡에서 160리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전복이 명물로 伯耆守님이 대대로 竹島 전복을 장군에게 헌상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둘러 밤에 高城越前守에게 半兵衛를 보내어 위의 일을 말씀드리고 越前守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막부회의에서 노중들이 열좌하여 저에게도 명하셨기에 長崎에 자세하게 전하였습니다. 진지하게 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본국에도 반드시 전하여 다시는 건너오지 않도록 분명히 조선 쪽에 전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sup>30)</sup>

29) 17세기 鳥取藩에 표착한 조선인들의 사례는 총 12회에 달한다. 1693년 이전에도 여덟 차례나 조선인이 돗토리현에 표류했다. 홍성덕, 2010, 앞의 글, 33~34쪽

30) 『竹島紀事』元祿 6年 5月 13日綱

…… 又々當年人數四十人程罷越, 漁仕候故右人數之內貳人御捕置, 公儀江御案内有之候付, 長崎御奉行所江被送屆, 長崎より對州江御届候様ニ, 與被仰渡候, 委細長崎御奉行所より可申參候間, 向後弥不參候様ニ堅朝鮮表江被仰遣候様ニ, 御國元江被申越候様ニ與相模守申候. 今日右之段於殿中高城越前守様江被仰渡候得者, 其元より茂御届有之, 可然旨, 元右衛門被申聞候, 砲之名物ニ而御代々伯耆守様より竹島砲, 公儀江御獻上被成場所之由ニ而御座候, 則晚高城越

위의 사료에서 막부가 竹島는 伯耆國의 영지가 아니며, 因幡에서 160리나 떨어진 섬으로 대대로 막부장군에게 전복을 헌상하던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695년 12월 막부의 질의에 대해서 돗토리번이 대답한 “竹島는 因幡과 伯耆에 속하지 않는다”<sup>31)</sup>라는 의견과 일치한다. 결국 안용복 등의 납치 문제 처리 과정에서 돗토리번의 주된 관심은 울릉도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竹島에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요나고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에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_ 쓰시마번의 대조선 교섭 과정

### 1) 제1차 교섭

막부의 명령이 쓰시마의 에도 번저에 전달된 것은 같은 해 5월 13일이었다.

…… 鈴木半兵衛가 에도성에 가자 月番 老中の 用人 小畑元右衛門이 와서 알리기를 竹島라고 하는 곳에 지난 해 조선인이 와서 어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松平伯耆守님이 살피시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타일러서 보냈습니다만, 또 올해에도 사십 명 정도가 와서 어로를 하고 있기에 그들 중 두 사람을 잡아 둔 일에 대해 장군님의 지시가 계셨습니다. 長崎奉行所에 그 두 사람을 보내어서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 보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알려 줄 것이므로 앞으로는 오지 못하도록 엄격히 조선 측에 전하도록 (쓰시마) 번청에 전하도록 하라고 相模守님이 명령하셨습니다. …… 위의 竹島

前守様江, 半兵衛差出右之段申上候得者, 越前守様御逢被成, 今日於殿中御老中方御列座, 拙者江茂被仰渡候付長崎表江委細申越候, 被入念被申間趣承届候, 彌御國元江も急度被申越, 重而不參候様ニ堅朝鮮表江被仰遣候様ニ與之御事ニ御座候.

31) 『鳥取縣史』 6권, 「元祿八亥十二月二十四日竹島の御尋書の御返答書」, 1971; 塚本孝, 「竹島關係舊鳥取藩文書及び繪圖(上)」, 『レファレス』, 1986년 4월호, 81쪽

라고 하는 곳은 伯耆守의 領內에도 있지 않고, 因幡에서 160리 정도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전복이 유명한 곳으로 대대로 伯耆守님이 竹島 전복을 장군께 헌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sup>32)</sup>

막부의 月番 老中の 用人 오바다 모토에몬[小畑元右衛門]은 쓰시마번 스즈키 한베[月番 鈴木半兵衛]에게 돗토리번이 막부에 보고한 내용과 일본 측 어민들이 납치한 안용복과 박어둔을 나가사키 봉행소에 보내서 쓰시마로 보내도록 하라는 내용, 그리고 쓰시마로 하여금 앞으로는 조선 어민이 竹島에 오지 못하게 조선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은 먼저 ‘竹島’라는 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竹島는 돗토리번령이 아니고 게다가 因幡國에서 160리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쓰시마번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고, 쓰시마번의 가로인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로서도 竹島와 울릉도가 동일한 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sup>33)</sup> 그는 6월 5일 왜관에 근무하는 조선어 통사 나카야마 가헤[中山加兵衛]에게 “竹島를 조선에서는 ‘부른세미’라 부른다고 하는데, ‘竹島’라고 쓰고 조선어로 ‘부른세미’라고 발음하는 것은 아닐까, 울릉도를 조선에서는 ‘부른세미’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나카야마 가헤는 6월 13일 서장을 보내 “부른세미는 다른 섬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울진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부른세미는 울진도의 북동쪽에 있는 섬

32) 對馬藩政史料 『(國元表書札方)毎日記』(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官)(『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表書札方 Aa-1/75) 元祿 六年 6月 3日

…… 鈴木半兵衛參上仕候處, 御用人小畑元右衛門罷出被申間候者, 竹嶋と申所江去年朝鮮人罷越獵仕候. 依之松平伯耆守様より御見届, 重而不參候様ニと被仰含御返候處, 又々當年人數四十人程罷越獵仕候故, 右人數之内二人被召捕置, 公儀江御案内有之候付, 長崎御奉行所江右兩人被送届, 長崎より對州江御届候様ニと被仰渡候. 委細長崎御奉行所より可申來候間, 向後彌不參候様ニ堅朝鮮表江被仰遣候様ニ御國元江被申越候様ニと相模守申付候 …… 右竹嶋よ申所ハ伯耆守様御領内ニ而も無之, 因幡より百六十里程も有之所ニ而御座候. 鮑之名物ニ而御代々伯耆守様より竹嶋公儀江御獻上被成場所之由ニ御座候. ……

33) 池內敏, 2006b, 앞의 글, 277~280쪽

이며 희미하게 보인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sup>34)</sup> 그러나 돗토리에서 나가사키로 이송된 안용복과 박어둔의 취조가 7월 1일에 행해졌을 당시 그 들은 조서 중에 竹島가 울릉도라는 사실을 밝혔다.<sup>35)</sup>

한편 막부가 竹島를 조선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막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쓰시마번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1620년 당시 竹島에 머물던 야자에몬[彌左衛門] 부자의 체포를 막부가 伯耆國에 명령하지 않고, 쓰시마번에 명령한 것을 상기한 것이다.

元祿 6 계유년(1693, 숙종 19) 5월 13일, 에도의 老中 土屋相模 태수님이 우리 번(쓰시마)의 留守居에게 알려오기를, 작년에 조선인이 竹嶋라는 곳에 고기잡이를 하러 와서, 松平伯耆守님이 알아보고 거둬 오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셨는데, 금년에 또 조선인 40여 명이 넘어와서 고기를 잡았으므로 그중 두 명을 붙잡아 막부[公儀]에 보고하였고, 즉시 長崎奉行所로 보내어 對州에 알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연락해 올 것이며, 앞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고 쓰시마번에 이야기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이때 天龍院公(宗義眞)의 近所役인 加納幸之介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竹島는 磯竹嶋라고도 하며, 지난번 大猷大君(에도막부 3대 將軍 德川家光) 때 그 섬에 磯竹彌左衛門·仁右衛門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붙잡아서 보내도록 光雲院公(宗義成)에게 지시하셨으므로 즉시 이곳에서 체포하여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竹島는 일본의 伯耆에 딸린 섬이라고 막부에서 생각하신다면 호키 태수님이 야자에몬·닌자 에몬을 체포해서 보내도록 지시하셨을 것인데, 쓰시마번[御國]에 분부하신 것은 조선의 竹島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상의 전말을 일단 막부에 문의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잘 들어보신 다음에 조선 쪽에 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모두의 의견은, 막부의 명령으로 조선 쪽에 전달하신다면, 곤란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굳이 참판사를 보낸다고 합니다.<sup>36)</sup>

34) 『竹島紀事』 元祿 6年 5月 13日綱

35) 『竹島紀事』 元祿 6年 6月綱

36) 元祿六癸酉年五月十三日, 於江戶御老中土屋相模守様より, 此方御留守居へ被

위의 사료는 막부가 쓰시마번에 대조선 교섭을 지시했을 당시 쓰시마번 내부의 논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번 내부에서도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입장은 쓰시마의 가로 스야마 쇼에몬[陶山庄右衛門]이 훗날 가시마 효스케[賀島兵助] 앞으로 보낸 서간문 속에서도 발견된다. 스야마 쇼에몬에 따르면 당시 번내에서 이루어진 중신회의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막부에 재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37)</sup>고 한다. 그런데도 중신회의 결과는 '막부의 명령[公命]'임을 전면에 내세워 교섭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봉행차왜를 내세워서 교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sup>38)</sup> 결국 쓰시마는 모든 가신들을 총동원하여 과

仰渡候者, 去年朝鮮人竹嶋と申所へ漁として罷越候を, 松平伯耆守方より見届, 重而不罷越候様ニと被仰含候所, 當年又々朝鮮人四拾人程罷越漁いたし候故, 其内貳人召捕置, 公義へ及御案内候付, 則長崎奉行所へ送届, 對州へ被相届候様ニ被仰出候. 委細長崎奉行所より可申奉候間, 向後不罷越候様ニと, 對州江申遣候得之由被仰渡也.

此時天龍院公御近所役加納幸之介を以被仰出候ハ, 竹嶋之義磯竹嶋とも申, 先年大猷大君御代, 彼嶋へ磯竹彌左衛門・仁左衛門與申者居住いたし居候を, 召捕被差出候様, 光雲院公へ被仰付, 則此方より被召捕被指出たる事在之候. 然ハ竹嶋之義, 日本伯耆之内之嶋と, 公義ニ被思召候ハ、, 伯耆之太守より彌左衛門・仁左衛門召捕被差出候様ニ, 可被仰付之處, 御國江被仰渡候ハ, 朝鮮之竹嶋と被思召上たる事と相見候間, 右之次第一應 公義へ御問被成, 思召之程得と御聞被成候上, 朝鮮へ可被仰掛哉與之御事ニ候處, 此時之衆議, 公命を以朝鮮へ被仰達候ハ、, 違難ニ及申間敷與之事ニ而 押而參判使を以被仰遣候由也. 『元祿六癸酉年竹嶋一件拔書』(동북아역사재단, 2009,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 1)

- 37) 『竹島文談』(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朝鮮』, 東洋出版), 639쪽  
陶山庄右衛門은 다다의 1차교섭이 실패로 끝난 후 1694년 4월 15일 宗義眞으로부터 대조선 교섭에 관해 의견을 개진받았을 때도 그때까지의 교섭과정을 모두 막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조선과 교섭에 임해야 하며, 竹島를 일본의 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선 측의 답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울릉도 쟁계의 타결과정과 쓰시마번의 대응에서 陶山庄右衛門 역할에 대해서는 송희영, 2011,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쓰시마번(對馬藩)」,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Ⅲ』, 경인문화사 참조.
- 38) 元祿六癸酉年五月十三日, 於江戸御老中土屋相模守様より, 此方御留守居へ被仰渡候者, 去年朝鮮人竹嶋と申所へ漁として罷越候を, 松平伯耆守方より見届, 重而不罷越候様ニと被仰含候所, 當年又々朝鮮人四拾人程罷越漁いたし候故, 其内貳人召捕置, 公義へ及御案内候付, 則長崎奉行所へ送届, 對州へ被相届候様

거 竹島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하도록 하고, 以酌庵 僧 등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9월 7일에 있었던 신 변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와 가로들의 대책회의에서 임진왜란 이전에는 竹島가 조선의 영토였지만 1637년과 1666년의 상황을 근거로 조선이 방기한 섬으로 일본이 취득한 영토라는 입장을 정하였다.<sup>39)</sup> 쓰시마는 애초부터 竹島=울릉도,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竹島=일본령이라는 무리수를 전제로 대조선 교섭에 임했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에 ‘本國竹島’라는 표현을 넣었던 것이다.

다치바나가 봉행차왜로 선임된 것이 9월 초이고, 그가 藩府를 출발한 것은 10월 22일, 그리고 부산 왜관에 건너온 것은 11월 2일이었다. 이에 앞서 쓰시마번은 나가세 덴베[永瀬傳兵衛]를 先問使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1693년 9월이었다.

(1693) 9월, 竹島에서 붙잡힌 두 사람을 데려오는 일로 奉行差倭가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린다는 일을 알리는 선문두왜가 나온 일을 장계하였다. 회계하기를, “소위 竹島에서 붙잡힌 일은 일전에 경상감사의 장계 중에 울산의 뱃사람 두 명이 울릉도에 떠내려가 왜인에게 붙잡혔다고 하는 것으로, 그 섬은 우리나라의 땅으로 간혹 뱃사람의 왕래가 있었는데 원래 일본이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행차왜는 결코 접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館守倭에게 엄한 말로 꾸짖어 타일러야 함

二被仰出候。委細長崎奉行所より可申參候間、向後不罷越候様こと、對州江申遣候得之由被仰渡也。

此時天龍院公御近所役加納幸之介を以被仰出候ハ、竹嶋之義磯竹嶋とも申、先年大猷大君御代、彼嶋へ磯竹彌左衛門・仁左衛門與申者居住いたし居候を、召捕被差出候様、光雲院公へ被仰付、則此方より被召捕被指出たる事在之候。然ハ竹嶋之義、日本伯耆之内之嶋と、公義二被思召候ハハ、伯耆之太守より彌左衛門・仁左衛門召捕被差出候様ニ、可被仰付之處、御國江被仰渡候ハ、朝鮮之竹嶋と被思召上たる事と相見候間、右之次第一應 公義へ御伺被成、思召之程得と御聞被成候上、朝鮮へ可被仰掛哉與之御事二候處、此時之衆議、公命を以朝鮮へ被仰達候ハハ、違難ニ及申間敷與之事二而、押而參判使を以被仰遣候由也。『元祿六癸酉年竹嶋一件拔書』(동북아역사재단, 2009,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 I)

39) 『竹島考證』上(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40~41쪽

니다” 하였다.<sup>40)</sup>

위의 사료는 竹島에서 붙잡힌 두 사람을 송환하는 봉행차왜의 파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차왜 파견에 앞서 도해해 온 先文頭倭에 관한 문정 보고다. 조정의 답변은 竹島에서 조선인을 붙잡아 간 일본인들의 행위가 타당하지 않으며, 일본이 자의적으로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할 수 없으며, 울릉도에서 조선인을 붙잡아 간 것은 불법적인 일이므로 도래할 봉행차왜의 접대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월 2일 봉행차왜 다치바나는 도선주 우치야마 고자에몬[內山郷左衛門], 봉진 데라사키 시에몬[寺崎四右衛門]과 아비루 소베[阿比留惣兵衛]를 대동하고 피랍인 안용복과 박어둔을 데리고 왜관에 도착하였다. 다치바나는 예조참판 및 예조참의,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세 개의 서계를 지참하였고, 대차왜로 조선 정부의 접대를 받았으며, 12월 10일 접위관 홍중하와 다치바나가 만나면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의 신병이 조선에 넘겨졌다.<sup>41)</sup>

40) 『邊例集要』 권1, 「別差倭」 癸酉(1693) 9월

以竹島所捉二人領送事奉行差倭 乘船待風事 先文頭倭出來事 啓.

回啓 所謂竹島被捉 似是日者慶尙監使狀啓中 蔚山船人兩明 漂入蔚陵島 爲倭所擄云者 而도我國之地也 或有船人之往來 元非日本之所可禁 奉行差倭 決不當接待之意 嚴辭責諭於館守倭處.

41)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鬱陵島」 癸酉(1693)

康熙三十二年十二月 府使成瓘時 竹島事出來差倭橘眞重茶禮 與京接慰官洪重夏 同往設行之日 竹島被擄人二名 禁徒倭領來 及其茶禮垂畢之時 差倭請與平坐 …… 則差倭言曰 我國有竹島 貴國漁民 潛來魚菜 曾非一二 而責諭還送矣 今春四十餘人 又爲入來 其中二人 伯耆州太守執質轉報江戶 附與本道 使之還送貴國 而日後倘復入往 或有潛商之弊 或有殺害之患 則豈不爲莫大之慮乎 願自今嚴立科條 更無如前之弊云云 …….

홍성덕은 조선 정부가 봉행차왜 일행에 대하여 규례에 어긋나므로 엄히 꾸짖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대차왜로 접대를 허가한 이유는 왜관 내에 잡혀 있던 안용복과 박어둔을 인도받아야 하는 형세 때문이었다고 하였다(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 교섭과 울릉도」, 『독도·울릉도 연구 역사·고고·지리학 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그러나 조선의 역관과 관수 간의 교섭 과정에서 관수 高勢八右衛門은 竹島는 ‘옛날부터 일본 땅이며’,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성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훈도·별차는 일본이 말하는

일본국 쓰시마주 태수 平義倫이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에게 글을 올립니다.

인사 여쭙니다. 삼가 귀국이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합니다. 귀국의 바닷가 어민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竹島에 배를 타고 와서 몰래 고기를 잡았는데 그곳은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리가 國禁을 상세히 알려주고 다시 와서는 안 된다고 엄히 알려주어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올봄에 또한 다시 국법을 어기고 어민 40여 명이 竹島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관리가 어민 2명을 잡아 가두고 관청에 볼모로 삼아 잠시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이나바의 장관이 재빨리 전후 사정을 에도에 알려, 에도에서 그 어민들을 우리 쓰시마주를 통해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고 이후로는 결단코 그 섬에 고기잡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에도의 이 명령을 받들어 조선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이 일은 비록 백성의 사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나 실로 큰일입니다. 두 나라의 交誼에 틈이 생기지 않으면 어찌 뜻밖의 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속히 政命을 변방의 포구로 내려보내 어민에게 禁條를 엄히 지키게 하면 이웃나라가 오래도록 서로 친목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sup>42)</sup>

어린 도주 소 요시쓰구의 명의로 작성된 쓰시마의 서계에서 안용복 등의 송환은 막부 장군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1693년 12월 예조 참판의 회답 서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먼 바다에 나갈 수 없게 했으니,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蔽境之鬱陵島]일지라도 또한 멀기 때문에 임의로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들 어선이 감히 귀국의 竹島[貴境竹島]에 들어가 번거롭게 송환하게 하고, 멀리서 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나라와 교제하

竹島가 울릉도와 별개의 섬이라면 파견해도 관계없다는 조선 정부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봉행차와 일행을 대차왜로 접대하게 되었다.

42) 『竹島考證』中(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 II); 『竹島紀事』, 元祿 6년 10월강

는 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닷가 백성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니 바다에서 표류할 수 있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越境하여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 처벌 조항을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입니다.<sup>43)</sup>

라 하여, 쓰시마에서 송환한 안용복 등을 “犯境之罪”<sup>44)</sup>를 범한 것으로 인식하고, ‘敝境之鬱陵島’와 ‘貴境竹島’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답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다치바나는 서계 속의 ‘敝境之鬱陵島’라는 구절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런 뜻은 쓰시마번주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거듭 전했다.<sup>45)</sup>

조정에서는 쓰시마가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모종의 奸巧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다치바나는 울릉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울릉도를 함부로 두고 관리하지 않아서 일본이 점거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증거는 조선 측의 기록인 『芝峯類說』에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서계의 개찬을 요구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대차왜로 조선에 파견되기에 앞서 이미 쓰시마 내부에서 정리한 울릉도에 대한 쓰시마의 입장이다.<sup>46)</sup> 이에 조선 측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을 당한 것이 어찌 울릉도뿐인가? 필경 일본이 점거한 것은 비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나라에 복귀되지 않은 것이 없고蔚島(울릉도)도 저절로 복귀되어 있는 것이다. 芝峯叢筆이 어찌 진정한 증거가 된다고 감히 끌어다 대는가”라고 반박함으로써 상대방

43) 『同文彙考』 부편, 권26, 「爭難」禮曹參判答書; 『속중실록』, 숙종 20년 2월 신묘(23일)

自禮曹覆書曰 弊邦禁東漁氓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境竹島 致煩領送 遠勤書論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不無漂轉之患 而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徵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而申勅之 …….

44) 『속중실록』, 숙종 19년 11월 정사(18일)

45) 『변례집요』 권17, 「雜條 附鬱陵島」, 갑술(1694) 2월

46) 『竹島紀事』, 元祿 6년 12월 10일강 「正官口上」; 『변례집요』 권17, 「雜條 附鬱陵島」

의 억지 주장을 일축해버렸다.<sup>47)</sup> 결국 차왜 다치바나를 앞세운 쓰시마의 서계 개찬 요구는 결렬되었고, 3개월여 동안 진행되었던 울릉도 쟁계에 관한 제1차 교섭은 1694년 2월 27일 다치바나 일행이 쓰시마로 돌아감으로써 일단락되었다.<sup>48)</sup>

## 2) 제2차 교섭

1694년 2월 27일 다치바나 일행이 예조참판의 회답서를 가지고 쓰시마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2월 28일 그동안의 교섭 상황을 보고하자, 번에서는 다시 조선 측이 보낸 답서의 개찬을 요구하기로 하고 3월 6일 재협상단을 꾸렸다. 정관에는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다치바나 마사시게가 임명되었다. 3월 19일 선문사 스즈키 가헤치[鈴木加平次]가 조선에 전달한 재협상의 취지에 5월 5일 동래부에서는 “답서를 받고 돌아간 뒤에 다시 나오는 것은 참으로 규정에 없는 일이므로 常例에 따라 접대할 수 없고”, 이미 끝난 일이므로 재론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치바나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제2서계와 이전에 받아왔던 조선의 회답서계를 가지고 윤5월 13일에 왜관에 건너왔다.<sup>49)</sup>

조선 측 접위관의 부임은 3개월여가 지난 8월에 이루어졌다. 접위관으로는 흥문관 교리 俞集一이 파견되었다. 유집일은 접위관으로 파견되기에 앞서 안용복을 불러 사정을 보고받았고,<sup>50)</sup> 8월 25일 차왜 다치바나를 만났다. 다치바나는 서계 속의 ‘竹島’와 ‘울릉’이 ‘一島二名’처럼 보여서 혼동되므로 양국의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며 ‘울릉’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47) 『변례집요』 권17, 「雜條 附鬱陵島」, 갑술(1694) 2월

……鬱陵島 固知其爲貴國地 而壬辰後 爲日本占據者 芝峯說中 不有之乎 譯官答以壬辰之被掠 豈獨蔚島而已 畢竟日本之所占據者 雖一草一木 莫早復歸於我國蔚島自在復歸之中矣 芝峯謾筆 豈爲真的可據之文 而乃敢援此爲言耶 …….

48) 『숙종실록』, 숙종 20년 2월 신묘(23일); 『竹嶋記下書(上)』(동북아역사재단, 2010,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Ⅱ), 9쪽

49) 『竹嶋記下書(上)』, 9~13쪽

50) 『備邊司謄錄』, 1695년 5월 22일

서계를 반환하였으며, 조선 정부는 그해 2월에 가지고 갔던 회답서계 정본을 회수하였다.<sup>5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쓰시마가 조선 정부에 막부의 문책을 이유로 ‘敝境之鬱陵島’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쓰시마번은 그동안에 전개된 대조선 교섭 과정을 막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52)</sup> 만약 조선에서 쓰시마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서계 내용 중 울릉도를 삭제해 준다면, 막부에게는 竹島가 조선의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는 사실을 은폐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또한 막부로 하여금 竹島를 조선의 울릉도와는 별개의 무인도로 인식시켜 막부에 대한 쓰시마번의 충성을 재인식시키는 한편,<sup>53)</sup> 그에 따라 막부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모종의 반사 이익을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0일 조선 측 역관이 새로운 서계를 가지고 왜관으로 왔다. 예조참판 명의의 이번 서계는 다치바나 일행이 1차 도항 때 발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단히 완강한 내용이었다. 더구나 전달방법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양국 간의 문서 전달 관례와는 다르게 서계의 사본은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 대략적인 내용을 전한 후 정본을 개봉하지 않은 채 전달했다.<sup>54)</sup> 내용은 竹島와 울릉도는 ‘一島二名’으로 하나의 섬이고 조선령이다. 아울러 일본인이 월경 침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도리어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성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sup>55)</sup> 결국 다치바나는 새롭게 교부된 서계를 직접 받지 않고 대신 도선주가 받도록 한 후 귀국하기로 하였다.<sup>56)</sup>

이와 같은 조선에서의 상황을 서장으로 쓰시마에 전하자 전 도주 소 요시자네를 비롯한 쓰시마의 가로들은 다치바나에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번과

51) 『竹嶋記下書(上)』, 27~29쪽

52) 『通航一覽』 권137, 「朝鮮國部」 113, 竹嶋

53) 『속중실록』, 숙종 20년 8월 기유(14일)

54) 『竹島紀事』, 元祿 6년 9월 12일강

55) 『同文彙考』 부편, 권26, 「禮曹參判答書」 및 『속중실록』, 숙종 20년 8월 기유(14일)

56) 『竹島紀事』, 元祿 6년 9월 12일강

같은 非法, 非道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선례를 깨는 일을 용인한다면 앞으로의 대조선 교섭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엄한 질책을 담은 회신을 보낸다. 또 10월 1일자 쓰시마번의 원로가 보낸 서장에서는 회신의 사본을 먼저 받지 않고 정보만을 받아 귀국하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며, 병을 칭해서라도 체재를 연장해 사본을 받을 때까지 귀국해서는 안 된다고 명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 취지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질책하기까지 했다.<sup>57)</sup> 즉, 제2차 교섭에서는 조선 측의 답서 내용뿐 아니라 답서의 전달방법까지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쓰시마번에서는 이듬해인 1695년 5월 다치바나의 귀국을 명하였다. 대신 섭정도주 소 요시자네는 다치바나를 통하여 4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내고, 그것을 동래부에 따지고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으면 귀국하도록 하였다.<sup>58)</sup> 그대신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스야마 쇼에몬(陶山庄右衛門)·아비루 소베(阿比留惣兵衛)가 5월 11일 왜관에 도착하였다.

소 요시자네가 제시한 의문점이란 대략 네 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竹島一件의 요인은 조선 측이 70~80년 이전부터 울릉도에 일본인이 출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온 것에 있다. 둘째, 처음에는 무주지인 것처럼 말해 놓고 말을 바꾸어 우리나라의 울릉도라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셋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놓고서 일본인이 월경했다면서 책망하는 것은 잘못이다. 넷째, 답서 가운데 ‘범월’, ‘侵涉’, ‘성신의 결여’와 같은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9)</sup>

소 요시자네가 제시한 의문점을 전제로 다치바나는 새로운 답서에 대해 조선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이 ‘詰問四箇條’이다. 이른바 詰問四箇條는 5월 15일 동래부에 전달되었다.<sup>60)</sup> 쓰시마번이 조선 측에 반론을 제시할 수

57) 『竹島紀事』, 元祿 6년 9월강; 『竹嶋記下書(下)』, 161~168쪽

58) 『숙종실록』, 숙종 21년 6월 경술(20일); 『竹島考證』中; 『竹島記事』, 元錄 8년 5월

59) 『竹島紀事』, 元祿 8년 5월강

60) 『竹島紀事』, 元祿 8년 5월 15일강; 『숙종실록』, 숙종 21년 6월 경술(20일)

있었던 것은 막부가 쓰시마에 대조선 교섭을 명했을 당시 쓰시마에서 竹島가 어디에 속하는지 자료를 수집했던 결과물 때문일 것이다.

『詰問四箇條』는 첫째, 조선에서는 수시로 관리(公差)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왕래 수색하게 했다는데 일본의 어민들은 그곳에서 조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둘째, “뜻밖에 귀국 사람들이 멋대로 국경을 넘어와서”,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경을 침범해 와서”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미 78년, 59년, 30년에 표류한 일본인들이 어로를 위해 竹島에 왔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가? 셋째, “하나의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다만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지난 번 회답서계에 ‘귀국의 竹島’, ‘우리나라의 울릉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82년 전에는 ‘竹島’, 즉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고, 78년 전에 일본인들이 竹島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했을 때는 국경침월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다. 1차 교섭 때와는 달리 쓰시마는 竹島와 울릉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그 이전의 사례들을 일일이 들어 따져 물었던 것이다.

다치바나 일행이 6월 10일 왜관을 떠나 이틀 후 절영도에 있을 때 조선 정부의 답이 전달되었다. 조선 정부는 각 조항별로 대답하는 대신 82년 전, 즉 1614년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sup>61)</sup>

61) 『속중실록』, 숙종 21년 6월 경술(20일)

八十二年前甲寅 貴州頭倭一名格倭十三名 以礮竹島大小形止探見事 持書契出來 朝廷以爲猥越而不許接待 只令本府使朴慶業答書 其略曰 所謂礮竹島 實我國之鬱陵島 …… 唯願貴島 審區土之有分 知界限之難侵 各守信義 免致謬戾云 今此書辭 亦載於來書疑問第四條 …… 其後三度漂倭 或稱往漁于鬱陵島 或稱漁採于竹島 而竝付歸船 送回貴島 而不以犯越侵涉爲責 前後意義各有所在 頭倭之來 責以信義者 以有侵越之情也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 …… 貴州總兵衛稱號人 言於譯官朴再興曰 以輿地勝覽觀之 鬱陵島果是貴國地云. 此書乃貴州人所嘗見 而丁寧言說於我人者也 …….

82년 전 갑인년(1614, 광해군 6)에 귀주(쓰시마)에서 두왜 1명과 격왜 13명이 礮竹島의 크고 작은 형편을 탐사하는 일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함부로 경계를 넘는 일이라 하여 접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다만 동래부사 박경업으로 하여금 답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니다. 대략적으로 ‘이른바 礮竹島라 하는 섬은 실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입니다. …… 바라건대 貴州는 땅에 구분이 있음을 살피고, 국경을 침범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를 지켜서 사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서신은 비록 간략하긴 하나 보내주신 네 가지 의문 조항에 대한 대답을 신고 있습니다. ……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표류해 온 왜인이 있어,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기도 하고, 竹島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하기도 하였는데, 예조참의는 서신에서 그 표류민들을 배에 태워 귀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犯越, 侵涉하였다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후의 일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頭倭가 왔을 때 신의로써 꾸짖었던 것은 국경을 침범하려는 속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표류하여 떠밀려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낸 것은 …… 친근한 이웃 나라의 예의로써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 국토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였겠습니까? …… 貴州의 摠兵衛라는 사람이 역관 박재흥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라 하였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귀주 사람이 일찍이 본 적이 있던 책이고, 틀림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바입니다.

1614년 당시 쓰시마에서 頭倭 1명과 格倭 13명이 礮竹島를 조사하는 일로 서계를 가져왔으나 조정에서는 猥越이라고 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고, 동래부사명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표류민이 울릉도에 어로를 위해 왔다가 표류당했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돌려보낸 것은 표류인이 빠른 송환을 원했고, 살려 보내는 일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지승람』에 신라, 고려, 조선전기에 여러 번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쓰시마의 대관이 역관 박재흥에게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 땅이다”라고 한 말도 있으며, 1차 회답서

계에서 귀국의 竹島와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표현은 예조의 관원이 옛일에 밝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이 그 실언을 꾸짖었다고 답했다. 이에 다치바나는 다시 반론을 정리하여 80년 동안 조선이 스스로 울릉도를 버려둬 타인의 소유가 되게 해 놓고서, 일본의 어민이 그 섬에 간 것을 가지고 국경침범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694년 5월~1695년 5월까지 1년여에 걸친 쓰시마번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竹嶋記下書』<sup>62)</sup>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서계개관 교섭을 위해 왜관에 체류 중이던 차왜 일행이 쓰시마번과 얼마나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왜관에 체재 중이던 다치바나는 조선과의 외교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왜관에서 지급하는 잡물을 받지 않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는 등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다치바나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로 당시 “中外가 흥흥하여 ‘임진년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sup>63)</sup>

조선 정부가 1차 회답 때와 전혀 다른 태도변화를 보인 데에는 남인정권에서 소론정권으로의 정국 변화라는 조선 정부 내의 정치세력의 변화도 있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대일정책의 외교자세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64)</sup>

62) 『竹嶋記下書(上), (下)』는 쓰시마번의 종가기록 중의 하나다. 봉행차왜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多田與左衛門)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송환하고, 조선으로부터 회답서계를 받고 쓰시마번에 귀착한 1694년 2월부터 다시 조선에 파견되어 재교섭을 추진한 1695년 5월까지 조선과 재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다치바나가 조선과의 교섭내용을 쓰시마번에 보고한 서한과 쓰시마번이 다치바나에게 보낸 지시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대마도 종가문서, 「(朱)交隣記事引用竹嶋記下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기록류, MF0000854),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탈초하여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Ⅱ』로 발간하였다.

63)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鬱陵島」, 乙亥(1695) 정월

64) 울릉도쟁계에서 나타난 조선의 대조선 교섭자세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쓰시마에서는 1695년 6월 말에는 재교부된 회답서의 개찬을 요구하기 위해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를 정관으로 한 차왜를 파견하지는 방침이 제안되지만 7월 5일에 연기되었다.<sup>65)</sup> 쓰시마번의 가로 스야마 쇼에몬은 7월 7일 江戸로 가는 소 요시자네를 수행하게 되었다.<sup>66)</sup> 스야마는 다치바나가 제1차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1694년 4월 중신회의<sup>67)</sup>에서 竹島一件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그때까지의 교섭결과를 모두 막부에 보고하고 막부의 지시에 따라 조선과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그의 의견은 藩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스야마는 1695년 5~6월 조선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진언했다고 한다. 스야마는 “지도, 서적, 변론할 필요도 없이” 竹島는 조선령이고, ‘竹島一件’의 교섭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시하며 조선 정부로부터 맨 처음 받았던 서계에 ‘貴境竹島’라는 문구를 증거로 하여 竹島를 일본령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번 내의 논의를 비판했다. 竹島는 조선 땅이 명백할 뿐 아니라 竹島를 억지로 빼앗아 일본령으로 삼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타국의 섬을 빼앗아 ‘일본의 장군[公儀]에 현상하는 일과 같은 것은 ‘不義’이며, ‘忠功’은 아니라고 까지 하였다.<sup>68)</sup>

1693년 5월 이후 피랍인 송환 및 조선의 竹島 도해금지 협상을 전담하여 지휘하였던 섭정 도주 소 요시자네는 막부에 더 이상 조선과의 교섭 결과를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의 교섭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sup>69)</sup> 소 요시자네

65) 『竹島紀事』, 元祿 8년 6월강

66) 對馬藩政史料 『(國元表書札方)每日記』(『증가문고사료목록(일기류)』 表書札方 Aa-1/80), 元祿 8년 10월강

67) 스야마는 西山寺, 加納幸之介, 瀧六郎右衛門, 平田茂左衛門을 지명하고, 각각의 견해를 문장으로 쓰게 하여 중의진에게 제출시키도록 스키무라에게 요청하였다. 당시 瀧六郎右衛門은 竹島가 조선령이 되어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게 된다면 실로 애석한 일이라고 하였고, 平田茂左衛門도 역시 “竹島가 일본의 속도라고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던 인물이었다.〔『竹島文談』(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68) 『竹島文談』(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69) 『通航一覽』 권137, 「朝鮮國部」 113, 竹嶋

의 에도행에는 쓰시마의 가로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과 스야마가 동행하였다. 스야마는 병으로 교토에 머무르고 에도까지 소 요시자네를 동행하지 못했지만,<sup>70)</sup> 스야마의 의견은 쓰시마번의 입장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소 요시자네는 1695년 8월 30일 쓰시마를 떠나 10월 6일 江戸에 들어갔다.<sup>71)</sup>

소 요시자네는 막부에 나가 노중 아베 붕고노가미[阿部豊後守]에게 3년에 걸친 교섭이었음에도 조선이 竹島를 조선령이라며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혀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竹島에 대한 영토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시마로 하여금 대조선 교섭을 하도록 명령했던 막부는 그해 10월부터 '竹島一件'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노중 아베 붕고노가미는 먼저 쓰시마번에 자료를 요청했다.<sup>72)</sup> 히라타 나오에몬은 11월 25일 아베가 요구한대로 쓰시마번의 의견을 쓰고, 지금까지 쓰시마와 조선 간에 주고받았던 서계와 각각의 사본 4통 및 『여지승람』·『지봉유설』에서 각각 발췌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소 요시자네의 명의로 작성된 口上書는 제1차 교섭과 제2차 교섭 과정을 정리하고, 조선 정부는 조선인의 竹島渡海禁止 요구가 막부의 요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증거로 조선 측은 안용복 일행이 이나바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까지는 대접을 잘 받았으나 쓰시마로 인도된 이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감시가 심해진 것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서 1차, 2차 서계 개찬 요구시에 조선 측에 제시했던 대로 돗토리번의 竹島渡海 역사가 59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조선 측의 잘못이므로, 막부는 이 문제를 엄격히 처리해 주어

70) 對馬藩政史料, 『江戸藩邸毎日記』(『동경대학사료편찬소 사료목록』 宗家1-80), 元祿 8년 11월 3일; 池内敏, 2006b, 앞의 글, 296쪽

71) 對馬藩政史料, 『(國元表書札方)毎日記』(『宗家文庫史料目錄(日記類)』 표서찰방 Aa-1/80), 元祿 8년 8월 30일

72) 『竹島紀事』, 元祿 8년 10월간

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73)</sup> 쓰시마로서는 막부의 지시를 받은 지 2년 반이나 지난 시간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으므로 조선 측의 과실에 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중 아베 붕고노가미는 돗토리번에도 竹島에 관한 질문서[御尋の御書付]를 보냈다.<sup>74)</sup> 조선과의 교섭 내용과 돗토리번의 답변을 통해 막부가 내린 결론은 다시는 일본인이 도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장군의 뜻이며, 원래 빼앗은 섬이 아닌 이상에는 돌려준다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竹島에 도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즉 막부로서는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섬의 영유문제로 다투지 말고 일본인이 竹島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이 서로의 평화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sup>75)</sup>

막부의 명령은 1696년 1월 18일, 쓰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 도다 다다마사[戸田忠昌], 아베 마사타케[阿部政武], 오쿠보 다다토모[大久保忠朝] 등 노중 4명의 연명으로 돗토리번에 호키 상인의 竹島 도항을 금지하는 奉書로 전달되었다. 같은 달 28일에는 쓰시마번을 섭정하고 있던 소 요시자네에게도 전해졌다. 이와 같이 竹島가 돗토리번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출발했던 막부의 조

73) 위와 같음.

74) 막부가 돗토리번에 보낸 7개 항목의 질문내용은, ① 인주·백주(因州伯州)는 언제부터 양국에 복속되었는가, 돗토리번 선조의 영지로 내려지기 이전부터 그곳의 부속인가, 그 이후인가, ② 竹島는 대략 어느 정도의 섬인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③ 竹島에서의 어업이나 산물 채취는 언제쯤 가는 것인가, 매년 가는 것인가 가끔 가는 것인가, 어떤 어려움을 하는 것인가, 도해하는 배의 수는 많은가 어떠한가, ④ 3~4년 전에 조선인이 이 섬에 건너와 어업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의 어부를 인질로 한 일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그 나라의 어부는 이 섬에 건너와 있었는가, 그 후에는 더 이상 건너오지 않는 것인가, ⑤ 요즘 1~2년의 상황은 어찌되어 있는가, 이제 오지 않는가, ⑥ 이전에 섬에 건너왔을 때는, 배는 몇 척이고 또 승조원은 몇 사람 정도로 대항했는가, ⑦ 竹島 외에 인하쿠 양국에 속하는 섬은 있는가, 어업 또는 산물 채취에 양국 사람이 건너가는 섬이 있는 것인가 등이다. 『鳥取縣史』 제6권, 「元祿八亥十二月廿四日 阿部豊後守より曾我六郎兵衛を以御尋の御書付」

75) 『竹島紀事』, 元祿 9년 1월 28일강

선인 竹島渡海禁止 정책은 조선과 쓰시마의 외교협상에서 竹島의 領屬 문제로 확대되었고, 결국에는 일본인의 竹島 도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 IV. 쓰시마번의 대조선 교섭과 17세기 한일관계

주지하다시피 쓰시마는 竹島=울릉도이며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막부로부터 대조선 교섭을 하달받았을 때 번 내에서는 竹島가 조선령일 수 있으므로 막부와 협의해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쓰시마번은 ‘公命’, 즉 ‘막부의 명령’을 이유로 무리수를 두며 대조선 교섭에 임했다. 왜 그랬을까? 본 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전개된 조일 외교의 양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임진왜란 이후 성립된 쓰시마를 중심으로 한 조일외교 시스템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조선전기의 다원적인 조일관계와 달리 조선후기 조선의 대일 외교는 막부와 쓰시마라는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고, 조일 간의 외교 교섭창구는 쓰시마로 단일화되었다. 특히 1631~1635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국서개작 폭로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조선은 위기일발의 쓰시마에게 대일 외교의 파트너로서 독점권을 준 상태였다. 그러나 안용복 등의 납치사건과 그들의 송환 및 조선인의 竹島渡海禁止라는 막부의 명령은 그동안 별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권에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즉, 쓰시마로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한일 외교교섭에 제3자가 관여한 사건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외교절차가 발생한 것이다.<sup>76)</sup> 따라서 쓰시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 역할

76) 홍성덕, 2010, 앞의 글, 34~35쪽

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쓰시마로서는 竹島=울릉도이며,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막부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충성의 형태로 대조선 교섭에 임하게 되면서 결국은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한층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쓰시마는 조선과의 협상에 앞서 竹島가 울릉도인지 아니면 별개의 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왜관에 파견되어 있는 통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가신들을 동원하여 竹島에 관한 기록들을 조사하도록 하고, 以酌庵 僧 등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조선의 영토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 측이 함부로 放棄한 상태로 두고 관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해 온 일본령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조선 측과 교섭에 임했던 것이다.

둘째,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쓰시마에게 울릉도는 15세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즉, 일찍부터 울릉도의 존재와 경제적 효용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1407년(태종 7)에는 소 사다시게가 사람을 보내 쓰시마 내의 여러 부락을 이끌고 울릉도에 옮겨와 살기를 청하였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614년(광해군 6) 6월에는 쓰시마번에서 선박 3척을 보내 경상·강원 사이에 있다는 磯竹島를 조사하고, 이어 이 섬에 쓰시마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는 서계를 보내 온 바 있다. 이에 조선은 그해 7월과 9월에 동래부사 명의의 서계를 통해서 이소다케시마=울릉도라는 사실과, 이 섬을 왕래하는 선박은 해적선으로 논하겠다고 경고를 하였다. 쓰시마의 이러한 행위는 울릉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637년과 1666년에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조업을 갔다가 표류하여 조선에 표착한 일이 있었다. 당시 표류민들은 왜관을 통하여 쓰시마로 송환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 측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竹島에서 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선 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대로 귀국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일 간에 어떠한 외교적 마찰도 없었다.<sup>77)</sup> 이러한 사건의 처리가 조선으로서는 당시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

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묵인하고 지나갔지만, 쓰시마로서는 울릉도에 대한 적극성을 띠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건의 처리는 1693년 안용복 납치 사건 이후 조일 간의 울릉도 영유권 협상에서 쓰시마가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를 日本領化할 수만 있다면 쓰시마로서는 일석이조, 즉 막부에 대해서는 충성을 과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sup>78)</sup> 오랜 숙원이었던 쓰시마 주민의 울릉도 이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어 왔던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 독점권의 위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1728년(영조 4) 쓰시마 도주에게 제출한 『交隣提醒』에 따르면 조일교섭이 “두모포왜관 시절에는 왜란 뒤에 남아 있던 위세 때문에 조선인들이 매사에 일본인들의 포악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해서 일본 측이 의도한대로 처리되곤 했고”<sup>79)</sup>, 일본 측(쓰시마)에서는 “왜관이 두모포에 있을 무렵까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으로 인한 餘威라는 것이 남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조선인에게 생트집을 부려서 밀어붙여”, “사람들은 포악스럽게 으르렁거리서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관을 초량으로 옮기고 나서는 조선의 대일 교섭 자세가 달라졌고, ‘餘威’도 점점 희미해져 함부로 트집을 부리거나 억지를 내세워 일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는데도, 쓰시마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80)</sup>

사실 쓰시마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조선의 수세를 교묘히 활용하여 상당한 실리를 취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1629년에 있었던 승려 玄方의 상경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그의 상경 허용 여부를 놓고 격렬한

77) 池内敏, 2006, 앞의 글, 249~250쪽

78) 이훈, 1996,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33쪽

79) 『역주 교린제성』, 44~45쪽

80) 『역주 교린제성』, 45~46쪽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 “후금의 위협 때문에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일본과는 화호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논리에 밀려 허용하고 만다.<sup>81)</sup> 서북방에 있는 후금의 침략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동남방에 있는 일본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쓰시마는 조선의 위기를 활용하여 실익을 챙기려는 외교를 시도하였고, 그것은 ‘막부의武威’라는 허위적으로 가공된 압박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조선 측이 자신들의 요구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경우 종종 국면타개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난출 등을 일삼았다. 왜관의 관문을 뛰쳐나와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막무가내로 들이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sup>82)</sup> 이것은 조선이 가장 싫어하는 교섭 방법이었다.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하기 위한 교섭에서도 쓰시마는 난출<sup>83)</sup>이라는 무력시위를 동반하였다. 제6차 왜관 이전 교섭 과정에서 1671년 5월 이관차왜 다이라 마사오[平成太] 일행은 조선이 왜관 이전을 허가하지 않자 접위관의 접대를 거부하거나 왜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잔저리가 작다고 트집을 잡고 칼을 빼는 등 행패를 일삼았다. 魚價米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창고지기의 머리를 치기도 하는 등 노골적으로 행패를 부렸으며,<sup>84)</sup> 특히 그해 9월에는 왜관 관리의 허락 없이는 왜관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는 禁法을 어기고 從倭 200여 명을 데리고 난출을 하였으며, 칭병하여 수행왜인 50여 명과

81) 한명기, 2010, 「조선후기 왜관의 역사적 의미」, 『한일역사의 쟁점』, 경인문화사, 247~249쪽

82) 조일 양국 간에 외교나 무역 등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훈도와 별차(양역)가 왜관 안으로 들어가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섭절차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禁畝를 어기고 왜관 밖으로 뛰쳐나가 동래부로 몰려가서 동래부사를 상대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亂出’이라고 불렀으며, 더러는 ‘亂出’로 부르기도 했다.

83) 조선후기 대일외교사례를 모아 정리해 놓은 『변례집요』에는 ‘난출(권13)’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조선 정부의 난출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보여 주는 한 예라고 하겠다.

84) 『현종실록』, 12년 9월 계유(25일)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핑계로 通事倭를 上京시키려고 시도<sup>85)</sup>하였다. 게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江戶에 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일 양국은 “서로 좋게 지내던 관계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위협을 가해오기도 하였다.<sup>86)</sup> 어쨌든 아메노모리 호슈의 표현에 따르면 1682년 통신사까지는 조선 역관들의 마음가짐이 어쨌든 일본인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일로 하였던 시절<sup>87)</sup>이었다고 한다.

넷째, 울릉도 정계에 관한 교섭이 섭정 도주인 소 요시자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제2대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의 장남으로 태어나 1657년 12월 父 요시나리가 사망하자 家督을 상속하여 제3대 쓰시마번주가 되었다. 재위기간 동안 寬文改革을 주도하였으며, 그의 치세기간은 광산개발의 성공과 조선 무역의 호황으로 쓰시마번 최고의 중흥기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왜관무역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로, 쓰시마의 중계무역의 이익 규모도 컸다. 그는 藩內的으로는 大船越瀬戶의 개척, 국외적으로는 부산왜관의 초량왜관 이전을 주도하였고,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 문하의 아메노모리 호슈·스야마 쇼에몬[陶山庄右衛門]·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를 초빙하는 등 문교정책에도 힘을 쏟았다. 1692년 6월 27일 번주에서 물러나 刑部大輔로 개칭하고 은거하였지만, 여전히 藩政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더욱이

85) 『邊例集要』 권11, 「館宇」 신해(1671) 9월

『현종실록』, 현종 12년 10월 계미(5일)

86) 『현종실록』, 현종 12년 6월 임오(3일); 8월 을사(27일); 동년 10월 계미(5일)

차왜 平成太는 “이는 접위관이 마음대로 결단할 일이 아니니 내가 곧바로 상경하여 조정에 고하겠다. 조정에서 끝내 허가하지 않는다면 곧 江戶에 알릴 것이니, 그렇게 하면 두 나라가 어찌 서로 좋게 지내던 관계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왜관 이건 요구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로부터 왜관 이관을 거부하는 서계를 받아 동래부로 난출을 감행하였다. 당시 접위관 申厚載와 동래부사 鄭愔이 난출의 불법성을 논하자 그는 “두 나라의 유대관계는 이제부터 끊어질 것이다. 두 대인(접위관 申厚載와 동래부사 鄭愔)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水滸으로 갈 것이고, 감사가 또 만나주지 않으면 서울로 가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상경을 해서라도 이관을 허가받겠다고 하며, 장차 차왜가 江戶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등 “江戶를 믿고서 협박하고 공갈하며 못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87) 『역주 교린제성』, 35쪽

1694년에는 요시쓰구가 사망하고, 어린 요시카타(義方)가 번주가 되자 다시 후견인으로 조선관계 업무를 관장하였고 1701년까지 근무하면서 울릉도 쟁계 교섭을 주도·관여하였다. 실제로 쓰시마번의 서계 개찬 요구는 섭정 도주 소 요시자네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그는 조일 간의 외교와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에 쓰시마도주를 지낸 인물로서 대조선 교섭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쓰시마번의 중흥기를 이끌면서 경험한 다양한 대조선 교섭 경험, 예컨대 자신이 도주로서 왜관 이전을 성사시킨 경험 같은 것이 울릉도쟁계 교섭에 더욱 전력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한 요소는 아니었을까? 어쨌든 역대 쓰시마도주 가운데 대조선 교섭 경험이 가장 풍부한 소 요시자네가 신 도주를 대신해서 울릉도 영속시비에 관한 교섭을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은 17세기 조일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88)</sup> 왜관의 이전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마쓰우라 마사타다[松浦允任]가 『朝鮮通交大紀』에서 “이관은 실로 조선 측이 바라던 바이고, 교섭을 질질 끌게 한 조선 측의 강한 이관 거부 자세는 실은 對馬측을 잘 다루기 위하여 계산된 계획이었다”라고 파악하고 있듯이<sup>89)</sup> 초량왜관의 성립이 보다 적극적인 왜관 경영과 통제 및 대일정책의 재정비를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쓰시마의 입장에서 1640년 이래 계속 제기해 왔던 일본 측(쓰시마)의 요청을 조선이 허락할 것이었고, 그것을 해결한 이가 바로 소 요시자네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쓰시마는 그들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지 못하였을까?

아메노모리 호슈가

88) 다치바나 마사시계[橘眞重, 多田與左衛門]가 제2차 교섭을 위해 조선에 건너가기 이전부터 왜관의 관수 幾度六右衛門과 高勢八右衛門은 쓰시마의 가로인 平田準人·杉村采女·樋口左衛門과 多田與左衛門에게 박동지·박침지 등 조선 역관들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多田與左衛門 일행이 왜관에 체류하면서 조선과의 교섭 내용은 바로 쓰시마번의 가로 平田準人·杉村采女·樋口左衛門·田島十郎兵衛에게 전달되었으며, 즉시 에도번저에 있는 ‘隱居様’ 宗義眞에게 보고되었다.

89) 『朝鮮通交大紀』 권7, 「光雲院公」

대개 임진왜란 후 萬松院(宗義智)대부터 光雲院(宗義成)대 초년까지는 (조선인이) 일본의 餘威를 두려워하였다. 光雲院대 중기부터 天龍院(宗義眞)대의 초년까지는 일본 사람을 피하였다. (그런데) 天龍院代의 중기 이후는 이미 일본 사람에게 (조선인들이) 익숙해지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피할 때는 저쪽(조선)이 저자세로 나오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강자가 고자세를 취하게 되고 약자가 저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天龍院의 재위 중기까지는 아직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요새는 아주 익숙해졌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타고 넘는다' 하여 위엄이 조선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쪽은 오히려 비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형세가 되었다.<sup>90)</sup>

竹島一件까지는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이쪽(쓰시마)의 주장을 관철 시켜야만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7년간 교섭을 했어도 그런 일은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쓰시마의 평판에 지장이 있다는 쪽으로 형세가 변하게 되었다. 때문에 최근 30년 전(1700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풍조도 사라져 지금은 우선 그러저럭 대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 4~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인이 칼을 뽑으면 조선인이 벌벌 떨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14~5년쯤 됐을까? 땀감을 구하러 간 하인들을 (조선의) 군관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쫓아낸 바가 있었다. '서리를 밟고 나서야 딱딱한 얼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sup>91)</sup>

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17세기 후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과 癸亥約條 체결을 즈음하여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의 대일 교섭자세가 방어적인 자세, 즉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자세, 강경한 대일정책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결국 울릉도 영속시비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쓰시마) 간의 교섭이 진행된 시기는 조선의 대일 교섭 자세가 더 이상 "일본인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90) 『역주 교린제성』, 67~68쪽

91) 『역주 교린제성』, 45~46쪽

록 하는 것을 제일로 하였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 자세는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과 오늘날 방식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事情과 時勢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1693년에 시작된 울릉도 영속문제가 쓰시마번이 원하는 답과 전혀 다르게 처리된 것이다.

## V. 맺음말

1693년(숙종 19, 元祿 6) 3월 울릉도(竹島)에 출어했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돛토리번 요나고의 어부들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돛토리번을 통해서 일련의 사정을 보고 받은 幕府는 같은 해 5월 안용복 등의 조선 송환과 竹島로의 조선인 도해금지 요청에 관한 대조선 교섭을 지시하였다. 막부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쓰시마번은 먼저 ‘竹島’라는 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모든 가신들을 총동원하여 과거 竹島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하도록 하고, 以 酌庵 僧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쓰시마번 내부에서도 막부가 竹島를 조선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막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쓰시마는 ‘막부의 명령’임을 전면에 내세워 교섭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봉행차왜에 다치바나 마사시게를 임명, 교섭에 들어가게 하였다.

돛토리번이나 막부가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竹島의 영유권 확보가 아니라 조선 어민의 竹島 출어금지를 통한 어업권의 확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쓰시마는 애초부터 竹島=울릉도,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竹島=일본령이라는 무리수를 전제로 대조선 교섭에 임했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에 ‘本國竹島’라는 표현을 넣었다.

1693년 12월 10일 일본 측의 서계와 안용복 등의 신병이 조선에 전달되었

다, 조선인의 竹島 渡海禁止를 요구하는 서계에 대해 조선 정부는 “敝境之鬱陵島”와 “貴境竹島”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답서계를 작성해 주었다. 답서를 받은 다치바나는 서계 내용 가운데 ‘敝境之鬱陵島’라는 구절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치바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개월여 동안 진행되었던 제1차 교섭은 1694년 2월 27일 다치바나 일행이 쓰시마로 돌아감으로써 일 단락되었다.

쓰시마는 1694년 2월 27일 다치바나 일행이 예조참판의 회답서를 가지고 쓰시마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측 답서의 개찬요구를 위한 재협상단을 꾸렸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섭사자가 된 다치바나 마사시게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쓰시마번주의 제2서계와 이전에 받아갔던 조선의 회답서계를 가지고 1694년 윤5월 13일에 왜관에 건너왔다.

그 사이 조선 측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졌다. 이전에 조선이 지급했던 회답서계를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서계를 지급하였다. 서계의 내용은 竹島와 울릉도는 ‘一島二名’으로 하나의 섬이고 조선령이다. 아울러 일본인이 월경 침입한 것인데도 도리어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성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 서계의 개찬을 요구하는 쓰시마와 竹島=울릉도이며, 조선령이라는 조선 측의 주장이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듬해인 1695년 5월이 되어 쓰시마에서는 다치바나의 귀국을 명하였다.

1693년 5월 이후 피랍인 송환 및 조선의 竹島 도해금지 협상을 전담하여 지휘하였던 섭정 도주 소 요시자네는 막부에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치를 문의하였다. 이에 막부는 그해 10월부터 울릉도 영속시비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막부가 내린 결론은 원래 빼앗은 섬이 아닌 이상에는 돌려준다고도 말할 수 없으므로 일본인의 竹島 도해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막부의 명령은 1696년 1월 18일 돗토리번에, 같은 달 28일에는 쓰시마번을 섭정하고 있던 소 요시자네에게도 전해졌다.

竹島=울릉도이며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업권 확보를 위해 조선인의 竹島 도해금지라는 막부의 명령을 쓰시마가 竹島의 영속문제로 확대시킨 배경에는 임진왜란 이후 전개된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자세

에 그 이유가 있다.

첫째, 안용복 등의 납치사건과 그들의 송환 및 조선인의 竹島 도해금지라는 막부의 명령은 쓰시마로서는 당시까지 자신들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한일 외교교섭에 제3자가 관여한 사건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외교절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쓰시마변으로서는 대조선 외교 역할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막부의 명령에 일방적인 충성의 형태로 대조선 교섭에 임하게 되고, 결국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한층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쓰시마에게 울릉도는 15세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1637년과 1666년에 조선에 표착한 일본 어민들이 竹島에서 조업하다 표류했다고 기술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던 조선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울릉도의 일본 영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진왜란 이후 '餘威'를 배경으로 고착화된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 자세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왜관을 초량으로 옮기고 나서는 조선의 대일 교섭 자세가 달라졌는데도 쓰시마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넷째, 울릉도의 영유권 교섭이 섭정 도주인 소 요시자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울릉도 쟁계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쓰시마) 간의 교섭이 진행된 시기는 조선의 대일 교섭 자세가 더 이상 "일본인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일로 하였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쓰시마의 대조선 교섭 자세는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과 오늘날 방식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事情과 時勢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1693년에 시작된 울릉도 영속 문제가 쓰시마변이 원하는 답과 전혀 다르게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도 쓰시마는 17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국제상황을 여전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쓰시마는 1695년 1월 막부에 의해 일본인의 竹島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조차도 바로 조선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1697년에는 서계개찬 문제로 난출을 단행함으로써 기존의 완력을 통한 외교교섭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邊例集要』
- 『承政院日記』
- 『朝鮮王朝實錄』
- 『朝鮮通交大紀』
- 『增補東國文獻備考』
- 『增正交隣志』
- 『通航一覽』
- 『元祿覺書』(大西俊輝, 2011,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竹島考證』(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 『竹島記事』(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竹嶋記下書(上), (下)』(동북아역사재단, 2010,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Ⅱ)
-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동북아역사재단, 2009, 독도 관련 일본 고사료집Ⅰ)
- 『竹島文談』(大西俊輝, 2011,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雨森芳洲 저, 한일관계사학회 편, 2001, 『국역 교린제성』, 국학자료원
- 大西俊輝, 2007, 『日本海と竹島, 日韓領土問題』, 東洋出版
- 大西俊輝, 2007, 『續 日本海と竹島, 日韓領土問題の根本資料 『隱州視聽合紀』를讀む』, 東洋出版
- 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 隱岐村上家 「元祿覺書」 · 竹島文談를讀む』, 東洋出版
- 大熊良一, 1965, 『竹島史稿』, 原書房
-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近世日本の國際秩序と朝鮮觀』, 名古屋大學出版會
- 川上建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 김호동, 2007, 『독도 ·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엮음, 2011,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Ⅲ, 경인문화사

- 이훈, 2000,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 한일관계사연구회, 1996,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 김병렬·사이토 세이쥬 공저, 김관원 외 번역, 2006,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  
디어
- 박병섭·나이토 세이쥬 저, 호사카 유지 역,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도서출판  
보고사
- 김태훈, 2002, 「숙종대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 김호동, 2007, 「조선시대의 독도와 울릉도」,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남기훈, 2005, 「17세기 朝·日 양국의 울릉도·독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3, 한일  
관계사학회
- 손승철, 2011,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 송병기, 2006,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 『역사학보』 제192집
- 송병기, 2008, 「안용복의 활동과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 『동양학』 43집, 단국대학  
교 동양학연구소
- 한명기, 2010, 「조선후기 왜관의 역사적 의미」, 『한일역사의 쟁점』, 경인문화사
- 호사카 유지, 2007, 「다케시마(竹島) 도해면허의 불법성 고찰」, 『일본문화연구』 13, 동  
아시아일본학회
- 홍성덕, 2010,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 교섭과 울릉도」,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  
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ABSTRACT]**

## Tsushima Domain in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Joseon and the Territory Dispute over Ulleungdo in 1693

Chang Soonsoon

This paper focuses on the territory dispute over Ulleungdo between Joseon and Japan in 1693 and the attitude of Tsushima Domain toward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Joseon. In the third month of 1693, Ahn Yongbok (安龍福) and Pak Eodun (朴於屯), who had sailed near Ulleungdo (Takeshima, 竹島) for fishing were abducted by Japanese fishermen from Oki Province (隱岐州). The Edo Shogunate, which was briefed on the situation through Tottori Domain (鳥取藩) instructed the Edo Hantei (江戸藩邸) on the thirteenth day of the fifth month of that year to negotiate with Joseon for their repatriation to Joseon and for a prohibition on sail to Takeshima.

At that time, Tsushima had long recognized that Takeshima belonged to Joseon and that that island was Ulleungdo. What Tottori Domain or the Edo Shogunate wanted to gain through the Tsushima's negotiations with Joseon was not possession over Takeshima, but fishery rights for Japanese by prohibiting fishing by Koreans at Takeshima. However, Tsushima had indicated its position that Takeshima was the territory of Joseon from before the Imjin War (壬辰倭亂), which started in 1592. But according to the cases in 1637 and 1666, there was no indication of Joseon's territory so Japan gained that island. Japan thus engaged in the negotiation with Joseon based on the

unreasonable preconception that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and put the expression of “our Takeshima” (本國竹島) in the document sent to the Minister of the Board of Rites (禮曹參判) in the Joseon government.

The first negotiation over the possession of Ulleungdo between Tsushima and Joseon, which started with the Ahn Yongbok abduction case in 1693, continued from the twelfth month of 1693 to the second month of 1694. The second negotiation was in progress from the intercalary fifth month in 1694 to the fifth month of 1695. Tsushima, which demanded to alter the document from Joseon, and Joseon, which continued to insist that Takeshima was Ulleungdo and Joseon's territory, were in confrontation and negotiations showed no sign of resolution. Tsushima asked the Edo Shogunate, which began to study the Ulleungdo possession issue. The conclusion was that Takeshima was not Japanese territory, thus Japanese were not permitted to sail to Takeshima.

Though Tsushima recognized that Takeshima is Ulleungdo and Joseon's territory, Tsushima included Takeshima in Japanese territory. In the background to this were the new diplomatic procedures with Tsushima as the leader after the Imjin War. The order from the shogunate about Ahn Yongbok's repatriation and the prohibition on sail to Takeshima for Joseon were the touchstones of the diplomatic ability of Tsushima with Joseon, thus Tsushima exhibited its loyalty to the shogunate at the negotiations with Joseon. Also in the background was Tsushima's intent to process Ulleungdo since Japanese fishermen whose ships had drifted to Joseon avoided punishment even though they had stated that they were fishing around Takeshima in 1637 and 1666. A third issue was the diplomatic position of Tsushima toward Joseon after

the Imjin War, Tsushima made effective use of Joseon's defensive situation due to the Manchu wars in 1627 and 1636, and thus gained good benefit from Joseon. Tsushima tried to gain diplomatic benefit from Joseon and used illusory pressure called "the shogunate's military prestige." With the position of Tsushima, they thought they had to carry their point even with force and threat. And a fourth was that the negotiation was being conducted under Sō Yoshizane, the daimyo of Tsushima.

At the time of the negotiations over possession of Ulleungdo with Japan (Tsushima), Joseon took a firm and active attitude, yet Tsushima maintained its earlier position. Therefore, the possession issue regarding Ulleungdo that started in 1693 was settled not as Tsushima Domain had hoped.

#### Keywords

Territory Dispute over Ulleungdo, Ulleungdo (울릉도), Takeshima (竹島), Tsushima Domain (對馬藩), Tottori Domain (鳥取藩), Sō Yoshizane (宗義眞), Prohibition on Sail to Takeshima (竹島渡海禁令), Ahn Yongbok (安龍福), Pak Eodun (朴於屯)

# 일본의 육지측량부가 그린 만주

- 오차노미즈대학 소장 군사 비밀 만주 지도를 중심으로 -\*

박선영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 I. 머리말

에도시대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의 노력으로 일본은 지도 제작의 기초를 쌓기는 하였지만 근대적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도 제작의 시작은 명치유신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명치유신 이후 제작한 이른바 ‘外邦圖’<sup>1)</sup>란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와 식민지를 통치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EAHF-2011-한일자유과제(단독)-3).

오차노미즈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비교역사학 코스의 岸本美緒 교수가 특별히 필자를 초청해 주어 본고의 연구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감사드린다. 또한 지리학 코스의 水野勲 교수와 宮澤仁 교수는 귀중한 지도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도서관 사서는 더운 여름인데도 묵묵히 번거로운 지도 이동 작업을 도와 주었다. 또한 首都大學東京 역사고고학 교실의 奥村哲 교수의 후의에 감사드린다.

1) ‘외방도’는 일본 국내 지도라는 의미의 ‘內邦圖(內國圖)’의 반대어로 사용되는 일본 중심의 용어로 타국의 지형도를 상대적으로 외방도라고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일본 군사 비밀지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외방도’ 명칭은 1884년

하던 시기에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조선, 만주, 중국, 동남 아시아 등 일본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이다. 일본은 미국 본토의 일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알래스카, 구소련연방,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유럽 범주까지 각종 지도를 제작하였다.

일본이 군사 비밀지도를 그린 주된 이유는 군사적 관심이나 자원개발 등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삼기 위한 것이지만, 이 지도는 해당 지역의 지형과 지질 등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1945년 8월 15일 대본영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비밀서류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서류는 보관자가 소각하라”<sup>2)</sup>고 명령을 내렸다. 그 후 8월 19일 참모본부는 “內邦 지형도 중 군사 극비인 2만, 1만, 5천분의 1 지도 및 만주, 소련령, 관동주의 10만, 5만, 2만 5천, 5천분의 1 군사 극비 이상의 지도와 각 지역의 병요지지도는 소각”하라는 ‘정세 변화에 따른 작전용 지도 처리요령’이라는 군사기밀을 내렸고 육지측량부도 “군사 극비인 2만, 1만, 5천분의 1 지도는 소각 또는 파괴하라”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지도의 가치를 인식한 다다 후미오[多田文男] 및 나카노 다카마사[中野尊正], 미쓰이 가즈오[三井嘉都夫] 등의 연구자는 지도를 보존하기 위해 대본영 참모인 와타나베 다다시[渡邊正]의 중개를 거쳐 소장처를 변경하였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량의 지도를 옮길 차가 없어서 어깨에 지고 옮기기도 하였

참모본부 측량국 성립시의 ‘測量局服務規則’에 처음 나온다. 제6조에 “지도과는 지형측량에 의해 제출된 원도에 따라 …… 기타 외방도 및 제병요지도 그리는 작업을 관장한다.” 그 외 ‘地圖課服務規則’ 제5조와 제18조에도 ‘외방도’라는 명칭이 나온다. 清水靖夫, 2003, 「外邦圖の嚆矢」,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 no. 1, 21쪽

2) 參謀總長, 「陸軍秘密書類焼却ニ關スル件(軍事機密)」, 1945년 8월 15일(大本營陸軍部 參密第2號 626);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會 編, 2005, 『終戰戰後の參謀本部と陸地測量部: 渡邊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73쪽

3) 總務課長, 「情勢ノ轉變ニ伴フ作戰用地圖處理要領ノ件通牒(軍事機密)」, 1945년 8월 19일(大本營陸軍部 參機第11號第3);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會 編, 2005, 앞의 책, 73~74쪽

는데 처음에는 大妻女子大學 창고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明治大學 창고를 빌려 보관하기도 하였다.<sup>4)</sup> 당시 군사 비밀지도를 옮겼던 나카노[中野]는 지도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95%는 운반이고 5% 이하가 조사”<sup>5)</sup>라고 하였다.

특정 지역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지도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통 및 지리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일정 사회나 국가를 장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지도는 다시 자원과학연구소로 옮겨져 보관해 오다가 후에 오차노미즈대학을 포함하여 京都大學, 立教大學, 筑波大學, 廣島大學 등에 매각 배포되었다.

그동안 이 지도 자료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이 지도를 이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관계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심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 비밀지도와 관련된 기존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군사 비밀지도 소장처의 목록 작성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84년 忠敬堂 소장 古地圖目錄인 『參謀本部陸地測量部外邦圖總合目錄』이 나온 후, 1990년 말에 각 대학에서 소장한 지도 목록 작성 진행성과가 학술지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sup>6)</sup> 그러나 전체 목록

4) 三井嘉都夫, 2004, 「私と外邦圖」,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 no. 2, 48쪽

5) 中野尊正, 2004, 「外邦圖と私とのかわり」,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 no. 2, 53쪽

6) 渡邊信孝, 1998, 「東北大學で所藏している外邦圖とそのデータベースの作成」, 『季刊地理學』 50-2; 淺井辰郎, 1999, 「琉球諸島の地形圖はどんな経緯でお茶の水女子大學に入ったか」, 『大正・昭和琉球諸島地形圖集成解題』, 23-26, 柏書房; 渡邊信孝, 1999, 「東北大學理學部所藏の外邦圖とその活用のためのデータベース」, 『季刊地理學』 51-2; 田村俊和, 2000, 「東北大學理學部自然史標本館所藏の外邦圖(特集 大學所藏の地圖)」, 『地圖情報』 20-3; 無記名, 2004, 「外邦圖が語ること-舊日本軍の極秘地圖が保存されていた!」, 『イグザミナ』; 田村俊和, 2004, 「外邦圖研究の廣がり」,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 66; 渡邊信孝・山村亞希・大浦瑞代・高槻幸枝, 2004, 「東北大學・京都大學・お茶の水女子大學における外邦圖所藏狀況およびその目錄について」,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 66; 久武哲也・今里悟之, 2004, 「日本および海外諸機關における外邦圖の系譜關

이 작성된 것은 東北대학의 경우 『東北大學所藏外邦圖目錄』이 2003년에, 京都대학은 『京都大學總合博物館收藏外邦圖目錄』이 2005년에, 오차노미즈대학은 『お茶の水女子大學所藏外邦圖目錄』이 2007년에 발간되었다.

둘째, 군사 비밀지도와 관련된 토대연구로는 고바야시 시게루[小林茂]와 우시코시 구니아키[牛越國昭]의 것이 있으며<sup>7)</sup> 지도에 그려진 도시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지도를 통해 전쟁의 시대상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sup>8)</sup> 심화된 일련의 연구는 박선영의 것을 들 수 있는데, 만몽지역의 공중측량 지도를 중심으로 공중사진 요도의 내용과 요도 도식을 비교 분석한 것과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20만분의 1 만주 병요지도를 중심으로 병요지도의 내력과 지도 내에 묘사된 지역과 부호의 의미를 분석한

係,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 66; 村山山之·宮澤仁·渡邊信孝, 2005, 「外邦圖目錄の作成からデジタルアーカイブ構築まで(特集 外邦圖)」, 『地圖情報』 25-3; 西村三紀郎, 2005, 「岐阜縣圖書館世界分布圖センターの外邦圖コレクションとそのレファレンスサービス(特集 外邦圖)」, 『地圖情報』 25-3; 宮澤仁·高槻幸枝·大浦瑞代·田宮兵衛·水野勳, 2007, 「お茶の水女子大學所藏外邦圖コレクションの全體像」, 『お茶の水地理』 47; 宮澤仁·照内弘通·山本健太·關根良平·小林茂·村山山之, 2008, 「外邦圖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構築と公開·運用上の諸問題」, 『地圖』 46-3; 田村俊和·關根良平, 2008, 「外邦圖の成り立ちとゆくとえ, そしてその生かし方」, 『季刊地理學』 60-3

- 7) 小林茂, 2005,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圖」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小林茂, 2011, 『外邦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公新書 2119, 中央公論社; 牛越國昭, 2009,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外邦測量·村上手帳の研究 第1編』, 同時代社; Treiber, John Karl, 2004, "Mapping Manchuria: The Japanese production of knowledge in Manchuria-Manchukuo to 1945,"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8) 今尾恵介, 2011, 『地圖で讀む戦争の時代』, 東京: 白水社; 山本健太, 2010, 「外邦圖にみる魔都上海のいまむかし」; 谷屋郷子, 2004, 「朝鮮半島の外邦圖の作製過程」 및 渡邊理繪·山近久美子·小林茂, 2009, 「1880年代の日本軍將校による朝鮮半島の地圖作製: アメリカ議會圖書館所藏圖の検討」; 南榮佑, 2006, 「韓國における外邦圖(軍用秘圖)の意義と學術的價值」 등은 『外邦圖研究ニューズレター』에 실려 있다. <http://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newsletter/>; 김두일, 2007a, 「일제에 의해 제작된 1:10만 축척 만주지도의 현황과 지도 내용」, 『만주연구』 6; 김두일, 2007b, 「일제에 의해 제작된 만주지도의 현황과 연구에 대한 소고」, 『원광군사논단』 3

것이 있다.<sup>9)</sup>

그러나 여전히 기존 연구성과의 대다수는 일본의 군사 비밀지도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일본 내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자료 소장 상태나 내용이 세세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정리한 목록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 및 미국 내 여러 대학 도서관, 미국 국립공문서관 그리고 대영도서관 등지에 일본의 군사 비밀 지도가 산재되어 있는데, 자료량이 많은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정리할 계획도 없어서 향후 관련 연구가 확대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sup>10)</sup>

따라서 기존 연구는 일본이 언제, 어떠한 지도를 얼마나 만들었으며, 또 어떤 기관이 어떠한 지도를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전체상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발행기관이나 축적 및 제판 시기가 서로 다른 수많은 지도 정보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본 오차노미즈대학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이 제작한 각종 지도의 내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차노미즈대학의 자료는 자원과학연구소에서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 시대에 수집된 것과 내력 불명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오차노미즈대학에는 1만 3,000여 점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내 대학 중 소장 규모가 가장 크고 만주 관련 지도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중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자료는 『お茶の水女子大學所

9) 박선영, 2011, 「일본의 군사 비밀 지도와 만주: 만몽지역 공중측량 지도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64; 박선영, 2012, 「관동군사령부 만주 병요지도의 의미: 미 의회도서관 소장 20만분의 1 병요지도의 내력과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10) 필자는 미 의회도서관에서 일본이 제작한 지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였고 나머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도 일부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藏外邦圖目錄』에서 만주라고 명기된 항목의 1,435매와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필자가 대학 도서관에서 만주 관련 지도의 원본 전체를 직접 확인하여 보충한 자료를 포함하여 총 1,461매이다. 오차노미즈대학 지도 목록에는 東亞라는 항목에 만주와 관련된 지도가 연번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석의 준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만주라고 명시된 항목의 지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는 만주 지도 제작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측량기관, 측량 및 제판 발행 시기, 축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지도제작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도에 내포된 의미와 비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분량관계상 구체적인 지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식 비교 분석은 별고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II. 만주 지도의 지역 및 측량기관 분석

### 1\_ 지역별 분포도 분석

군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연스럽게 지리학과 군사학이 공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 최초로 대학에 지리학 강좌가 개설된 후 지도는 오랫동안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1820년에 세계 최초로 지리학 강좌를 독일 베를린대학에 개설한 칼 리터(Carl Ritter, 1779~1895)는 교육을 통해 독일 육군의 전략구상에 영향을 미쳤다.<sup>11)</sup>

11) 久武哲也, 2005, 「兵要地理調査研究會について」,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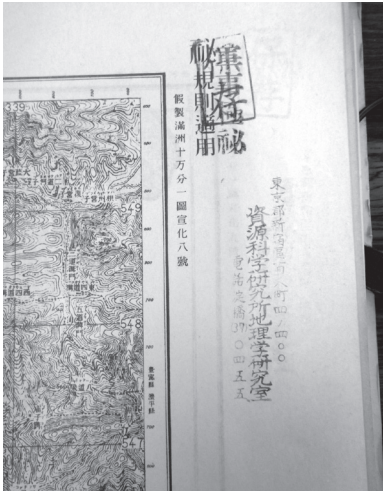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분포도 및 도폭수

記號	圖幅數	비고
奉天	122	奉天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撫順 2매, 奉天 7매, 기타 圖幅名 113매
伯都訥	98	伯都訥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多耐站, 茂興站, 阿立各圖, 太本站 각 2매, 기타 圖幅名 88매
新京	95	新京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下九台, 新安堡, 興隆山, 大南屯, 小合隆, 新立城, 樂山鎮, 腰崗, 燒鍋甸, 景家合, 范家屯 각 2매, 卡倫街 3매, 新京 6매, 기타 圖幅名 64매
錦州	90	錦州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錦州 7매, 기타 圖幅名 83매
奉化	85	奉化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奉化 2매, 기타 圖幅名 83매
哈爾賓	82	哈爾賓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南下坎 2매, 哈爾賓 3매, 기타 圖幅名 77매
齊齊哈爾	76	齊齊哈爾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齊齊哈爾南部 2매, 齊齊哈爾 3매, 昂昂溪 5매, 기타 圖幅名 66매
海倫	76	海倫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海倫 3매, 기타 圖幅名 73매
遼陽	73	遼陽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湯山城 2매, 기타 圖幅名 71매
承德	55	承德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山海關 2매, 承德 3매, 기타 圖幅名 50매
開魯	50	開魯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開魯 5매, 기타 圖幅名 45매
海龍城	48	海龍城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閤枝子溝門 2매, 海龍城 4매, 기타 圖幅名 42매
白城子	37	白城子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白城子 2매, 기타 圖幅名 35매
旅順	34	旅順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貔子窩, 普蘭店 각 2매, 기타 圖幅名 30매
黑山	33	黑山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黑山 2매, 기타 圖幅名 31매
延吉	30	延吉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延吉 2매, 白頭山 2매, 기타 圖幅名 26매
安東	29	安東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蘇家屯 2매, 기타 圖幅名 26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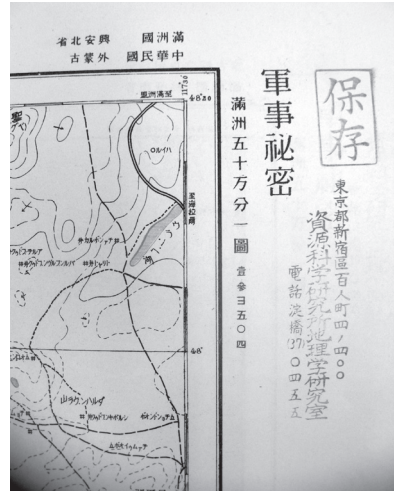
赤峰	27	赤峰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赤峰 2매, 기타 圖幅名 25매
宣化	23	宣化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湯河溝, 宣化 각 2매, 기타 圖幅名 19매
依蘭	20	依蘭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依蘭 2매, 기타 圖幅名 18매
突泉	20	
牡丹江	19	牡丹江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牡丹江 2매, 기타 圖幅名 17매
三姓	19	
阜新	18	阜新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阜新 2매, 기타 圖幅名 16매
寧古塔	13	
王爺廟	13	王爺廟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王爺廟 4매, 기타 圖幅名 9매
懷仁	13	懷仁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懷仁 2매, 기타 圖幅名 11매
金州	13	
大孤山	11	大孤山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大孤山 3매, 花園口 2매, 기타 圖幅名 6매
城津	8	城津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厚州古邑, 佳林里, 城津 각 2매, 기타 圖幅名 2매
林西	8	林西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林西 2매, 기타 圖幅名 6매
洮安	4	洮安이라는 대항목에 圖幅名 洮南北部 2매, 기타 圖幅名 2매
吉林	4	
五原	4	
鐵驪	4	
長春	3	
長山列島	1	
集安	1	
기타	102	원지도에 지역명으로 분류되지 않고 각종 기호로 표시되어 구분이 불분명함
총 도폭수	1,461	

\* 표에 사용된 지역명은 원지도에 記號라고 표시된 지명을 활용하였다. 그 이하에 도폭명으로 지명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역명과 도폭명의 지명이 동일한 경우 비교에 명기하였다.

\* 표에 사용된 기호명은 그림 1, 기타로 분류된 것은 그림 2를 참조할 것.



〈그림 1〉 오른쪽 상단 '假製滿洲十萬分一圖宣化8號'에서 '宣化'가 표 1의 기호에 해당하는 명칭



〈그림 2〉 오른쪽 상단 '滿洲50萬分一圖壹參' 같이 기호명이 없는 경우 기타로 분류

군사와 지리학의 결합은 독일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체제 이후 급속하게 강화되어 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최초로 지리학자를 포함하여 군사전략을 구상하는 'The Inquiry'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파리 강화회의) 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런 조직에 상응하는 것이 만들어져 지리학회와 일상업무뿐만 아니라 전시 하에서 군의 전략구상에 참여하는 체제가 강화되어 군사와 지리학의 결합이 급속하게 심화되었다.<sup>12)</sup>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만주지역 지도도 군사와 지리학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대항목별로 구분된 지역명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명기된 지역명과 도폭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동북 삼성 교통도 위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 특징을 확인해 보았는데, 구체상은 그림 3과 같다.

12) 久武哲也, 2005, 앞의 글, 6쪽



〈그림 3〉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주요 지역 지도와 도복수를 표시하여 필자가 제작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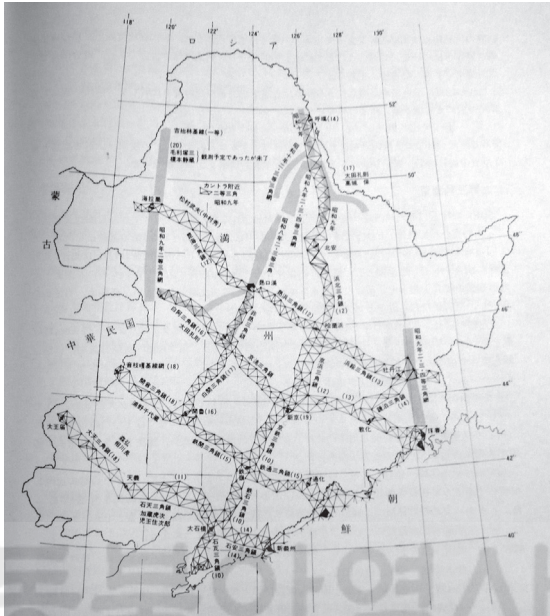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지명을 중심으로 지도의 도복수가 표시되어 있지만 특정 도시만을 지도 제작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대범주의 명칭이었다. 즉, 봉천이라고 해서 봉천시에 해당하는 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봉천으로 구분해 놓은 지역 전체를 그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첫째, 일본 육지측량부는 심양(봉천), 장춘(신경), 哈爾濱 등지를 중심으로 만주지역의 핵심적인 대도시이자 교통 요충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다음 절에서 분석한 축적별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도를 제작한 지역에서 중시된 것은 철도가 통과하고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이다. 이는 「1917년도 측도작업성과개요보고」<sup>13)</sup>를 통해서도 확

13) 北支那方面軍司令部·參謀本部(연도 불명), 『外邦測量沿革史：草稿初編前篇』,



〈그림 4〉 만주 一等三角網圖

출처: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測量地圖百年史』, 日本測量協會, 469쪽

인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간선을 따라 작업한 구체상이 드러나 있으며 그림 4의 만주 一等三角網圖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동북지역 그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핵심적인 대도시가 아니지만 조선인이 많이 거주했던 안동, 집안, 연길 등의 지도를 제작하였고 백두산 부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는 일본의 조선 통치와 만주지역 조선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이 지역의 지도는 육지측량부가 제작하였지만, 조선군사령부가 별도로 길림성 동부지역의 병요지 지도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제작한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지도를 중시한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겠다.<sup>14)</sup>

日本防衛省防衛研究所圖書館 所藏, 31쪽

14) 朝鮮軍參謀長 兒玉友雄, 「兵要地誌資料送付の件」, 陸軍省-密大日記-S8-5-

## 2\_ 측량기관별 분석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만주 지도를 보면,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한 측량기관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측량기관이 지도를 만든 이유나 경위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지도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도에 명시된 측량기관은

〈표 2〉 측량기관 분류

번호	測量機關	매수	백분율
①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359	93.02%
②	陸地測量部	4	0.27%
③	陸地測量部/參謀本部	4	0.27%
④	臨時測圖部/陸地測量部/參謀本部	6	0.41%
⑤	臨時測圖部(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	0.07%
⑥	저작권 소유자 關東廳, 인쇄 겸 발행 陸地測量部	38	2.60%
⑦	支那駐屯軍司令部	4	0.27%
⑧	支那駐屯軍司令部/陸地測量部/參謀本部	11	0.75%
⑨	參謀本部	21	1.44%
⑩	關東軍測量隊측량(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발행)	3	0.21%
⑪	지도가 잘려서 정보 확인 불능	10	0.68%
	총계	1,461	

9(所藏館：防衛省防衛研究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4006500. 密受第五二號, 朝參密第九二號, 「兵要地誌資料送付ノ件」昭和8年5月12日, 朝鮮軍參謀長 兒玉友雄, 陸軍次官 柳川平助殿 兵要地誌資料左記ノ通送付ス 左記吉林省東部地方兵要地誌挿換 南部烏蘇里地方兵要地誌 鴨綠江岸道路調查圖 間瑯地方道路網要圖 各五部 各一配布濟 第二編 朝鮮北境ヨリ延吉蛤蟆塘金坑附近及 古塔ヲ經テ 朝鮮軍司令部調製 吉林省東部地方兵要地誌訂正表 目次三頁乃至六頁ヲ別紙ト挿換フ 目次一三頁ヲ別紙ト挿換フ 二七、二八頁ヲ別紙ト挿換フ 三一頁乃至三六頁ヲ別紙ト挿換フ 五九頁乃至六四頁ヲ別紙

11개가 있다. ①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② 육지측량부, ③ 육지측량부/참모본부, ④ 임시측도부/육지측량부/참모본부, ⑤ 임시측도부, ⑥ 저작권 소유자 관동청, 인쇄 겸 발행 육지측량부, ⑦ 지나주둔군사령부,<sup>15)</sup> ⑧ 지나주둔군사령부/육지측량부/참모본부, ⑨ 참모본부, ⑩ 관동군측량대 측량(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⑪은 지도의 정보가 잘려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만주 관련 지도의 측량 기관은 다양하지만 발행기관은 전반적으로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혹은 육지측량부)로 되어 있다. 특히 대학에 소장된 지도의 93% 이상이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지도제작을 총괄했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측량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지도를 제외하고 이상에서 언급된 10개 경우의 측량 기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도 제작 기구 변화의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치유신 직후인 1869년 民政省 내에 일본 측량과 지도 제작을 위해 戶籍地圖 담당 부서가 설치되었고, 이 기구가 1870년 地理司로 확충되어 지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게 되었다.<sup>16)</sup> 한편 1871년 兵部省에 參謀局을 두고 그 하부기관으로 間諜隊를 설치하여 평시에는 지리 정찰, 조사와 지도 편집을 주 업무로 하였다.

1872년 병부성은 육군 및 해군 2성으로 나뉘었지만 간첩대는 그대로 육군

15) '지나주둔군사령부'에서 지나는 중국의 별칭으로 일본이 사용했던 용어이다. 당시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6) 1873년 내무성이 설치되고 1874년 내무성에 地理寮와 測量司(후에 지리료는 이관 폐지됨)가 설치되고, 工部省 測量司, 太政官正院地誌課, 대장성 지리과 업무를 이관 통합하여 東京, 大阪, 京都 및 개항된 5개 항구 등에 주요도시의 시가도를 작성하거나 全國大三角測量 계획을 확정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지리료는 1877년 내무성지리국으로 개칭되고 토지제도개정에 따라 기준도와 전국지적조사를 하는 지적도를 만드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았다.

성에 남아 있었다. 1874년 2월에는 참모국을 第6局으로 개칭하였으며,<sup>17)</sup> 1878년에는 참모국을 폐지하고 참모본부로 설치하여 그동안 지도 측량을 담당했던 제5과와 제6과는 참모본부 지도과와 측량과로 개칭하였다.<sup>18)</sup>

1886년 참모본부는 육해군 2부로 나누고 각 부에 3국을 두었으며, 육군부 제2국은 외국의 兵制 및 地理政誌를 상세하게 파악하였다.<sup>19)</sup> 그 밑에 육지측량국을 두었는데, 육지측량국은 삼각측량과, 지형측량과, 지도과로 나누어 작업하였다.<sup>20)</sup>

1888년 육지측량부조례가 공포되자<sup>21)</sup> 참모본부의 一局이었던 측량국이 분리되어 본부장 직속의 독립관청인 육지측량부가 되었다. 육지측량부는 육지를 측량하여 병요지도와 일반 국용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주업무였다.<sup>22)</sup> 하부조직으로 三角科(삼각측량 시행), 地形科(지형측량 시행), 製圖科(원도 제조) 3과 밑에 여러 개 반으로 나누었으며 육지측량 업무를 하기 위해 기술관을 양성하는 修技所를 두었다.<sup>23)</sup>

1941년 육지측량부조례가 개정되어 조직이 개편되고 새로운 總務課가 설치되면서 종래의 三角科가 제1課로, 지형과가 제2課로, 제도과가 제3課로 변

17) 陸軍省-第6局-M7-1-42, 「明治7年 1月, 2月 參謀局と改稱 第6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7073311000

18) 金窪敏知, 2005, 「陸地測量部から地理調査所へ」,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20쪽

19) 內閣,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無號三月十八日・參謀本部條例」, 明治19年3月18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09500. 第8條, 第11條

20) 內閣,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無號三月十八日・參謀本部條例」, 明治19年3月18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09500. 第23條

21) 內閣,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一年・勅令第二十五號・陸軍參謀本部條例, 陸軍參謀職制, 陸地測量部條例」, 明治21年5月12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21500; 內閣總理大臣伯爵黑田清隆/陸軍大臣伯爵大山巖, 「5月12日 陸軍參謀本部參謀職制陸地測量部條例」,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0060052200

22) 內閣總理大臣伯爵黑田清隆/陸軍大臣伯爵大山巖, 「5月12日陸軍參謀本部參謀職制陸地測量部條例」, 第1條,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0060052200

23) 內閣總理大臣伯爵黑田清隆/陸軍大臣伯爵大山巖, 「5月12日 陸軍參謀本部參謀職制陸地測量部條例」, 第2條, 第6條, 第15條,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0060052200

경되었고 수기소는 교육부로 개조되었다.<sup>24)</sup>

1945년 8월 17일 육지측량부의 와타나베 다다시 참모는 미군이 일본을 접수하기 이전에 육지측량부를 내무성 산하로 이관하여 새로운 명칭과 조직을 갖출 것을 건의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국토를 부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육지측량부 기구를 平時 편성된 관청으로 이관하여 미군이 진주하였을 때 이미 기관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교섭”<sup>25)</sup>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미군에 의해 육지측량부가 폐쇄되거나 주요한 지도가 점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조정이나, 법률 및 조례가 개정되었고, 새로운 조직 이행에 따른 인사 등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1945년 8월 31일부로 육지측량부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육지측량부는 소멸되었다. 육지측량부는 외피만 바꾸어 입은 채 내무성 산하의 지리조사소로 개명되어 企劃, 測量, 地圖 3課制로 새롭게 발족된 것이다.<sup>26)</sup>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지도 제작 기관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①의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와 ②의 육지측량부는 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편제 변화에서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혹은 육지측량부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편제가 바뀐 적이 없고 양자 사용례에서 별다른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②의 육지측량부는 ①의 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에서 대일본제국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육지측량부가 측량한 지도로 명시된 4매는 1 : 500,000 지도로 1933년에 제판된 것이다. 그중 白城子 2매는 1936년에 수정 개판되었다.

③ 육지측량부/참모본부로 명기된 지도는 五原지역의 공중사진으로 1940년에 촬영한 1 : 100,000 지도로 蒙疆空中寫眞測量要圖로 구분되어 있다. 五原

24) 金窪敏知, 2005, 앞의 글, 21쪽

25) 渡邊小佐, 2005, 「終戰二伴ノ陸地測量部處理要綱案(極秘)」(原稿), 1945년 8월 17일;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會 編, 2005, 앞의 책, 76쪽. 이는 渡邊正이 직속 상관인 제2部長 有末中將에게 意見具申案을 비밀리에 제출한 내용이다.

26) 金窪敏知, 2005, 앞의 글, 25쪽

1호의 경우만 촬영이라는 말을 명기하지 않고 1940년 측도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일련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④의 경우, 6매의 지도가 臨時測圖部/陸地測量部/參謀本部로 명기되어 있고 宣化 및 承德 지역의 1:100,000 지도이다. 임시측도부/육지측량부/참모본부로 명기된 것은 임시측도부가 그린 지도 위에 수정을 가해서 만들어진 지도라는 정보를 기입(圖歷)한 것으로 보인다.

⑤와 같이 임시측도부만 명시되어 있는 지도 1매는 지도가 부분적으로 잘려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임시측도부의 측량과 대일본 제국육지측량부 발행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특정 부분을 1912년 임시측도부가 측도한 것으로 설명한 점과 1:100,000 지도라는 점을 보아 ④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894년에 처음 편성된 임시측도부는 본부를 金州에 두고 요동반도 측도에 종사하였다. 이는 최초로 전시 측도한 것인데 주요한 지점의 경위도를 정하고 그것에 준거한 小測板, 測斜照準儀를 사용한 지형도근점을 만든 후 도근점에서 携帶圖板을 사용하여 雜部測圖를 하였다.

1904년 2월에는 제2차 임시측도부(경위도반 및 지형측도반 230명)가 편성되어 6월부터 남만주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후 점차 측도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제2차 임시측도부는 남만주지역에 대해 1:50,000, 1:20,000, 1:10,000 및 1:5,000 측도를 실시하였다. 1905년에도 계속 남만주 측도를 실시하였지만 8월에는 러일전쟁 종결 후 그 일부가 樺太軍으로 전속되었다. 1906년에도 남만주 측도를 실시한 후 12월에 귀국하였지만 일부 요원은 아직 측량하지 않은 지역의 측도에 종사토록 하였다. 1907년에는 임시측도부의 편성조직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3개 반 12분반으로 나누고 지형측도반에 경위도측량반을 부속시키고 중요 지점의 경위도측량을 실시하기도 하였다.<sup>27)</sup>

따라서 ④나 ⑤의 경우와 같이 임시측도부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된 지도는

27) 北支那方面軍司令部·參謀本部(연도 불명), 앞의 자료, 55쪽;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測量地圖百年史』, 日本測量協會發行, 473쪽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제작했던 작전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당시 제작된 지도를 기반으로 육지측량부나 참모본부가 수정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저작권 소유자 관동청, 인쇄 겸 발행 육지측량부로 명기되어 있는 지도는 기타 다른 지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38매의 지도가 전부 假製로 명시되어 있고 주로 여순·대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 저작권 소유자가 관동청인 것은 당시 이 지역을 관동청에서 관할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도는 38매 모두 1:25,000 지도로 주로 1921년에서 1924년에 제작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여순·대련 지역을 장악한 이래 좀 더 정확한 지리 정보를 위해 자세한 지도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지나주둔군사령부가 측정한 4매의 지도는 1:100,000 지도로 伯都訥 지역을 묘사한 것인데 軋葫芦泡 1매의 경우만 1918년 측정한 것이고 나머지 지도는 설명 정보가 잘려나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중 2매의 지도에 1916년에 지나주둔군사령부가 수정 측도했다는 사실과 부여된 일련번호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⑦과 ⑧에 명시된 지나주둔군사령부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나주둔군사령부는 1913년 제2차 임시측도부가 해산된 후 부원 16명을 발탁하여 지나주둔군사령부의 측량반으로 삼고 임시측도부 해산 후에도 만몽각지에서 측도업무를 계속하였다. 1916년에는 지나주둔군토지조사반이 車陸, 舒都, 墨爾根, 哈拉蘇, 瓊瑋 지역을 측도하였다. 1917년에는 지나주둔군토지조사반이 海倫, 小蒿子, 克山縣, 滿州里, 訥河, 齊齊哈爾 및 海拉爾 지역을 1:100,000로 표면측도 및 간선측도 하였다. 1918년에는 시베리아 출병으로 러시아제(1:84,000 지도) 및 청국제(각종축척) 지도를 입수하여 그곳에 일본 어역으로 縮寫한 1:100,000 지도로 개조하였다. 1930년에는 지나주둔군사령부가 哈爾濱 방향을 수정 측도하기도 하였다.<sup>28)</sup>

⑧ 지나주둔군사령부/육지측량부/참모본부가 측량한 宣化和 承德 지역

28)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앞의 책, 474쪽

의 1:100,000 지도 중 承德 24호가 1910년, 宣化지역이 1911년에 측도하여 1933년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지나주둔군사령부가 측도한 것보다 1930년대에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수정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는 특별히 지도의 방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측량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다.

⑨ 참모본부로 명시된 21매의 1:500,000 지도는 1932년과 1933년에 제판된 것을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초에 수정 개판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는 중일전쟁 발발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의 필요에 따라 1930년대 초반의 지도에다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수정 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88년 육지측량부조례가 공포된 이래 1945년 육지측량부가 폐지되기까지 지도를 제작한 곳은 참모본부 산하에 있었던 육지측량부이므로 육지측량부라는 용어가 생략된 채 참모본부만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본부로 명기된 지도의 공통점은 1:500,000 지도이고 또한 ‘군사비밀’ 표시가 인쇄된 지도로 일반 지도보다 자세하며 대부분 지도에 그 내력을 명기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을 그린 것으로 지도의 내력에는 직접 측량한 부분과 중국 및 소련제의 지도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 등이 있는데, 한 장의 지도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도는 러시아에서 제작한 1:500,000 지도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과 자료 근거가 달라 지도 자체를 정상적으로 접합시키기 어려운 점을 명시해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지도를 어떻게 제작하였고 지도 제작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해 줌으로써 지도의 정확성에 대해 유의할 것과 향후 수정 측량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였다.

⑩ 관동군측량대 측량(대일본제국육지측량부 발행)이라 명기한 3매의 海倫 지도는 1936년에 측량하여 1940년에 발행한 것으로 1:100,000 지도이다. 이는 관동군측량대가 측량한 지도를 육지측량부가 인쇄한 것이다. 지나주둔군사령부는 1934년 9월의 조직개편으로 관동군측량대가 편성되었는데,<sup>29)</sup> 육지측량부와 관동군측량대의 관계는 불가분의 상하관계이다.

29)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앞의 책, 474쪽

육지측량부는 만주지역에 대해 측량대가 측량할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데, ‘關東軍勤務令’에 따라 육지측량부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관동군 측량대에서 필요한 업무는 육지측량부와 상의하여 처리하였다.<sup>30)</sup> 관동군측량대는 기본적으로 육지측량부 산하기관으로 만주에 머물면서 만주국측량국과 제휴하여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만주국이 건국된 후 만주국측량국이 존재하는데도 일본의 육지측량부 산하 관동군측량대가 만주에서 활동한 이유는,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별한 만주 지도 제작은 관동군측량대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㉑은 지도의 정보가 잘려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상 표 2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본이 제작한 해외 군사 비밀지도는 일본제국육지측량부가 총괄 발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도의 성격에 따라 혹은 지도 제작 기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부서가 지도 제작에 관여하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측도부가 명시된 지도는 초기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임시측도부/육지측량부/참모본부’를 병기한 것은 임시측도부가 제작한 지도 위에는 다른 기관이 수정 제작한 내역을 명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시측도부 해체 이후에는 지나주둔군사령부가 지도 제작을 담당하였으며, 참모본부가 명기된 지도는 특별히 군사적 목적이 강조되어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동청 소유의 경우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할하던 관동주에 대해 자세하게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주로 군사적인 보루 시설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국측량대가 있는데도 일본이 대소련 관계에서 필요한 만주지역 군사 지도는 여전히 관동군측량대가 단독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

30) 大日本營陸軍參謀部總務部長 神田正種, 「關東軍に於ける兵要地圖の調製並修正に關する細部の件」, 陸軍省-陸滿密大日記-S15-5-7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 C01003573700

서 만주국 국가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간접적인 만주지역 식민통치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관동군측량대의 만주 측량계획은 일본의 육지측량부가 수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 Ⅲ. 만주 지도의 측량 및 제판 발행시기 분석

#### 1. 측량시기별 분석

만주에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측량했던 시기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류하면, 1909년 측도부터 시작하여 1941년 측량 및 1942년 부분수정까지 30여년에 걸친 내용이 포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도와 측량 및 측도의 측도 등의 표현으로 명기된 지도도 있지만 전체 1,461매 중 지도의 정보가 잘려 확인이 불가능한 6매의 경우를 제외하고 1,178매가 측도 및 측량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측량 및 측도된 지도를 바탕으로 편찬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량시기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이 외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측량하여 지도를 제작하게 된 방법과의 연관성이다. 일본에서 초기 지도 제작 방법으로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첫째, 비밀정찰이다.

1871년 참모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지역도 간첩대를 파견하여 비밀정찰을 하였다. 상인으로 위장한 이케노우에 시로[池上四郎] 少佐 외 2명은 만주에서 요동지방 일대의 지리, 풍속,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들은 하천의 결빙과 해빙 그리고 도로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초대 참모본부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1879~1880년 가쓰라 다로[桂太郎], 오가와 마타지[小川又次] 이하 10여 명의 장교를 주재무관이나 어학연수생 명목으로

〈표 3〉 시기별 측도 및 측량 도폭수

測量時期(修正 包含)			매수	비고
測量	測圖	기타		
	1909年測圖		1	1933年方眼描入/1935年要部修正略測圖
	1909年 4月測圖		1	1933年方眼描入/1935年7月要部修正略測圖
	1909年 및 1910年測圖		1	1933年方眼描入/1935年要部修正略測圖
	1910年測圖		1	1933年方眼描入
	1910年測圖		6	1933年方眼描入/1935年要部修正測圖
	1910年測圖		1	1942年要部修正略測圖/1933年略測圖
	1911年測圖		5	1933年方眼描入
	1911年測圖		1	1933年方眼描入/1934年要部修正測圖
	1918年測圖		1	
1919年測量			5	
1920年測量			1	
1921年測量			16	
1922年測量			10	
1923年測量			6	
	1932年測圖		7	
	1933年, 1934年測圖		3	
	1933年, 1934年測圖의 縮圖		2	
1933年, 1934年測量			1	
	1933年測圖		13	
	1933年測圖의 縮圖		4	
1933年測量			26	

	1934年集製 及修正測圖		5	1936年修正
	1934年集製 及修正測圖		1	1936年修正(關東軍測量隊)
1934年測量			4	
1935年測量			27	
1935年測量의 縮 圖			1	
1936年測量			69	
		1937年修正	2	
1937年測量			26	
1937年測量			6	空中寫眞測量
1937年測量			1	空中寫眞測量要圖
1937年測量			2	空中寫眞測量併用
1937年測量 및 縮圖			1	
1937年測量 및 縮圖			1	空中寫眞測量
1938年測量			2	
		1939年部分 修正	2	
1939年測量			3	
		1940年修正	1	
1940年4月撮影 /1940年測量			1	
1940年5月撮影 /1940年測量			2	
1940年測量			2	
1941年測量			2	
		1942年部分 修正	3	
		1942年修正 增補改版	1	
지도 잘림	6			
측량시기 불명	1,178			
총 도폭수	1,461			

청국에 파견하였다. 그 성과는 『隣邦兵備略』<sup>31)</sup>과 『支那地誌』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가상적국의 전쟁 준비 상태와 지리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sup>32)</sup>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비밀리에 정찰을 해야 하는 측량대는 기억에 의존하거나 目測을 포함하여 路上측량한 간이측량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주요 교통로를 경유하면서 步測으로 거리를 재고, 컴퍼스로 방위를 보면서 산허리를 횡단하여(traverse) 측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1893년에는 1:50,000 略圖의 한반도 일부 지역 지도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1894년 12월에는 임시측도부 편제의 동원령이 발효되어 일본이 해외 지역 지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하게 되었다.<sup>33)</sup>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시의 靑島작전, 시베리아 출병 등 작전행동을 위해서는 임시측도부나 측도반을 편성하여 관계 지역에 대해 필요한 측량과 측도를 하였다.<sup>34)</sup> 이를 위해 육지측량부 직원이 행상인, 사진가, 藥種商 등으로 변장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 및 주요 교통로, 주요 하천 등에 대해 步測, 目測, 車馬의 속도에 의한 거리 概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천문관측 등을 비밀리에 실시하여 만주 등지의 1:100,000 지형도를 제작하였다.

둘째, 공개측량이다. 전쟁 발발은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 측량대가 좀 더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군이 진격한 지역에는 사회질서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 측량요원이 공공연하게 平板측량을 할 수 있었다. 평판측량은 삼각대 위에 방형의 판을 수평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이측량보다는 정밀도가 높은 지도를 그릴 수 있으므로 일

31) 『隣邦兵備略』, 1882년 8월 제2판, 陸軍文庫. 이 책은 이웃 나라의 성쇠를 상세히 파악하여 일본의 병세에利害를 되돌아 보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는데, 총 5권으로 1권에서 4권까지는 청조의 군제, 팔기, 몽고, 西藏, 錄旗, 勇兵, 長江水師, 海軍, 商船 등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5권은 附圖를 첨부하였다.

32) 陸地測量部, 1941, 『外邦兵要地圖整備誌』, 藤原彰 編 解説, 1992, 『15年戰爭極秘資料集30集』, 東京: 不二出版 復刻, 5쪽

33) 北支那方面軍司令部·參謀本部, 연도 불명, 앞의 자료, 2쪽

34) 鈴木純子, 1996, 『地圖資料概説: 國立國會圖書館所藏資料を中心に』, 紀伊國屋書店, 49쪽

본은 임시측도부를 편성하여 수백 명 규모의 측량요원을 만주지역 등에 투입하여 평판측량으로 지도를 제작하였다.

1918년 시베리아 출병이 시작되자 임시측도부를 편성하고 지나주둔군과 함께 臨時工地調査班을 만들어 시베리아, 만주 북부, 몽고지방을 측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전에 따라 군대와 동행하면서 공공연히 행해진 측량은 위험이 따르기는 하였지만 별다른 방해 없이 이루어졌다.<sup>35)</sup>

셋째, 지도의 노획과 복제이다.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시에는 러시아관 지도를 대량 노획하여 시베리아, 몽고, 연해주 지방을 개조한 1:100,000 병요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후에는 관동군이 봉천의 동삼성육군측량국을 점거하여 중국 전역에 걸친 각종 척도의 지도를 대량으로 입수하였다. 중일전쟁 시기에는 남경 중화민국 참모본부 육지측량총국이 제작한 지도를 대량으로 압수하여 복제 사용하였고, 이러한 지도가 없는 지역은 공중사진측량을 활용하기도 하였다.<sup>36)</sup>

1932년 만주국 성립 후 9월에 日滿議定書가 체결되자 일본육지측량부에서는 만주 측량 요원을 자유롭게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1933년 4월에는 참모본부 臨參密第169號를 기반으로 장교 12명, 측량사 9명, 측량수 49명, 計手(경리 사무를 담당하는 하사관) 2명, 촉탁 1명, 고용원 6명, 測夫 87명의 측량대를 만주국으로 파견하여 만주를 측량하기도 하였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상을 통해 공개적인 측량이 가능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비밀측량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의 지리상황을 파악하였고 타국이 그린 지도를 노획하고 복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일본제국주의가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리정보를 구체화해 나갔다.<sup>38)</sup> 이는 일본의 지도 제작이 만주지역의 측량방법 및 측량시기와

35) 陸地測量部, 1941, 앞의 자료, 6쪽

36) 小林茂·渡邊理繪 解説, 2011, 『研究蒐錄 地圖』第1冊(1943年 1月-7月), 『15年戰爭極秘資料集』補卷 38, 不二出版, 4~5쪽 참조.

37)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앞의 책, 465쪽

38) 일본의 제국주의 확대와 식민통치가 심화되면서 중국인이나 조선인 기사를 양성하

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 지도의 경우 1932년 만주국 성립 전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만주를 장악한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만주를 측량하거나 측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얻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 측량하거나 측도한 것은 비밀리에 도측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일본 측량사의 비밀 활동사를 확인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만주 지도 중 56매가 1909년부터 1923년에 측량하고 측도한 것인데, 1909년부터 1910년대는 주로 承德이나 宣化지역 즉 화북 지역과 만주지역의 접경지에 대한 측도가 많이 있고, 1919년 이후부터 1920년대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旅順·大連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당시 측도한 지도를 1933년 이후에 다시 수정 측도한 것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 불분명한 정보로 누락되었던 새로운 사실을 기입했거나 지리적·사회적 교통상 등의 변화상 등을 명시하여 재인쇄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는 공중 측량된 사진이 10매 있는데 1937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일전쟁 준비나 중일전쟁 전개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sup>39)</sup>

## 2\_ 재판시기별 분석

만주 관련 지도의 재판된 시기를 구분해 보면 표 4에 명시되어 있듯이, 1911년부터 1940년도까지의 지도가 있다. 그중 표시가 없거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것을 포함하여 재판시기가 불명한 것이 179매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30여 년에 걸친 만주 지도 재판에서 단

여 현지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근대 지도 제작사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 제작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9) 공중측량의 구체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박선영, 2011, 앞의 글 참조.

〈표 4〉 제판시기별 분류

製版時期		도록수	연도별 매수	백분율	
1911年	1911年製版/1936年補修	1	1	0.07%	
1912年	1912製版	6	16	1.03%	
	1912年製版/1935年修正改版	1			
	1912年製版/1936年補修	5			
	1912年製版/1936年修正改版	3			
	1912年縮圖製版/1936年補修	1			
1914年	1914年製版/1943年修正改版	2	2	0.14%	
1915年	1915年製版/1942年修正改版	2	2	0.14%	
1919年	1919年製版/1942年修正改版	1	1	0.07%	
1921年	1921年製版	3	3	0.21%	
1922年	1922年製版	2	2	0.14%	
1923年	1923年製版	17	17	1.16%	
1924年	1924年製版	15	15	1.03%	
1929年	1929年製版/1943年修正改版	1	1	0.07%	
1932年	1932年製版	318	401	27.45%	
	1932年印刷	60			
	1932年製版/1933年印刷	1			
	1932年製版/1934年修正改版	1			
	1932年製版/1935年印刷	1			
	1932年製版/1936年改版	12			
	1932年製版/1936年修正改版	1			
	1932年製版/1937年改版	1			
	1932年製版/1937年修正改版/ 1937年增補改版	1			
	1932年製版/1940年修正	1			
	1932年製版/1942年部分修正改版	2			
	1932年製版/1943年修正改版	2			
	1933年	1933年製版	336	459	31.49%
		1933年印刷	85		

	1933年製版/1936年改版	6		
	1933年製版/1936年修正改版	2		
	1933年製版/1939年修正改版	1		
	1933年製版/1939年修正改版/1942年補修	2		
	1933年製版/1941年修正改版	1		
	1933年製版/1942年部分修正	1		
	1933年製版/1942年部分修正改版	4		
	1933年製版/1942年修正改版	12		
	1933年製版/1942年修正增補改版	1		
	1933年製版/1943年修正改版	4		
	1933年製版/1943年增補修正改版	4		
1934年	1934年製版	5	5	0.34%
	1935年印刷	9	318	21.77%
1935年	1935年製版	244		
	1935年製版/1935年印刷	65		
1936年	1936年印刷	8	8	0.55%
	1937年印刷	1	2	0.14%
1937年	1937年製版/1938年上部增補/1940年印刷	1		
1938年	1938年製版	1	2	0.14%
	1938年製版/1940年印刷	1		
	1939年改版	1	17	1.16%
1939年	1939年印刷	10		
	1939年製版/1940年印刷	6		
1940年	1940年印刷	8	10	0.68%
	1940年製版/印刷	2		
	지도가 잘려서 정보 확인 불능	18	179	12.25%
	표시 없음	1		
	제판시기 불명	160		
	총 도폭수	1,461	1,461	

연 돋보이는 것은 1932년과 1933년 및 1935년이다. 1932년 제판된 지도는 401매로 전체 27.45%를 차지하고, 1933년에는 459매로 31.49%, 1935년 318매로 21.77%를 차지하는 등 3개년에 제판된 지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것이 일본이 발행한 지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이 대학에 소장된 지도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해 본다면,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한 후 만주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지도 활용의 요구가 있었던 것과 제판 및 발행이 연관성을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만주국 성립 이전에는 만주의 많은 지역에서 일본 측량사들이 자유롭게 측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측량을 해야 했다. 1894년부터 1933년까지 전사, 참사, 병사 등 여러 이유를 포함하여 측량대가 사망한 것만 해도 총 127명<sup>40)</sup>이라는 점에서 지도 제작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무릅쓴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를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몰래 지도를 작성한다는 어려움은 사라진 상태이다. 물론 측량대는 여전히 야생 몽고개떼의 갑작스런 습격으로 도망치다 낙마하여 골절하기도 하고, 군의가 없는 벽지에서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였다. 항일운동을 하는 자들을 피해 다니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총성과 더불어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sup>41)</sup>

지도 제작 환경을 비교한다면 만주국 성립 이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고, 지도를 제작하는 이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국 성립 이후는 만주국 통치를 위한 지도 제작에 더욱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판시기를 분류하면 1932·1933·1935년에 집

40) 北支那方面軍司令部·參謀本部, 연도 불명, 앞의 자료, 5~13쪽

41) 岡田喜雄 編, 1978, 『地圖をつくる: 陸軍測量隊秘話』, 東京: 新人物往來社, 35~37쪽

〈표 5〉 1932·1933·1935년에 제판된 지역명 빈도

지역명	도폭수			비고
	1932년	1933년	1935년	
開魯	9	33	8	
錦州	25	38	19	
大孤山	5	3	1	
突泉	2	4	14	
旅順	3	4		
林西		2	6	
牡丹江	1	16		
伯都訥	38	21	22	
白城子	2	14	5	
奉天	45	55		
奉化	46	35		
阜新		1		
三姓	13	4	2	
宣化	2		12	
城津	2	4		
承德	2		42	
新京	73	10	2	
安東		1		
延吉		18		
寧古塔		13		
王爺廟		4	1	
遼陽	29	44		
依蘭	12	6	2	
長春	1			
赤峰		1	25	
齊齊哈爾	2		47	

鐵驪			4	
哈爾濱	47	7	21	
海龍城	3	34	7	
海倫	3		58	
懷仁	2	11		
黑山	4	20	9	
지역명 불명	30	56	11	각종 기호 표기
총 도폭수	401	459	318	

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각 해당 연도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제 판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제판된 도폭수와 지명의 빈도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 3개년에 걸쳐 모두 지도가 제판된 곳은 開魯, 錦州, 大孤山, 突泉, 白都訥, 白城子, 新京, 依蘭, 哈爾濱, 海龍城, 黑山이다. 1932년과 1933년에 모두 제판된 지역은 旅順, 奉天, 奉化, 城津, 寧古塔, 遼陽, 懷仁이다. 1932년과 1935년에 모두 제판된 지역은 三姓, 承德 및 海倫이다. 1933년과 1935년에 모두 제판된 지역은 突泉과 王爺廟이고 1933년에만 제판된 지역은 牡丹江, 白頭山, 延吉이다. 또한 1935년에만 제판된 지역은 吉林, 宣化, 赤峰, 齊齊哈爾, 鐵驪이다. 그 외 각종 기호로 표시되어 지역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

1932년에는 봉천, 신경, 哈爾濱, 錦州, 요양 지역의 도폭수가 많은데, 이는 교통 요충지인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도를 제판한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는 여순과 연길지역 및 哈爾濱, 開魯 등지를 포함하여 주로 중만주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많다. 1935년에는 齊齊哈爾, 哈爾濱, 突泉, 開魯 등 주로 북만주에 위치한 도시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1933년에는 백두산, 연길 등지를 제 판하였다는 점이 특기점이다.

이상의 시기에 지도가 많이 제판된 요인은 만주사변 발발 이후 급속하게 북만주로 전선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을 건국하여 확고하게 통치하

고 점령해야 할 점령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지도 수요가 급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3\_ 발행시기 및 축적별 분석

만주 지도의 발행시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년부터 1943년까지 20여 년간 계속되지만 그중에서도 1932년 180매로 12.32%, 1933년 607매로 41.55%, 1935년 319매로 21.83%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지도가 3개년에 걸쳐서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집중적으로 지도가 재판되었던 1932·1933·1935년의 시기와 일치되는데, 이는 지도를 재판한 후에 곧 발행으로 이

〈표 6〉 발행시기별 분류

發行時期	매수	백분율
1922年發行	5	0.34%
1923年發行	17	1.16%
1924年發行	16	1.10%
1932年發行	180	12.32%
1933年發行	607	41.55%
1935年發行	319	21.83%
1936年發行	45	3.08%
1938年發行	29	1.98%
1939年發行	93	6.37%
1940年發行	24	1.64%
1941年發行	36	2.46%
1942年發行	8	0.55%
1943年發行	1	0.07%
지도 잘림	4	0.27%
발행시기 불명	77	5.27%
총 도폭수	1,461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일전쟁 당시부터 임시측량부에 의해 제작된 요동반도나 남만주 지도는 러일전쟁이나 시베리아 출병으로 확대되면서 측량을 하거나 러시아제, 청국제 지도를 노획하여 번각하기도 하였다. 이후 지나주둔군토지조사반에 따른 측량이 활발해졌고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성립한 후에는 육지측량부에서 파견된 요원이 삼각망형성을 위한 測地測量을 하였다. 1932년에는 육지측량부에서 만주로 基點班이 파견되었고, 1933년에는 地形班이 파견되기도 하였다.<sup>42)</sup> 1934년에 편성된 관동군측량대는 육지측량부 파견부대 임무를 이어받아 광대한 만주지역을 측량하지 않고도 1 : 100,000 지형도로 전 지역을 포괄하였고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1 : 50,000이나 1 : 200,000 지도 등을 완성하였다. 또한 관동주지역은 1 : 25,000 지형도와 1 : 100,000 편집도 등을 작성하였다.<sup>43)</sup>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이상의 만주 지도는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지형도와 편찬도 및 특수도 3종류인데, 지형도는 축척에 따라 실측하여 제도하고 제판하여 출판한 것이고, 편찬도는 지형도 및 기타 자료를 기초로 小尺度로 縮圖한 것이며, 특수도는 그 용도에 따라 지형도 및 편찬도 등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집성한 것이다.<sup>44)</sup>

42) 岡田喜雄 編, 1978, 앞의 책, 34쪽

43) 鈴木純子, 1996, 앞의 책, 51쪽

44)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 『陸軍省陸地測量部發行地圖目錄：昭和7-8年9月末日現在』, 陸軍省陸地測量部, 1쪽

〈표 1〉 지도의 종류

분류법	종류	예
용도(내용)	일반도	지형도, 지세도, 총람도
	특수도	해도, 항공도, 지적도, 지질도, 학술용지도, 경제지도, 관광지도 설계도, 보도지도, 교통도, 도시계획도, 통계지도, 토지분류도, 토지이용도, 지형형태도, 천기도, 역사지도, 임업경영도, 임상도, 우정지도
구성	切圖	지형도, 지세도

〈표 7〉 축적별 분류

번호	縮尺	圖幅數	백분율
①	1 : 10,000	6	0.41%
②	1 : 25,000	63	4.31%
③	1 : 50,000	692	47.36%
④	1 : 100,000	539	36.89%
⑤	1 : 200,000	51	3.49%
⑥	1 : 500,000	110	7.53%
	총 도폭수	1461	

이러한 지도를 축적별로 분류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1 : 10,000, ② 1 : 25,000, ③ 1 : 50,000, ④ 1 : 100,000, ⑤ 1 : 200,000, ⑥ 1 : 500,000의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1 : 50,000 지도가 692매로 47.36%를 차지하고, 1 : 100,000 지도가 539매로 36.89%를 차지하여 ③과 ④의 경우가 대다수

	全圖	총람도
	아트라스(지도첩), 시리즈지도, 組지도	
조계법	실측도	지형도, 지적도, 설계도
	편집도	지세도, 총람도, 특수도
축척	대축척도	지형도, 지적도, 설계도, 해도
	중축척도	지형도, 지질도, 해도
	소축척도	지세도, 총람도, 지질도, 해도, 항공도
포함구역의 규모	세계, 반구, 대륙, 지역, 1국, 지방, 1행정단위	
표현법	기호식지도	통상지도, 등치선지도, 지역별분류도 등
	繪圖	조감도, 고지도, 장식지도
	사진지도(포토맵)	
형태	도엽, 꺾지도, 折本, 지도첩	
형식	평면지도, 입체지도(모형지도), 지구의	

출처: 西村磯二·金澤敬, 1979, 『地形測量地圖編集』, 15刷, 森北出版株式會社, 7쪽

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①의 1:10,000 축적 지도는 육지측량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에 한하여 발행한 것으로 지리학적으로 비교적 상세하고 정밀하게 측량한 것이다.<sup>45)</sup>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만주국의 수도였던 新京과 신경지역 근방을 세분화하여 그린 것인데 관동대 측량대가 측량한 것을 육지측량부가 1934년에 집제한 것이다.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의 지리적·인문적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지도가 필요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

②의 1:25,000 축적 지도는 衛戍地나 주요 도시 부근, 국경 및 기타 중요한 지역에 한하여 발행한 것으로 정밀한 측량을 시행하여 척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sup>46)</sup>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哈爾濱, 吉林, 齊齊哈爾, 奉天, 承德, 錦州, 旅順, 普蘭店, 長山列島, 金州 등 총 63매이다. 그 중 요동반도 일대의 지도는 1919년부터 1920년, 1921년에 측량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주 주요 도시는 1935년과 1936년에 측량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의 1:50,000 지도는 제국 전반도와 관계된 것을 측량하고 발행한 것으로<sup>47)</sup> 총 692매로 47.36%를 차지한다.

④의 1:100,000 축적 지도는 1888년에 편집하여 1895년에 완성한 일본 내의 '제국도'가 있었지만 이 축적의 지도가 만주지역에 적용된 것은 1908년이다. 일본은 1908년 '외방측도'에 관한 제 제도를 개정하고 영구계획을 수립하여 특수지방의 局地圖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외방도' 측도에 대해 1:100,000 지도로 제작하는 것을 근본방침으로 삼았고,<sup>48)</sup> 鄭家屯 일대 지역에서 활용된 후 이를 측도의 기준으로 삼았다.<sup>49)</sup> 만주 1:100,000 지도는 동으로 두만강·압록강, 북으로 중소 및 몽골 국경지대까지 제작하였으며 시기적

45)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 앞의 자료, 1쪽

46)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 앞의 자료, 1쪽

47)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 앞의 자료, 1쪽

48) 陸地測量部, 1941, 앞의 자료, 30쪽

49) 김두일, 2007a, 앞의 글, 51쪽

으로는 1904년부터 만주지역을 측량하기 시작하여 1941년까지 계속하였다.<sup>50)</sup>

만주 전역을 망라할 수 있는 1:100,000 축적 지도 제작은 만주 침략을 가속화시키는 기초 작업으로 매우 유용하였다. 군사용으로 사용한 것 외에 철도와 도로 건설, 광물자원 탐사, 농지개척, 도시계획 등 만주 ‘근대화’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100,000 지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 1:100,000 지도이다. ‘외방 1:100,000 지도 도식’에 근거하여 方眼測圖한 측도 원도를 1:100,000 지도 도식에서 分度式圖 즉 다면체 투영식에 근거하여 정식 지형도로 정비한 것이다.<sup>51)</sup> 다른 하나는 약식 1:100,000 지도이다. ‘외방 1:100,000 지도 도식’에 근거하여 측도를 실시한 것으로 方眼式 短形原圖로 略式 가제 1:100,000 지도로 가정리했다가 후에 정식도나 정식지형도 즉 다면체투영에 의한 分度式圖에 개조하여 정비한 것이다. 정식 1:100,000 지도가 완성되면 약식은 폐기처분하였다.<sup>52)</sup>

만주 1:100,000 지도로 제작된 것은 두만강에서 러시아(소련)·중국 국경을 포함한 만주 일대 지역으로 寧古塔, 五常堡, 賓縣, 海倫, 龍門, 齊齊哈爾, 洮南, 博王府, 興隆鎮, 朝陽, 前屯衛 일대를 포함한 봉천성, 길림성 일대 지역이다. 그 구역 외의 1:100,000 지도는 노획한 러시아의 1:84,000 지도를 번역하고 縮寫製版하여 1:100,000 지도로 개조한 것이다. 직접 측량하지 못해 지도가 빠진 부분은 후에 중국이 제작한 1:100,000 지도로 보충하였고 나머지는 파견군 및 기타 방식으로 보충하여 增訂하기도 하였다.<sup>53)</sup>

육지측량부가 구획한 1:100,000 지도의 구역도를 일람하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sup>54)</sup>

50) 高木菊三郎, 1966, 『日本に於ける地圖測量の發達に關する研究』, 風間書房, 102쪽

51) 주로 경위도반이 측정한 경위도 도근점에 의해 정리한 것으로 만주 10만분의 1도와 북중국 10만분의 1도의 일부 경위도식 지도가 이에 속한다.

52) 陸地測量部, 1941, 앞의 자료, 31·44쪽

53) 陸地測量部, 1941, 앞의 자료, 37쪽

54)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 앞의 자료, 부록



⑤의 1 : 200,000과 ⑥의 1 : 500,000의 경우는 주로 다른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한 편찬도인데 이를 위해 육지측량부가 구획한 구역도를 일람하면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이상의 구역도를 보면 육지측량부가 만주를 어떻게 구획하여 지도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육지측량부가 편찬한 지도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sup>55)</sup>

〈표 8〉 육지측량부가 편찬한 지도의 유형

지도 幅員	지형도			편찬도			
	만분의 일	2만5천분의 일	5만분의 일	20만분의 일 제국도	50만분의 일 여지도	백만분의 일 동아여지도	백만분의 일 만국도
경도차(횡)	3분	7분 30초	15분	1도	2도 30분	5도	6도
위도차(중)	2분	5분	10분	40분	1도 40분	2도 30분	4도

일본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도 중 오차노미즈대학 소장 만주 관련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1 : 1,200 지도나 1 : 3,000 또는 1 : 5,000 지도 등을 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 參謀本部, 臨第四九四號第一이라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1 : 5,000 압록강 局地圖 原圖 8매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6)</sup> 이 외에도 육지측량부가 1945년까지 축적별로 지도를 정비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당시 일본 지도 제작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sup>57)</sup>

55) 陸軍省陸地測量部編, 1932~1933, 앞의 자료, 3쪽

56) 「5 千分 1 鴨綠江局地圖送付の件」, 參謀本部-大日記-M38-1-1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7082414000

57)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앞의 책, 475~476쪽

〈표 2〉 육지측량부의 축적별 지도 정비 상황

편찬도	지역
1천2백분 1도	大連市街東部, 老虎灘附近, 傅家屯부근, 石道衛부근, 泡崖屯부근, 大寨屯부근, 前革鎮屯부근, 馬欄河부근, 石廟屯부근, 樂家屯부근
3천분 1도	營口市街圖

## IV. 맺음말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적인 전략 구상과 맞물려 군사와 지리학 결합의 유용성을 파악한 일본은 1869년부터 측량과 지도 제작을 위해 담당부서가 설치되면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점차 이웃 국가의 지리를 정찰하고 조사하여 지도를 편찬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1888년 5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참모본부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자 병요지도 제작을 육군이 전담하였다. 근대 지도 제작을 육군이 전담한 것은 일본의 지도가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군국주의 국가로서의 명치국가의 특색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지도 제작 방법으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일본 측량대가 측량한 경우도 있지만 밀령으로 파견된 일본 측량기술자나 정보 장교 등이 기밀을 훔치는

5천분 1도	海口市부근, 旅順要塞近傍, 南山近傍圖
6천분 1도	北安近傍, 嫩江近傍, 農安附近, 興安近傍, 我家近傍
2만분 1도	淸河城 및 馬郡鄆군방, 奉天군방, 沙河堡군방, 摩天嶺군방, 海城군방, 浪子山군방, 黑溝臺부근, 遼陽군방, 營口군방, 析木城군방, 大石橋 및 蓋平군방, 弟兄山군방, 鳳凰城군방, 九連城군방, 得利寺군방, 普蘭店군방, 金州 및 大連군방, 旅順口要塞군방
2만5천분 1도	奉天西方新民縣부근, 錦州南方連山灣군방, 熱河省赤峰建昌間路線圖, 吉林군방, 哈爾濱군방, 齊齊哈爾군방, 奉天군방, 錦州군방, 承德군방, 牡丹江군방, 海拉爾부근, 大連 및 旅順군방, 金州군방, 黑河군방, 大五家子군방, 瑯瑯군방, 長山列島, 貔子窩 및 普蘭店군방, 新京군방, 延吉군방, ハンダガイ군방, 當壁鏡군방
시가지도	洮南, 鄭家屯, 白因大來, 開魯, 綏東, 錦州, 朝陽, 凌源, 平泉, 承德, 赤峰, 林西, 經棚, 多倫
국경요도 (2만5천분 1도)	綏芬河부근, 黑河부근, 東寧부근, 同江부근, 虎林부근
기타	전역에 걸쳐 5만분 1도(지의 전역), 10만분 1도, 20만분 1도, 50만분 1도, 백만분 1도 등이 있다.

방법으로 작성된 것도 있으며 다른 나라의 측량기관이 작성한 일반도를 복제한 것도 있다. 작성된 지도는 대부분 ‘軍事機密’, ‘軍事極秘’, ‘軍事秘密’, ‘極秘’, ‘秘’ 등급으로 나누어 엄격하게 취급 관리하였다.<sup>58)</sup>

이러한 군사 비밀지도는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소각을 명령하였으나 지도의 가치를 파악한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자원과학연구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후에 일본 내 일부 대학에 매각되어 현재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한 오차노미즈대학이 소장한 지도는 일본 내 대학 소장품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1만 3,000여 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목록 작성 이외에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본고는 그중 방대한 만주 관련 지도 총 1,461매를 활용하여 지역, 측량기관, 축적, 측량시기와 발행시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전 만주를 포괄하고 있으며 시기별로는 1909년 측정한 것부터 1940년대 측량 및 수정한 지도까지 망라되어 있다. 측량기관으로 명시된 것은 정보확인이 불가능한 지도를 제외하면 10가지 경우<sup>59)</sup>가 있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임시측도부가 제작한 지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밀리에 제작한 것이다. 임시측도부 해체 이후는 지나주둔 군사령부가 지도 제작을 담당하였고, 참모본부가 명기된 지도는 특별히 군사적 목적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동청 소유로 명기된 지도는 관동주의 군사적 보루 시설 등을 자세히 다룬 것이고,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국측량대가 있었는데도 대소련 관계에서 중

58) 「終戰前後の陸地測量部」,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 no. 3, 2005, 13쪽. 군사 요새 지대를 의미하는 ‘군사기밀’ 표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순으로 중요도를 표시하였다고 설명한 富澤章은 육지측량부에서 지도 제도와 제판 업무에 종사하다가 전후에는 지리조사소와 국토지리원에 근무하였다.

59) 일본이 제작한 만주 지도에 명기되어 있는 10가지 경우의 측량기관 명칭 ① 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② 陸地測量部, ③ 陸地測量部/參謀本部, ④ 臨時測圖部/陸地測量部/參謀本部, ⑤ 臨時測圖部(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⑥ 저작권 소유자 關東廳, 인쇄 겸 발행 陸地測量部, ⑦ 支那駐屯軍司令部, ⑧ 支那駐屯軍司令部/陸地測量部/參謀本部, ⑨ 參謀本部, ⑩ 關東軍測量隊 측량(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발행)

요한 군사지도는 일본의 관동군측량대가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만주국의 위상과 일본의 간접적인 식민통치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만주 지도의 70% 이상이 1932·1933·1935년에 제판되고 발행된 것으로 보아 만주국 성립 이후의 통치 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통치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과 지도 제작 및 편찬이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축적별로는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00,000, 1:500,000의 지도가 있는데, 80% 이상의 지도가 1:50,000과 1:100,000이라는 점에서 지역 전체의 핵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지도를 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오차노미즈대학에 소장된 측량도, 편찬도, 약도, 가제지도, 공중촬영지도 등은 일본의 지도제작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학기술사 및 제국주의사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자료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군사 비밀지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도 제작을 통해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가 지닌 당시의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도를 통해 본 일본 제국주의사의 실상을 파악한다면 지도제작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제국사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차 사료〉

「5千分1鴨綠江局地圖送付の件」, 參謀本部-大日記-M38-1-1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7082414000

『隣邦兵備略』, 1882年 8月 第2版, 陸軍文庫

大本營陸軍參謀部總務部長 神田正種, 「關東軍に於ける兵要地圖の調製並修正に關する細部の件」, 陸軍省-陸滿密大日記-S15-5-7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3573700

內閣, 「御署名原本・明治十九年・勅令無號三月十八日・參謀本部條例」, 明治19年3月18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09500. 第8條, 第11條, 第23條

內閣, 「御署名原本・明治二十一年・勅令第二十五號・陸軍參謀本部條例, 陸軍參謀職制, 陸地測量部條例」, 明治21年5月12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021500

內閣總理大臣伯爵黑田清隆/陸軍大臣伯爵大山巖, 「5月12日陸軍參謀本部參謀職制陸地測量部條例」, 第1條, 第2條, 第6條, 第15條,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0060052200

北支那方面軍司令部・參謀本部, 『外邦測量沿革史: 草稿初編前篇』, 日本防衛省防衛研究所圖書館 所藏

小林茂, 渡邊理繪 解説, 2011, 『研究蒐録 地圖』第1冊(1943年 1月-7月), 『15年戰爭極秘資料集』補卷 38, 不二出版

陸軍省陸地測量部 編, 1932~1933年, 『陸軍省陸地測量部發行地圖目錄: 昭和7-8年9月末日現在』, 陸軍省陸地測量部

陸軍省-第6局-M7-1-42, 「明治7年 1月, 2月 參謀局と改稱 第6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7073311000

陸地測量部, 『外邦兵要地圖整備誌』, 1941年 12月, 藤原彰編解説, 15年戰爭極秘資料集30集, 1992年 復刻, 東京: 不二出版

朝鮮軍參謀長 兒玉友雄, 「兵要地誌資料送付の件」, 陸軍省-密大日記-S8-5-9,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4006500

參謀總長, 「陸軍秘密書類燒却ニ關スル件(軍事機密)」, 1945년 8月 15日(大本營陸軍部 參密第2號 626)

總務課長, 「情勢ノ轉變ニ伴フ作戰用地圖處理要領ノ件通牒(軍事機密), 1945년 8월 19日(大本營陸軍部 參機第11號第3)

渡邊正氏所藏資料集編輯委員會 編, 2005, 『終戰戰後の參謀本部と陸地測量部: 渡邊正氏所藏資料集』, 大阪大學文學研究科人文地理學教室

#### <연구서>

岡田喜雄 編, 1978, 『地圖をつくる: 陸軍測量隊秘話』, 東京: 新人物往來社

高木菊三郎, 1966, 『日本に於ける地圖測量の發達に關する研究』, 風間書房

今尾恵介, 2011, 『地圖で讀む戰爭の時代』, 東京: 白水社

西村稔二·金澤敬, 1979, 『地形測量地圖編集』, 15刷, 森北出版株式會社

小林茂, 2005, 『近代日本の地圖作製とアジア太平洋地域: 「外邦圖」へのアプローチ』, 大阪大學出版會

小林茂, 2011, 『外邦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公新書2119, 中央公論社

鈴木純子, 1996, 『地圖資料概説: 國立國會圖書館所藏資料を中心に』, 紀伊國屋書店

牛越國昭, 2009, 『對外軍用秘密地圖のための潛入盜測: 外邦測量·村上手帳の研究 第1編』, 同時代社

測量地圖百年史編輯委員會, 1970, 『測量地圖百年史』, 日本測量協會

#### <연구논문>

김두일, 2007a, 「일제에 의해 제작된 1:10만 축척 만주지도의 현황과 지도 내용」, 『만주연구』 6

김두일, 2007b, 「일제에 의해 제작된 만주지도의 현황과 연구에 대한 소고」, 『원광군사논단』 3

박선영, 2011, 「일본의 군사 비밀 지도와 만주: 만몽지역 공중측량 지도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64

박선영, 2012, 「관동군사령부 만주 병요지도의 의미: 미 의회 도서관 소장 20만분의 1 병요지도의 내력과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久武哲也·今里悟之, 2004, 「日本および海外諸機關における外邦圖の系譜關係」,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 66

宮澤仁·高槻幸枝·大浦瑞代·田宮兵衛·水野勲, 2007, 「お茶の水女子大學所藏外

- 邦圖コレクションの全體像』『お茶の水地理』47
- 宮澤仁・照内弘通・山本健太・關根良平・小林茂, 村山良之, 2008, 「外邦圖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構築と公開・運用上の諸問題」, 『地圖』46-3
- 渡邊信孝, 1998, 「東北大學で所藏している外邦圖とそのデータベースの作成」, 『季刊地理學』50-2
- 渡邊信孝, 1999, 「東北大學理學部所藏の外邦圖とその活用のためのデータベース」, 『季刊地理學』51-2
- 渡邊信孝・山村亞希・大浦瑞代・高槻幸枝, 2004, 「東北大學・京都大學・お茶の水女子大學における外邦圖所藏狀況およびその目録について」,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66
- 無記名, 2004, 「外邦圖が語ること - 舊日本軍の極秘地圖が保存されていた!」, 『イグザミナ』
- 山本健太, 2010, 「外邦圖にみる魔都上海のいまむかし」,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
- 三井嘉都夫, 2004, 「私と外邦圖」,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no. 2
- 西村三紀郎, 2005, 「岐阜縣圖書館世界分布圖センターの外邦圖コレクションとそのレファレンスサービス(特集 外邦圖)」, 『地圖情報』25-3
- 田村俊和, 2000, 「東北大學理學部自然史標本館所藏の外邦圖(特集 大學所藏の地圖)」, 『地圖情報』20-3
- 田村俊和, 2004, 「外邦圖研究の廣がり」, 『日本地理學會發表要旨集』66
- 田村俊和・關根良平, 2008, 「外邦圖の成り立ちとゆくえ, そしてその生かし方」, 『季刊地理學』60-3
- 中野尊正, 2004, 「外邦圖と私とのかかわり」,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no. 2
- 淺井辰郎, 1999, 「琉球諸島の地形圖はどんな経緯でお茶の水女子大學に入ったか」, 『大正・昭和琉球諸島地形圖集成解題』, 柏書房
- 清水靖夫, 2003, 「外邦圖の嚆矢」, 『外邦圖研究ニュースレター』no. 1
- 村山良之・宮澤仁・渡邊信孝, 2005, 「外邦圖目録の作成からデジタルアーカイブ構築まで(特集 外邦圖)」, 『地圖情報』25-3

<http://www.let.osaka-u.ac.jp/geography/gaihouzu/newsletter1/>

Treiber, John Karl, 2004, "Mapping Manchuria: The Japanese production of

knowledge in Manchuria–Manchukuo to 1945,” Ph. D. thesi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 Japanese Empire Land Survey Maps on Manchuria: Maps of Military Secrets Held at Ochanomizu University

Park Sunyoung

Despite the fact that orders were given in Japan in 1945 to destroy all “important secret maps,” about 13,000 Japanese secret maps have been collected by Ochanomizu University. This is the largest such collection among universities in Japan. Because of their secret characteristics and quantity, these maps were not opened freely to scholars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2007, new map lists of the Ochanomizu University collection were issued, but they lacked detailed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larger picture of Japanese map production from the Meiji Restoration through 1945, this paper analyzes several subjects, including the map survey organization, map scales, surveying, and publishing periods, through 1,461 Manchuria-related secret military maps located at Ochanomizu University.

These maps, covering all of Manchuria, were surveyed and modified from 1909 into the 1940s. The Map Survey organization comprised 10 different issuers: ① the Japanese Empire Land Survey (JELS); ② the Land Survey (LS); ③ the Land Survey/General Staff Office (GSO); ④ the Temporary Land Survey (TLS)/General Staff Office; ⑤ the TLS (JELS); ⑥ the Guandong Agency (GA) owned but printed and published by the Land Survey; ⑦ the China Headquarters of Occupation Forces (CHOF); ⑧ the China Headquarters of Occupation Forces/Land Survey/

General Staff Office; ⑨ the General Staff Office; and ⑩ the Guangdong Army Survey (GAS) with the Japanese Empire Land Survey.

A deep analysis of these organizations reveals several important facts. First, maps were made by the Land Survey secretly and strategically in order to engage in warfare in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and in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Second, the China Headquarters of Occupation Forces succeeded the Land Survey after its dissolution. Third, the maps made by the General Staff Office specifically stressed military intentions. Fourth, maps owned by the Guangdong Army especially depicted detailed military facilities in Guangdong province. Even though Manzhouguo had its own Manzhouguo Survey, the Guangdong Army Survey depicted important Manchurian military maps in Manchuria especially in preparation for another war with the Soviet Union. Fifth, about 93% of the maps were surveyed and published by the Japanese Empire Land Survey, which indicates that the Japanese Empire Land Survey essentially controlled all Japanese map-making.

Map scales existed in diversities of 1 : 10,000, 1 : 25,000, 1 : 50,000, 1 : 100,000, 1 : 200,000, and 1 : 500,000. However, over 80% of the maps were in the scale of 1 : 50,000 and 1 : 100,000. This means that maps of most sizes in Manchuria contained societal and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military map as a standard. Over 70% of the maps were printed and published in 1932, 1933, and 1935, meaning that Japan needed certain sizes of maps in order to rule Manchuria. Over time, the Japanese gradually gained control of Manzhouguo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fter the state was established in 1932.

This study reveals that Japanese map production was deeply

connected with imperialist expansion.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Manzhouguo as a puppet state or indirect colony is highlighted.

#### Keywords

Japanese Empire Land Survey, Land Survey, Manchuria, Secret Map, Ochanomizu University, Guandong Army, China Headquarters of the Occupation Forces, General Staff Office, Temporary Land Survey, Map Scal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몽골과 중국의 다리강가 領有權 분쟁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본고는 1911년 몽골 독립선언 이후 다리강가[達里岡愛]<sup>1)</sup>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몽골과 중국의 領有權 분쟁과 그 始末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립선언 직후 몽골 신정부(복드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는 할하(현재의 몽골국으로 속칭 외몽골) 4개 아이막에 한정되고, 호브드[科布多] 변경 지대와 내몽골 등 다른 몽골족 거주지는 여전히 淸朝 지배하에 있었다. 따라서 1912년 2월 청조가 공식적으로 무너지면서 할하 4개 아이막을 제외한 과거 청 지배하의 몽골인 거주지는 그 지위가 애매한 상태로 남았다.

前稿<sup>2)</sup>에서 지적했듯이 1911년 독립 주도 세력은 독립의 구상 단계부터 몽

※ 투고일: 2012년 5월 18일, 심사일: 2012년 8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2년 8월 24일

1) 중국 측 자료에는 다리강가를 ‘達里岡愛’, ‘達里岡崖’, ‘達里岡垓’, ‘達里甘加’, ‘達里甘嘎’ 등 여러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2)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골족 거주지 전체의 통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독립선언 후 복드 정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몽골을 비롯해 바르가[巴爾虎], 후호노르[青海], 알라사[阿拉善], 다리강가 등 몽골인 거주지 전역을 통합하고, 청조(후에 중화민국)와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승인받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복드 정부는 1911년 8월 말까지 올리아스타이[烏里雅蘇臺]와 호브드 등 서몽골 일대를 통합하고, 내몽골 등 기타 몽골족 거주지에 書翰을 보내어 복드 정부에 귀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북경 정부도 청조 版圖의 계승이라는 목표 아래 몽골의 독립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유와 우대와 무력을 통하여 몽골인 거주지에 대한 접수를 시도하였다. 이런 상황은 1912년 3월 袁世凱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그는 대총통 취임 직후 복드 정부와의 교섭을 통하여 독립 취소와 民國에의 통합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우선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분리 독립을 막는 데 눈을 돌렸다.

여기에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에 개입하면서 몽골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과 1910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는 외몽골과 북만주, 일본은 한반도와 남만주를 세력 범위로 하기로 합의하였다.<sup>3)</sup> 1911년 이후 양국은 내몽골에 관심을 확대하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1912년 7월 8일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에 따라 내몽골을 북경 經度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고 동쪽은 일본, 서쪽은 러시아의 세력 범위로 설정하였다.<sup>4)</sup> 이처럼 몽골 문제는 복드 정부와 북경 정부 외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세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몽골의 王公들은 복드 정부와 북경 정부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그중 일부는 외세에 기대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명분으로 보면 복드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만, 중국 內地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경 정부에 등을 돌리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북

3) E. D. Grimm, 1927, *Sbornik dogovotov i drugikh dokumenrov, po istorii mejdunarodnykh otnoshenii na dal'nem vostoce(1842-1925)*, Moskva: Izdanie instituta vostokovedeniia, pp. 168~170, 176~177

4) E. D. Grimm, 1927, 위의 책, p. 180

드 정부의 귀부 요청에 대한 내몽골 왕공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처음부터 복드 정부의 민족 통합에 적극 동참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사태 추이를 점검하는 부류, 복드 정부의 귀부 요청을 거부한 부류, 복드 정부와 북경 정부 사이에서 표류하는 부류, 혹은 외세에 의탁하여 활로를 모색하는 부류 등 여러 형태를 보였다. 독립 직후 이들은 독립을 환영하면서도 대체로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편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그 전형적 사례가 내외몽골 접경에 있는 다리강가다. 다리강가는 청 지배기 최대 皇室 목장이 있었던 곳이다. 오늘날 몽골국 동남부 수흐바타르 아이막(Sükhbaatar aimag) 다리강가 솜, 웡곤 솜, 나랑 솜, 바양텔게르 솜, 아사트 솜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은 내외몽골 사이에 있는 고비 지대 중 사막의 폭이 가장 좁고 목초와 물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상업과 군사적 요충지로 중시되었다.<sup>6)</sup> 청조는 이곳을 특별히 중시하여 張家口에 주재하는 차하르[察哈爾] 都統을 통하여 목장을 관리하였다. 이처럼 다리강가 목장은 지리적으로 할하에 위치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차하르 都統 지배하에 있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청조의 멸망과 복드 정부 수립 후 다리강가는 그 지위와 소속이 애매한 상태로 남았다. 아직 복드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고 북경 정부 역시 여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일부는 복드 정부에 귀부하고 일부는 張家口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복드 정부와 북경 정부 사이에 다리강가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1962년에야 종결될 만큼 다리강가는 근현대 몽·중 간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곳이다.

한 지역을 두고 몽골과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지배권을 주장하고 이를 해

5) 당시 내몽골 상황과 왕공들의 동향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이평래, 2009, 「1912-1913년 복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 시도와 좌절」, 『중앙아시아연구』 14, 57~63쪽; 이평래, 2011,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대동문화연구』 75집 참고.

6) V. A. Kazakevich, 1930, *Poezdka v Darigangu*, Akademi NAUK SSSR: Leningrad; 유원수 역주, 1994, 「잠차라노의 다리강가(Dariyan-a)」, 『한몽공동학술연구』 3, 299~300쪽

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은 다리강가 목장의 독특한 지배 구조 외에도, 몽골과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 및 양측의 조정자로서 러시아(후에 소련)의 역할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다리강가의 歸屬 분쟁은 清代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몽·중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리강가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1930년대 러시아와 몽골 학자가 여행기와 소개서 형식의 글을 쓰고,<sup>7)</sup> 1985년 臺灣 학자 李毓澍가 한 강연<sup>8)</sup>에서 이를 중국의 중요한 邊境 문제로 인식하도록 촉구한 이후 이에 관한 논문은 단 2편에 불과하다.<sup>9)</sup> 두 연구 또한 북드 정부의 다리강가 점령 시기 획정에 관한 문제나 다리강가의 略史 형식의 글이다. 필자도 오래전 20세기 초기 다리강가 지역의 동향에 관한 간략한 글을 발표했지만,<sup>10)</sup> 해당 시기 다리강가의 동향에 관한 개설적 언급에 그치고 영유권 등 본고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장기간 지속된 몽·중 간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리강가 문제의 시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사실 다리강가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고 1911년 이후 어떤 면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몽골 점수 시도와 이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근현대 몽·중 간 특수관계의 성격을 이해하고, 역대 중국 정부의 영토 확장 의지와 그 사례를 탐구하며, 나아가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몽골인들의 ‘중국 위협론’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7) 유원수 역주, 1994, 위의 글

8) 李毓澍, 1990, 「論內外蒙分界問題」, 『蒙事論叢』, 臺北: 里仁書局

9) L. Jamsran, 1994, *Dar'gangyn süreg khoshuu*, UB: Erdem; 周學軍, 2000, 「達里岡愛牧場被外蒙古占領時間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0-4

10) 이평래, 1994, 「민족해방운동기 다리강가 지역의 동향」, 『한몽공동학술연구』 3

## II. 다리강가 목장의 성립

다리강가 목장이 정확히 언제 설립되었는가를 알려 주는 자료는 없다. 그 때문 인지 기왕의 연구자들도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다.

다리강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쓴 러시아인 카자케비치는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이하 表傳이라 약칭)과 『蒙古遊牧記』 등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목장의 지배 구조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목장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부랴트 몽골인 체벤 잠차라노(Tseven Jamtsarano)는 淸軍이 오늘날 몽골국 테렐지 부근의 중 모드에서 중가르의 갈단(Galdan) 군대를 분쇄하고 노획한 수많은 양, 말, 낙타를 모아 皇立牧場을 설립했다<sup>11)</sup>고 하였다. 갈단과 청군의 중 모드 전투가 1696년 여름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강가 목장의 성립은 그 후라는 말이 된다. 이와 달리 일부 중국 연구자들은 할하가 공식적으로 청조에 복속되는 돌론 노르[多倫諾爾] 會盟(강희 30년, 1691)을 전후하여 다리강가에 황실 목장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돌론 노르 회맹으로 할하가 청조에 복속되었는데 이 무렵 세첸 한 아미막(Setsen khan aimag)과 투시예트 한 아이막(Tüsheet khan aimag) 왕공들이 淸廷에 다리강가를 헌상하면서 황실 목장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런가 하면 몽골 학자 잠스량은 1697년 청조가 중가르戰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다리강가에 軍馬場을 설립했으며, 중 모드 전투에서 노획한 가축과 할하 왕공들이 청 황제에게 헌상한 가축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명실상부한 황실 목장이 되었다고 하였다.<sup>13)</sup>

이상의 설명은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리강가 목장의 시원을 갈단의 할하 침공(1688)과 할하 왕공들의 청조에의 귀부(1691) 및 청군의 중가르戰

11) 유원수 역주, 1994, 앞의 글, 301쪽

12) 이에 대해서는 周學軍, 2000, 앞의 글, 102쪽의 주) 3 참고.

13)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6~7

(1696)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목장의 성립 연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중 어느 하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淸史稿』 馬政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天聰時 차하르[察哈爾]를 정복하고 그 땅이 목축에 적합하여 말을 번식케 하였다. 順治 초기 大庫口 밖 種馬廠을 설립하고 兵部에 예속시켰다. 康熙 九年 牧廠을 개혁하여 太僕寺에 소속시키고 左右翼 二廠으로 나눠 모두 口外에 두었다. 이때 大凌河에 牧廠 하나를 설립하고 邊牆에 牧廠 두 개를 설립했는데, 上都다브슨노르[商都達布遜諾爾]와 다리강가[達里岡愛]이다. (이들을) 上駟院에 예속시켰다.<sup>14)</sup>(괄호 안 필자)

짧지만 청대 초기 관방 목장에 관한 개요로서 손색이 없다. 이에 따르면 국초에 병부에 속한 大庫口 밖 種馬場이 있었고, 강희 9년(1670)에 이를 개혁하여 太僕寺에 소속시키고 좌우의 목장으로 나눴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차하르 좌우의 목장이다. 이와 별개로 대능하, 상도다브슨노르, 다리강가 목장을 설립하여 상사원에 속하게 했다<sup>15)</sup>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강희 9년, 즉 1670년에 다리강가 목장을 비롯한 상사원 소속 세 개의 목장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도 강희 9년에는 할하 왕공들이 청조

- 14) 『淸史稿』 卷一百四十一 志一百十六 兵十二 馬政(4171쪽), 天聰時, 征服察哈爾, 其地宜牧, 馬蕃息. 順治初, 大庫口外設種馬廠, 隸兵部. 康熙九年, 改牧廠屬太僕寺, 分左翼右翼二廠, 均在口外. 是時, 大凌河設牧廠一, 邊牆設廠二, 曰商都達布遜諾爾, 曰達里岡愛, 隸上駟院.
- 15) 청 지배 시기 몽골 초원의 관방 목장은 태복시 소속과 내무부 소속 두 가지가 있었다. 차하르 좌우의 목장(또는 태복시 좌우의 목장)은 태복시에 속하였고, 내무부 예하에는 상사원과 慶豐司에 속한 목장이 있었다. 청대 몽골 초원의 관방 목장에 대해서는 袁森坡, 1991, 『康雍乾經營與開發北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41~450쪽과 烏云畢力格·成崇德·張永江, 2002, 『蒙古族通史』 第4卷,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155~159쪽 참고.

의 요청에 응하여 質子를 보내고 매년 九白之貢을 바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할하 땅인 다리강가를 청조에 헌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강희 9년 성립 설은 잠시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상기 연구자들의 논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활용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表傳』의 관련 기록이다. 본서의 列傳 중 할하 투시예트 한 아이막의 체렌자브[Tserenjäv, 車稜扎布]라는 왕공의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 다리강가 목장에 관한 기록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갈단의 할하 침공 때(1688) 러시아 변경으로 피신했다가 할하가 청 지배하에 들어간(1691) 후 1693년 屬民 600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청 황제에게 바양-올란[巴顏烏蘭]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듬해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어 1695년에 그를 오농[俄農] 강 유역으로 옮겨 살게 했다고 한다. 그 후 강희제가 갈단을 추격하여 할하에 親征했을 때(1696) 체렌자브는 황제를 알현하고 자신도 갈단戰에 동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강희제는 다음과 같이 諭示하였다.

그대들은 계속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느라 곤고함이 극에 달했소. 지금 다리강가는 짐의 군대를 위한 牧場地이니 그대는 屬衆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 安居함이 可할 것이오. 또한 牧務를 관리하시오. (나를 따라) 從軍할 필요는 없소.<sup>16)</sup>(괄호 안 필자)

이 유시가 내려진 해가 1696년이기 때문에 다리강가 목장은 적어도 그 전에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기 인용문이 옳다면 잠스랑의 추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잠차라노의 설도 문제가 있다. 그런대로 수용 가능한 것이 목장 설립을 강희 30년 전후일 것으로 추정한 중국 연구자들의 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688년 갈단의 제1차 할하 침공 후 그와 청조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단의 침공을 받은 할하 왕공들은 고비를 넘어 내몽골

16)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卷52 列傳 第36 扎薩克一等臺吉 車稜扎布列傳

수니드기[蘇尼特旗]로 피신하여 청조에 도움을 요청한다. 갈단은 청조에 그들의 인도를 요구하는데 청조가 거절하자 재차(1690) 할하를 침공하고 내몽골까지 진격하지만 올란보동[烏蘭布通]에서 청군의 반격을 받고 할하로 퇴각한 후 호브드의 자신의 본격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듬해(1691) 수니드旗에서 멀지 않은 돌론노르에서 할하 왕공들과 청 황제는 회맹을 갖고 공식적으로 청조에 복속한다. 당시 갈단은 서몽골 호브드 부근에 있었고, 돌론노르 및 수니드旗와 가까운 다리강가 등 동부지역은 그의 관할 범위 밖에 있었다. 갈단이 다시 동부에 나타나는 것은 1695년이고 상기한 대로 이듬해 청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다. 따라서 1690년 올란보동戰에서 1695년까지 오늘날 몽골국 중동부 지역은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었던 셈이고, 이런 상황에서 청조가 다리강가에 목마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연구자들의 추정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리강가가 청조의 牧馬場이 된 것은 물이 많고 목초가 좋다는 자연적 조건도 고려되었겠지만, 이곳이 고비 지대를 넘을 때 사막의 폭이 가장 좁은 말하자면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明의 永樂帝와 청의 강희제가 몽골을 親征할 때도 이곳을 통과했으며, 1913년 몽골 신정부군이 내몽골을 침공할 때도 다리강가를 지나갔다.<sup>17)</sup>

일단 다리강가에 목장이 설립된 후에는 중 모드 전투 후 노획한 갈단의 가축은 물론, 할하 왕공들이 현상한 가축도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그 후 언젠가 다리강가는 馬群뿐 아니라 駱駝群과 羊群까지 두루 갖춘 목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대 馬政 정황으로 보아 목장 설립과 동시에 馬群과 駱駝群이 있었던 듯하지만,<sup>18)</sup> 羊群의 경우 후대에 추가된 것이 분명하나 자료상으로도 置年無攷(考)<sup>19)</sup>라 하여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렇

17) 유원수 역주, 1994, 앞의 글, 299~300쪽

18) 청대 몽골의 관방 목장에는 馬駝와 牛羊 목장이 있었다. 다리강가는 “康熙年間又於喀爾喀達里岡愛 設立駱駝馬駝群放牧”[『口北三廳志』卷之六 考牧志(228쪽)]이라 하듯이 馬駝 목장이 함께 설립된 듯하다.

19) 『蒙古遊牧記』卷四 蘇尼特部左翼旗(202쪽); 『口北三廳志』卷之六 考牧志 達里

게 하여 17세기 말~18세기 초에 다리강가 지역은 馬群, 駱駝群, 羊群을 두루 갖춘 목장으로 변모하는데<sup>20)</sup> 이를 흔히 다리강가 五翼 목장이라 한다. 5翼은 右馬牧者, 左馬牧者, 右駱駝牧者, 左駱駝牧者, 羊牧者를 말한다. 牧者의 책임자를 翼長이라 하고 각 牧者는 다시 여러 개의 牧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馬群과 駱駝群 전체의 수장, 즉 總管<sup>21)</sup>이 馬群과 駱駝群을 총괄하였다. 馬群과 駱駝群 總管은 다시 상도다브슨노르 목장의 總管<sup>22)</sup>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들은 내무부 상사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반면에 羊群은 차흐르 목장 總管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들은 내무부 경풍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다리강가는 청조의 황실 목장이 된 이후 내외몽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구역이 되었다. 특별구역인 만큼 지배 구조 역시 특이하였다. 즉, 지리적으로 할하에 위치하지만 행정 편제상 청 황제의 직속 지배 구역인 차하르 8旗<sup>23)</sup> 都統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 후술하듯이 1911년 독립 후 이곳의 귀속을 놓고 몽·중 간에 분쟁이 벌어진 것도 다리강가의 이런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또한 처음 이곳에 목장이 설립될 때 일부이지만 내몽골 땅도 목장지로 편입되었고,<sup>24)</sup> 차하르 등 각지의 사람들이 관리자 또는 牧夫로 다

岡亥羊群牧廠(236쪽)

- 20) L. Jamsran, 1994, 앞의 책, p. 7
- 21) 『蒙古遊牧記』에 따르면 '總司牧'이다.
- 22) 상도 목장의 총관은 통상 張家口에 주재하는 차하르 都統이 겸임하였다.
- 23) 청 지배 이전 몽골 諸部의 宗主인 차하르부와 알탄 칸의 자손인 투메드부는 청 황제 직속 지배하에 두었다. 몽골족의 단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청조는 1673년 三藩의 亂 때 차하르 親王 부르니가 청조에 반기를 든 사건을 계기로 차하르부를 만주식 8旗로 개편하고 遼河 상류에서 張家口 북쪽으로 이주시켜 통제를 강화하였다.
- 24) 후술하듯이 삼국회담 시 몽골 대표들은 할하의 세첸 한 아이막과 투시예트 한 아이막의 땅을 떼어내 다리강가 목장을 설립했음을 근거로 몽골 귀속을 주장한다. 이는 “康熙年間 又於喀爾喀達里岡愛 設立騾馬駱駝群放牧”[『口北三廳志』 卷之六 考牧志(228쪽)]이라는 기록을 보아도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삼국회담 시 몽골 대표들이 본국 총리부에 보낸 서한에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물어본즉 원래 할하의 6개 旗와 (내몽골) 실링골맹의 4개 旗의 땅을 떼어내어 당해 목장을 설립하였다”(O. Batsaikhan, 1999, *Khyatad, Oros, Mongol gurban ulsyn 1915 ony Khiagtyn geree*, UB: Mongol ulsyn ündesni arkhiyvyn gazar, Shinjilekh ukhaany akademi tüükhii khüreele, p. 224)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체벤

리강가에 이주해 온 결과 인구 구성이 복잡해진 점 역시 귀속 분쟁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1911년 독립선언 후 다리강가의 동향

앞서 언급했듯이 1911년 독립선언 후 할하 왕공들은 곧바로 민족 통합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과정으로 내몽골 6盟, 후호 호트[呼和浩特]의 투메드[土默特], 黑龍江의 울드[額魯特], 바르가, 다리강가, 알라샤 등 몽골족 거주지에 서신을 보내 독립을 알리고 역사적 大業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sup>25)</sup> 특히 같은 해 12월 5일에는 할하와 접경하는 실링골맹[錫林郭勒盟], 울란차브맹[烏蘭察布盟], 이흐 조맹[伊克昭盟], 알라샤, 다리강가, 바르가에 지역 방위를 튼튼히 할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다.<sup>26)</sup>

이에 대하여 이듬해 초부터 각지의 몽골 왕공들은 복드 정부에 귀부를 청

---

잠차라노가 당해 목장 설립 시 할하의 두 아이막과 내몽골 실링골맹 아브가旗와 수니드旗 일부도 포함되었다(유원수 역주, 1994, 앞의 글, 302쪽)고 한 것도 이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잠차라노는 삼국회담 시 몽·러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 25) L. Dendev, 2006, *Mongolyn tovch tūikh*, Mongol bichgees khörvüülj, orshil bichij, tailbar nersiin khelkhee khiisen Doktor S. Chuluun, UB: Mongol ulsyn ikh surguul', pp. 86~87; N. Magsarjav, 1994, *Mongol ulsyn shine tūikh*, Mongoloos kiril bichigt bulgasan O. Batsaikhan, Z. Lonjid, UB: Mongol ulsyn shinjlekh ukhaany akademi, Tüükhiin khüreelel/Mongol ulsyn zasgiin gazryn arkhiv, p. 11
- 26) Sudlan khevlütölsen akad, B. Shirendev, Erkhelsen akad, Sh. Natsagdorj, 1972, *V. Kotvichiin khuviin arkhivaas oldson mongolyn tūikhend khölbogdokh zarim bichig*, UB; Shinjlekh ukhaany akademiin khevel, pp. 103~106; Urgunge Onon & Derrick Pritchatt, 1989,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 New York · København · Köln: E. J. Brill, pp. 26~27

원해 왔다. 다리강가에서는 1912년 3월 3일 馬群駱駝群 總管 소드놈도브동(Sodnomdovdon)과 각 牧群의 翼長들이 맨 먼저 복드 정부에 귀부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sup>27)</sup> 그에 따르면 복드 귀부 권유를 받고 馬群駱駝群 官民이 모여 귀부를 결정했으며, 이 사실을 차하르 都統에게도 보고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7일에는 다리강가의 羊群 翼長 막사르자브(Magsarjav)가 역시 복드 정부에 귀부를 알려 왔다. 막사르자브는 귀부 청원서에서 그해 봄(음력 정월) 직속상관인 張家口의 羊群 總管을 만나 귀부를 권유했지만 그곳에서 주저하자 다리강가로 돌아와 多衆의 뜻을 모아 귀부했음을 밝히고 있다.<sup>28)</sup> 두 사람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그해 여름 직접 수도인 후례[庫倫]로 갔다. 복드 정부는 소드놈도브동을 鎮國公에 封하고, 막사르자브를 복드 정부 총리부 事官에 임명하고 羊群 翼長을 겸임하게 하였다.<sup>29)</sup>

이처럼 다리강가 목장은 비교적 일찍이 복드 정부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는데 북경 정부도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 이는 소드놈도브동과 막사르자브의 귀부 요청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를 테면 소드놈도브동이 복드 정부에 귀부를 알리는 서신을 보내기 전 차하르 都統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都統은 그에게 공문을 보내 “屬民 僥倖담바가 부질없이 자신을 게겐 칸(gegeen khaan, ‘빛나는 또는 성스러운 칸’)이라 추켜세우는 것을 보면 (그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몸을 돌볼 줄 모르는 듯하다. 예하 牧群은 본 衙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의 술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sup>30)</sup>고 한다.

이와 함께 북경 정부는 후례에 전문을 보내(1912. 7) 몽골인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다리강가를 비롯한 몽골 여러 旗에 있는 황제의 낙타群에 대한 물적 배상을 요청했으며,<sup>31)</sup> 심지어 대군을 파견하여 다리강가를 평정하려 했

27)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48~49의 부록 자료-4

28)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49~50의 부록 자료-5

29) N. Magsarjav, 1994, 앞의 책, p. 34

30)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48~49의 부록 자료-4

31) B. Shirendev, 1969, *Mongol ardyn khuv'sgalyn tüükh*, UB: Ulsyn khevlelin

다고 한다. 이 계획은 형식상 조도브자브(Jodovjav)를 비롯한 차하르 목장 관리들의 건의로 취소되지만 차하르 都統을 통한 다리강가 지배권 탈환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 일환으로 차하르 都統은 다리강가 목장의 總管과 翼長의 직인을 새로 만들어 馬群駱駝群은 상도 목장의 馬群 翼長 바야르고초(Bayargochoo)에게, 羊群은 차하르 牛群羊群 總管 조도브자브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였다.<sup>32)</sup> 같은 해 가을 조도브자브는 다리강가를 탈환하기 위하여 차하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급파된 복드 정부군의 반격을 받고 패주하던 중(1912. 10. 5) 총상을 입고 그해 말 부하들과 함께 후례로 압송되었다.<sup>33)</sup>

조도브자브가 후례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에 따르면 자신은 몽골이 독립하고 복드 정부가 수립된 것을 듣고 기쁜 마음에 귀부를 희망하고 1912년 음력 정월에 막사르자브와 귀부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차하르 都統이 자신과 바야르고초에게 상기한 직책을 임명하자 자신을 비롯한 차하르 목장 관리들이 북경의 大軍 파견 계획을 멈추게 하였으며, 都統이 자신을 질책하고 군대와 함께 다리강가로 보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고, 복드 정부군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교전하게 되어 그 결과 포로가 되었다<sup>34)</sup>고 한다. 말하자면 자신은 본시 복드 정부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에 따르면 조도브자브는 차하르 목장의 관리자로서 일찍부터 청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몽골의 독립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한다. 즉, 그는 몽골은 청조든 중화민국이든 大國에 의존해야 하며 독립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명분으로 처음부터 복드 정부에 참여를 거부하였다.<sup>35)</sup> 앞서 언급했듯이 복드 정부의 귀부 요청에 대하여 일부 내몽골

gazar, p. 38

32)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50~53의 부록 자료-6

33) 위와 같음.

34) 위와 같음.

35) Paul Hyer, 1979, "The Role of Inner Mongolia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on Mongolia, Proceedings of the first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mongol studies*, Bellingham: West Washington University,

왕공들이 귀부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는 거부하고 또 다른 일부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대부분 북경 정부로 선회하였다. 조도브자브는 이중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권자들로서 청조 지배하의 일반 몽골인들과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었다.<sup>36)</sup> 따라서 조도브자브의 진술 내용은 살아남기 위한 자기변명일 뿐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sup>37)</sup>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리강가 목장은 1911년 이후 목장 관리자들이 복드 정부에 귀부를 표명한 반면, 차하르 都統은 관리자를 새로 임명하고 군대를 보내 지배권 회복을 시도하는 등 분쟁 지역으로 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 통합을 이루려는 복드 정부와 청조의 판도 계승을 목표로 이를 제지하려는 북경 정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리강가의 특수한 상황, 즉 지리적으로 할하에 속하지만 행정적으로 차하르 都統 지배하에 있었던 것도 여기에 한몫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袁世凱는 임시 대총통에 취임 후 적극적으로 몽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항하여 복드 정부도 본격적으로 내몽골 통합을 추진하고 1913년 초부터는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 통합에 나섰다. 1913년 11월 5일 의리·중 북경성명은 군사작전을 비롯한 복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운동에 중지부를 찍게 하였다. 양국은 이 성명을 통하여 몽골의 지위를 중국 중주권하의 자치국으로 격하시키고, 몽·러협정(1912. 11. 3)에서 애매하게 처리된 ‘몽골’의 범위를 확정하였다.<sup>38)</sup>

p. 93; 울게다이·타이بن, 2003, 「ボゴド・ハン政府軍の一九一三年の内モンゴルへの軍事行動についての考察」, 『蒙古史研究』 7, 475~476쪽

36) 다리강가 지방에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설(Sh. Sodnomdash, 1993, *Dar'ganga nutgiin domog*, Baruun-Urt, pp. 66~67)에는 다리강가를 중국에 합병시키기 위하여 온 조도브자브 군대를 지방민들이 힘을 합하여 물리쳤으며, 그의 행위를 더러운 행위, 그를 외세의 앞잡이라고 혹평하는 내용이 있다.

37) 조도브자브는 1914년 복드 칸으로 칙령으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만주국 성립 후 그는 일제의 내몽골 작전에 협조하고 일제의 괴뢰 정권인 ‘蒙古聯合自治政府’(속칭 蒙疆政權)의 요직을 지냈다. 그 후 그는 1945년 내몽골 지역에 진출한 몽골인민공화국 군대에 체포되어 울란바토르에서 처형되었다.

38) 『中俄邊界條約集』, 1973, 內部資料, 北京: 商務印書館, 124~125쪽

당시 북드 정부의 國勢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 두 나라, 특히 러시아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하여 현재의 내외몽골 영역이 결정되게 되지만 다리강가는 여전히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남았다. 이를 반영하듯 다리강가 상황도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일례로 1914년 여름 다리강가 목장의 總管 소드노도브동이 후레에서 병사하고 아들 체벡자브(Tsevegjav)가 부친의 직위를 계승하는 혼란을 틈타 차하르 都統은 右翼 馬群 正書記(jinkhene bicheech) 아요르(Ayuur)라는 자를 임시 總管으로 임명하여 다리강가를 차하르에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는 馬群 翼長들에게 다리강가가 원래 張家口 지배하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외몽골(북드 정부)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리강가 목민들이 그의 명을 따르지 않자 그는 지지자들을 데리고 張家口로 떠났지만, 그 후에도 羊群 什長 보양델게르(Buyandelger)를 비롯한 목장 관리자들이 이반하는 등 차하르 쪽의 책동은 그치지 않았다.<sup>39)</sup> 이와 함께 북경 정부는 1914년 6월 14일 차하르 특별구[察哈爾特別區]를 설치하고(1928년 察哈爾省으로 개편) 다리강가를 그 관할에 예속시켰다.<sup>40)</sup>

한편 몽골 독립의 유일한 지원자인 러시아는 몽·중·러 삼국회담을 통하여 독립 몽골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 몽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몽골의 참여를 독려했다. 따라서 몽·러협정과 북경성명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리강가 문제 등 북드 정부에 귀부한 지역의 귀속 문제가 삼국회담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도 유동적이었다. 그래서 북드 정부는 삼국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인 1914년 9월 7일 몽골족 거주지에 공문을 보내 그들의 입장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다리강가 목장의 馬群, 駱駝群, 羊群 관리자들은 공동 명의로 서신을 보내 끝까지 북드 정부에 남겠다고 뜻을 전달하였다.<sup>41)</sup> 아무튼 이렇게 하여 1912년 초 소드노도브동이 북드 정부에 귀부를 표명한 후 카흐

39)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24~25

40) 周學軍, 2000, 앞의 글, 103쪽

41)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53~54의 부록자료-7

타 삼국회담이 시작될 때까지 다리강가는 공식적으로 북드 정부 지배하에 있었다.

#### IV. 카흐타 삼국회담과 다리강가 귀속 분쟁

1911년 몽골 독립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몽골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911년 8월 중순 독립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방문한 몽골 대표단에 권고한 러시아의 공식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몽골 대표단의 방러에 즈음하여 열린 ‘원동문제 특별회의’(1912. 8. 17)를 통하여 러시아 정부는 몽골의 완전한 독립을 不許하는 대신 당시 몽골 왕공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청조의 新政을 중단 시키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居中調停者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sup>42)</sup>

19세기 중엽 이후 러시아 정부 내에는 몽골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목표는 몽골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는 몽골에 대한 직접 지배를 촉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주변국 및 이해 당사국들과 마찰을 빚지 않고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따지고 보면 ‘원동문제 특별회의’ 결정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辛亥革命으로 청조가 무너지고 그 지배하의 몽골인들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몽골의 독립을 취소하고 중국 중주권하의 자치국으로 만들되, 자치 범위를 할하, 즉 외몽골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드 정부와 북경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중재안

42) 陳春華 譯, 1991, 『俄國外交文書選譯關於蒙古問題』,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3~7쪽

을 수용토록 하는데 착수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완전한 독립과 내외몽골 통합을 바라던 북드 정부는 물론, 북경 정부도 사실상 자국 영토의 상실을 뜻하는 러시아의 중재안을 선뜻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먼저 북드 정부를 압박하여 몽·러협정(1912. 11. 3)을 체결하고 자국 안을 승인시켰다. 이를 통하여 두 나라는 몽골을 중국 중주권하의 자치국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듬해 러시아 정부는 북경 정부를 설득하여 북경성명(1913. 11. 5)을 이끌어 내는데 여기에도 독립의 취소와 외몽골만의 자치가 핵심 내용으로 들어 있다. 이처럼 몽골의 향후 국제적 지위에 대하여 몽·중의 양보를 받아낸 러시아는 몽·중 대표를 카흐타에 불러 모아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하여 몽·러 국경도시 카흐타에서 역사적인 삼국회담이 열렸다. 1914년 9월 8일에서 이듬해 6월 7일까지 장장 9개월 동안 이어진 카흐타 회담에서는 몽골의 법적 지위, 삼국의 관계, 무역 관련 사항 등 이 시기 몽골 문제의 거의 모든 사항이 논의되었다.<sup>43)</sup>

자치 몽골국의 범위도 쟁점 중 하나였다. 중국 측은 자국의 초안에서 몽골국의 범위를 할하 4아이막과 호브드로 한정하고 몽·중 경계는 양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확정하자고 제안하였다.<sup>44)</sup> 반면에 몽골 측은 할하 4아이막 150旗, 내몽골 6盟 49旗, 훌룬보이르[呼倫貝爾] 예하 솔론, 바르가, 울드, 오로촌, 오량하이, 카자흐, 다리강가, 차하르, 투메드까지 자치국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sup>45)</sup> 전자는 청 지배기 외몽골로 한정하지는 것이고, 후자는 독립선언 이후 귀부를 표명한 지역과 몽골족 거주지 전체를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제31차 회의(1915. 2. 16) 때부터 각국 초안을 바탕으로 내외몽골 경계 문

43) 삼국회담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손현숙, 1984, 「외몽고에 관한 3국 협정의 분석」, 『부산여대사학』 2, 참고.

44)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條約草案; 呂一燃 編, 1999, 『北洋政府時期的蒙古地區歷史資料』,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57~59쪽

45)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外蒙古代表提出協約草案; 呂一燃 編, 1999, 위의 책, 62~65쪽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중국 대표는 “외몽골 자치구역은 이전 청조의 후레 판사대신[庫倫辦事大臣], 올리아스타이 장군[烏里雅蘇臺將軍], 호브드 참찬대신[科布多參贊大臣] 관할지역으로 제한한다”<sup>46)</sup>라고 규정한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근거로 외몽골의 경계를 할하 4아이막과 호브드 邊界로 제한하고, 동쪽 경계는 하일라르(즉 홀룬보이르), 남쪽 경계는 다리강가 및 실링골맹과 올란차브맹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몽골 대표는 청조의 舊例를 보면 알타이[阿爾泰] 지역이 호브드 參贊大臣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외몽골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팽팽히 맞서던 양측 대표는 상세한 몽골 지도와 본 件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경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사안을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여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sup>47)</sup>

1915년 2월 19일에 열린 제32차 회의에서는 몽골 대표가 자국 초안 제4조와 제5조<sup>48)</sup>를 거론하였다. 중국 대표는 북경성명 부칙 제4조에 이미 외몽골 자치구역에 관한 지도가 없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또다시 경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몽·중 대표를 파견하여 공동실사하여 경계를 확정하자고 하였다. 러시아 대표 역시 북경성명 부칙 제2조<sup>49)</sup>와 제4조를 들어 경계 획정을 위한 대표단에 러시아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양국의 동의를 받아냈다.<sup>50)</sup>

다리강가 귀속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15년 2월 26일에 개최된

46) 『中俄邊界條約集』, 1973, 내부자료, 125쪽

47)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第三十一次會議錄;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118~120쪽

48) 몽골 초안 제4조의 주요 내용은 청대 『理藩院則例』에 따라 내외몽골과 몽골인 거주지 전체를 자치국의 범위에 넣자는 것이고, 제5조는 본 회담 대표들이 과거 러시아와 청조가 각각 제작한 지도의 邊界를 상세히 살펴 몽·러 경계는 赤黃色으로, 몽·중 경계는 靑黃色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이를 따르자는 것이다.

49) “關於外蒙古政治土地交涉事宜 中國政府允與俄國政府協商 外蒙古亦得參與其事”(『中俄邊界條約集』, 1973, 내부자료, 125쪽).

50)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第三十二次會議錄;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120~122쪽

제33차 회의에서다. 본 회의에서 몽골과 중국 대표들은 旗 단위까지 망라한 외몽골의 경계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몽골 측이 외몽골 경계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은 모든 旗의 지도를 종합하여 작성했다고 한데 대하여, 중국 측은 “현재 외몽골 자치구역에 관한 상세한 지도가 없다”라고 한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언급한 뒤, 자신들이 제출한 경계에 관한 문서는 공공기관에서 간행한 몽골에 관한 문헌, 즉 『蒙古遊牧記』에 의거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몽골 측은 중국 측이 이용한 문헌 자료를 여행기로 폄하하고 이를 국경을 확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와 함께 몽골 측은 자신들이 이용한 각 旗의 지도는 당해 旗에 오래 거주하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몽골을 여행한 사람들이 작성한 것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양측은 자신들이 활용한 옛 지도와 문헌의 신빙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다리강가의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몽골 측은 다리강가 목장이 할하의 세첸 한 아이막과 투시에트 한 아이막 사이에 위치하고, 이전에 두 아이막의 땅을 떼어내어 목장을 설립하였으며, 행정 편제상 차하르 都統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그곳에 파견된 차하르 牧夫들이고, 외몽골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이후, 즉 독립 이후 북드 정부가 새로이 관리를 임명하여 다리강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해 지역이 외몽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측은 또다시 북경성명 부칙 제4조에 명시된 대로 다리강가는 행정 편제상 후레 辦事大臣이 아니라 차하르 都統 관할하에 있었고,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리강가 목장의 귀속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리강가는 외몽골뿐 아니라 내몽골의 어떤盟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구역이고, 북드 정부가 다리강가에서 강제로 중국 總管을 추방하고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목장의 관리권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sup>51)</sup>

51)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第三十三次會議錄;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123~130쪽

중국 측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청대의 행정 편제와 북경성명 부칙 제4조다. 전자는 형식 논리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전술한 대로 청대 다리강가는 차하르 都統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도 마찬가지다. 자치국의 영역을 과거 후레 辦事大臣, 올리아스타이 將軍, 호브드 參贊大臣 관할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차하르 都統 예하의 다리강가는 외몽골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리강가는 행정 편제와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할하에 속하였고, 할하 두 아이막의 땅을 떼어내어 목장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구성원 또한 대부분이 할하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당해 목장의 일부 관리들이 차하르 都統 쪽으로 기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官民들이 복드 정부에 귀부를 지지하고 복드 정부 역시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로서도 형식 논리를 내세운 중국 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양측 주장이 맞선 가운데 러시아의 중재로 당해 문제는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1915년 3월 4일 열린 제34차 회의에서는 먼저 제33차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기한 문제, 즉 외몽골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는 금번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의사록에도 기록하지 말자는 제안을 논란 끝에 중국 측이 수용하였다. 이어 몽·중 대표들은 외몽골과 중국의 東西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다. 동쪽은 다리강가의 귀속 문제, 서쪽은 알타이, 구체적으로 차강 통호 [察罕通古]의 귀속 문제가 쟁점이었다.

다리강가 귀속과 관련해서 몽골 측은 다리강가 땅이 할하의 세첸 한과 투시예트 한 아이막 사이에 위치하고, 후레에 있는 옛 기록에 따르면 당해 지역이 두 아이막에서 떼어낸 땅이고, 차하르 都統은 그곳에 파견된 차하르 몽골인만을 관할했을 뿐 목장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러시아 대표 역시 차하르 都統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皇室 牧群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차하르 몽골인들이기 때문에 다리강가와 차하르 都統의 관계는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현재 다리강가에 황실 牧群이 존재하지 않고 차하르인들도 떠났으며 그곳 거주민이 몽골인이라는 점을 들어 외몽골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sup>52)</sup>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이전처럼 북경성명 부칙 제4조와 차하르 都統 예하라는 과거의 행정 편제를 들어 양측

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몽골과 중국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외몽골 경계를 북경성명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하되, 협약문에 다리강가라는 말을 언급하지 말고 외몽골 南邊과 내몽골 接界라고 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중국이 수용하자 러시아 대표는 다시 중·몽의 주장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자치 외몽골의 영역은 1913년 10월 23일(11월 5일-필자) 중러 성명 부칙 제4조에 따라 이전 후레 辦事大臣, 올리아스타이 將軍, 호브드 參贊大臣 소속 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것의 범위는, 중국과의 경계는 동은 홀룬보이르와, 남은 내몽골과, 서남은 新疆省의 고비와, 서는 알타이 接界의 각 몽골 旗로 하고, 그것의 범위는 할하 4아이막과 호브드 邊界의 여러 旗로 한다. 중국과 자치 외몽골의 정식 劃界는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 및 자치 외몽골 대표의 회동을 통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본 협약 서명 후 2년 이내에 會勘한다.

러시아 대표는 자신의 절충안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중국과 몽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3월 8일에 제35차 회의를 열기로 정하고 폐회하였다.<sup>53)</sup> 그리고 제35차 회의 시작과 더불어 러시아 대표는 제34차 회의에서 자국이 제출한 외몽골 경계에 관한 조문을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로 낭독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몽골 대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삼국협정서 제11조 조문이 정해졌다.<sup>54)</sup> 이처럼 다리강가 귀속 문제는 카흐타 삼국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2년 이내에 삼국이 공동 勘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논쟁 사항에 대한 일종의 미봉책으로 그만큼 다리강가 내부 상

52) 러시아는 자국 초안(제15조)에서 다리강가를 비롯한 外蒙 交界 지대에 중국인의 ‘不植民, 不設治, 不駐兵’의 원칙을 천명하고, 러시아 외무대신은 1915년 4월 23일 북경 주재 자국 공사 쿠르펜스키에게 훈령(陳春華 譯; 1991, 앞의 책, 397쪽)을 보내 이를 중국 정부에 확인시키도록 지시하였다.

53)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第三十四次會議錄;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130~134쪽

54) 『中俄蒙三方恰克圖會議錄』第三十五次會議錄;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134~137쪽

황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삼국회담 이후 다리강가 상황과 당해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V. 다리강가 귀속 분쟁의 종결

다리강가는 복드 정부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고 러시아도 이를 용인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삼국협정 체결 후 2년 안에 공동 勘界를 통하여 귀속을 확정해야 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당해 목장에 대한 지배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국의 책동은 삼국회담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되고 다리강가에서 張家口 또는 할하로 떠나는 이탈 사태가 이어졌다. 아직 삼국 공동조사단의 勘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 복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마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복드 정부 총리부는 1915년 10월 말 다리강가 관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향후의 공동 勘界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다.<sup>55)</sup>

서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리강가가 원래 할하 땅이기 때문에 勘界 이후에도 마땅히 할하에 편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둘째, 일부 목장 관리들이 중국으로 이반하여 그중 일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다리강가 官民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셋째, 중국 군대의 몽골 주둔과 중국인의 몽골 이주가 러·중의 합의로 금지되었으니<sup>56)</sup>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전처럼 안심하고 지낼 것을 당부하고, 넷째, 경계 획정에 대비하여 거주민의 동요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서한을 모든 관리들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한 것 등이다. 말하자면 주민 이탈과 勘界에 대비한 일종의 민심 수습책이었다.

55) L. Jamsran, 1994, 앞의 책, pp. 54~56의 부록자료-8

56) 1913년 11월 5일 '中俄聲明文件' 제2조를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경 정부는 삼국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조사를 통한 勘界에 실무적으로 대비하였다. 1916년 말부터 參謀本府 주도하에 현지 조사와 실측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寧夏, 甘肅, 新疆 등 3개 지구, 즉 몽골의 서남 변경지구이고, 하나는 차하르 방향의 邊界, 즉 몽골의 동남지구다. 본고의 주제인 다리강가는 후자의 작업에 포함되었고 북경 정부 역시 이곳을 가장 중시하였다. 본 작업은 참모본부에서 옛 지도와 문헌에 의거하여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여 측량 인원을 파견하고 새롭게 실측하여 다시 邊界 지도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자의 실측은 각 省과 지방에서 맡도록 하고 후자는 참모본부가 직접 관장하였다. 후자의 작업은 연인원 550명(측량 인원 50명, 측량병 500명)이 동원되었으며 실측에는 차하르 정부도 참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동 勘界에 대비한 두 방향의 邊界에 관한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졌다.<sup>57)</sup>

이 무렵 북경 정부 國務院은 외교부에 훈령을 내려 “차하르 소속 다리강가 목장 지방”이 전번 몽·중·러 회담에서 그 소속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금번 勘界 시에도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자료를 수집하여 몽골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할 것<sup>58)</sup>을 지시하는 등 삼국 합동 勘界에 적극 대비하였다. 이와 함께 독립 철회 이후 후레에 주재하던 都護使 陳錄은 본국 외교부에 전문을 보내 “내외몽과 호브드, 알타이 界務는 膠葛한 상태이고 積務가 甚多합니다. 카흐타 협약에 따르면 응당 본년 4월 勘界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이 되었으니 혹은 派員하여 會勘하거나 혹은 러·몽과 논의하여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貴府는 국무원과 상의하여 때에 맞춰 결정하여 곧바로 외몽골과 교섭하게 하십시오”<sup>59)</sup>라고 勘界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주문

57) 李毓澍, 1990, 앞의 책, 337~338쪽, 이렇게 제작된 지도 중 홀론보이르, 甘肅, 寧夏, 新疆, 알타이 지구의 지도, 즉 전자의 지도는 남아 있지만, 후자의 지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李毓澍에 따르면 참모본부에서 실측한 후자는 1919년 6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일련의 지도를 만들어 1부를 외교부에 송부했다고 한다.

58) 李毓澍, 1990, 앞의 책, 346쪽

59) 陳錄, 『止室筆記』 奉使庫倫日記 卷3; 呂一燃 編, 1999, 앞의 책, 266쪽

하였다.

그러나 카흐타 회담에서 결정된 삼국 합동 勘界는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끝내 실행되지 못하였다. 러시아혁명은 몽골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감소시켰는데 그 자리를 북경 정부가 차지하였다. 西北 軍閥 徐樹錚은 1919년 11월 복드 칸과 자치정부 관리들을 겁박하여 자치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몽골을 다시 중국의 직접 지배하에 편입시켜버렸다. 그 후 1921년 2월에는 러시아 赤軍에게 쫓겨 시베리아로 진출한 운게른 스테른베르그(Ungern-Sternberg)의 白軍 잔당이 몽골로 들어와 후레에서 중국 군대를 몰아내고 재차 자치를 복구시켰다. 자치가 재건된 후 다리강가 관민들은 이전처럼 자치정부에의 귀부를 표명해 왔고 복드 정부에서는 1921년 초 다리강가의 몰촉 엘스(현재의 수흐바타르 아이막 나랑 솜)에 東邊平定使 고편보-이친(Gombo-Ichin)이 지휘하는 군대를 주둔시켜 중국의 침략에 대비케 하였다.<sup>60)</sup>

한편 이 무렵 몽골 국경 밖 러시아 땅에서는 몽골 인민당 주도하에 인민의 용군이 창설되고 1921년 3월 13일 카흐타 부근 데드 시베(Deed shivee)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운게른 군대에 쫓겨 카흐타 부근에 雄據하고 있던 중국 군대와 자치정부를 재건시키고 몽골에서 근거지를 마련한 운게른의 백군 잔당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동년 3월 18일 수흐바타르(Sükhbaatar) 장군이 지휘하는 인민의용군은 카흐타에서 중국군을 추방한 다음, 소비에트 군대와 합동으로 후레로 진격하여 같은 해 7월 8일 후레에서 운게른 군대를 몰아내고, 7월 11일에는 복드 칸을 制限 군주로 하는 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1년 여름 차하르 馬群 總管 세렌동로브(Serendonrov)는 다리강가의 임시 羊群 翼長과 副翼長 축로이남질(Chogloinamjil)을 이반시켜 가축을 탈취하여 張家口로 도주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61)</sup> 여기에 후레

60) Sh. Natsagdorj(Redaktorlov), 1985, *Mongol ardyn juramt tsergiin durtgaluud Ded Devter*, UB: Ulsyn khevleliin gazar, p. 610

61) L. Jamsran, 1994, 앞의 책, p. 33

에서 쫓겨난 운게른 부대의 일부 잔당이 동부 변경지역으로 패주하고 가는 곳마다 약탈을 자행하는 등 동부 변경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에 인민정부는 1921년 7월 17일 도가르자브(Dogarhav)를 사령관으로 하는 東南邊境解放軍을 조직하여 동부로 급파하였다.<sup>62)</sup> 바로 이 무렵 전술한 조도브자브가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리강가를 침략했지만 그곳에 주둔하던 고펜보-이친 군대와 동남변경해방군이 격퇴시켰다. 이때 조도브 부대는 도가르(Dogar) 노안의 1,000두 이상의 말을 탈취해 달아났다고 한다.<sup>63)</sup>

그 후 다리강가는 명실상부한 몽골의 영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국경 수비대가 상주하게 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인민정부 또한 다리강가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1924년 가을 ‘다리강가 五翼 목장’을 ‘다리강가 올 호쇼(Dar'ganga uul khoshuu)’로 개편하여 내무부 산하 특별행정구역으로 편제했으며, 1929년에는 다리강가 올 호쇼를 내무부 산하에서 ‘한 헨티 올 아이막(Khan Khentii uul aimag)’에 移屬시켰다. 그리고 1931년에는 다리강가 올 호쇼를 아스가트 솜, 바양텔게르 솜, 다리강가 솜, 몰촉 솜, 옹곤 솜, 할장 흥고르 솜 등 6개 솜으로 나누고 이들을 신설된 ‘도르노드 아이막(Dornod aimag)’ 예하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가, 1942년에 신설된 ‘자브할랑트 샤르가 아이막(Javkhalant sharga aimag, 이듬해 수흐바트르 아이막으로 개칭)’으로 移屬시켰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 몽골국 수흐바타르 아이막 아스가트 솜, 바양텔게르 솜, 다리강가 솜, 나랑 솜, 옹곤 솜, 할장 솜이 옛 다리강가 호쇼의 영역이다.

중국 측은 물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련 역시 1924년 5월 31일 체결된 ‘中俄解決懸案大綱協定’에서 외몽골이 완전한 중국의 일부임을 승인함과 아울러 당해 영토 내에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한다<sup>64)</sup>고 하여 다리강가, 나아가 외

62) Sh. Jadamba 外編, 1996, *Mongol tsergiin tüükihiin tovchoon(1911 onoos 1900-eed on) Ded Devter*, UB: Mongol ulsyn batlan khamgaalakh yamy erdem shinjilgeenii khüreeleen, p. 139

63) Sh. Natsagdorj(Redaktorlov), 1985, 앞의 책, pp. 611~612

64) 『中俄邊界條約集』, 1973, 내부자료, 140~141쪽

몽골 전체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중화민국 정부는 차하르省 예하인 상도와 다리강가 목장 등을 당해 省이 설립된 1928년부터 河北省 口北 10縣에 예속시켰다.<sup>65)</sup> 이는 몽골의 실효적 지배와 별개로 중국이 다리강가를 여전히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 후 다리강가 귀속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1945년 8월 14일 중·소 간에 체결된 ‘中蘇友好同盟條約’이다. 본 조약 체결과 함께 중화민국 외교부장 王世杰과 소련 외교인민위원 몰로토프(B. Molotov)는 상호 외교각서를 교환 했는데 王이 몰로토프에게 건넨 각서에는 “외몽골 인민이 지속적으로 독립의 뜻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일본국이 패전한 후, 외몽골 인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바로 이런 뜻을 보여 준다면, 중국 정부는 외몽골의 독립을 승인할 것이며, (외몽골과 중국의) 경계는 현재의 경계로 한다.”<sup>66)</sup>라고 하여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경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현재의 경계”라는 것은 몽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염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중국 연구자의 표현대로 이 조약으로 “외몽골의 여러 해에 걸친 다리강가에 대한 사실상의 점령이 최종적으로 합법화되었다”<sup>67)</sup>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의 언급대로 당시 시국의 한계 때문에 상기 “교환 각서에는 중·몽 邊界에 관한 구체적 위치와 이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방향이 없고, 또한 어떤 分界 지도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구체적 勘察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몽·중 양국 정부 사이의 담판과 정식 勘定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승인할 수 있는 경계선이 없었던 것”<sup>68)</sup>도 사실이다. 이는 곧 다리강가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귀속 문제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중·몽 국경문제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야 종결되었다. 당시 몽골인민공화국 지도자 체덴발(Yu. Tsendenbal)과

65) 李毓澍, 1990, 앞의 책, 344쪽

66) 『中俄邊界條約集』, 1973, 내부자료, 149~150쪽

67) 周學軍, 2000, 앞의 글, 110쪽

68) 王泰平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2卷(1957-1969),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00쪽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周恩來는 1962년 12월 26일 북경에서 다리강가 등 그때 까지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던 국경문제를 매듭짓는 ‘蒙·中 邊界條約’에 서명 했는데<sup>69)</sup> 아무튼 이 조약으로 다리강가는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 몽골인민공화국 영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전까지 중국이 다리강가 등 분쟁지역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중국이 영토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리강가를 몽골에 양보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1950년대를 지나면서 중·소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新疆지역의 대규모 반란과 카자흐스탄으로의 대규모 주민 이탈 사태 발생 그리고 중·인도 국경분쟁 등 중국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sup>70)</sup>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가 새삼 부각되었다. 중국은 몽골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을 지키기를 희망하고, 당시 몽골 국가 재건에 절실한 노동력 제공 등 여러 가지 원조를 약속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sup>71)</sup> 소련의 방해와 압력 때문이었다. 중국이 서둘러 몽골과 변계조약을 체결하고 분쟁지역을 양보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對蘇 방파제, 특히 후술하듯이 여전히 자국의 변강이라 여기고 있던 몽골이 완전히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당해 변계조약으로 중국이 다시 한 번 몽골의 독립을 승인했다<sup>72)</sup>기보다는 또 다른 연구자의 지적처럼 이는 어떻게든 몽골과의 친선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sup>73)</sup>로 보아야 할 것이다.

69) 《人民日報》, 1962. 12. 27(1판), 1963. 3. 26(3판);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文件集』 제9집, 1962,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405~420쪽

70) Robert Rupen, 1979, *How Mongolia is Ruled, A Political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00-1978*,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p. 79

71) 藍美華, 2000, 『澤登巴爾時期外蒙與中共的關係(1952-1984)』, 臺北: 蒙藏委員會, 47~59쪽

72) M. T. Haggard, 1969, "Mongolia: The First Communist State in Asia" in Robert A. Scalapion,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 107

73) 藍美華, 2000, 앞의 책, 52쪽

## VI. 맺음말

필자는 지금까지 청대 황실 목장의 하나인 다리강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몽·중의 영유권 분쟁을 몇 개의 단원으로 나눠 고찰하였다. 제2절에서는 다리강가 목장의 성립 배경과 그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1911년 독립 이후 당해 목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몽골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및 그로 인한 다리강가 내부 분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1914년 9월 8일에서 이듬해 6월 7일까지 이어진 카흐타 몽·중·러 삼국회담 관련 기록을 통하여 다리강가 귀속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결말났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카흐타 회담 후 다리강가 귀속 분쟁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하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과 다리강가 귀속 분쟁을 통해 본 근현대 중국의 영토 및 몽골 인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리강가 지역은 1912년 이래 줄곧 북드 정부, 자치정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 등 이른바 외몽골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다. 반면에 북경 정부, 국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등 역대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 회수를 시도하였다. 몽골은 다리강가 목장이 원래 할하 땅이고, 거주민 대다수도 할하 계통이며, 가축 역시 여러 방법으로 할하에서 징발되었고, 거주민들이 대부분 할하에 남기를 공식적으로 희망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반면에 중국은 이곳이 과거 행정 편제상 차하르 都統 관할하에 있었고, 자치 외몽골의 범위를 청 지배기 할하 4아이막과 호브드 邊界로 한정하기로 한 북경성명을 근거로 들었다.

양측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였다. 다리강가 귀속 분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무엇보다 이곳의 중요성 때문이었지만, 어느 한 편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여기에 한몫을 하였다. 특히 몽·중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한 러시아는 자치 외몽골의 범위를 분명히 할하 4아이막

과 호브드 邊界로 한정한다는 북경성명에 동의했으면서도, 카흐타 회담 등 그 후 중재 과정에서는 몽골을 지지한 것도 이 문제가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다리강가의 영유권이 최종적으로 몽골에 귀속된 것은 다리강가의 지리적 위치와 독립 이후 역대 정부와 거주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점이 컸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러시아(후에 소련)였다. 외몽골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러시아는 중요한 전략 거점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를 원치 않았고 몽골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이중적 태도는 의도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의도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리강가에 대한 지배권이 사실상 몽골에 넘어간 1921년 이후에도 중국이 계속 이익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1962년에 와서야 중국은 다리강가에 대한 영유권을 최종적으로 양보했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다. 아무튼 수십 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몽·중 간의 장기 현안인 다리강가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리강가 영유권 분쟁과 결말이 근현대 중국의 영토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식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이다.

역대 중국 정부(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는 두 번에 걸친 몽골의 독립(1911, 1921)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6. 1) 강대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독립을 수용하고, 신중국 성립 후에도 소련의 권유로 1950년 7월에야 몽골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북경 정부는 물론, 蔣介石의 국민정부, 毛澤東의 신중국도 독립 승인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몽골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탈린은 1949년 9월 30~31일 휴양지 소치(Sochi)에서 당시 몽골 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초이발산(Kh. Choibalsan)과 만났는데 이때 그는 毛澤東이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 내외몽골을 통합시켜 중국의 자치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sup>74)</sup> 중국의 몽골인민공화국 통합 시도에 관

74) O. Batsaikhan, 2005, *Mongol ündesten büren erkht uls bolokh zamd*(1911~1946), UB: Mongol ulsyn shinjilekh ukhaany akademi, Olon ulsyn sudlalyn

한 자료는 그 후에도 확인된다. 몽골 지도자 체덴발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공산당 제20차 회의(1956년 2월 14~25일) 참석 차 소련을 방문했을 때 회의가 끝나고 3월 5일 미코얀을 만났는데 그때 미코얀이 자신에게 毛澤東이 소련에 두 번이나 몽골인민공화국을 중국에 통합시키는 문제를 제기했음을 전해 주었다<sup>75)</sup>고 한다. 실제로 1956년도에 나온 책에 수록된 지도에는 당시 몽골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선 표시가 ‘未定’을 뜻하는 ‘가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 소련과의 국경선은 ‘已定’을 뜻하는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다.<sup>76)</sup>

그러던 중국 정부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 분쟁 등 내외의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계조약을 통해 양국의 오랜 현안이었던 몽·중 국경문제를 종결지었다. 이는 외형적으로 몽골의 실질적인 독립을 인정한 것이고, 그때까지 몽골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여긴 영토를 상대에게 양보한 것이다. 다리강가 또한 이때 명실상부한 몽골의 영토가 되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양보가 몽골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전술적 후퇴라는 점이다. 중·소 분쟁 속에서 몽골이 소련에 기술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몽골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리강가를 포함한 세 지역에 대한 영유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양보였다. 변계조약이 체결된 10년 후인 1972년 중국에서 출간된 지도에 몽골이 여전히 중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sup>77)</sup>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이 자국의 영토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왔으며 그 해결 방식이 어떤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만하다.

다리강가 영유권 분쟁 시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근현대 중국 정부(민국, 신중국, 대만)가 전근대 시기 屬邦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khüreelen, pp. 317~319

75) Emkhtgesen B. Sum'yaa, 1992, *Gerel Süüder: Yu, Tsendenbal khuviin temdeglelees*, UB: MAKhN-yn töv khoroon dergedekh erdem shinjilgeenii töv, p. 91

76) 張時祖 編寫, 1956, 『祖國的陸界』, 上海: 新知識出版社, 16~17쪽

77) 오 바트사이한, 2004,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한국사 속의 고구려의 위상』, 고구려연구재단, 408쪽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는 점이다.

대만 학자 李毓澍는 1985년 2월 蒙藏委員會에서 ‘論內外蒙分界問題’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그는 강연 冒頭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內外蒙 分界 문제니 疆界니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외몽골은 원래 모두 우리의 영토로 이른바 疆界 문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78)</sup>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그러나 외몽골이 하나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총리와 몽골인민공화국 총리가 어쩔 수 없이 국경조약(1962년 변계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 정부는 당시까지 대륙을 수복 대상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과거(청 지배 시기) 중국의 영토였던 몽골을 여전히 중국 영토로 간주하였다. 그는 국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곳에 국경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석해하고, 그 결과 다리강가를 포함한 세 곳의 분쟁지역을 상실한데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대만 정부와 학자들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학자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1962년 변계조약을 통한 양보는 말 그대로 전술적 후퇴일 뿐 그 후 중국 정부와 학자들의 행보는 대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히 1990년대 이후 20세기 몽골의 독립을 러시아와 소련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비판하는 책과 논문이 눈에 띄게 많이 발표된 것<sup>79)</sup>도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반영이고 여기에서 그들은 그때 조국의 영토를 상실했다는 취지를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물론 1992년에 와서 53년 만에 대만 정부가 몽골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도 상기한 논저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

78) 李毓澍, 1990, 앞의 책, 335쪽

79) 대표적으로 師博, 1993, 『外蒙古獨立內幕』, 北京: 人民中國出版社를 들 수 있다. 본서는 ‘中華北疆-外蒙古’가 어떻게 하여 러시아와 소련의 사주로 중국에서 떨어져 나갔는가를 시기에 따라 정리하고 향후 ‘中蒙關係’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연구서는 아니지만 본서는 20세기 몽골사 전체를 부정한 것으로 출간 직후 몽골 정부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정도로 외교문제로서까지 비화된 책이다.

나 이는 말 그대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일 뿐이고 이로 인해 몽골인들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1992년 체제 전환 후 몽골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중국 위협론’은 머릿속의 논의가 아니라 현실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골의 대표적인 전략문제 전문가인 하이산다이는 향후 중국의 경제 진출이 몽골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sup>80)</sup> 심지어 중국의 경제 확장이 몽골에 대한 점진적인 흡수를 목적으로 한다<sup>81)</sup>고까지 하였다. 심각한 것은 중국 학자들의 이런 생각이 전근대 자국의 屬邦에 대한 일종의 계승 의식에 기인하고 있고 그것이 쉽사리 교정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0) L. Khaisandai, 2011, "Issues in Ensuring Mongolia's economic security and cooperation on the Rise of China," *2011 NAHF-MAS Forum, Globalization and Korea-Mongolia Cooperation June 22-23 2011*, pp. 31~34

81) K itogam ocherednogo foruma "Rossiia, Kitai i Mongoliiia: vmeste navstrechu vyzovam sovremennosti" 15.06.2011, <http://www.riss.ru/?commentsId=170>(2012년 9월 2일 방문)

## 참고문헌

### 〈자료〉

- 『口北三廳志』(민속원 영인본, 1992)  
 『蒙古遊牧記』, 民國54, 台北: 文海出版社本  
 《人民日報》, 1962. 12. 27(1판), 1963. 3. 26(3판)  
 『中俄邊界條約集』, 1973, 內部資料, 北京: 商務印書館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文件集』 제9집, 1962,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清史稿』(中華書局 標點 校勘本)  
 『恰克圖中俄蒙協約案』第2冊(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所藏)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文淵閣 四庫全書 內聯網版)

- 유원수 역주, 1994, 「잡차라노의 다리강가(Dariyany-a)」, 『한몽공동학술연구』 3  
 呂一燃 編, 1999, 『北洋政府時期的蒙古地區歷史資料』,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陳春華 譯, 1991, 『俄國外交文書選譯關於蒙古問題』,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Batsaikhan, O., 1999, *Khyatad, Oros, Mongol gurvan ulsyn 1915 ony Khiagtyn geree*, UB: Mongol ulsyn ündesni arkhiyvyn gazar, Shinjlekh ukhaany akademi tütikhiin khüreeleen  
 Dendeв, L., 2006, *Mongolyn tvch tütikh*, Mongol bichgees khörvütül, orshil bichij, tailbar nersiin khelkhee khiisen Doktor S. Chuluun, UB: Mongol ulsyn ikh surguul'  
 Emkhtgesen B. Sum'yaa, 1992, *Gerel Süüder: Yu. Tsendenbal khuviin temdegleeles*, UB: MAKhN-yn töв khoroony dergedekh erdem shinjilgeenii töв  
 Grimm, E. D., 1927, *Sbornik dogovorov i drugikh dokumenrov, po istorii mejdunarodnykh otnoshenii na dal'nem vostoke(1842-1925)*, Moskva: Izdanie instituta vostokovedeniia  
 Kazakevich, V. A., 1930, *Poezdka v Darigangu*, Akademi NAUK SSSR: Leningrad  
 Magsarjav, N., 1994, *Mongol ulsyn shin tütikh*, Mongoloos kiril bichigt bulgasan

- O. Batsaikhan, Z. Lonjid, UB: Mongol ulsyn shinjlekh ukhaany akademi, tütükhiiin khüreelen, Mongol ulsyn zasgiin gazрын архив  
 Natsagdorj(Redaktorlov), Sh., 1985, *Mongol ardyn juramt tsergiin durtgaluud Ded Devter*, UB: Ulsyn kheveleliin gazar  
 Sudlan khevlütülsen akad. B. Shirendev, Erkhelsen akad. Sh. Natsagdorj, 1972, *V. Kotvichiin khuviin arkhivaas oldson mongolyn tütükhend kholbogdokh zarim bichig*, UB: Shinjlekh ukhaany akademiin khevel

〈연구 논저〉

- 손현숙, 1984, 「외몽고에 관한 3국 협정의 분석」, 『부산여대사학』 2  
 오 바트사이한, 2004, 「중국 역사학자들의 몽골사 왜곡에 대하여」, 『한국사 속의 고구려의 위상』, 고구려연구재단  
 이평래, 1994, 「민족해방운동기 다리강가 지역의 동향」, 『한몽공동학술연구』 3  
 이평래, 2008, 「1911년 몽골 독립과 민족 통합 운동의 초기 과정」, 『동양사학연구』 104  
 이평래, 2009, 「1912-1913년 북드 정부의 내몽골 통합 시도와 좌절」, 『중앙아시아연구』 14  
 이평래, 2011, 「1911년 몽골 독립과 하이산」, 『대동문화연구』 75

- 藍美華, 2000, 『澤登巴爾時期外蒙與中共的關係(1952-1984)』, 臺北: 蒙藏委員會  
 烏云畢力格·成崇德·張永江, 2002, 『蒙古族通史』 第4卷,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2  
 王泰平 主編, 1957~1969,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第2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ウルゲダイ・タイブン, 2003, 「ボグド・ハン政府軍の一九一三年の内モンゴルへの軍事行動についての考察」, 『蒙古史研究』 7  
 袁森坡, 1991, 『康雍乾經營與開發北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毓澍, 1990, 「論內外蒙分界問題」, 『蒙事論叢』, 臺北: 里仁書局  
 張時祖 編寫, 1956, 『祖國的陸界』, 上海: 新知識出版社  
 周學軍, 2000, 「達里岡愛牧場被外蒙古占領時間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0-4

- Batsaikhan, O., 2005, *Mongol ündesten büren erkht uls bolokh zamd(1911-1946)*, UB: Mongol ulsyn shinjlekh ukhaany akademi, Olon ulsyn sudlalyn

- khüreeleen
- Haggard, M. T., 1969, "Mongolia: The First Communist State in Asia" in Robert A. Scalapion,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Hyer, Paul, 1979, "The Role of Inner Mongolia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on Mongolia, Proceedings of the first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mongol studies*, Bellingham: West Washington University
- Jamsran, L., 1994, *Dar'gangyn süreg khoshuu*, UB: Erdem
- Jadamba Sh. 外編, 1996, *Mongol tsergiin tütükhiiin tovchoon(1911 onoos 1900-eed on) Ded Devter*, UB: Mongol ulsyn batlaan khamgaalakh yamy erdem shinjilgeenii khüreeleen
- K itogam ocherednogo foruma "Rossiia, Kitai i Mongoliia: vmeste navstrechu vyzovam sovremennosti" 15.06.2011, <http://www.riss.ru/?commentsId=170>
- Khaisandai, L., 2011, "Issues in Ensuring Mongolia's economic security and cooperation on the Rise of China," *2011 NAHF-MAS Forum, Globalization and Korea-Mongolia Cooperation June 22-23 2011*
- Magsarjav, N., 1994, *Mongol ulsyn shin tütükh*, Mongoloos kiril bichigt bulgasan O. Batsaikhan, Z. Lonjid, UB: Mongol ulsyn shinjilekh ukhaany akademi, Tütükhiiin Khüreeleen/Mongol ulsyn zasgiin gazryn arkhiv
- Onon, Urgunge & Pritchatt Derrick, 1989,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 New York · København · Köln: E. J. Brill
- Rupen, Robert, 1979, *How Mongolia is Ruled, A Political History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1900-1978*,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 Shirendev, B., 1969, *Mongol ardyn khuv'sgalyn tütükh*, UB: Ulsyn khevleliin gazar
- Sodnomdash, Sh., 1993, *Dar'ganga nutgiin domog*, Baruun-Urt

**[ABSTRACT]**

##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ariganga Area between Mongolia and China

Lee Pyungrae

This study consider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ariganga area between Mongolia and China that began after Mongolia declared its independence in 1911. Up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regional domains of the Bogd government was limited to four, while all the other Mongolian settlements, including the frontiers of Khovd and Inner Mongolia, were still under the rule of the Qing Dynasty. Thus, as the Qing Dynasty collapsed in February 1912, with the exception of four Khalkha Aimags, the status of the Mongolian settlements that had been ruled by the Qing Dynasty remained ambiguous.

Therefore, aft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that lay ahead for the Bogd government was to integrate the whole territory of the Mongolian settlements and then to make the Qing Dynasty (later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Mongolia. To this end, the Bogd government had integrated the whole area of Western Mongolia by the end of August, 1911, and sent a letter recommending Inner Mongolia to revert voluntarily. While trying to invalidate the independence of Mongolia in an effort to succeed to the territory of the Qing Dynasty, the Beijing government also tried to include Mongolian settlements, especially Inner Mongolia, in its territory through appeasement,

preference, and force.

The intervention of Russia and Japan in Inner Mongolia made the issue more complicated. Russia and Japan signed agreements in 1907 and 1910, respectively, stating that Outer Mongolia and northern Manchuria belonged to the Russian sphere of influence,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rn Manchuria to the Japanese sphere of influence. On July 8, 1912,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third Russo-Japanese agreement to expand their interests in Inner Mongolia and to mediate the issue. Both agreed to divide Inner Mongolia based upon the longitude at which Beijing was situated, establishing the area east of Inner Mongolia as the Japanese sphere of influence and the area west of Inner Mongolia as the Russian sphere of influence.

Thus, the Mongolian territorial dispute appeared in a complicated manner by Russia and Japan in addition to the Bogd government and the Beij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Mongolian nobles from many areas including Inner Mongolia were in awkward positions, and some sought to find a breakthrough, leaning on the power of foreign countries. To join in the Bogd government would be right in upholding a cause,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turn their back on the Beijing government due to the close geographical location and practical interests. In fact, the responses of the Mongolian nobles to the request of reverting to the Bogd government varied. There were various types of responses: people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integration initiated by the Bogd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people who sent someone to check on the course of events in the Bogd government; people who rejected the Bogd government's request to revert; people who drifted between the Bogd government and the Beijing government; and people who sought a way out by relying on the

foreign powers.

One typical case is the Dariganga area located on the border of Mongolia. There had been an imperial pasture under the rule of the Qing Dynasty. Dariganga sum of Sukhbaatar Aimag, the southeastern part of today's Mongolia, is relevant to this place. From ancient times, this place has been considered as a commercial and military hub due to the abundance of water and grass, and the narrowest width of desert among the Gobi areas between Inner Mongolia and Outer Mongolia. The imperial pasture, highly valued by the Qing Dynasty, had been managed by Chakhar tu-t'ung living in Zhangjiakou. While it was geographically located in Khalkha, the pasture of Dariganga was administratively under Chakhar tu-t'ung's control. Because of this, the status and affiliation of Dariganga had become ambiguous since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ogd government.

When neither the influence of the Bogd government nor the concern of the Beijing government could afford to reach the Dariganga area, its local residents split. Some tried to revert to the Bogd government while others tried to find a breakthrough in Zhangjiakou, where the Bogd government and the Beijing government had a territorial dispute that continued until 1962. Dariganga is the representative place where a conflict over sovereignty between Mongolia and China occurred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he reason why that it took several decades for Mongolia and China to insist upon their own sovereignty over this area and eventually resolve the conflict is attributed not only to the superficial structure of the unique governance of the Dariganga pasture, but also to the historically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role of

Russia (later the Soviet Union) as a moderator between the two sides. Thu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Dariganga pasture is a significant challeng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China.

In fact, the issue of Dariganga reflects in some ways the attempt of China to have Mongolia under its sovereignty and the reactive nature of Mongolia in response, which has continued from 1911 until today, rather than just a territorial dispute. This study thus sough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China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o explore the successive Chinese governments' will of territorial expansion and its case, and to look for clues to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Chinese Threat" that recently proliferated among Mongolians. This study considered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reversion of the Dariganga pasture between Mongolia and China that had occurred since Mongolia'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911, its conclus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s of a series of consequences. Accordingly, this study covers the entire process beginning from the formation of the Dariganga pasture under the Qing Dynasty to the settlement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is place between Mongolia and China in 1962.

#### Keywords

Dariganga, Zhangjiakou Imperial Pasture, Bogd Government, Qing Dynasty, Chakhar tu-t'ung, Beijing Government, Inner Mongolia, Khalkha, Russia, Japan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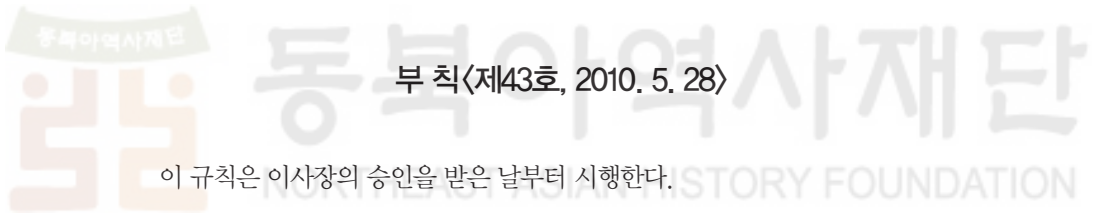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7호(2012. 9)

초판 1쇄 인쇄 2012년 9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9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